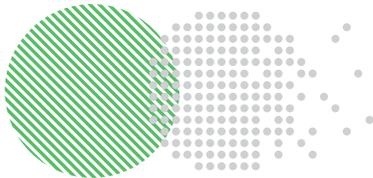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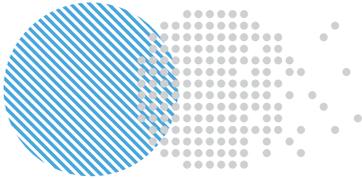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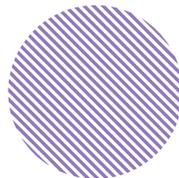
김성은 · 김희진 · 조혜영 · 김현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nyp*i*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저 자 김성은, 김희진, 조혜영, 김현수

연구진 연구책임자_김성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혜영(공주교육대학교)
김현수(창원대학교)
연구보조원_변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한 다체계적 연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아울러 진로 관련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을 조명하여 이를 반영한 정책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연구내용

-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진로발달과 진로 특성(진로 위기 포함) 탐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진로교육 관련 법·제도, 정책현황 분석 및 함의 도출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경험과 연계 현황 파악 및 분석, 정책 요구 수렴
-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체계적 정책방안 제안

■ 주요 연구방법

- **문헌연구**: 청소년 진로 발달에 관한 여러 이론과 학교 밖 청소년 진로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관련 정책 및 법령 검토와 분석
- **2차 자료 분석**: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진로결정 및 준비 여부에 따른 심리정서적, 생활관리(시간 활용) 차원의 특성 비교
- **질적조사·분석(청소년IDI, 전문가FGI)**: 학교 밖 청소년 22명 인터뷰로 진로 관련 어려움과 경험 및 지원 요구 등 파악, 청소년·진로(교육)지원 분야 학계·현장 전문가 15명 대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진로 특성, 정책 환경, 지원 현황·요구 의견 수렴
- **양적조사·분석(센터 종사자 웹설문)**: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 및 시설장을 대상으로 센터 소속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특성 및 필요 지원, 센터의 진로지원 수행 현황 및 어려움, 지역사회 연계 지원 현황과 요구 등의 의견을 수렴
-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회**: 연구 전반을 포함하여, 청소년 진로지원 및 진로교육 현황, 양적·질적조사 문항 구성을 위한 사전 논의, 자문 등을 실시함. 또한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담당자와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함

■ 주요 연구 결과

학교 밖 청소년과 진로 위기에 대한 문헌연구 결과

- 현황 :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은 커짐.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도 심리·정신적 문제,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거나 부모님의 권유 등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
- 이론고찰 : 전통적인 생애진로발달이론부터 최근의 진로구성주의까지 여러 이론을 검토함. 개인적 특성과 사회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며, 청소년기에 미래 직업사회와 변화에 준비되지 못할 경우 성인기 이행 및 이후 삶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 선행연구 : 학교로부터의 진로지원의 부재로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일부는 진로미결정과 미준비로 인하여 진로불안을 겪고 있었음. 개인적 진로발달 상황 미흡, 가정환경적 지지 부족 등을 겪음
⇒ (결과함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성인기 이행 및 사회일원으로서의 건강한 성장과 변화하는 미래사회 적응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결과

- 향후 진로 계획이 있는 청소년은 69.5%,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는 경우는 90.9%였음
- 하고 있는 일과 진로 계획이 모두 없는 청소년은 학업중단 당시 학업성적이 낮고, 비행 경험이 높았으며, 부모의 무관심, 낮은 경제수준을 보였음. 현재 상태로는 무기력함, 높은 스마트폰 의존도, 낮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진로직업태도 수준을 보였음
- 이들 청소년은 또한 수당 지급 외에는 국가적 진로지원에 대한 인지 정도와 참여 의사가 낮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음
- 진로 계획과 하고 있는 일이 모두 있는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이 가장 안정적이었으며, 계획이 없더라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역시 유사한 수준을 보였음.
⇒ (결과함의) 진로 발달 정도에 따라 심리적, 행동적 특성 차이를 보임에 따라 진로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진로지원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음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법·제도 분석 결과

- 정책 검토: 유관 중앙정부 다양한 진로 지원 정책 중 일부 학생 및 학교 단위로 신청을 제한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이 수혜받고 있는 사업에서도 명목상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기도 함
- 법령 검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 관련 법령에서는 청소년기 진로개발에 대한 내용을 제한적으로 포함하고, 취업, 직업훈련, 경제적 자립에 초점이 있었음.
⇒ (결과함의) 청소년기에 중요한 진로개발역량을 포함하도록 법 조항의 개정이 요구되며, 학교 안팎의 구분을 벗어난 다부문 진로지원 서비스 실현이 요구됨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조사(IDI) 결과

- 청소년이 스스로 답한 진로결정 여부는 실제 진로계획과 탐색, 준비 과정에 두드러진 질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아, 진로발달 상황을 결정/미결정으로 이분화할 수는 없었음
- 학교를 그만둔 주요 이유 : 친구 관계, 교사와의 갈등, 학교 부적응,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이었으나, 일부는 대학 입시에 유리한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음
- 진로상황 : 대학 진학 준비가 다수였으며, 취·창업을 계획하기도 했으나 막연히 희망하기도 했고, 상당수 학교 지원 부재와 생활 관리 어려움, 정보 부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경험함

- 진로지원 : 직업체험을 통해 관심이 커지는 경험을 하였고, 사전 상담 등을 통해 파악된 진로적성 및 흥미를 토대로 맞춤형 인턴십 제공 시 실질적 진로준비로 이어지기도 하였음
 - 지원 수요: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전문 학습지원과 대입상담, 인턴십·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확대 제공, 학원 수강료, 식비 등 실비 지원 등 각자의 상황과 진로 수요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 (결과함의)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관점은 이분화보다 질적 차원의 이해를 토대로, 적성과 흥미, 심리정서·환경적 상황을 고려한 개별화된 진로지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센터 종사자 대상 진로지원 현황 및 의견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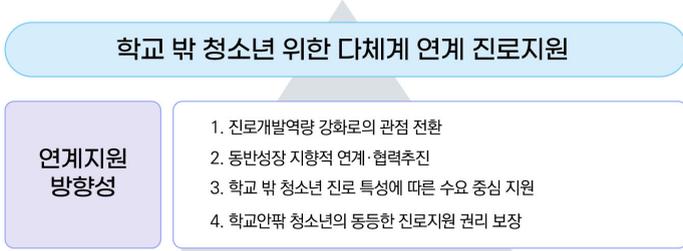
- 청소년 진로 현황: 대부분 청소년이 다음 단계 진로계획이 있었으나, 장기적 계획이나 구체적인 준비 방법의 인지, 필요 정보 수집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센터 지원 영역: 교육(검정고시 포함)지원과 자립지원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으며, 진로지원영역에서는 직업체험, 기초기술훈련, 진로(상담)검사의 실시가 많았는데, 진로(상담)검사와 직업체험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낮아 실제 실시 정도와는 차이가 있었음
 - 정부사업 이행: 여성가족부의 진로사업은 인지정도와 실시정도가 모두 높았으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사업에서는 각각 커리어넷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제외하면 실시정도는 높지 않았음
 - 어려움 및 개선요구: 연계 실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문성 있는 연계처와 양적 확대가 필요하였으며, 센터는 맞춤형 지원 연계 및 포트폴리오 작성 지원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음. 또한 가장 큰 어려움은 청소년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속하는 것이었음
- ⇒ (결과함의) 중앙 정부부처를 포함하여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진로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계를 실시하고 있었고, 연계처 확대와 전문성 제고, 청소년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였음. 또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 수요 및 진로발달 단계에 맞는 사례 관리 중심 접근이 필요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FGI 결과

- 관련 현상 :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교를 그만두거나 부모의 지원을 배경으로 한 사례도 많아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 위기 상태는 아니며, 이러한 사례가 증가 추세임이 보고됨.
 - 주요 특성 : 심리·정서·사회·환경적 어려움으로 진로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더욱 취약한 진로 위기 청소년에 대해 국가적 진로지원의 책무성이 강조됨
 - 지원 현황 : 지역 자원의 차이와 특성, 기관장 및 실무자의 개인 역량, 센터 운영 형태와 주체에 따라 연계 지원 서비스의 편차가 크며, 표준적 형태의 제안 및 가이드라인이 요구됨
 - 지원 방식 : 진로지원의 전문성, 즉 진로지원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전문인력의 활용과 단기적, 일회성의 행사 참여보다 장기적인 진로설계지원 및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 연계 현안 : 청소년 수요에 따른 진로지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협력체계는 필수적이며 중앙 단위 협력과 시도센터 중심의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군구 센터로의 확산이 필요하며, 연계 기관 자원의 제약, 연계 지원의 근거 부족 및 실적 산정 등에서의 애로사항이 파악됨.
- ⇒ (결과함의) 진로지원에 대한 인식 및 접근 방식의 전환,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전문적인 진로지원을 위한 연계와 이를 위한 제도화가 요구됨. 연계 기관 상호 간 공동의 이점이 있는 토대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연계 체계 구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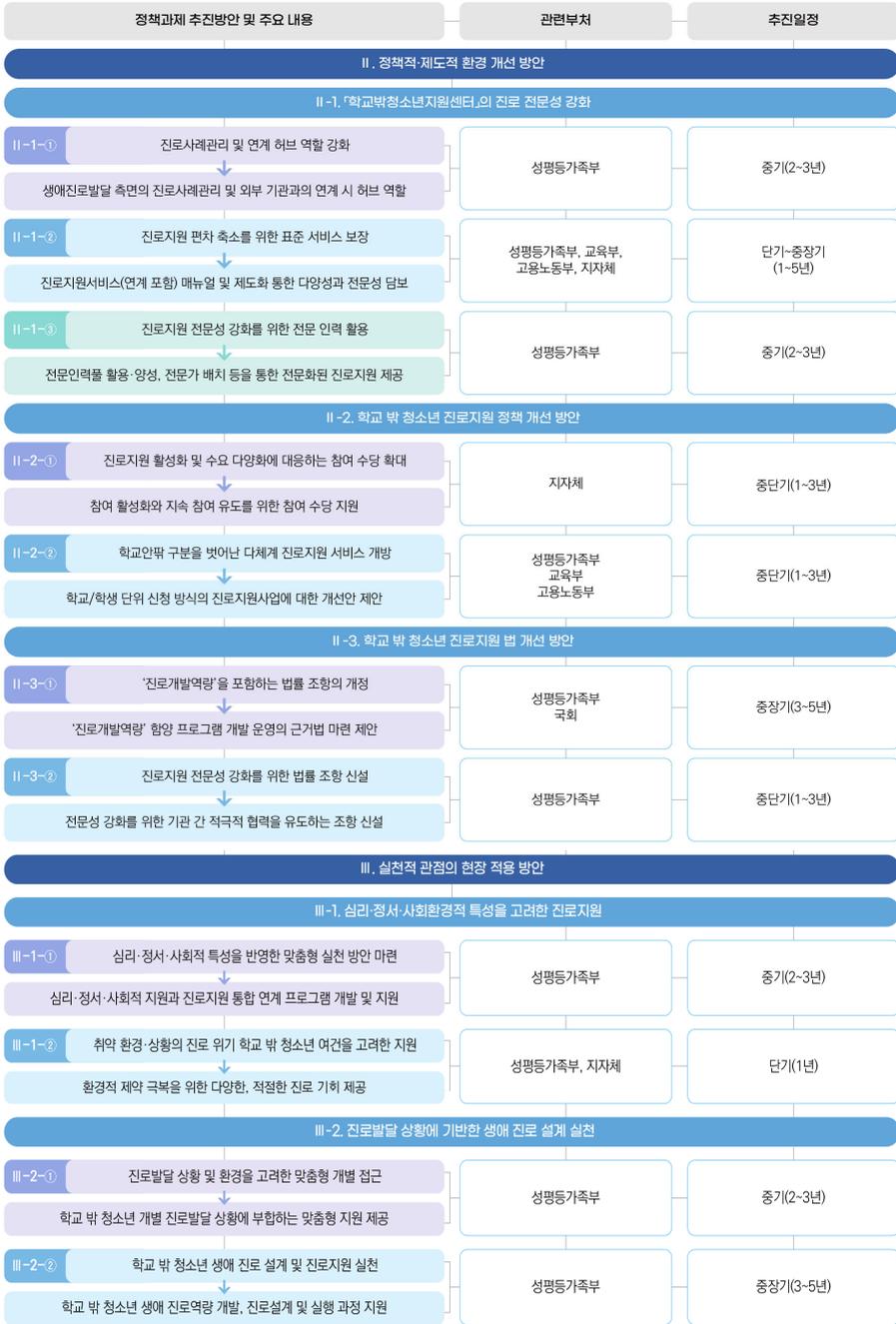
■ 정책 제언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조직하기 위한 4가지 방향성을 설정하였음



- 3개 영역에 대한 7가지 정책과제와 정책방안 정책과제별 구체적 추진방안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정책과제 추진방안 및 주요 내용	관련부처	추진일정
I.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 다체계 진로지원		
I-1.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연계 지원		
I-1-①	진로지원 목적 및 중요성에 대한 관점 전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기에 필요한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으로 진로지원 방향성 전환	
I-1-②	진로지원을 위한 연계·협력	성평등가족부 교육부/교육청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관련 부처/기관이 연계·협력하는 지원망의 구축과 운영 방안 제언	
I-1-③	진로지원을 위한 부문별 역할 강화	중단기(1-3년)
	실효적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부처와 기관의 역할 제시	
I-2. 복합적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I-2-①	복합적 진로위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접근	성평등가족부(센터)
	진로와 개인적, 상황적 어려움을 함께 겪는 청소년에 대한 접근 방안	
I-2-②	청소년안전망과의 연계 및 협력	법부처
	복합적 진로위기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안전망과의 협력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보고25-기본01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 내용 6
- 3. 연구 방법 7
- 4. 연구 수행 체계 10

II. 학교 밖 청소년과 진로 위기에 대한 논의

- 1.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진로발달 논의 13
- 2.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관련 주요 선행연구 고찰 32
- 3. 소결 38

III.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법·제도 분석

- 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관련 법 43
- 2.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제도 및 정책 52
- 3. 소결 73

IV.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1.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개요	81
2. 자료 분석 방법	84
3. 주요 분석 결과	90
4. 소결	108
V.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위기: 심층면접조사	
1. 조사 개요	113
2. 조사 내용	117
3. 조사 및 분석 방법	120
4. 분석 결과	123
5. 소결	159
VI.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현황·의견조사: 종사자 조사·전문가 FGI	
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의견조사(웹설문)	169
2. 학계·현장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GI): 진로지원 초점	202
3. 소결	243
VII. 결론 및 정책 제언	
1. 주요 결과	251
2. 정책 제언	257
참고문헌	297
부록	313

표 목차

표 II-1.	초·중등 학생 수 추이(2017~2024년)	13
표 II-2.	학교를 그만둔 시기에 따른 학교를 그만둔 이유 (복수응답)	15
표 II-3.	Super의 진로성숙 : 진로발달척도 관계성과 내용	19
표 II-4.	Marcia의 정체성 상태에 기반한 직업정체성의 발달적 상태 요약 및 예시	22
표 III-1.	학교 밖 청소년 및 학생 진로지원 관련 법	44
표 III-2.	부처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주요 제도 및 정책	52
표 III-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지정 현황	54
표 III-4.	설립주체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58
표 III-5.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59
표 III-6.	신청대상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 선정결과 (2024년 하반기)	63
표 III-7.	직업군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 선정결과 (2024년 하반기)	63
표 III-8.	시도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	64
표 III-9.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프로그램	68
표 III-10.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68
표 III-11.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내용	70
표 III-12.	일경험 프로그램 유형별 세부내용	71
표 III-13.	진로 자아 탐색 관련 법령 내 비교	73
표 IV-1.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82
표 IV-2.	만16세~18세 응답자 인적 특성	84
표 IV-3.	향후 진로계획 및 현재 하고 있는 일	85
표 IV-4.	응답자 유형 구분 기준 및 사례 수	86
표 IV-5.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	87
표 IV-6.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	87
표 IV-7.	유형별 분석 영역 및 내용	88
표 IV-8.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투입 변수	89

표 IV-9. 유형별 인적 특성	90
표 IV-10. 유형별 가정 특성	91
표 IV-11. 유형별 학교 소재지 및 학업중단 시 학교급·학년	93
표 IV-12. 유형별 학업중단사유	94
표 IV-13. 유형별 학업중단 시 계획	95
표 IV-14. 유형별 학업중단 후 겪고 있는 어려움	96
표 IV-15. 유형별 학업중단 후 아르바이트 및 유해 경험	97
표 IV-16. 유형별 학업중단 후 생활	98
표 IV-17. 유형별 신체운동·건강검진 여부	99
표 IV-18. 유형별 흡연·음주 여부	100
표 IV-19. 유형 간 심리정서 특성 비교	101
표 IV-20. 유형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지·이용·참여 의사	102
표 IV-21. 유형별 학업 및 진로·직업 관련 지원 필요성	104
표 IV-22. 집단별 투입 변인 기술통계	106
표 IV-2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07
표 IV-24. 2차 자료 분석 결과 종합	108
표 V-1.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116
표 V-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내용	118
표 V-3. 연구참가자의 학교 밖 생활과 진로 상황	124
표 V-4.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여정과 지원 경험	163
표 VI-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의견조사」 조사내용 및 참고문헌	170
표 VI-2. 조사 단계	172
표 VI-3. 조사 과정	172
표 VI-4. 응답자 일반 현황	173
표 VI-5. 센터 상근직원 수	174
표 VI-6. 센터 학교 밖 청소년(이용자) 연인원	175
표 VI-7.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이용(발굴) 경로 (복수응답)	176
표 VI-8.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주요 영역(복수응답)	177
표 VI-9. 이후 단계에 대한 진로계획	178
표 VI-10.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장기 진로계획 수립	179
표 VI-11.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한 정보	180
표 VI-12. 원하는 진로 준비 방법	181
표 VI-13. 진로에 대한 소통	182
표 VI-14. 진로 관련 경제적·정서적 지원	183

표 VI-15. 청소년이 찾아오기 편리함	184
표 VI-16. 활동 공간이 충분함	185
표 VI-17. 시설 및 기자재가 충분히 구비됨	186
표 VI-18. 운영 인력이 충분함	187
표 VI-19. 센터 내 진로지원 인력이 있음	188
표 VI-20. 연계 가능한 전문 진로지원 인력/기관이 있음	189
표 VI-21.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 체계가 구축·운영됨	190
표 VI-22. 진로지원영역별 중요도 (복수응답)	192
표 VI-23. 센터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는 진로지원 영역 (복수 응답)	193
표 VI-24. 타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진로지원 영역 (복수 응답)	194
표 VI-25. 진로/직업 지원사업 인지 비율	197
표 VI-26. 진로/직업 지원사업 활용 비율	198
표 VI-27.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 FGI 참여자 구분 및 특성	203
표 VI-28.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 FGI 내용	204
표 VI-29. 학교 밖 청소년 진로관련 현안	214
표 VI-30.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애로사항 및 개선점	221
표 VI-3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 현황	228
표 VI-32.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 애로사항	233
표 VI-33.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 방안	241
표 VII-1. 장별 주요 내용(요약)과 결과 함의	254
표 VII-2. 2022 개정 교육과정 '진로와 직업' 교과목표	262
표 VII-3.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 구축 예시(요약)	265
표 VII-4.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부문별 역할 예시	267
표 VII-5. 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원 사업	278
표 VII-6. 「진로교육법」 내 '진로개발역량' 관련 표현 및 내용	282
표 VII-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정안	283
표 VII-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개정안	284
표 VII-9. 심리·정서·진로지원 통합·연계 프로그램 내용 예시	287
표 VII-10. 정책과제 추진방안 및 주요 내용	294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 수행 체계	10
그림 II-1.	초·중등 학업중단자 추이(2017~2023년)	14
그림 II-2.	학교 밖 청소년의 생태체계별 진로발달위기 요인(예시)	24
그림 II-3.	진로준비도(career preparedness)의 구성 요소 통합 틀	30
그림 II-4.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 방향성(예시)	40
그림 III-1.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55
그림 III-2.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56
그림 III-3.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	57
그림 III-4.	진로 코치 모델 예시	61
그림 III-5.	진로체험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64
그림 III-6.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주요 역할	64
그림 III-7.	진로체험버스 운영 체계	65
그림 IV-1.	유형별 일반·비행 분포	91
그림 IV-2.	유형별 학교성적 분포	91
그림 IV-3.	중단 시 부모 태도 '정서적 지지'	92
그림 IV-4.	중단 시 부모 태도 '경제적 지원'	92
그림 IV-5.	중단 시 부모 태도 '방임'	92
그림 IV-6.	중단 시 부모 태도 '(언어)학대'	92
그림 IV-7.	중단 사유 '심리·정신적인 문제'	93
그림 IV-8.	중단 사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93
그림 IV-9.	중단 시 계획 '대안학교 진학' 분포	95
그림 IV-10.	중단 시 계획 '구체적 계획 없음'	95
그림 IV-11.	중단 후 어려움 '대학진학 정보 접촉'	96
그림 IV-12.	중단 후 어려움 '의욕 없음'	96
그림 IV-13.	중단 후 생활 '진로상담을 받음'	97
그림 IV-14.	중단 후 생활 '직업기술을 배움'	97
그림 IV-15.	신체운동 여부 '최근 7일 동안 없다'	99
그림 IV-16.	신체운동 여부 '주 4일 이상'	99
그림 IV-17.	흡연 여부 '최근 30일간 없다'	100

그림 IV-18. 흡연 여부 '매일'	100
그림 IV-19. 음주 여부 '최근 30일간 없다'	100
그림 IV-20. 음주 여부 '월 10일 미만'	100
그림 IV-21. 심리정서 특성 '자아존중감'	101
그림 IV-22. 심리정서 특성 '스마트폰 의존도'	101
그림 IV-23. 심리정서 특성 '진로확신성'	101
그림 IV-24. 심리정서 특성 '진로준비성'	101
그림 IV-2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여부	103
그림 IV-2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계속 이용 여부	103
그림 IV-27. 유형별 희망 직업교육 유무	103
그림 V-1.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지 개발 및 면접 착수 과정 요약	117
그림 VI-1. 조사지 개발 과정 흐름도	169
그림 VI-2.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인식(%)	183
그림 VI-3. 기관 위치 및 여건에 대한 인식(%)	190
그림 VI-4. 진로지원영역별 중요도, 실시도, 연계실시도(%)	195
그림 VI-5. 진로지원유형별 중요도, 실시도, 연계실시도(%)	196
그림 VI-6. 진로/직업 지원사업 인지 및 활용 비율(%)	199
그림 VI-7. 진로준비 상태별 가장 필요한 진로지원(%)	200
그림 VI-8. 진로지원사업 실시(이용·연계 포함)에 가장 어려운 점(%)	201
그림 VI-9. 국가 진로지원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	201
그림 VII-1. 학교 밖 청소년 다체계 진로지원을 위한 제언	257
그림 VII-2.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의견 수렴	259
그림 VII-3.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망(예시)	264
그림 VII-4. 복합적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연계 예시	270
그림 VII-5. 진로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활용 및 확대 방안	276
그림 VII-6. 학교 밖 청소년 생애 진로설계 및 진로지원 도식	293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내용
- 3. 연구 방법
- 4. 연구 수행 체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2023년 2월 기준 교육통계에 따르면, 학업중단¹⁾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학령기 인구 감소와 맞물려 학업중단자 비중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²⁾. 학업중단자 수는 코로나19와 같은 큰 사회·환경적 변화 시기를 제외하더라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준비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케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동력을 창조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중에서도 특히 진로 준비는 학교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지원 공백으로 존재한다. 학생 청소년들은 다양한 진로교육 정책과 근거 법령을 바탕으로 진로수업, 상담, 검사 및 교육과 훈련까지, 진로개발 능력을 함양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진로활동의 참여 현황을 보면 진로·직업 관련 교과 참여는 80~90%를 상회하며, 고등학생 한정, 진로탐색과 진로심리검사는 각각 84.3%, 84.6%, 진로체험 69.4%, 진로상담 64.1%, 진로동아리 58.0%의 참여율을 보인다(문찬주 외, 2023).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진로지원 경험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통계는 부재하지만 학교밖청소년센터를 통한 역량 강화나 자립·취업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일부 경우가 아니면 정례화된 진로지원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진로미결정 또는 진로혼란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실질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최근 성평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2023b)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둔 이후 계획에 관한 질문에서 정규학교 복학, 검정고시 준비, 취업과 진학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음에도 33.1%는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 이 장은 김성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1) 학교 밖 청소년은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학업을 이어가므로, 공식 용어로서의 의미로 '학업중단'을 사용하였다.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을 및 중단 사유.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5.2.12 인출

또한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네 명 중 한 명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25.9%) 때문이었다. 이는 진로와 관련된 불안감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또래보다 성급하게 진로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 자신에 대한 탐색과 우리 사회,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적지 않은 수가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이미 진로를 결정하였고(47.3%), 반면 진로결정 시기가 뒤로 미뤄질수록 은둔 기간과 사회적 고립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김희진 외, 2023b)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은 학교를 통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뭍어 된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과 사업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 여성가족부 산하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직업 및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원 인력이 부족한 여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고(김희진, 서고운, 김은정, 2021), 심리·정서 지원, 학업과 검정고시 지원, 건강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센터의 역할만도 십여 가지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가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개별 맞춤형 진로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의 양적, 질적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 청소년, 노동 분야의 사업과 기관이 긴밀하게 연계된 시스템의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정책 대상의 특성이다.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사유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2018년부터 2순위 사유³⁾로 나타나고 있는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의 응답 비율 변화이다. 2015년 3순위였던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는 이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3회 연속 2순위 사유로 나타나고 있으며 응답 비율도 15년 당시에 비하여 4.8%p 상승하였다(김희진 외, 2023b).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당시의 학교급별로 중단 사유를 설문한 결과에서는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만이 유일하게 3개 학교급 모두에서 공통된 주요 사유로 나타났다(김희진 외, 2023b). 학교를 그만두고자 하는 결정이 학교나 학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이유(예, 의미 없음, 공부하기 싫음)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사유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앞서 보았듯 진로를 이미 결정한 학교 밖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결정한 것이었다.

3) 1순위 사유는 2018년, 2021년 ‘학교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 2023년 ‘심리·정신적 문제’이다.

물론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진로를 결정'한 상태 내에서도 질적인 차이는 있다. 또 뚜렷한 진로 설정이 있었더라도 학교 밖의 상황은 끊임없이 스스로 탐색하고 판단해야 하는 일들의 연속이다. 그러한 점에서 모든 진로를 결정한 청소년이, 또는 배우고자 하는 것이 뚜렷한 청소년이 국가와 지역사회 진로지원의 대상 밖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전에 비하여 이미 진로가 결정된 청소년이 많다는 것은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다체계는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정책 및 관련성 높은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와 산하 유관 기관 전체, 지자체와 지역 유관기관(민간, 공공)을 의미하지만, 추후 진로지원 전달체계가 확장됨에 따라서 의미의 확장도 가능하다. 또한 지원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바, 보편적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특성 파악과 더불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진로 발달에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탐색하고자 한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학업 중단을 경험하였다는 점과 학교로부터의 진로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진로 장벽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본적인 전제로 두고 있다. 또한 그중에서도 개인 및 사회환경적 이유로 더욱 취약한 상황의 청소년이 있을 것이며, 일반적·보편적 지원 외에도 특별한 수요가 반영되어야 할 학교 밖 청소년이 존재할 것이다. 반면으로 분명한 목적과 진로 계획을 가지고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도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진로 수요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진로 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적 진로지원이 특히 요구되는 청소년을 탐색하는 것으로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체계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발달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환경은 어떠한가, 셋째, 현장과 학계,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진로지원 및 연계 현황, 정책 요구는 어떠한가.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은 공유된 목표나 필요성, 실행 매뉴얼이나 법령(cf. 진로교육법) 등이 부족하거나 부재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기존 자료 검토를 통한 넓은 범위에서의 탐색과 직접적 자료 수집 및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방안의 구체화, 2개의 파트를 순차적으로 구성·실행하며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1)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발달과 진로 특성 탐색(연구질문1)

본 연구에서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 미결정 또는 진로에 불확실한 상태가 아닐 수 있고, 이와 반면으로 특별한 요구가 있는 진로 위기 상태의 학교 밖 청소년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터뷰 및 2차 자료 분석 등으로 확인하고, 맞춤형 지원을 모색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진로 관련 선행연구와 청소년 진로 발달 관련 이론 검토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발달 특성을 탐색하고, 청소년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검토하였다. 특히, 현장 종사자 설문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FGI를 통하여, 현재 체감하는 진로 발달에 특히 취약한 청소년의 특성과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실천적 관점에서의 이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관련 법·제도 분석 및 이행 현황 파악(연구질문2)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관련 법과 정책(제도, 사업 등)을 검토하고 개선 사항 또는 법령·제도상의 미비점은 없는지 검토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체계가 연계되는 지원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각 체계(청소년, 교육, 노동 등)에서 시행 중인 정책과 사업을 검토하여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FGI와 실무자 웹설문 등을 통하여 해당 제도와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제도로서의 법과 정책 그리고 실제로서의 이행 현황을 함께 보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처해 있는 진로 발달과 성장 환경을 파악하였다.

3)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경험·현황 파악과 정책 요구 수렴(연구질문3)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의 진로 관련 지원 경험을 포함하여 관련 종사자의 진로지원 현황, 특히 타 기관과의 연계 지원 경험과 연계 체계 등 넓은 범위에서 지원의 실재를 파악하였다. 정책적·제도적 차원보다는 실천 현장의 내용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 초점이다. 따라서 경험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 종류, 이를 실행하는 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현장 친화적이고 구체적인 다체계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웹조사와 청소년 면접조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FGI를 병행하여 파악하였다. 특히

청소년 시기 꼭 필요한 ‘진로개발역량’의 관점에서 직접적인 취업 준비 이전에 충분한 자기 이해 및 진로 탐색과 준비 여부를 확인하고, 정책 이행을 위한 현장의 제한점 등을 살펴본다. 또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과 장기적 관점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4)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체계적 정책방안 제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는 단일 플랫폼을 통해 이행되면서 진로지원의 양적, 질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직후부터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고민하면서도 대학진학을 1순위 진로로 결정하고 있는 만큼 진로교육 분야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절대적이다. 이러한 상황적 요구에 부합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교육 분야와 노동 분야의 자원과 연계되는 다체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특성과 현황, 진로발달, 국가 진로지원 법·정책에 대해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전반적인 진로 발달 상태와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소년 진로 발달 이해에 유의미한 이론들을 검토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한 주요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 정서적 차원, 부모 및 사회적 관계, 사회적 낙인 및 진로지원 등의 환경적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요인과 청소년기 진로발달 과정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 정책 자료 및 현황 자료, 관련 법령 등을 통하여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원 제도를 파악하였다.

2) 2차 자료 분석

성평등가족부의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자료(김희진 외, 2023b)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발달 실태 및 유형과 특성 요인 등을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 내용은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 현황과 현재 심리·행동(비행 포함)적 특성 분석, 진로 위기 청소년의 정책 요구 분석, 진로 위기 유형(혹은 진로발달 수준적 차이) 확인과 비교이다.

결과 해석을 위하여 일반청소년 대상 조사(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문찬주 외, 2023), 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4) 등) 결과와도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상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질적 조사: 청소년대상 IDI 및 전문가 FGI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개별심층면접조사(IDI: 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진로 고민을 시작하는 시기로 진로 관련성이 높은 연령대인 만 15~20세 사이의 학교 밖 청소년 22명을 대상으로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인식 변화, 진로결정 및 계획, 진로준비 상황, 관련 지원 경험(연계 지원 포함) 및 어려움, 개인적 특성 및 경제적 상황, 진로지원에서의 지원 요구 등을 탐색하였다. 청소년 대상 조사임에 따라 면접대상자 선정 과정, 연구 참여 동의 및 미성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절차, 면접조사 내용 등에 대해 기관 IRB 승인을 (202505-HR-고유-009) 거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주요 요소	청소년 심층면접조사(IDI)
조사대상	만 15~20세 사이의 학교 밖 청소년 22명
선정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로결정, 지역규모, 연령대, 성별 등 인배하여 대상자 선정
조사내용	진로 인식, 진로 준비 상황, 진로 준비에서의 어려움 및 지원 요구 등
조사방법	사전 질문(진로 결정 여부) 후 개별 심층면접(온라인, 오프라인 면접 병행)
조사시기	6~9월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는 학교 밖 청소년과 진로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련 사업 파견 교원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및 연계 현황과 애로사항,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체계 연계 제도화 및 확대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요소	전문가 FGI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조사대상	학계 전문가 5인	현장 전문가 5인	진로지원 현장전문가 및 교원 5인
선정방법	학교 밖 청소년 및 진로 분야 학계 전문가 및 연구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 및 선임급 현장 전문가	진로교육체계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유경험 현장 전문가, 파견 교원 등
조사내용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특성 및 어려움, 연계 현황과 관련 이슈, 향후 연계 지원 방안 등		
조사방법	집단별 FGI 실시(FGI 참가자들의 배경과 전문성, 일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		
조사시기	6~9월		

4) 양적조사: 현장실무자 대상 웹설문조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 웹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원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문항의 개발은 선행연구 및 문헌검토, 2차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며 초안에 대하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시설장의 검토를 받아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관련 이슈와 문제점, 진로지원 수행 현황 및 어려움과 애로사항, 연계 지원 현황과 향후 다체계적 연계에 대한 요구 등이다.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직 실무자/시설장	재직기간 1년 이상
표집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직자 명단	
표본수	130명(모집단의 약 50% 이상)	전국 222개 기관
표집방법	지역 및 센터 규모를 고려한 층화 표집	
조사시기	6~8월	웹설문조사

5)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전반에 대한 학계·현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과정에서는 특히 질적 조사 및 웹조사 등에 답아야 할 조사 문항에 대하여 학계 및 현장 전문가뿐 아니라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도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연구의 결론에서 제시하게 될 ‘다체계 연계 진로지원’에 대한 정책입안자 입장의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 의견을 수렴하고자 유관 부처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구분	논의영역	논의대상
자문회의	연구추진 방향 자문 및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및 진로 분야 연구자 등 학계 전문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시설장 및 학계 전문가
	청소년 진로지원 및 진로교육 현황	
	종사자 웹설문, 청소년 IDI 문항개발 자문	
정책연구 실무협의회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과장 외 4인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사무관, 연구사

4. 연구 수행 체계

본 연구는 크게 기존 자료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상황 파악과 직접 조사를 통한 정책 이행 현황·문제점, 정책 수요 파악, 그리고 이를 종합한 정책제언 세 영역으로 조직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을 반영한 본 연구의 전체적인 보고서 체계는 [그림 I-1]과 같다.



그림 I-1. 연구 수행 체계



제2장 학교 밖 청소년과 진로 위기에 대한 논의

- 1.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진로발달 논의
- 2.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관련
주요 선행연구 고찰
- 3. 소결

2

학교 밖 청소년과 진로 위기에 대한 논의*

1.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진로발달 논의

1)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진로⁴⁾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교육통계에 따르면(표 II-1), 전체적인 인구수 감소와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급에서 학령기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2017년과 2024년의 학생 수 차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초등학교→중등학교 순으로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생 수 감소와 더불어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 수의 증가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⁵⁾

표 II-1. 초·중등 학생 수 추이(2017~2024년)

(단위: 명)

학교급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5,725,260	5,584,249	5,452,805	5,346,874	5,323,075	5,275,054	5,209,029	5,132,180
초등학교	2,674,227	2,711,385	2,747,219	2,693,716	2,672,340	2,664,278	2,603,929	2,495,005
중학교	1,381,334	1,334,288	1,294,559	1,315,846	1,350,770	1,348,428	1,326,831	1,332,850
고등학교	1,669,699	1,538,576	1,411,027	1,337,312	1,299,965	1,262,348	1,278,269	1,304,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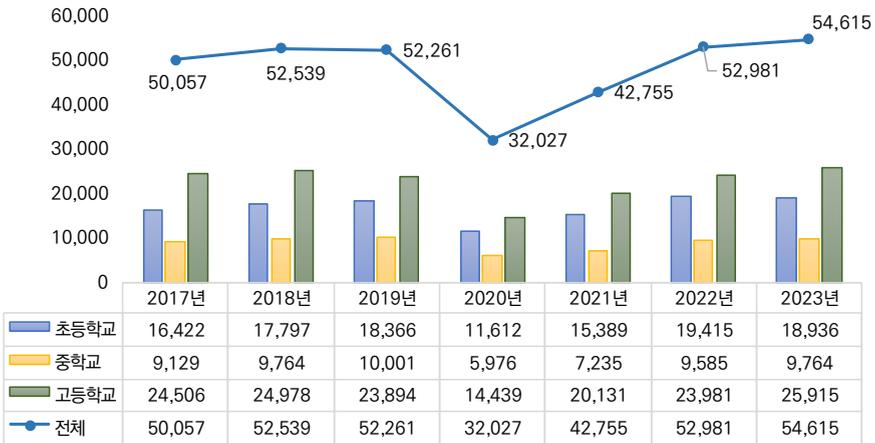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각 연도별 학교급별 학생수(2016~2024, 2024년 4월 1일 기준, 유치원 및 각종학교 등의 학생 제외),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5.2.4. 인출

* 이 장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4) 여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 이들의 진로와 관련된 일반적인 현황 및 전체적인 경향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지금까지 2015년 이후 4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조사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관련 선행연구 결과는 2절에 제시하였다.

5) 연합뉴스(2024.8.30.). "정시 올인"…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 본 10대 최다. <https://www.yna.co.kr/view/MYH20240830022900641>에서 2025.2.4. 인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시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II-1). 특히,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현황에 대해 2016년 이후 통계를 통해 좀 더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 교육이 원격교육으로 대체되었던 코로나19 시기(2020~2021년)를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II-1). 학교급에 따라 연도별로 약간의 증감을 보였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최근 증가 추이가 더 뚜렷하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에 더해, 검정고시를 통한 대학 입학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것에서도⁶⁾ 고등학교 시기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더욱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2017~2023, 2024년 2월말 기준).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5.2.4 인출.

그림 II-1. 초·중등 학업중단자 추이(2017~2023년)

성평등가족부의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김희진 외, 2023b)를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심리·정신적 문제,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부모님의 권유로,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등의 조사 항목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학교를 그만둔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진 외,

6) 한국일보(2024.6.30.). 내신 불리해서 자퇴? 검정고시로 대학 입학 12년 새 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3009510005070?did=NA>에서 2025.2.4. 인출

2023b).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의 권유와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고등학교 시기 그만둔 청소년 사례에서는 심리·정신적 문제,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등이 주요 응답으로 나타났다(<표 II-1>).

표 II-2. 학교를 그만둔 시기에 따른 학교를 그만둔 이유(복수응답)

(단위: %)

학교를 그만둔 시기	심리·정신적 문제로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부모님의 권유로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학교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특기를 살리려고	수업 방식이 지루하고 흥미가 없어서	학교 친구와의 문제	공부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전체	31.4	27.1	22.4	21.8	17.8	17.6	17.4	15.2	11.6	10.9
초등학교 때	10.9	30.3	61.3	13.4	15.9	22.4	13.2	23.3	6.6	3.9
중학교 때	28.8	33.6	35.2	20.6	13.3	17.4	18.9	13.7	15.3	8.9
고등학교 때	37.9	24.1	7.5	24.5	19.9	16.4	18.1	13.5	11.7	13.5

* 출처: 김희진 외(2023b).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p.39-40 내용 일부 발췌 정리

- 주: 1) 전체 응답 기준 높은 응답률을 보인 상위 10개 조사 항목만 제시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청소년단기쉼터, 대안교육기관, 보호관찰소, 소년원의 학교 밖 청소년 응답

같은 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3.6%로 상당히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전 조사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였다(2021년에는 20.4%)(김희진 외, 2023b). 그리고,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이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었다는 점은(김희진 외, 2023b)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점차 증가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 심리·정신적 문제, 미래(진로)와 관련된 문제 등은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향후 진로에 대해 정규학교 복학(대학진학 포함)(28.2%), 검정고시 준비(12.4%) 등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그중 진로미결정 응답률이 가장 높은 33.1%를 보인 것도(김희진 외, 2023b),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또래보다 성급하게 진로를 결정할 필요는 없으며, 한편으로 장기적인 진로 설계 역시 중요하지만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적지 않은 수가 학교를 그만둔 6개월 이후에 진로를 결정하였고(34.1%), 진로 결정시기가 뒤로 미뤄질수록 은둔 기간과 사회적 고립 수준과 상관관계를 보인 분석결과(김희진 외, 2023b)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하여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보여준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진로교과와 관련 진로지도, 진로상담교사를 통한 진로상담, 또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과 연계된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진로와 관련해서 또래 학생 청소년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학교를 그만둔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을 경험하거나 경제적 사유 등을 포함하여 가정 내에서 충분한 진로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더욱 진로와 관련한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많다. 앞서 살펴본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학교를 그만둔 이유 중 세 번째로 높은 조사항목이 부모의 권유인 것을 볼 때, 이제는 학교를 그만두는데 있어 과거와 달리 부모의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 부모의 권유로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각각 61.3%, 35.2%) (<표 II-1>), 그중에는 부모의 지원이 전제된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 진학 사례도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같은 조사에서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약 60%가 부모님의 권유로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하였다(김희진 외, 2023b).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과 이후 진로를 결정, 준비하는 데 있어 청소년 발달의 핵심체계인 가정, 부모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중 58.7%가 혼자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으며, 그다음이 부모의 권유(18.4%)로 진로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희진 외, 2023b). 그러나 청소년들이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직접적인 진로준비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기에 부족한 상황이다(노지혜, 문성호, 2019). 또한, 과거에는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부모와의 갈등이 높았다면 이제는 부모들도 점차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점도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진로지원에 있어 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⁷⁾ 결과적으로, 이러한 최근 실태조사 결과는 청소년 스스로가 특별히 자신의 진로 목표하에 주도적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준비하거나, 또는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해 주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진로에 있어 더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방증한다.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여러 특성과 변화들은 학교를 떠남에 따른

7) 학교를 그만둘 당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는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 수준은 점차 높았으며, 방임과 학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진 외, 2023b).

진로교육에서의 취약성과 청소년 개인 및 가정과 같은 여러 요인과 결합하여 이들이 또래에 비해 진로 준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에 더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이들의 진로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가 커질수록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상태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청소년의 진로발달 관련 이론 고찰

진로와 관련한 많은 이론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 및 지원에 대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이론들을 정리하였다. 먼저 전통적인 Super의 진로발달이론과 Erikson의 정체성 이론에 토대를 둔 Marcia 등의 진로(직업)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고, 개인적 요소에 더해 환경적, 맥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이나 관련 체계 등을 이해하기 위해 진로에 국한한 이론은 아니지만 다양한 환경 체계 속의 청소년발달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관점과 비교적 최근의 진로 이론 중 하나인 Lent 등의 사회인지진로이론⁸⁾을 간략히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들은 진로에 관한 행동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진로를 구성, 전개할 수 있다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의 Savickas의 진로구성이론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진로 발달과 관련하여 개인과 환경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여러 전통적인, 또 최근의 이론들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진로지원에 관련된 함의를 찾고자 한다.⁹⁾

(1) Super 생애진로발달

Super(1957)는 진로를 전 생애과정 동안의 개인의 일련의 역할과 그 역할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역할(학생, 부모, 노동자 등)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진화하는 것으로 보았다(Super, 1980). 그는 이러한 생애진로 개념이 진로를 구성하는 다양한 역할의 상호작용 성격을 볼 수 있도록 하며, 또 자신의 진로를 분석하고 미래의 진로를 계획하고 발전시킬

8) 사회인지진로이론과 마찬가지로 Bandura의 이론에 토대를 둔 다소 유사하게 비칠 수 있는 Krumboltz의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언급하고 그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하였다.

9) 이 외에도 직업 지도 및 진로상담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Holland의 직업선택 이론(Savickas, 2011; Sharf, 2013), 또 최근의 구성주의와 유사한 관점으로 진로발달에서의 개인의 내면과 영성적 접근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Miller-Tideman의 생애진로이론 등(Sharf, 2013: 379, 509-510) 다양한 진로관련 이론들이 있으나 지면의 한계상, 또 연구내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과 성인, 특히 후기 청소년과 성인의 진로상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주장했다(Super, 1980). 또한, 진로는 생애진로결정의 시점에서 다양한 개인적, 상황적(환경적) 결정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진로 결정에 있어 개인의 특성(흥미, 가치, 기술, 능력 등과 같은 개인적 결정요인)과 외적 요인(경제 상태, 노동시장, 포레집단 등과 같은 상황적, 환경적 결정요인) 등이 결합되어 자아개념, 나아가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Super, 1980, 1992). 즉 진로발달의 과정은 본질적으로 직업에 관한 자아개념을 발전시키고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Super, 1990).

Super는 이러한 생애과정에서의 진로발달단계(The stages of an occupational career)를 성장기(출생~14세까지), 탐색기(청소년기, 14세~25세), 확립기(성인기, 25세~45세), 유지기(중년, 45세~65세), 쇠퇴기(노년)로 구분하였다(Super, 1992). 그중 본 연구의 대상에 가장 근접한 연령대인 탐색기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 단계에서의 탐색은 항상 의식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체계적인 탐색은 학교나 다른 조직/단체 등을 통해 제공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다(Super, 1992). 초기의 진로/직업 탐색은 개방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이후에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여러 대안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너무 이른 결정을 하게 되면(early foreclosure)(목표에 고무되었거나 하는 이유로) 이후 좌절과 함께 불만족을 경험하고 직업에 변화를 겪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er, 1992). 또한, Super는 생애동안의 발달과업은 순환, 재순환된다고 보고 청소년기(14-25세)에 이러한 발달단계를 적용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현실적인 자아개념을 발전시키고, 더 많은 기회에 대해 학습하며, 선택한 분야에서 시작하고, 현재의 직업적인 선택을 확인하며, 여가 시간을 줄이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Super & Thomson, 1981; Super, 1990에서 재인용).

Super가 발전시킨 진로성숙(career maturity) 개념은 진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된 것으로 행동적으로 정의되며,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태도와 지식으로 보았다(Super 1992). 그리고, 이러한 태도와 지식, 지혜는 나이와 연관된 생물학적 경험과 문화적인 경험에 따라오는 것으로 기술하였다(Super 1992). Super와 동료들은 청소년이 진로와 관련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준비도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는데, 그들은 청소년이 9학년(우리나라의 중학교 3학년 시기)이 되었기 때문에 미래 진로를 계획할 준비가 되었다고 보지 않았다(Sharf, 2013: 210). 그보다는 진로성숙에서의 개인 간 차이와 진로성숙에서의 각기 다른 요소들을 확인하였다(Sharf, 2013: 210). 이러한 Super의

진로성숙 개념은 진로발달조사 척도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Sharf(2013)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II-3>과 같다.

표 II-3. Super의 진로성숙 : 진로발달척도 관계성과 내용

구분		척도 내용
진로 지향성	진로발달 태도	진로설계 다양한 정보탐색 활동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해 봤는지, 그리고 일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느끼는지 평가(학생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과는 무관함)
		진로탐색 기꺼이 정보를 탐색하고 찾아보려는 의지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 부모, 친척, 친구, 교사, 상담자, 도서, 영화 등의 자원을 기꺼이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러한 출처로부터 얼마나 많은 정보를 습득했는지 확인
	진로발달 의사결정	(진로) 진로결정은 진로설계를 위해 지식과 사고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으로, 학생이 진로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
	지식·기술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중요한 발달과업에 대한 지식(언제 자신의 흥미와 능력을 탐색해야 하는지, 어떻게 직업에 대해 배우는지, 왜 직업을 바꾸는지 등)과 취업 자원(구직) 행동, 선택한 직업의 직무에 대한 지식
	선호 직업군에 대한 지식	학생들로 하여금 20개의 선호 직업군을 선택하도록 하여, 그에 대한 직무, 도구, 장비, 신체적 조건들에 대해 질문하고, 9개 영역에 대해 능력(역량) 평가(9개 영역: 언어능력, 비언어적 추론/사고, 산술능력, 사무능력, 기계적 능력, 공간능력, 운동 조정 능력/협응, 영어 기술과 읽기 능력) 등

* 출처: Sharf, R. S. (2013).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6th edition. pp.210-212. 일부 발제·요약

여기에서 광범위한 Super의 이론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과 생애 진로발달 과정에서 청소년기 진로탐색과 진로결정의 중요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진로성숙 개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여전히 대부분의 진로탐색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Super, 1992),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 어떠한 범위와 수준의 진로탐색이 지원되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또한, Super는 진로성숙의 개념에서 학생들의 경우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며,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데(Sharf, 2013), 이는 진로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오랜 기간 진로미결정 상태가 지속될 경우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Marcia 등의 진로(직업)정체성

Marcia(1989, 1998, 1999)는 Erikson의 정체성 연구를 발전시켜 정체성 혼란(diffusion), 폐쇄(foreclosure), 유예(moratorium), 성취(achievement)의 네 가지로 정체성 상태(identity statuses)를 구분한다(Sharf, 2013에서 재인용).¹⁰⁾ Marcia와 Archer(1993)는 초·중·후기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자아정체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특히 진로(직업)선택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Archer는 초·중기 청소년기에서의 진로(직업)선택을¹¹⁾, Marcia와 Archer는 후기 청소년기의 진로(직업)선택에서 이 네 정체성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Archer, 1993; Marcia & Archer, 1993).

전형적인 진로(직업) 정체성 혼란(identity diffusion)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진로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하지 않는 것으로, 초·중기 청소년기(12~18세)에는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대한 다급함이 거의 없으며 관련된 활동들도 최소한으로 하며, 어떠한 진로도 고려하지 않기도 한다(Archer, 1993). 후기 청소년기(18세~22세)에서의 진로(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정체성 혼란은 보통 참여 부족으로, 최소한 직업과 관련된 행동으로 연결되는 현실적인 참여 부족을 의미하며, 탐색을 한다고 해도 대체로 피상적이고 단순하다(Marcia & Archer 1993).

초·중기 청소년들에게 정체성 폐쇄(foreclosure)는 다른 가능한 직업 방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한 가지 직업에 대해서만 진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초·중학교 시기와 같이 어릴 때부터 선택한 분야에 대한 활동과 지식으로 제한되는 경향을 보이며 다른 탐색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Archer, 1993). 후기 청소년기에서의 정체성 폐쇄는 진로(직업) 방향성이 확실하고 수년간 주요 정체성의 요소가 되지만, 그 배경에는 부모나 또 다른 권위자의 영향이 존재하며, 일찍 결정한 진로 방향성 외에 다른 대안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다(Marcia & Archer 1993). 초·중기 청소년기에 비해 후기 청소년기의 이러한 경향은 좀 더 견고해 보이며, 다른 대안이나 기회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Sharf, 2013).

초·중기 청소년기의 정체성 유예(moratorium)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여러 진로

10) identity diffusion, foreclosure, moratorium, identity achievement(Marcia, 1993)를 정체성 혼란, 유실, 유예, 성취로 번역하기도 하나, 여기에서는 정체성 혼란, 폐쇄, 유예, 성취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11) 원문에는 vocational choice로 되어 있어 직업선택으로 직역할 수 있으나, 진로선택으로 번역되기도 하여 진로(직업)선택으로 병기하였다.

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현재는 아니지만 조만간 이에 대해 관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동시에 여러 진로 선택지들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기도 하는 상태이다(Archer, 1993). 특별히 후기 청소년기에는 일반적인 직업적 영역 내에서 (탐색에) 참여하며, 강도 있게 고군분투하지는 않지만 때로 이성적으로 대안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Marcia & Archer 1993). 그래도 유예 상태라고 하면, 관심을 보이며 직업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대안을 활발히 탐색해야 한다는 점에서(Marcia & Archer 1993), 후기 청소년기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초·중기 청소년기에 정체성을 성취한 청소년(identity achiever)은 성공적으로 유예기를 해결하고 가장 자신을 잘 표현한다고 느끼는 직업 선택지에 전념한다(Archer, 1993). 이들은 자신의 선택이 잠정적이며 궁극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며, 처음의 선택이 적절치 않은 것을 대비하여 다른 대안적인 행동 방안을 선택한다(Archer, 1993). (선택한 진로) 영역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행동(취미생활, 파트타임 일, 비슷한 개인들과의 의사소통의 확대 등)들은 정체성을 성취하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활동으로 인정된다(Archer, 1993). 후기 청소년의 경우 정체성 성취는 이제 매우 구체적인 진로를 정하고 직업을 정하기 위한 경로에 접어든 것으로 이해된다(Marcia & Archer 1993). 이 시기 정체성을 성취한 청소년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과 관련한 최소한 하나의 실행 가능한 선택지를 진지하게 탐색하며, 자신을 특정 직업인으로(예, 교사, 기술자 등)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단순히 그 분야에 진입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직업은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며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된다(Marcia & Archer 1993).

Marcia의 이러한 네 가지 정체성 상태는 Vondracek과 동료들을 통해 청소년의 직업 정체성 발달 수준을 확인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Sharf, 2013에서 재인용). 이러한 직업정체성의 4개의 발달적 상태에 대한 요약과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예시 문장을 살펴보면 <표 II-4>와 같다.¹²⁾

12) Vondracek과 Reitzle은 직업정체성 발달수준에 대해 개인과 개인의 직업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요인들에 관심을 두고(경제, 정부의 사회·교육 정책에서의 변화,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의 진보 등)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발달에서의 더 넓은 맥락에 초점을 두어 발달적-맥락적 이론으로 발전시켰다(Vondracek & Reitzle, 1998)(Sharf, 2013에서 재인용).

표 II-4. Marcia의 정체성 상태에 기반한 직업정체성의 발달적 상태 요약 및 예시

직업정체성의 4개의 발달적 상태와 의미		구체적 예시 문장*
혼란 (diffusion)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거의 없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일이 일어 나겠지
유예 (moratorium)	방향성을 희망하지만 없는 상태에서 선택지들을 탐색하는 종종 몇 개월 이상의 시간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찾길 원한다.
폐쇄 (foreclosure)	다른 대안 선택지들을 탐색하지 않고 선택을 내리는 것(가족 전통의 영향으로)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고, 정해진 길을 따라가고 있다.
성취 (achievement)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고, 직업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고, 이미 계획을 세웠다.

* 출처: Sharf, R. S. (2013).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6th edition. pp.215-216. 일부 발췌·요약

* 주: Vondracek과 동료들이 직업적인 정체성 상태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단적인 예들로 원출처는 the Shell Youth Study(Judendwerk der Deutschen Shell, 1992)(Sharf, 2013: 216에서 재인용).

이러한 Marcia의 정체성 상태를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학교를 통한 다양한 진로교육과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연령대에 따라 각기 다른 진로정체성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진로 계획과 준비, 관련 준비 활동 유무와 정도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어느 수준의 진로정체성 상태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현재 진로에 대한 계획도 없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경우, 즉 진로와 관련해서 아무런 생각과 행동이 없다면 이를 진로정체성 혼란으로, 또, 분명한 진로 계획이 있거나 결정은 하지 않았으나 여러 진로를 탐색하는 중이라면 유예 단계로 볼 수 있다. 한편,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또래의 진로 발달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조급함으로 급히 진로를 정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 미래 전망 등을 고려한 진로준비 기회나 선택지들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폐쇄 단계). 특히, 이러한 폐쇄(foreclosure) 단계는 학교 밖 청소년 특성상 더욱 부정적인 차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 한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을 자격증으로 증명해야 하는 중퇴자로 범주화한 것처럼(이민정, 유성상, 2024), 학교 밖 청소년이 또래들과 달리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비정상성에 대한 부담으로 성급하게 학력이나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문제와 관련지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 주도적으로 특별한 진로 목표와 계획하여 학교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심리적 부담

로 인해 청소년들이 본인의 적성이나 선호에 맞지 않는 진로에 성급히 진입하거나 충분한 진로 준비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성인이 되고 궁극적으로 성인기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진로계획이 있고 또 진로준비도 하고 있다면 진로정체성 성취에 다다르고 있는 단계로 볼 수 있으며, 더욱 세밀한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러한 진로정체성 상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진단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식으로서의 접근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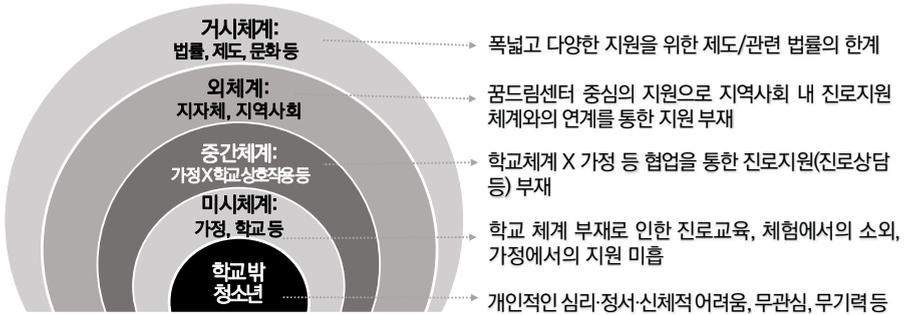
Bronfenbrenner(1994)의 생태체계이론은 진로 발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아니지만, 인간 발달과정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소년발달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 논의에 적용하여 살펴보았다.¹³⁾ 잘 알려진 바와 같이 Bronfenbrenner(1994)는 인간 발달의 맥락으로서의 환경에 초점을 두고 이를 미시체계(발달과정의 개인이 대면 환경에서 경험하는 활동 패턴, 사회적 역할, 대인관계 등), 중간체계(가정 및 학교와 같은, 발달 과정의 개인이 포함된 환경 간에 발생하는 연결과 과정 등), 외체계(학교와 지역사회 또래 집단 간의 관계와 같이 개인이 생활하는 환경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체계), 거시체계(특정/하위 문화에서의 각 체계에 내재된 신념 체계, 지식, 물질 자원, 생활 양식, 기회 구조, 삶의 경로 선택지 등 포함)로 설명하였다.¹⁴⁾

이러한 각 체계들의 특성과 내용들을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대면 환경인 가정, 학교와 같은 미시체계, 이러한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인 중간체계, 그만둔 학교 및 지역사회 지원기관과의 관계와 같은 외체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이들에게 주어진 진로 선택지와 지원 관련 법률 및

13) 유사한 시도로 McDonald(2002)는 복지수혜자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진로상담에서 이러한 생태적 관점이 내담자로 하여금 진로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적 요소, 가족, 지역사회와 정책 이슈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Cook, Heppner, O'Brien(2005)은 여성의 진로발달에서의 다문화와 성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관점 중 특히 미시체계와 거시체계가 백인 여성과 유색인종 여성의 진로발달을 개념화하여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언급하였다. 즉, 여성의 자신에 대한 인식과 가능성은 어린 시절부터 미시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리고 성별과 인종의 상호작용에 의해 설정된 틀에 따른 여성의 생애를 정의하는 더 넓은 범위의 사회문화적 역동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Cook et al., 2005: 175).

14) Bronfenbrenner는 이후 시간체계(Chronosystems)를 추가하여 이러한 인간발달 환경을 3차원(a third dimension)으로 확대하였는데, 이 체계는 개인 특성과 그 환경에서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와 지속성을 포함하고 있다(예, 가족 구조, 경제적 지위, 고용, 거주지 등에서의 생애 주기에서의 변화 등)(Bronfenbrenner, 1994: 40).

제도와 같은 거시체계 각각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진로발달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위기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II-2]는 이러한 내용을 도식화한 예시로,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은 개인적으로 심리, 정서, 신체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진로와 관련한 무관심과 무기력 상태일 때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학교 밖 청소년의 생태체계별 진로발달 위기 요인(예시)

* 주: Bronfenbrenner (1994)의 "Ecolog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의 각 체계 내용을 참고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적용, 작성

그림 II-2. 학교 밖 청소년의 생태체계별 진로발달 위기 요인(예시)

이때 개인은 여러 환경적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지원 부재에 따른 부정적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다른 또래 학생 청소년들의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미시체계인 학교 체계에서 벗어나 있음에 따라 학교의 진로 교과와 진로지도, 진로체험 등에서 소외되게 된다. 아울러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가족 간 갈등을 경험하였다면, 가장 근접한 미시체계인 가정으로부터의 진로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학교와 가정의 상호작용을 통한 중간체계에서의 진로지원, 즉 학교와 교육청 등을 통해 제공되는 자녀의 진로를 위한 부모상담이나 진학설명회 참여 등도 불가능하다.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곳의 또래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 이외 다른 지원체계로부터의 지원, 특히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도 기대할 수 있지만, 소수의 꿈드림센터만이 이들 기관과 연계하여 일회성 사업을 수행하는 등 일부에 한정되

어 있다.¹⁵⁾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진로지원,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서의 진로설계를 포함한 진로탐색과 진로체험 등을 위해서는 거시체계인 지원 제도와
법률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도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시간체계를 더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발달에 필요한 여러 체계에서의 지원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은
채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시간
경과에 따라 누적된 진로발달에서의 취약성은 이후 이들의 성인기 삶에 더욱 부정적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함의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4) Lent 등의 사회인지진로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은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하여 개인적 특성, 외적인 환경적 요인, 행동의 삼원(세 가지 요소)
상호작용(triadic reciprocal interaction)을 통한 진로발달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Lent, Brown, & Hackett, 1994). 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예상 결과(expected outcome), 목표 기제(goal
mechanisms)와 이러한 요인들이 타인(성별에 따른, 맥락(지지 체계), 경험적/학습 요인
과 어떻게 상호 연관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Lent et al., 1994: 79). 여기에서 자기효능감
은 특정 유형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행동을 조직,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Bandura, 1986), 이 이론에서의 자기효능감은 소극적이고 정적인 특성이
기보다 특정 수행 분야에 관한, 그리고 다른 사람과 행동, 맥락적 요인과 복잡하게 상호작
용하는 일련의 역동적인 신념 체계로 간주된다(Lent et al., 1994: 83). 자기효능감 신념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다면(예,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결과 기대
(outcome expectations)는 특별한 행동을 수행함에 따른 상상의 결과를 포함한다(예,
내가 만약 이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Lent et al., 1994: 83). 목표는 행동에
대한 자기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진로선택과 진로결정 이론의 요소로, 진로 계획,
결정, 포부, 선택과 같은 개념들은 모두 필수적인 목표 기제들이다(Lent et al., 1994:
84-85). 요약하면, 자기효능감, 결과 기대, 개인적 목표는 진로결정과정을 조절하는 중요

15) 강원도민일보(2024.6.23).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꿈꾸집' 진행.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50974>에서 2025.5.21. 인출, 호남뉴스라인(2022.7.14.).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http://www.honamnewsline.com/article.php?aid=10601746382>에서 2025.4.21. 인출.

한 세 가지 인지적 개념으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핵심이다(Sharf, 2013).

사회인지진로이론은 마찬가지로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한 Krumboltz의 이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다소 차이가 있다(Sharf, 2013). 즉, 두 이론 모두 환경과 개인적 요인, 행동에 초점을 둔 삼원(세 가지 요소) 상호적 상호작용(triadic reciprocal interactions) 체계를 활용하고 있지만, Krumboltz의 이론이 다양한 진로 관심사와 관련된 학습행동, 즉 이전의 학습경험이 어떻게 이후의 학습 경험과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한다면,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이러한 학습행동을 조절, 조정하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과정, 즉 행동 그 자체보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신념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Sharf, 2013: 376-377).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Lent 등(1994)은 흥미 발달 모델, 진로 선택 모델, 수행 모델 등 세 가지 연동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후에 개인과 맥락적 요인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진로자기관리 모델을 추가하였다(연구진, 양지웅, 정주리, 2019에서 재인용). 특히, 이러한 모델들에서 자기효능감은 흥미 발달과 진로 선택, 수행 모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자기효능감은 개인적 요인과 개인을 둘러싼 맥락 및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리고 생애 전반에 걸쳐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Lent et al., 1994).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진로와 관련된 주요 개념으로 (진로)장벽과 지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이 이론에서 장벽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맥락적(환경적)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맥락적 장벽은 기능적으로 해로운 개인적 요인(즉, 부정적인 학습 조건의 자기효능감 저하)과 관련되어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구별된다(Lent, Brown & Hackett, 2000: 39). 이러한 장벽은 보통 일련의 행동 추구를 제한하지만, 다른 대안이나 예비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의 장벽이 어떤 개인에 의해 (진로)선택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직면하게 되는지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Lent et al., 2000: 40). 즉, 진로선택과정에서의 진로 장벽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의 특성 및 상황, 환경적 맥락, 장벽의 유형을 포함한 여러 과정상에서의 요인들에 모두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이론에서 진로 지지(career supports)와 같은 이러한 지지 체계는 개인의 진로 선택을 형성하고 추구하는 것을 촉진하는 환경적 변인으로, 중립적 조건이라기보다 진로 행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Sharf, 2013). 따라서 (진로)지지와

장벽에 대한 인식은 서로 반비례하거나 긍정과 부정의 연속선상에 있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개인은 특정 선택 조건에 대해 장벽(가족의 반대, 제한된 저축액)과 지지(또래의 지지, 장학금 지원 등)를 별개로 인식할 수 있다(Lent et al., 2000: 42). 이러한 지지와 장벽은 모두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진로선택 목표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Lent et al., 2003; Sharf, 2013; 380에서 재인용). 또한, Lent와 동료들은 Super (1990)의 이론이 학습 경험을 진로와 관련된 인성 발달(예, 흥미)의 핵심으로 간주하며 학습 기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만, 사회인지적 변인들은 학습과 발달에 있어 미세한 특성 지향의 관점의 Super의 이론, 생애진로 역할에 대한 분석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Lent et al, 1994: 116).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앞에서 제시한 진로성숙도 및 진로정체성과 같은 다소 개인적인 진로 관련 요인에 더해 자기효능감과 학업관련 경험을 포함한 인지적 요소, 심리정서적·신체적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적 특성,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 더 나아가 사회, 문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 간 상호 연관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Lent et al, 1994)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즉 맥락적 요인이 더욱 강조된 사회인지진로이론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학습 경험, 학습 기제에 대해서도 개인적 요소와 환경/맥락적 요소 간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례로, 학교 밖 청소년이 과거에는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불릴 만큼 학업 자체를 증도에 그만두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 대부분 검정고시 등을 통해 고등학교 학력을 기본적으로 취득할 뿐 아니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원체계의 도움을 통해 상당수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등 큰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이론은 최근의 학교 밖 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 선호 경향을 포함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있어서의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과 이들에게 필요한 진로지원 방향성을 탐색하는데 여러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5) Savickas의 진로구성이론, 진로적응성, 진로 준비 등

Super(1957, 1990)와 Holland(1997) 등의 진로(직업) 발달 및 선택 이론들은 여전히 진로 발달에 유용한 이론들이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진로구성이론(Career Construction Theory, 또는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이 대두되었다(Savickas, 2011: 4-5). 생애 설계

(life-design)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진로구성이론은 과거의 기업형태 변화와 디지털 혁명들을 통한 유동적인 사회 속에서 요구되는, 즉 이러한 사회에 유연하게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개인 특성들과 발달적 과제, 그리고 개인의 삶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avickas, 2001; Savickas, 2011: 6-7에서 재인용).

진로구성이론은 개인들이 자신의 특성들을 조직화하고(구성하고), 자신의 직업적 행동의 방향성을 설정하며, 자신의 진로를 의미 있게 만드는 해석적이고 대인적인(interpersonal) 과정으로 설명한다(Savickas, 2020: 165). 즉, 개인은 자신의 진로관련 행동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구성하는 것으로, 진로는 개인이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Sharf, 2013: 307). 이 구성주의자 관점에서의 진로는 자기 구성(self-making)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데, 특히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로서의 자아, 동기를 지닌 주체(motivated agent)로서의 자아, 그리고 자기 서사의 저자(autobiographical author)로서의 자아는 진로구성이론에서의 틀을 구성하는 자아의 주요 핵심 기능이다(Savickas, 2020: 166). 이 이론에서는 이렇게 자기 구성과 진로를 구성하는 것은 복잡한 단계와 다층적인 절차를 통해 전개되는 생애 프로젝트로(Savickas, 2020: 166), 개인의 진로 구성은 생애를 거쳐 변화하며 끊임없이 발전한다(Sharf, 2013: 307). 특히, 진로구성이론에서 진로에 관한 자기 서사(storytelling, narrative)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본질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유의 관점인 자신들의 서사를 만들어 내게 된다(Sharf, 2013: 307).

이 진로구성이론에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진로 적응(career adaptability, 진로적응성)이다. Savickas는 진로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직면하는 환경과 사건들에 대한 적응(adaptation)으로 보았으며, 이 진로적응성은 어떻게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구성하고 관리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Sharf, 2013: 307-309). 라틴어에서의 '맞추다'(to fit)에서 유래한 '적응한다'(adapt)는 내적인 욕구와 외적인 기회를 조화롭게 하는 것으로, 전환의 시기에 개인은 반드시 그들의 사회적 위치에서의 변화와 도전에 적응하여야 한다(Savickas, 2020: 172-173). 진로구성이론에서 진로 적응의 결과는 적응 준비(adaptive readiness), 적응 자원(adaptability resources), 적응 반응(adapting responses)을 아우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특징을 갖는다(Rudolph, Lavigne, & Zacher, 2017; Savickas, 2020: 173에서 재인용). 적응 준비(adaptive readiness)가 진로관련 과제, 전환(변화), 문제에 가까이 대응하려는 준비에 대한 개인적 특징이라고 할 때, 이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의지는 자기조절(self-regulation) 자원을 이끌어 내게 되며 이러한 적응 자원(adaptability resources)은 개인과 환경의 교차점에 위치함에 따라 심리사회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Savickas, 2020: 173-174). 진로구성이론은 진로 적응에 있어 자원이 많은 개인은(즉, 적응력이 높은 개인은), ①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career concern, 진로 관심), ② 자신의 직업적 미래에 대한 개인적인 통제력을 높이고(career control, 진로 통제), ③ 자신의 가능한 자아와 미래의 시나리오를 탐색하는데 호기심을 보이고(career curiosity, 진로 호기심), ④ 자신의 포부를 추구하는데 있어 자기 확신(자신감)을 강화시키는(career confidence, 진로 확신) 사람으로 개념화하고 있다(Savickas, 2020: 174). 한편으로, 이에 기반하여 진로적응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진로(미래)에 대한 관심, 이를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통제력, 다양한 진로에 대한 호기심,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진로구성이론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구성하며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어떠한 진로 환경에서든(변화된 직업세계, 고용상태 변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진로 적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인간발달단계, 특히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진로와 관련하여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즉, 진로 준비는 아동기에서 시작해서 진로에 대한 탐색과 결정으로 특징지어지는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로 이어지는 발달적 과정으로(Hartung et al., 2005; Super, 1957; Skorikov, 2007에서 재인용), 성공적인 진로를 위해서는 이러한 직업 세계 및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해야 하며(김봉환 외, 2013), 이를 위한 진로 준비가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기 진로준비는 초기 성인기 적응을 예측할 수 있다(Skorikov, 2007)는 점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Savickas는 Super의 생애진로이론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진로 준비의 본질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였다(Skorikov, 2007: 9). 즉, 진로준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론가들 사이에 일치된 내용이 없지만, 직업적 선택과 진로 계획은 전통적으로 청소년기 진로준비의 주요 측면으로 간주된다(Savickas, 1999, 재인용). Savickas에 따르면, 역량 있는 진로 발달(competent career development)에는 계획, 의사결정, 문제 해결/자신감, 탐색 등이 포함되는데, 진로적응성의 이러한 측면은 진로 발달과 사회적, 심리사회적 적응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korikov, 2007: 10).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 준비는 진로결정, 계획, 확신의 조합으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 후자의 척도들은 동일한 기저의

구성개념(construct)의 상호 관련된 지표로 볼 수 있다(Skorikov, 2007: 10).

Savickas(2005)에 따르면 성공적인 진로 발달은 직업적 과업과 전환, 도전을 능숙하게 하는데 요구되는 다양한 태도, 행동, 역량에 달려 있다. 이에 기초하여 Marciniak와 동료 들은 진로 준비도(career preparedness)를 더욱 구체적인 구성 개념(예, 진로 성숙도, 진로 준비성, 진로적응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았는데, 이는 예견된 또는 예기치 못한 일이나 진로 관련 전환과 도전을 다루는데 필요한 태도, 지식, 역량, 행동으로 정의된다(Marciniak, Johnston, Steiner., & Hirschi, 2022: 22). 이 정의는 Lent(2013)의 진로 준비도의 정의를 포함할 뿐 아니라 진로 준비도 분야의 다양한 개념들을 통합함으로써 그 개념을 더욱 확장하는 것이다(Marciniak et al., 2022: 22에서 재인용). 이를 토대로 Marciniak와 동료들이(2022) 청소년의 진로 준비에 요구되는 다양한 태도, 지식, 역량과 행동들을 정리한 틀과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II-3]과 같다.

진로 준비도 구성 요소		
태도	지식과 역량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계획 · 진로 탐색 · 진로(불)확실성 · 진로결정/미결정 · 관심사(고민) · 통제 · 호기심 · 자신감 · 결과에 대한 기대 ·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 통제 소재(locus of control) · 역기능적 신념 · 기타 태도(직업결정을 할 준비상태, 직업 개발 행동에 참여할 준비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에 관한 지식 · 선호 직업에 대한 지식 (또는 지식의 부족) ·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 (또는 지식의 부족) · 의사결정 역량 · 기타 지식과 역량(진로탐색 기술, 직업 선택지 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탐색 · 환경 탐색 · 진로 계획 · 반응 적응(예, 진로 탐색) · 진로 준비 행동(예, 진로자원 찾기) · 진로정보 실행(교육프로그램 시작)

원출처 주: 진로 계획과 탐색은 태도와 행동의 두 범주에 모두 등장하는데, 각각의 다른 연구들에서 태도, 행동으로 개념화, 조작화되기 때문임.

* 출처: Marciniak, Johnston, Steiner & Hirschi(2022). Career preparedness among adolescents: a review of key component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p.26에서 발췌

그림 II-3. 진로준비도(career preparedness)의 구성 요소 통합 틀

진로구성이론은 제도권 공교육을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나면서 또래 청소년과는 다른 인생 궤도로 진입하면서 이미 진로 전환을 경험하고 있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그리고 이를 대처하고 극복하는 자기 서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를 구성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진로의 본질적인 의미가 개인들이 직면하는 과업, 전환, 문제들에 대해 자신이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이야기(self-defining stories)로 드러난다고 할 때(Savickas, 2020: 180),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 과업, 어려움에 대해, 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경험들에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만의 진로 이야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생애 설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구성에 관한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더욱 구체적으로 학교 밖에서의 자기 구성과 생애 설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이혜은, 배영광, 2022). 즉, 전통적인 진로 이론에 기초한 기존의 진로지원에 더해 학교 밖이라는 특별한 생애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적절한 방식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이제 학교 밖이라는 생활 변화를 경험할 뿐 아니라 학교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그럼에도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있어서 진로 적응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Savickas의 이론을 토대로 발전시킨 진로 발달에 대한 논의와 진로 준비의 여러 구성 요소들은 청소년에게 필요로 하는 여러 상세 내용을 조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모두의 진로 발달 과정에서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로 준비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느 측면에서 어떤 수준으로 진로 준비 정도를 평가하고 지원해야 할지의 갈림길에서 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며 미래 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현실에서 가능케 하는 것은 결국 개별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차원의 세심한 관심이 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관련 주요 선행연구 고찰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수많은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중요성을 방증하듯 진로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다수 수행되었다. 그중 최근에 발표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개인, 정서적 차원, 가족/또래 등 사회적 관계, 사회환경 및 진로지원 측면 등을 구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¹⁶⁾ 진로성숙, 진로준비, 진로장벽, 진로장애, 진로적응성 등에 미치는 관련 요인과 두루 배경들을 파악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 정책의 개입 지점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1) 개인적, 정서적 차원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 심리정서적 차원과 정신건강 측면 등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들을 규명하였다(김성현, 2023; 박지현, 황미영, 2017; 심현아, 2020; 하형자, 박희현, 2023 등).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진로 장벽¹⁷⁾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조절효과를 갖고 있었고(박지현, 황미영, 2017), 학업중단 청소년의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김성현, 2023). 또한, 학교를 그만둔 이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장벽은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상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정미, 2022),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진로 장애와 진로탐색 행동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심현아, 2020).

하형자와 박희현(2023)의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이 양호하며, 인지적인 정서조절 전략이 긍정적인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박선하, 강영배의 연구(2021)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16)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명명하여 수행된 연구들 외에 여전히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연구도 함께 검토하였다.

17) 진로 장벽은 김수현(2007)이 개발한 진로장애검사를 사용하였는데, 직업정보 부족, 자기진로 이해부족, 자신감 부족과 성격문제, 취업 현실여건, 취업기반부족, 학벌과 전공, 나이와 신체조건, 경비와 집단사정, 부모와 주변인 등의 9개영역,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박지현, 황미영, 2017: 9).

개인적 특성과 정서적인 측면이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진로에 대한 불확실이나 미결정 상태는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높이는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고,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장래)에 대한 불안은 자살 생각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과 관련성을 보였으며(김희진 외, 2023b), 구체적으로 진로관련 정보의 부족,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진로 장벽은 개인의 자살 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미경, 2022). 나아가 이러한 진로불안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하는 대신, 유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민지, 김지민, 이지예, 양은주, 2022). 한편으로, 이래혁과 장혜림의 연구(2023)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장벽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에 있어 미래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자신의 장래에 대한 긍정적 생각, 성공에 대한 확신 등으로 측정된 미래에 대한 생각은 이들의 진로장벽 경험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한 질적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안태용, 임혜경, 강선모의 연구(2019)는 개인의 진로적응수준과 요인들이 이들의 진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진로적응력(학업 및 취업에 대한 관심, 진로 선택 의지, 진로탐색 기회, 진로성취 경험과 같은 자신감)을 통해 진로를 재구성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진로적응 수준이 배제될 때 진로 재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안태용 외, 2019).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특성들이 어떻게 이들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2) 부모 및 사회적 관계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지지와 역할, 그리고 또래 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성숙, 진로결정,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형희, 김용섭, 2023; 박민정, 2022; 이선영, 이선화, 2024; 이재희, 이경상, 2018; 장여옥, 이웅택, 2024; 최유석, 허무녕, 2023; 하영자, 2022 등). 먼저, 부모의 지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과 진로준비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개선을 통해(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

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희, 이경상, 2018). 또한, 부모의 지지와 방임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보였고(정송화, 이경은, 2021), 유사하게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그리고 방임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도 높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박민정, 2022). 아울러 부모의 지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구체적으로 정보 도구와 도구 구비 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경, 2017).

부모의 지지에 반대되는 부모의 방임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진로관련 정보의 부족,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한 연구결과는(정문경,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에 있어서의 부모 방임의 부정적 영향을 방증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부분에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의 진로 선택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한 질적 연구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부재가 결국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게 하는 제약을 갖게 됨을 보여주었다(유진이, 선다솜, 2018).

한편, 부모 애착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여옥과 이은택(2024)의 연구에서 부모 애착과 고등학교 학력 취득과의 관계에서 진로정보 탐색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정보 탐색을 많이 하고, 이어서 고등학교 학력 취득에도 긍정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미래 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는데,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는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 감소를 시사한다(김형희, 김용섭, 2023). 최근 한 질적 연구에서도 부모의 지지는(진로에 대한 고민과 진로 정보 탐색)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상담과 진로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영, 이선화, 2024).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의 진로발달에서의 부모의 영향력을 보고한 서구 연구들(Valach & Young, 2009; Young et al., 2011 등)(Sharf, 2013에서 재인용)과도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Young과 동료들은 고등학교 재학 청소년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부모와의 탐색 및 고군분투, 협상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Sharf, 2013: 331). 청소년 자녀의 진로발달에서의 부모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특히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의 진로에 있어서의 부모 영향력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가족구성원

모두의 지지(가족의 지지) 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윤기무, 2017) 부모뿐 아니라 다른 가족 성원들의 지지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족건강성의 영향력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이 가족건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주도성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매개 역할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박선하, 강영배, 2021), 다소 일치하지 않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주요 사회적 관계인 또래와의 관계와 또래 애착 등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래 애착은 위에서 언급한 부모의 지지와 진로성숙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였으며(하영자, 2022), 심지어 부모 애착보다 또래 애착이 학업중단 청소년이 진로장애를 극복하는데 더 큰 영향력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개입이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최유석, 허무녕 2023).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또래 지지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진로 장벽¹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조절 효과를 보임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장벽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에 있어서의 또래 지지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이래혁, 장혜림, 2023). 나아가 또래의 지지는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수집 활동과 도구 구비 활동과 같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선경, 2017).

이외에도, 이화명과 김영미의 연구(2022)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뢰, 호혜적 규범, 참여 등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회복탄력성이 이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부모애착, 또래애착, 지역사회 통합)은 진로장애와 사회적 낙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권보영, 김용운, 이후석, 2021),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다양한 사회적 자본이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8) 여기에서 진로 장벽은 김은영(2001)이 개발한 척도에 기초한 것으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모르는 정도, 원하는 진로를 얻지 못할까봐 두려운 정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자신을 뒷받침해 줄 수 없는 정도 등의 13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이래혁, 장혜림, 2023: 9).

3) 사회적 낙인, 진로지원 등 환경적 차원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한 사회환경적 차원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적 낙인감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수의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박동진과 이지연의 연구(2020)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미래에 대한 생각이 이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낙인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희망 진로에 대한 불안, 직업정보 인지 정도 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자아탄력성과 또래 애착은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혜, 안영미, 최려나, 정익중, 2024). 한 질적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학력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 이러한 사회적 편견으로 학교 부적응에 따른 자퇴가 아닌,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선택을 한 것으로 의미를 재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한 사례도 관찰되었다(이혜은, 배영광, 2022).

또한, 한 중단자로 분석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는 이후 시점의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진로장애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지혜, 노충래, 2024).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 장벽(진로 정보 부족, 미래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자아탄력성이 이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정소영, 김미경, 2022),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 진로장벽 등 진로관련 변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민지 외(2022)의 연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낙인을 크게 인지할수록 진로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사회적인 편견과 무시, 차별적 시선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며,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진로장벽과 사회적 낙인의 관계에 자아존중감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조정미, 2022),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진로 요소, 사회적 인식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개입 필요성을 조명해 주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적 개입과 진로관련 프로그램 등의 진로지원이 어떻게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과와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관계성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심리정서적 지원뿐 아니라 검정고시 지원과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인 진로발달을 돕고 있다(여성가족부, 2024b). 특히, 2014~2015년의 제도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를 전후로 언제 학교를 그만두었는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 정도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은 이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청소년들의 진로에 중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희진, 조혜영, 한지형, 2023a). 또한, 여러 연구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진로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이혜은, 배영광, 2022; 조혜영, 김영란, 2018), 한편으로는 진로지원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거나(김나영, 김광병, 2023), 필요로 하는 진로정보 부재가 관찰되기도 하였다(이선영, 이선화, 2024). 한 질적 중단자료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래전에 학교를 그만두면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된 경우에 스스로 진로를 준비하고 개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조혜영, 김희진, 2024).

이외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는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친구랑)의 학습지원과 교육참여수당 등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과정의 발판이 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박하나, 김명희, 2024),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진로탐색·집단상담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만9~15세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적응성(관심, 통제, 헌신, 호기심, 자신감 등의 요인으로 측정)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동혁, 김재은, 박종욱, 이수연, 2023). 또한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받지 못한 진로 교육을 이후 대안학교 등을 통해 제공받으면서 이에 대한 만족을 표한 사례도 있었다(이선영, 이선화, 2024).

결국, 사회적 낙인감, 차별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측면뿐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여러 부정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한편으로 이들의 진로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실천 프로그램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이를 더욱 빨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요구되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체계적 지원과 실천이 이들의 진로발달에 더욱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소결

청소년 진로 발달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필요한 내용들과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진로에서의 어려움 등을 살펴보았다. 사실 진로에서의 어려움이나 진로 위기¹⁹⁾는 학생과 비학생 관계없이 모두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보편적인 공교육 체계를 벗어나면서 또래 학생 청소년들이 학교를 통해 제공받는 진로교과, 진로지도, 진로상담, 진로체험 및 탐색 등 일련의 진로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의 좋은 교육은 진로결정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내적 동기, 목표설정 전략을 강화, 지원하기 위한 개입은 직업 선택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Akosah-Twumasi, Emeto, Lindsay, Tsey, Malau-Aduli, 2018). 즉, 학교를 그만둔 상황 자체만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발달에 필요한 여러 주요 요소들에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Super의 이론에서 청소년기에는 체계적인 적절한 진로탐색이 필요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너무 이른 결정으로 다른 기회를 차단하거나 낮은 진로성숙도 상태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Marcia 등의 이론에 근거한 직업정체성 네 가지 중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관련 상황이 혼란, 유예, 폐쇄에 해당할 때도 건강한 진로 발달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생태체계적 관점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이 심리·정서·신체적 어려움과 무관심, 무기력을 넘어 학교 체계 부재로 인한 진로교육 및 탐색, 체험에서의 소외, 가정에서의 지원 미흡, 지역사회 내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 부재 등을 경험한다면, 역시 진로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일 것이다. Lent 등의 사회인지진로이론을 토대로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 과거 학교 경험과 진로와 관련한 낮은 자기효능감 속에서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를 적절히 발전시키지 못하고 일련의 진로발달 과정에 필요한 지지 대신 장벽을 경험하면서 적절한 대안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이를 진로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Savickas의 진로구성이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 구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적절한 진로준비를 통해 충분한 진로적응성을 갖추지 못한다면(개인의 태도, 역량, 행동 등에서), 즉, 현재의 학교 밖 생활로의 전환 경험과 나아가 미래 직업 사회 변화 등에 잘 적응하도록 준비되지 못한다면

19) 청소년 대상 연구 중 유일하게 '진로 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진로 위기를 '부적응의 일환으로 외부 상황 및 개인적 특성에 의한 전반적 진로 선택 및 결정에서의 혼란'으로 정의하였다(박재숙, 2011). 이 연구에서의 진로 위기는 진로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취약성, 위험 요인 등을 모두 포괄한다.

현재의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과 이후 건강한 삶을 향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진로 관련 이론들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개인적, 환경적으로 특수하면서도 취약한 상황의 청소년 진로발달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출현도 요구되었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에 불리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도출되었다. 낮은 수준의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과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 또 낮은 수준의 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지지와 애착, 부모의 방임, 낮은 수준의 또래 애착과 또래의 지지, 사회적 자본, 높은 수준의 사회적 낙인과 진로지원의 부재와 결핍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벽, 진로장애 등과 같은 진로발달의 저해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들에서 진로장벽은 주로 진로관련 정보의 부족,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측정되었고, 진로장애는 희망 진로에 대한 불안, 직업 정보 인지 정도 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진로와 관련된 심리정서적 측면과 실제적인 진로관련 정보 및 직업 정보수집 등에서 미흡한 수준 등 진로준비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려움도 함께 확인되었다.

특히, 진로미결정과 진로불안은 건강한 진로발달의 원활한 시작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로미결정이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하는데 있어 개인이 직면하는 어려움으로 정의된다고 할 때, 진로불안(career anxiety)은 진로 결정에서의 어려움 또는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비판적 관점, 불안감, 자아개념과 정체성(자아존중감, 불확실한 정체성 등)을 포함하며(Saka, Gati & Kelly, 2008), 진로미결정은 이후 부적응 및 불안과 우울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korikov, 2007). 진로 장벽(career barriers)은 진로에의 진입과 성공, 발전에 있어 인식되는 장벽으로 낮은 수준의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성과, 기대와 연결되며, 차례로 직업탐색과 직업 선택 노력을 저해한다(Doren, Lombardi, Clark & Lindstrom 2013: 1085). 따라서, 진로불안, 진로미결정, 진로장벽 등을 경험하는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진로 위기 상태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자신과 진로에 대한 확신과 목표를 가졌다면, Marcia에 기반한 진로정체성 발달 단계에 따라 스스로 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 계획을 수립한 성취 단계(achievement)로 볼 수 있다. 또한, 진로구성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자신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진로 구성과 충분한 진로 준비에 따른 진로적응성 향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며 성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혼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충분한 진로준비를 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 아울러 부모의 지원과

지지가 부재하거나 더 미흡하다면 진로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재의 지원체계에서의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정책적 지원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충분한 진로준비에 대한 내용·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은 이미 오래 학생 청소년과 달리 보편적, 제도적인 교육체계를 떠난 것만으로 진로 전환을 크게 경험했다고 볼 수 있으며, 전술한 것처럼 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이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진로 위기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학교 체계를 통한 진로교육 및 체험 등을 포함한 모든 진로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적 진로 역량이 뛰어나거나 가정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적 체계를 통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에도 주목함으로써, 이러한 진로 위기 상태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학교를 통한 체계적인 진로지원이 부재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이 더욱 강화, 확대되어야 한다는 명제 아래, 앞에서의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건강한 진로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접근과 학교 밖 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뿐 아니라 생애 진로 설계에 기반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타 지원체계와의 적극적인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 전체와 특별히 진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인 진로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세심한 맞춤형 지원도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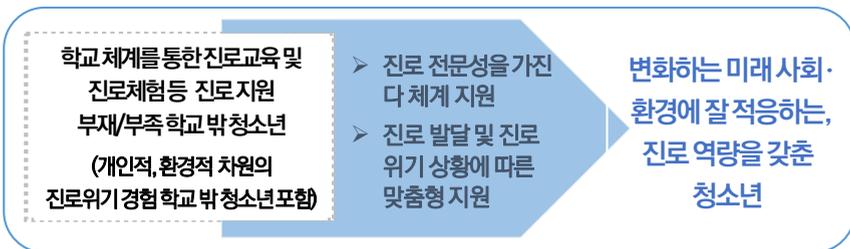


그림 11-4.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 방향성(예시)

○ — 제3장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법·제도 분석

- 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관련 법
- 2.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제도 및 정책
- 3. 소결

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관련 법²⁰⁾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탐색, 직업교육·훈련, 자립 및 취업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되는 법률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여기에서는 본칙으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제10조), 청소년의 자립 지원(제11조)을 명시하고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위기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서도 직업훈련지원 등의 특별지원 대상자가 된다. 직업과 취업의 관점에서도 근거 법령을 찾을 수 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제3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특히 중요시되어야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가 현재 중단한 상태라는 점과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이 접하였거나, 접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인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 그 내용은 한정된다. 마찬가지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경우 목적(제1조)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령임을 서술하고 있으나 본칙은 직업교육훈련생(학생과 근로자)을 중심으로하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진로교육법」은 학생에 대한 진로지원과 직업훈련을 규정하는 법령으로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 학생에 대한 진로지원의 근거 법을 각각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의 기반이 되는 법령의 쟁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이 장의 1절은 김성은 선임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절은 김현수 교수(창원대학교), 3절은 공동 집필하였다.
20) 이 절의 법령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인출하였으며 원문을 각색 없이 서술하였다.

표 III-1. 학교 밖 청소년 및 학생 진로지원 관련 법²¹⁾

대상	법	관련 조항	소관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립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성평등 가족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 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성평등 가족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국민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국민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학생	「초·중등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교육부
	「고등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9조의 2(대학원의 종류)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전문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교육부
	「진로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조항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관련 조항〉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조항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조항 	교육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5.1.14 인출 및 내용 확인.

21) 다항 조항의 경우 내용 관련성이 높은 항을 선별적으로 제시하였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취업, 자립지원을 포괄하는 법령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상의 구분(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따르며,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등교육법」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초·중학교),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미진학 청소년(고등학교)을 의미한다.

24년도 3월 조문 일부를 개정하여 그동안 고등학교급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개인정보 선 연계 후 동의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①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지원 사항과 직업교육 훈련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4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다.

위 지원 사항과 직업교육 훈련의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에서 정하고 있는데 ① 직업체험·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와 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② 훈련대상자의 특성, 취업·직무수행의 용이성, 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정할 것, ③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 대상자에게 (필요시) 훈련수당 지급 등의 내용이다.

② 제11조(자립지원)

제11조의 내용은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의 영역(①항)과 교육 분야(②항)를 규정하는 것이다. 지원에는 생활, 문화공간, 의료·정서가 포함되며, 교육에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을 들고 있다. 제11조는 4개 항으로 구성되는데 ③항에서는 「청소년복지법」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우선 지원을, ④항에서는 지원의 방법과 내용을 시행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자립지원)를 보면 자립에 필요한 교육의 방법으로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교육을 들고 있고, 교육의 내용은 경제, 법률, 문화 등과 관련한 기초 소양으로 정하고 있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 기본법」의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에서 규정하는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의 역시 「청소년 기본법」을 따르며,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기적 조사와 정책 수립·시행의 의무, 그리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우선 배려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그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진로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위기청소년²²⁾’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범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22)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①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07.24., 2015.12.30., 2019.03.19., 2021.09.24., 2023.04.18.>

1.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4.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12.30.>

①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기는 하나 제14조에서도 진로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함)을 할 수 있으며, 특별지원에는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에 대하여 물품 또는 서비스 형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적 형태로도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은 과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에 맞춰 2021년 8월 개정된 것(시행: 2022. 2.)으로 전 생애에 걸친 전직과 노동시장 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개발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바탕으로 그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였다. 특히, 근로자에 국한한 직업능력 개발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중요시 되어야 하는’ 대상자도 구명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마지막 11호가 학교 밖 청소년이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법이 성평등가족부 소관이었던 것과 달리 이 법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소관으로 직업능력개발과 직업훈련의 관점에서 진로지원에 관한 근거법이 될 수 있다.

①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및 지원하는 것,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 이를 통하여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며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많은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이 법에서 주목할 부분은 ‘모든 국민’이다. 이후에서 살펴볼 학생 대상 진로지원 근거법들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나 서비스와 비교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가짓수와 내용의 상세함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이 법이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 보장, 현장실습에서의 안전과 부당 근로 제한을 포함하여 훈련 수당(동법 제10조) 등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②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3조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을 8개 항으로 다루고 있으며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실시될 것
-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노사 참여·협력이 바탕이 될 것
- 모든 국민에 차별 없이 실시될 것(균등한 기회의 보장)
-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자의 규명²³⁾
-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것
- 지역·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될 것
- 직업에 필요한 직무능력 뿐 아니라 포괄적 직무기초역량을 함께 지원할 것
-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경력개발과 긴밀히 연결될 것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①항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후 절에서 살펴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법」에서 진로교육에는 스스로 진로를 개척·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 함양이 포함된다는 점, 진로교육 분야에는 진로 체험과 취업지원 이전에 검사와 상담 등 자신의 희망과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가 포함됨이 명시되어있다는 점과 비교해보았을 때는 다소 구체성이나 상세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의 분야에서도 가장 먼저 희망과 적성,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①항으로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훈련이나 취업으로서 먼저 직업세계를 경험하기보다는 사전에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찾기 위한 지원이 요구될 때 이행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23) 1. 고령자·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6. 여성근로자
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8. 삭제 <2016. 1. 27.>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1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4)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을 포함하여 이후에서 살펴볼 「진로교육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교육분야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직업 관련 법률이다. 이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에 관여하는 법률은 아니며, 학생 신분일 때 국가를 통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진로 관련 권리나 지원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에 대한 법률상의 미비점을 찾고 그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두 가지 법령은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라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놓은 것이다. 학교 교육의 다양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서 ‘진로’나 ‘직업’에 관한 내용이 많지는 않으나, 각 학교의 목적이나 정의 그 자체에 진로·직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학교교육에서의 진로·직업 지도 및 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① 「초·중등교육법」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제6절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음을 포함하여, 고교학점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의 ②항을 보면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라고 하여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진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② 「고등교육법」 제29조의 2(대학원의 종류)

이 조항은 대학원의 종류를 정의하고 각 대학에서 설치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문대학원을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과 적용,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4절 전문대학의 제47조(목적)에서도 전문대학의 목적을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으로 두고 있다. 법령의 조항을 보지 않더라도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실천적 이론을 다루고 그 이론의 적용과 실습, 직업인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곳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학교의 한 종류로서 직업인 양성 기관이 존재하는 것이다.

5) 「진로교육법」

이 법은 2015년 제정 및 시행 이후 학교 진로교육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놓은 법률로서 학교 진로상담, 진로수업과 체험 및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한 집중기간 운영 등은 이제 학교교육에서 당연한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1조(목적)과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서 강조하고 있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의 개발이다.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실현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며,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역시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개발하는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서, 직업훈련 이전에 스스로 진로를 찾아나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며 목적이다. 따라서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상담과 검사, 체험과 수업 및 다양한 경험들은 곧바로 직업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교육의 성격이 아닌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 적성과 흥미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졸업 후부터 평생이 될 수 있는 진로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추진 동력을 갖추는 과정이다.

①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의무 조항

제9조(진로전담교사), 제11조(진로상담), 제12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가 해당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두며,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하는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부가 2024년에 공표한 ‘시도별 진로전담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23년 12월 기준 전국 학교의 진로전담교사 배치 비율은 98%에 달한다²⁴⁾. 또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가능 조항

제10조(진로심리검사), 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가 해당한다. 초·중등학교 장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도록 돕고, 진로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심리 검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4)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data.go.kr)에서 2025.1.21. 인출

〈학교 밖 청소년 진로교육 관련 조항〉

③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²⁵⁾

「진로교육법」의 제1조(목적)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법임을 명시하면서도 제5조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또는 시책) 운영하여야 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③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제공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교육·훈련의 표준적인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안전성, 교육훈련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이다. 제2조(정의)에서 학생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직업교육훈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장실습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학생 대상 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10조(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자)를 규정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중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을 우선 실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제한적으로나마 학교 밖 청소년 직업교육 및 훈련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유사 법률로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은 산학연협력 활성화와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법이다. 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의 상세 내용을 규정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진로 지도 시책)에서 학생 진로 지도에 관한 상담 및 기관 간 협력,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다. 법령의 내용 전체적으로는 산업계 수요에 맞는 우수 인재 양성에 초점이 있으나 이에 앞서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산업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5)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제도 및 정책

본 절에서는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제도를 종합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일반 청소년 대상 정책은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하고 참여가 제한되는 정책은 '논의'에서 개선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 검토한 중앙행정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지원 정책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부처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주요 제도 및 정책

부처	제도/정책	세부 프로그램	내용	대상
성평등 가족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에 관심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 직업훈련 또는 취업연계 이전에 직업선택과 관련 하여 기초기술 습득 및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진로탐색과 취업 등에 관심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 및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직업훈련, 일경험 (인턴십) 및 직장체험, 취업연계 등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의 자립지원	청소년이 사회진입 시 자신감을 가지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 및 직업 탐색 기회 제공, 역량 강화 및 구직의욕을 고취, 청소년 맞춤형 취업연계를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청소년프로그램활동 인증제를 통해 선정한,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교육부 ²⁶⁾	진로교육 지원센터	진로 및 진학지원	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체험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일부 포함한 학생 청소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을 심사하여 인증 받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학교 외 기관을 포함 ²⁷⁾ 한 학생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센터	진로체험버스	진로체험 기회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구도심 등 상대적으로 체험기회가 부족한 초 중·고교를 대상으로 멘토 또는 체험버스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거나, 학생들이 방문하는 형태로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학생 청소년
		창업체험센터	청소년들이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하는 창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초 5학년 ~고등학생

부처	제도/정책	세부 프로그램	내용	대상
고용 노동부	고용24 플랫폼	청년도전 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만 18~34세 청년
		국민취업 지원제도	취업을 희망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	만 15세~69세 이하 국민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구직 시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의 기초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사업	청년, 중장년
	미래내일 일경험 통합 플랫폼	청년일경험지원	청년층의 일경험 수요 충족과 미취업 청년에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한국산업 인력공단	청년 국가기술 자격 응시료 지원사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 50%를 지원	만 34세 이하 청년
	종합직업 체험관 (한국잡월드)	진로설계관	놀이형 검사 및 진로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성과 흥미를 알아보고 맞춤형 진로 탐색을 지원	초 4학년~ 고 3학년
		청소년체험관	실제 직업 현장과 유사하게 조성된 체험실에서 역할연기 방식으로 직업을 체험	초 5학년~ 고 3학년
		숙련기술체험관 체험실	첨단기술, 기초기술, 전통기술의 세 분야의 프로그램을 체험	초 5학년~ 고 3학년

* 출처: 여성가족부(2024a).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2024.2).
 여성가족부(2024c). 2024년 정부혁신 실행계획(2024.4.).
 여성가족부(2025b).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1권)(2025.1.)
 여성가족부(2025c).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2권)(2025.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4).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여성가족부, 교육부(2024). 20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안내서.
 교육부(2023).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2023.4.).
 교육부(2024a). 2024년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안)(2024.1.).
 고용노동부(2025).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2025.1.1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policy/agenda/agendaList.do>)에서 2025.9.19. 인출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2025.9.29. 인출
 꿈길 홈페이지(<https://www.ggoomgil.go.kr>)에서 2025.2.3. 인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https://www.kdream.or.kr>)에서 2025.2.3. 인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s://www.q-net.or.kr>)에서 2025.2.18. 인출
 한국잡월드 홈페이지(<https://www.koreajobworld.or.kr>)에서 2025.9.29. 인출

- 26) 진로진학지원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교육청이 관리·운영 주체인 곳이 많으나 지역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를 기반으로 설립·운영 되거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 지자체가 관리주체인 경우 등 다양하다.
- 27) 학교 외 기관의 경우 교육부와 주관 부처 및 기관(성평등가족부, 위탁형 대안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신청계정을 생성하고 프로그램 참여 신청하였다.

1) 성평등가족부²⁸⁾

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성평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제도 및 정책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24.3.26. 일부 개정)」에 근거해 17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5c). 2024년 기준 설치 및 지정 센터는 총 222개소로, 시·도 센터 16개, 시·군·구 센터 206개이다.

표 III-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지정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소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222	26	17	9	9	6	3	5	1	32	13	13	16	10	23	15	21	3
시·도 센터	16	1	1	1	1	1	1	1	-	1	1	1	1	1	1	1	1	1
시·군·구 센터	206	25	16	8	8	5	2	4	1	31	12	12	15	9	22	14	20	2

* 자료 : 여성가족부(2025c),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2권)(2025.1.), p.590

* 주1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로 분류

* 주2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미설치 시·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센터 설치·운영 권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관련 지원을 확대해 왔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시행령(제6조 1항)에는 시·도 센터의 경우 7명 이상의 운영 인력을 명시하고 있고, 이 중 2명은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5c: 586). 2024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기존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 체험 기회 제공,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을 지원에 더해,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운영하였다(여성가족부, 2024b: 76).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역량강화 및 자립·취업을 지원하는 센터운영 방향은 관계부처합동(2023)으로 발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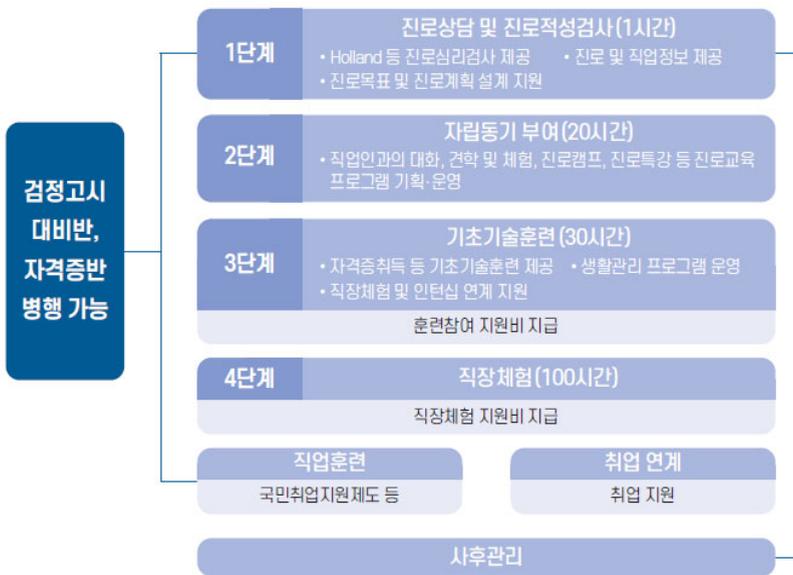
28) 성평등가족부 관련 내용은 여성가족부(2025b, 2025c)의 2025년 청소년사업안내, 관계부처합동(2023)의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https://www.kdream.or.kr>), 여성가족부, 교육부(2024)의 20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안내서, 여성가족부(2024a)의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2024.2.), 여성가족부(2025d)의 202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2025.1.),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홈페이지(<http://youthnet.or.kr>) 등을 토대로 발췌·요약함에 따라 포괄적/개괄적으로도 출처를 표기하고 이의 출처들에 대해서는 본문 및 각주로 상세 표기하였다.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명시한 ‘진로체험 및 일 경험 지원 등 진로지원을 확대’를 위한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관계부처합동, 2023: 4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 지원 사업은 크게 직업역량강화와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패키지 지원사업에서도 자립지원을 위한 진로 및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취업에 관심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 직업훈련 또는 취업연계 이전에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기초기술 습득 및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동기를 강화하고 취업의지를 고취시키는”²⁹⁾ 데 목적이 있으며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은 [그림 III-1]과 같다.



* 출처: 여성가족부, 교육부(2024). 20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안내서. p.11.

그림 III-1.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29) 출처: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https://www.kdream.or.kr>)에서 2025.2.3. 인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세종 센터를 제외한 전국의 16개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진로심리검사, 진로 및 직업정보 제공, 진로목표 설정과 진로계획 설계를 지원하는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1시간), 직업인과의 대화,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을 통해 동기를 강화하는 자립동기부여(20시간), 훈련참여 지원비를 지급하며 자격증 취득 등 기초훈련을 제공하고 생활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장체험 및 인턴십 연계 지원 등의 기초기술훈련(30시간), 직장체험 지원비를 지급하는 직장체험(100시간), 고충 상담 등 직업훈련 및 취업현황에 대한 사후관리의 총 4단계로 이루어진다.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부터 직장체험에 이르는 1단계에서 4단계 과정은 검정고시 대비반과 자격증 취득반과 병행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교육부, 2024).

○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는 “진로탐색과 취업 등에 관심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 및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직업훈련, 일경험(인턴십) 및 직장체험, 취업연계 등을 지원”³⁰⁾하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16개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크게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인턴십·직장체험,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으로 구성된다(여성가족부, 교육부, 2024).



* 출처: 여성가족부(2024a).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2024.2.).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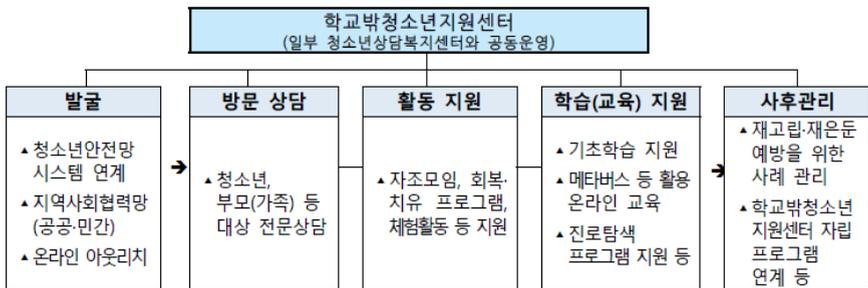
그림 III-2.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30) 출처: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https://www.kdream.or.kr>)에서 2025.2.3. 인출

먼저, 맞춤형 직업훈련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희망 직업훈련을 정부 인증 훈련과정 등과 연계하여 훈련을 지원’하고 청소년에게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턴십 및 직장체험은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후에 관련 직업현장에서 일 경험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며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은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습관개선 및 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장예절에 대한 교육이나 참여 청소년의 중도포기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등을 통해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있고, 고용부 및 여가부(새일센터) 등의 취·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의 자립지원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은 2024년 성평등가족부에서 발표한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2024.2.)」을 통해 시작되었다(여성가족부, 2024b). 이때, 고립은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상태(여성가족부, 2024a)”를, 은둔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상태(여성가족부, 2024a)”를 의미한다. 2024년에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시범사업’은 총 1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총 36명의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운영되었다. 지원체계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발굴부터 방문상담, 활동지원, 학습(교육)지원, 사후관리의 단계로 진행되고, 국립·공공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진로활동 프로그램 참여 및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과 일경험(인턴십) 등을 지원하는 단계이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3.6.).



*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4.3.6.). 고립·은둔 청소년 찾아 회복 돕는 원스톱 지원 실시. p.3.에서 2025.5.1. 인출

그림 III-3.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

자립지원은 크게 진로지원과 취업지원으로 구분한다. 먼저, 진로지원은 청소년이 사회 진입 시 자신감을 가지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다(여성가족부, 2024a: 11). 이를 위해 진로검사와 자립동기부여 등의 기초적인 진로탐색뿐 아니라 청소년 시설이나 유관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진로활동 프로그램,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청소년수련원의 ‘생애전환기 청소년 가족진로캠프’, 지역기관의 ‘진로토크콘서트’ 등의 참여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취업지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을 통해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청소년 맞춤형 취업연계를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4a: 11).

②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설치·운영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해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5c).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 내에서 청소년들의 진로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5b: 135).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여성가족부, 2025d: 1)”이다. 청소년수련시설 유형은 2005년 2월에 공포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할 수 있다.

표 III-4. 설립주체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지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총계
국립	0	0	10	0	0	0	10
사립	112	165	23	4	9	10	323
도립	3	24	9	3	3	0	42
구립	32	72	2	2	2	2	112
군립	53	93	19	10	12	1	188
사립	1	5	89	15	79	1	190
교육청	0	0	2	0	0	0	2
합계	201	359	154	34	105	14	867

* 자료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홈페이지(<http://youthnet.or.kr>)에서 2025.2.12. 인출

* 주: 2025년 2월 12일 기준임.

2025년 2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867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있고(표 III-4), 이 중 개인, 법인, 단체에서 설치한 민간시설 190개를 제외하면, 총 677개의 공공시설이 있다. 이 중 국립청소년수련원은 총 10개로, 서울 소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본원, 강원 소재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충남 천안 소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경북 봉화 소재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경북 영덕 소재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전북 김제 소재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전남 고흥 소재 국립청소년우주센터, 부산 소재 국립청소년생태센터이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4).

한편,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활동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35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은 2024년 12월 기준 총 3,602개로, 이 중 직업체험활동은 총 329개였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243개이다.³¹⁾

표 III-5.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단위: 개)

활동영역	청소년 수련시설	일반	공공행정	교육기관	컨소시엄	보호복지 시설	청소년 단체	계
환경보존활동	310	22	24	0	0	0	0	356
자기(인성)개발활동	966	98	23	9	1	1	1	1,099
건강·보건활동	301	15	8	1	0	1	0	326
기타	103	4	6	2	0	2	0	117
모험개척활동	531	31	12	7	4	0	0	585
문화예술활동	363	16	8	0	1	0	0	388
과학정보활동	258	18	0	0	0	0	0	276
봉사활동	78	0	0	0	0	0	0	78
교류활동	40	0	3	0	5	0	0	48
직업체험활동	243	69	10	6	0	1	0	329
총계	3,193	273	94	25	11	5	1	3,602

* 주 : 2024년 12월 기준 자료임.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직업체험활동은 방송체험, 목공, 제빵, 바리스타, 스포츠지도자 등 구체적인 직업에 대해 체험하는 활동 외에도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활동의 유형은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학교단체숙박형(학단형), 개별

3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목록 현황'자료(2025.2.12 인출)를 토대로 산출하였다.

단위로 구분된다. 기본형은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서, 실시한 날에 끝나거나 또는 2일 이상의 각 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숙박 없이 수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 숙박형은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이동형은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학교단체숙박형(학단형)은 ‘학교장이 참가를 승인한 숙박형 활동’을 의미하며, 개별단위 프로그램은 학교 단체숙박형 활동을 구성하는 각각의 프로그램이다.³²⁾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의 직업체험활동은 청소년활동보거서비스(e청소년)을 통해 검색 및 신청할 수 있다.³³⁾

2) 교육부³⁴⁾

교육부에서는 2023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을 발표하며 전생애 진로교육을 위한 과제뿐 아니라 진로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학교 밖의 인프라를 활용,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교육부, 2023). 먼저,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로캠프, 진로특강 및 콘서트, 진로멘토링 등의 운영을 지원하여 수요자 맞춤형 활동을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별 자율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교육부, 2023: 14). 이때, 진로취약 대상에 학교 안의 다문화, 탈북학생, 저소득층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2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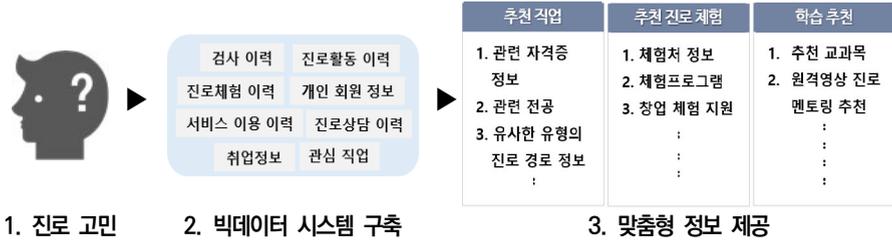
다음으로, ‘학교 밖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나 ‘진로정보망 개선을 통한 온라인 진로교육 지원’과 같은 학교 밖의 인프라를 활용한 진로교육 활성화 과제가 있다. 교육부는 학교 밖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험처를 발굴하고 인증제를 운영한다(교육부, 2023: 4). 이때,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신규인증기관을 발굴하게 되는데, 이는 진로체험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다(관계부처합동, 2023: 30). 또한 교육부(2023: 14)는 진로정보망 개선을 위해 ‘커리어넷,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온라인 창업체

32)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ywa.or.kr>)에서 2025.2.18. 인출

33) 출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 청소년) 홈페이지(<https://www.youth.go.kr/>)에서 2025.2.18. 인출

34) 관계부처합동(2023)의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교육부(2023)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2023.4.), 교육부(2024a)의 2024년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안)(2024.1.), 교육부(2024b)의 2024년 하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 공고(교육부 공고 2제 2024-437호), 꿈길 홈페이지 진로체험 안내(<https://www.ggoomgil.go.kr>) 등을 토대로 발췌·요약함에 따라 포괄적/개괄적으로도 출처를 표기하고 이외 출처들에 대해서는 본문 및 각주로 상세 표기하였다.

협교육 플랫폼(YEEP), 진로체험망 '꿈길'과 같은 기존의 진로교육정보망을 통합한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진로정보망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진로정보망 고도화를 위해 개발하는 진로 코치 모델은 학교 밖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므로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 출처: 교육부(2023).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2023.4.). p.14.

그림 Ⅲ-4. 진로 코치 모델 예시

마지막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역량강화를 위한 거점센터를 지정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사업(교육부, 2024a: 7)과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진로체험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하는 사업(교육부, 2024a: 8)을 운영한다.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 정책 중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주요 제도 가운데 교육청 산하로 운영 중인 진로교육지원센터 및 진학지원센터를 제외한, 진로체험기관 인증제와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자체 협력 운영 또는 지역 중심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관리주체가 지자체인 경우도 있는데, 진로진학센터를 포함하여 지자체 조례를 기반으로 또는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본 절에서는 이들 센터가 교육부의 진로지원시스템의 핵심적 요소인 바 교육부 정책으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이들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진로교육지원센터 및 진로진학지원센터

진로교육센터는 「진로교육법」 제4장 제16조를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 진로체험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기관이다³⁵⁾. 법률에서 교육감을 설치·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의

35) 출처: 진로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5.1.23. 인출.

주체로 명시하고 있어,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센터명은 서울의 진로교육센터, 경북의 진로교육지원센터, 대구의 진로진학지원센터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유사하다. 거의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시도교육청 산하 부서가 지역 진로교육센터를 겸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몇 개 지역(강원, 충북, 충남, 세종 등)에서는 지역진로교육센터 외 별도 기관으로 지역진로교육원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김민경, 문찬주, 방혜진, 이진솔 2023).

센터³⁶⁾는 학교에서 충분히 제공되기 어려운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형태가 많다고 하며, 교과와 연계하여 진로체험이 교과학습 및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진학센터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로 대입에 대한 입시상담과 개별화된 진학 컨설팅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일정 부분의 프로그램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개방하고 있는데, 충북에서는 시도 학교밖지원센터로부터 직업체험 신청을 받아 연 2회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인천에서는 진학상담교사가 학교밖 지원센터로 나가 개별 상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외에도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진로진학지원센터도 있다(예, 서울 금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②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대학, 학교 등의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기업, 직업관련 학원, 개인사업자 등의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³⁷⁾ 인증제도는 2016년부터 실시되었고 2024년도 하반기 선정 결과를 기준으로 총 411개의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수도권 소재 기관이 119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권이 96개로 많았다(교육부, 2024b)(표 III-6 참조)

또한 직업군별 인증기관 정보를 살펴보면(표 III-7), 총 10개 직업군을 기준으로 4개부터 128개의 기관이 선정되었고 ‘예술·방송, 디자인, 스포츠’ 분야 기관이 128개로 가장 많았다(교육부, 2024b).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 목록은 꿈길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진로체험프로그램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6) 이 문단은 6장에서 제시한 현장 전문가 FGI로부터 도출된 내용을 근거로 서술하였음.

37) 출처: 꿈길 홈페이지(<https://www.ggoomgil.go.kr/front/cert/expPlaceCertificationInfo.do>)에서 2025.2.3. 인출

표 III-6. 신청대상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 선정결과(2024년 하반기)

(단위: 개)

권역	공공부문 121개(17개), 29.4%(27.9%)				민간부문 290개(44개), 70.6%(72.1%)					계
	중앙 부처(청)	지자체	공공 기관	대학 /학교	청소년 단체	민간 단체	기업	개인 사업장	학원	
수도권	2	5(2)	20(2)	3	3	29(3)	13(5)	37(7)	6	119(19)
충청권	6	4	4(3)	4(1)	1(1)	12(3)	10(2)	23(1)	4	68(11)
호남·제주권	1	-	14(3)	1	2	19(5)	6(3)	32(2)	3	78(13)
강원·대구·경북권	2	3	9(2)	-	2	8(1)	3(1)	20(3)	3	50(7)
부산·울산·경남권	3	1	23(2)	5	3(1)	13(2)	8(3)	37(3)	3	96(11)
계	14	13(2)	70(12)	13(1)	11(2)	81(14)	40(14)	149(16)	20	411(61)

* 출처: 교육부 (2024b). 2024년 하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 공고(교육부 공고 2제 2024-437호). p.2.

* 주 : ()의 숫자는 신산업 분야 관련 기관 수

표 III-7. 직업군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 선정결과(2024년 하반기)

(단위 : 개)

권역	직업군*	경영· 사무· 금융· 보험	연구 공 학 기술	교육·법률 사회복지 경찰·소방 군인	보건 의료	예술·방송 디자인 스포츠	미용·여행 숙박·음식 경비·청소	영업· 판매 운전· 운송	건설 채굴	설치 정비 생산	농림 어업	계
수도권	6	19(11)	20(1)	5	45(5)	12(1)	1	1	2	8(1)	119(19)	
충청권	1	13(6)	6(1)	3	21(3)	8	4(1)	-	1	11	68(11)	
호남·제주권	3	13(6)	12(2)	1	20(1)	14	2	2	1	10(4)	78(13)	
강원·대구·경북권	-	7(2)	10(1)	1	14(3)	8	-	-	1	9(1)	50(7)	
부산·울산·경남권	4	22(4)	14	4(1)	28(3)	12	1	1(1)	1	9(2)	96(11)	
계	14	74(29)	62(5)	14(1)	128(15)	54(1)	8(1)	4(1)	6	47(8)	411(61)	

* 출처: 교육부 (2024b). 2024년 하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 공고(교육부 공고 2제 2024-437호). p.2.

* 주1: () : 신산업 분야 관련 인증기관 수 / * 주2: 한국고용정보원(2018)의 한국고용직업분류표 대분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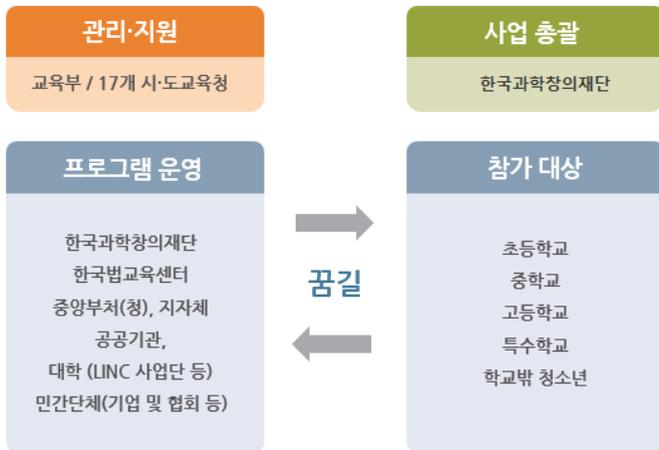
③ 진로체험지원센터

교육부 진로교육 정책의 중심이 되는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역사회 내 체험처 확보, 프로그램을 기획 및 컨설팅, 학교와의 의견조율, 청소년의 사전·사후교육 진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된다(김승보 외, 2018). 2024년 기준으로 전국의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총 219개로 경기도가 31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5개, 경북과 전남이 22개, 강원과 경남이 18개 순으

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과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를 통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대상자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진로체험지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진로탐색지원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진로체험버스, 대학진로탐색캠프,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창업체험센터로 구분할 수 있다.⁴⁰⁾ 이 중 학교 밖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진로체험버스, 창업체험센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진로체험버스

진로체험버스는 “진로체험 기회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농산어촌, 구도심 등 상대적으로 체험기회가 부족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멘토 또는 체험버스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거나, 학생들이 체험처로 찾아오는 형태로 운영되는 교육부의 진로교육 브랜드”⁴¹⁾이다. 진로체험버스는 진로 체험전망인 꿈길을 통해 신청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으로 전국의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지원기관까지 대상으로 하여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가정형Wee센터, Wee스쿨, 학교폭력피해학생전담기관과 성평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 출처: 꿈길 홈페이지(<https://www.ggoomgil.go.kr>)에서 2025.2.3. 인출

그림 III-7. 진로체험버스 운영 체계

40) 출처: 꿈길 홈페이지(<https://www.ggoomgil.go.kr/front/info/info07.do>)에서 2025.2.3. 인출

41) 출처 상동

○ 창업체험센터

창업체험센터는 스타트업 캠퍼스로, '청소년들이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⁴²⁾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스타트업 캠퍼스 투어, 창업가 특강, 창업가 정신 교육,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체험이다. 스타트업 캠퍼스 투어는 스타트업과 관련된 연구·교육·지원기관 등의 현장을 둘러보며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프로그램이고, 창업가 특강은 스타트업 및 창업현장 전문가의 특강 및 멘토링을, 창업가 정신 교육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포착하여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작하는 활동을 제공한다. 4차 산업 신기술 체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는 핵심기술을 체험 및 이해하고 기술로 인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3) 고용노동부⁴³⁾

고용노동부(2025)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2025.1.10.)」을 통해 '청년과 노동자를 위한 따뜻한 노동현장'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제시하였다. 특히 '청년들의 빠른 취업을 위한 촘촘한 지원'의 일환으로 '쉬웠음' 청년으로 명명한 미취업 청년 5만 명을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발굴하여 청년고용케어를 통해 심리상담 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또래지원단을 신설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경로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일경험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과 인원을 확대하여 채용트렌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훈련수당을 제공한다. 관련부처와 함께 청년이 선호하는 첨단산업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도 계획했다. 이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예산을 2024년 1조 924억 원에서 2025년 1조 2,046억 원으로 확대하였다(고용노동부, 2025: 13).

청년지원을 위한 국정과제의 경우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등이 있다⁴⁴⁾. 디지털 인재 양성을

42) 출처 상동

43) 고용노동부(2025).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24 홈페이지 고용정책소개(<https://www.work24.go.kr>), 한국잡월드 홈페이지(<https://www.koreajobworld.or.kr>), 노동부 보도자료(2004.10.29.), 한국잡월드 보도자료(2023.6.28.) 등을 토대로 발췌·요약함에 따라 포괄적/개괄적으로도 출처를 표기하고 이외 출처들에 대해서는 본문 및 각주로 상세 표기하였다.

44)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policy/agenda/agendaList.do>)에서 2025.9.19. 인출

위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취약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청년도약준비금’ 신설을 검토한다. 이때, 취약청년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소)년, 고립·은둔청년 등을 포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취·창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용24 플랫폼, 미래내일일경험 통합플랫폼, 한국산업인력공단, 종합직업체험관(한국잡월드)의 주요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고용24 플랫폼

고용24 플랫폼은 고용노동부에서 한국고용정보원과 구축 및 관리하는 개인과 기업 대상 서비스 제공 플랫폼이다.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년 대상 사업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은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다.⁴⁵⁾

○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⁴⁶⁾ 지원자격은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인 구직단념청년이다. 이때, 지원자격을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으로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크게 단기 프로그램, 중기 프로그램, 장기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24 플랫폼 혹은 자치단체 청년센터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자에 한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45)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List.do>)에서 2025.9.19. 인출

46) 출처: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2025.9.29. 인출

표 III-9.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프로그램

구분	단기 프로그램	중기 프로그램	장기 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5주 이상, 총 4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 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이수 시 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음.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 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수 시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수 수당 20만원, 취업인센티브* 포함 최대 220만원)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후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 밀착상담, 사례관리, 진로 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 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수 시 최대 5개월간 월 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수 수당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30만원, 취업인센티브* 포함 최대 350만원)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후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지급

* 출처: 고용24 고용정책소개 청년도전지원사업(<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Id=SI00000319&sysCntId=CI00001051&sysCId=SC00000189>) 내용을 재구성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69세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한다.⁴⁷⁾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준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대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만 15~34세 청년의 경우 소득기준과 상관 없이 참여 가능하다.⁴⁸⁾ 지원을 받는 서비스로는 크게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 준비 수당, 취업 성공 수당, 기타가 있다(〈표 III-10〉 참조).

표 III-10.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구분	내용
취업 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준비 중인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 • 취업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1:1 취업 상담, 진로 상담 • 구직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사람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 교육/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직업훈련

47) 출처: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2025.9.29. 인출

48) 출처 상동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에 출근해 근무 체험을 해보거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 또는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 ▶ 취업하고 싶지만, 금융, 돌봄, 주거, 질병 등 어려움이 있는 사람(관련 기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회생/파산 지원, 신용 회복 지원, 소상공인 용자, 법률 서비스 • 한부모, 조손가족 등 지원 프로그램, 아이돌봄 서비스, 임대주택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 취업 여건이 양호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소개와 기업에 인재 추천, 모의 면접 등 ▶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관련 기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기업부 K-스타트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취업 준비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촉진수당: 생계 걱정을 덜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함.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한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2유형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활동비용: 저소득층이 아닌 참여자에게도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성실히 참여할 경우 최대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하면 15~25만원 지급(1회) ▶ 취업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원(6개월) ▶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을 경우 월 2만원(3개월)
취업 성공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수강료 결제할 때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일반인에 비해 낮음

* 출처: 고용24 홈페이지 고용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https://www.work24.go.kr>) 2025.9.29. 인출하여 위 내용을 재구성.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의 일종으로 “청년, 중장년 등 일자리를 찾거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의 기초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모든 과정이 인터넷 원격으로 제공되어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⁴⁹⁾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키울 수 있는 직무능력’, ‘훈련비’, ‘훈련장려금’으로 살펴볼 수 있다.

49) 출처: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2025.9.29. 인출

표 III-11.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내용

구분	키울 수 있는 직무능력	훈련비	훈련장려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이썬 등을 활용한 기초 코딩부터 빅데이터 분석, 웹 디자인, 영상편집, 메타버스 공간만들기, 3D 캐릭터 제작, 가장 최근에 등장한 ChatGPT 활용까지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을 초·중급 수준으로 제공함 100% 원격훈련으로 제공되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훈련을 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5년간 300~500만원) 외에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수강료 결제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됨 내일배움카드에서 지원하는 훈련비로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고 수강료 중 일정한 비율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단, 본인 부담액은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환급받을 수 있음(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강평 작성 후 6개월 이내 환급 신청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 인터넷 원격훈련이기 때문에, 내일배움카드로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훈련장려금(교통비, 식비)은 지급되지 않음

* 출처: 고용24 홈페이지 고용정책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https://www.work24.go.kr>)에서 2025.9.29. 인출하여 위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② 미래내일 일경험 통합플랫폼

미래내일 일경험 통합플랫폼은 2023년 3월 개시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1월에 오픈하였다. 미래내일 일경험 통합 플랫폼에서는 신청 가능한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은 “직무역량을 증시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고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⁵⁰⁾ 일경험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구분하면(〈표 III-12〉 참조),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기업 탐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턴형은 실전형 직무역량 강화지원을 목적으로 국내외 우수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는 유형이고, 프로젝트형은 직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의 현업에 기반한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유형이다. ESG지원형은 기업 등이 ESG 경영 차원에서 수행하고

50)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에서 2025.9.19. 인출

있는 일경험 및 직무훈련 등의 청년고용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하는 유형이고, 기업탐방형은 진로 설정 및 직무탐색을 목적으로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를 체험하고 현직자 멘토인 및 CEO·인사담당자 대화 등에 참여하는 유형이다.⁵¹⁾

표 III-12. 일경험 프로그램 유형별 세부내용

유형	인턴	프로젝트	ESG지원	기업탐방
목적		직무역량 강화		진로 설정 및 직무탐색
기간	1~5개월 내외	2개월 내외	6개월 이내	5일 내외
대상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에서 과업 직접 수행 과업 수행을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에서 제안한 프로젝트를 팀별 수행 기업·운영기관에서 수행 과정 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 수행 운영기관에서 모니터링 및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체험, CEO 및 현직자와의 대화 등
교육	사전 직무교육 (직업기초능력+직무교육)		프로그램 안내	직업기초능력 교육(OT)
지원 내용	(기업) 멘토수당 등 운영비 (청년) 참여 수당 등 (운영기관) 운영비	(기업) 코칭·심사 등 운영비 (청년) 참여 수당·활동비 (운영기관) 운영비	운영비 지원 (대기업 50% 매칭)	(기업) 시설 이용 등 운영비 (운영기관) 운영비
인원	1만 9천명	6천명	8천명	1만 5천명

*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View.do?policy_itrd_sn=6)에서 2025.9.19. 인출하여 위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의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내는 국가자격 사이트인 큐넷(Q-Net)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

○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은 청년의 구직활동 및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한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23.12.27). 지원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 50%를 지원하는

51)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에서 2025.9.29. 인출

사업이다. 응시료 지원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결제할 때 자동으로 결제되고 매년 연간 3회까지 지원이 된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23.12.27.). 2021년 국가자격 효용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자격취득자의 취업률은 59.1%로 미취득자(46.1%)보다 높았다.

④ 종합직업체험관(한국잡월드)

종합직업체험관(한국잡월드)은 2004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의 설립계획을 통해 설립이 추진되었다(노동부 보도자료, 2004.10.29.). 종합직업체험관은 설립 당시 청년실업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제시되었고 초등 시기부터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참가형 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였다(노동부 보도자료, 2004.10.29.). 현재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 2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유료 이용기관으로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다. 본관에는 진로설계관, 어린이체험관, 청소년체험관, 메카이브(만들기 체험관)가 있고, 별관은 숙련기술체험관으로 운영된다.⁵²⁾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 가능한 시설은 진로설계관, 청소년체험관, 숙련기술체험관이다. 진로설계관은 놀이형 검사 및 진로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성과 흥미를 알아보고 맞춤형 진로 탐색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체험관이며, 청소년체험관은 실제 직업 현장과 유사하게 조성된 체험실에서 역할연기 방식으로 직업을 체험하는 공간이다.⁵³⁾ 숙련기술체험관 체험실은 첨단기술, 기초기술, 전통기술의 세 분야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⁵⁴⁾

종합직업체험관(한국잡월드)에서는 2023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진로 프로그램인 ‘커리어 네비게이션’을 운영하기도 하였다(한국잡월드 보도자료, 2023.6.28.). 무료 진로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협업하며 학업 중단 청소년과 중단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한 직업 가치관 형성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되었다. 참가 신청은 2023년 당시, 한국잡월드 홈페이지에서 전국 학교 밖 지원센터 별로 예약을 받아 운영하였으나(한국잡월드 보도자료, 2023.6.28).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기관은 2022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우수 협력기관으로 선정되어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바 있다.

52) 출처: 한국잡월드 홈페이지(<https://www.koreajobworld.or.kr>)에서 2025.9.29. 인출

53) 상동

54) 상동

3. 소결

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법률 논의

학생 대상의 진로지원 및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률과 비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법률상의 쟁점을 첫째, 진로개발역량 및 역량 함양에 대한 제한적 포함, 둘째, 전문적 진로지원 방안(기관 및 인력)의 부재로 정리하였으며 각각의 내용은 이하와 같다.

(1) '자기 이해'에 대한 제한적 포함

「진로교육법」에 따르면 '진로개발역량'이란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직업세계에서 끊임없이 진로를 개발하고 발전시켜갈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즉, 당장의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과 같은 직업교육 및 훈련과는 대조되며, 만 20세 이전 청소년에게는 직업교육과 훈련보다는 특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표 III-13. 진로 자아 탐색 관련 법령 내 비교

법률		조항	표현/내용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 원칙)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실시)
학생	「진로교육법」	제1조(목적)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
		제2조(정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 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의 책무)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 출처: 진로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5.1.23. 인출 및 내용 확인.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한 후 체험과 훈련을 실시한다

는 점에서 자기 탐색 및 진로개발역량의 일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목적은 진로 체험과 훈련을 위한 것으로 제한적이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도 직업능력의 개발이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이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들고 있어서 역시 자신에 대한 이해도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과 방법적인 구체성이 낮다. 반면, 학생 대상 「진로교육법」에서는 법령의 목적과 정의, 기본 방향 등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로개발역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제5조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로도 명시하여 강조하고 있다.

(2) 전문적 진로지원 방안 부재

전문적인 진로지원 방안이란 즉, 기관이나 인력을 의미한다. 학생의 경우에는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직업교육과 훈련을 위한 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진로교육법」에 근거한 진로 전문인력(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 등)과의 상담과 검사 및 진로 교육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원 사업의 플랫폼이 일원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55)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상담·교육지원을 포함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부터 지역사회 자원 발굴·협력,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홍보,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과 확산 사회적 인식개선, 그 밖에 필요한 사업까지 다양한 기능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종사자는 심리상담사, 진로·진학상담사, 프로그램 및 활동 교사의 역할부터 지역 자원 발굴과 연계의 허브, 검정고시 지원까지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같은 조 ③항에서 ‘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무 여건 개선과 인건비 확보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55)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상담, 교육, 직업 및 취업, 자립, 건강진단)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같은 상황에서 각 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진로교육센터나 인증받은 체험처 같은 지역의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스템 등을 제안하여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즉,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연계처를 발굴·검증하고 활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연계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것이다. 공공부문인 진로교육원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등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나 지역의 민간 체험처에 대한 활발한 정보공유 등이 해당될 것이다. 또한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희망하고, 많은 청소년이 대학 진학 혹은 그 이상까지도 학업을 지속하길 바라고 있어서 학업에 대한 연계 확대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제도 및 정책 논의

각 부처별 주요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평등가족부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가 제한적인 프로그램을 세밀히 살피고 보완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다만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진로 프로그램의 경우 구조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가 제한되기도 하였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인증하는 양질의 청소년수련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사회 내 총 867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접근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그중 10개 시설은 국립청소년수련원으로 시설별 특화된 양질의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은 시설을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학교단체숙박형, 개별단위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활동의 유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은 참여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보인다. 가령, 학교단체숙박형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 단위로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는데 학교 단위 프로그램 참여신청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은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안내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단체숙박형 프로그램과 같이 학교 단위 신청만 가능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을 모집 및 신청하는 등의 구조적인 보완도 가능해 보인다.

둘째, 교육부의 경우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정책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포함할 수 있다. 교육부(2023)에서는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에 따라 진로교육의 다양화 및 고도화 노력뿐 아니라 진로교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특히 진로교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 과제의 대상이 되는 진로취약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사업이 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진로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체가 각 17개 시도교육청이므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 사업을 적극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진로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로체험센터나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기관과 같은 다양한 외부 자원을 연계·활용하고 있어 이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에 포함하는 진로교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 적극 활용할 수 있어 보인다. 특히 신규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운영 시 교육부와 여가부 간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처 간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나아가 기존 정책 중 물리적 제약이 없는 경우를 발굴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다. 가령, 교육부 진로탐색지원사업 중 대학진로탐색캠프,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의 경우 ‘학교’라는 물리적 환경의 제약이 없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대학생진로캠프는 도서벽지, 읍면지역, 중소도시 소재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은 학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어 보인다. 이처럼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을 전제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진로지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고용노동부의 경우 정책 대상자에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다수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자신감 향상, 적성탐색, 종합직업체험 등의 구직준비단계 지원부터 일자리 경험 제공, 구직활동 및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디지털기초역량훈련,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등의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까지 단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책의 대상 역시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15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다수이므로 이를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각 정책의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진로교육 담당자와 개별 청소년에게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진로형 학업중단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부처 간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설립한 종합직업체험관에서 2023년에 운영했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료 진로 프로그램인 「커리어네비게이션」과 같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 역시 실제적인 정보를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제4장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 1.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개요
- 2. 자료 분석 방법
- 3. 주요 분석 결과
- 4. 소결

본 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특성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에 구축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 밖 청소년과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발달 상태와 정책 수요 등을 직접 설문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연구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사 접촉이 쉽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대규모 표본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1.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개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실태조사)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주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2021년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변경되어, 2015년부터 현재(2025년 9월)까지 총 4차례⁵⁶⁾에 걸쳐 실시되었다.

2023년 조사 대상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단기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접수장 등 7개 기관·장소를 이용하는 만9~24세 학교 밖 청소년이다. 검정고시 접수장을 제외한 6개 유형, 580여 개 기관에서 총 56,123명의 모집단 수를 확인하고 권역 및 기관 수를 확인하여 표본을 할당, 총 3,000여 명을 목표 표본수로 선정하였다. 검정고시 접수장의 경우 모집단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서 표본설계에서는 제외되었으며, 실태조사 공표시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응답 오류 검증 로직에 따라 일부 삭제된⁵⁷⁾ 표본을 제외하고 2,400명의 최종 분석 표본 수를 확보하였다(6개

* 이 장은 김성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56) 2025년 9월 현재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가 실시 중에 있어, 본 장에서는 2023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57) 표본수 삭제 사유는 대체로 연령대/성별 응답 오류, 학교를 그만둔 시기 응답 오류, 초등학교 미진학 등이다.

기관 2,400명, 검정고시 접수장 490명).

설문은 학업중단 시기 및 사유 등 ① 학업중단에 관한 일반사항, ②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③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④ 채무와 아르바이트 경험 등 경제상태, ⑤ 진로, ⑥ 지원프로그램(정책) 활용 현황 및 지원 요구, ⑦ 학교 밖 경험 및 생활실태 등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조사 내용에 따라 7개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상세한 조사 영역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V-1.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구 분	조사영역	조사내용
학업중단 관련 일반사항	학업 중단 시기와 이유	학교를 그만둔 시기, 학교를 그만둔 이유
	그만들 당시 경험	학교를 그만들 당시 성적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심리·정서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우울
	신체 건강	신체활동, 키, 몸무게, 건강검진 인지 및 경험 여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
	문제행동	흡연 경험, 음주 경험 자살 생각, 자살 생각 이유, 자살 시도 약물 경험, 문제행동 장소 돈내기 게임 경험 여부, 돈내기 게임 경험 빈도
	스마트폰 사용	
가족·친구관계	가족관계	학교를 그만들 당시와 현재의 부모님(보호자)태도 정서적지지, 경제적 지원 방임, 학대
	은둔경험	은둔 경험 여부, 은둔 기간 은둔이 된 계기, 은둔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
	사회적 관계	사회적 고립, 도움을 요청할 사람
경제상태	경제적 상황	가정의 경제적 수준, 월 평균 수입, 수입의 출처, 현재 갚아야 할 빚/채무, 빚/채무 이유(용도)
	학교 밖 이후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아르바이트 업종, 최저임금 이상 수령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아르바이트 시 부당대우 경험, 아르바이트 시 부당대우에 대한 대처 방법

구 분	조사영역	조사내용	
진로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계획		
	현재 주로 하는 일		
	진로직업태도	진로확신성, 진로준비성	
	진로결정	진로에 대한 계획,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시기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 대상이나 방법	
지원프로그램의 활용 현황 및 지원 요구	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 여부, 청소년증 사용처 청소년증을 발급받지 않은 이유	
	학교를 그만둘 당시 꿈드림센터 정보 제공 경험 여부		
	그만둘 당시 센터 연계	꿈드림센터 연계위한 개인정보 제공 등의 여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하지 않은 이유	
	지원 프로그램 이용 현황	학교를 그만둔 후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시기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 주로 한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이용 여부, 도움 정도	
		현재 꿈드림센터 이용 여부	
		현재 꿈드림센터 이용하지 않는 이유	
향후 꿈드림센터 참여의사 및 이유			
정책 수요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수요		
학교 밖 경험 및 생 활실태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경험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 여부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 이유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 않는 이유	
		학교를 그만둔 후 생활경험	
		학교를 그만둔 후 차별경험	
		학교를 그만둔 이후 가출 및 폭력 피해 경험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배경 요인	부모님, 본인 출생지, 그만두었던 학교의 소재지	

* 출처: 김희진 외(2023b).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27 <표 1-15>에서 '만12세 이상'의 조사영역 및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2. 자료 분석 방법

1) 분석 대상 및 특성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만16세~18세’의 학교 밖 청소년 응답율은 66.2%, 1,590명으로 응답률과 응답자 수가 가장 많다. 연령대에 따른 진로발달 상태에는 차이가 있으므로(이자형, 2015) 연령대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만12세~15세’의 경우에는 24.4%, 585명으로 표본 수가 다소 작고, 그 가운데 259명(44.3%)의 대안학교 재학 중 청소년을 제외하면 지역사회를 통한 진로지원이 유일할 수 있는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기에 표본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본 분석의 대상자인 ‘만16세~18세’의 개인 특성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IV-2. 만16세~18세 응답자 인적 특성

구분	명(비율)	구분	명(비율)
성별		가정의 경제수준	
남자	673(42.3)	상	190(12.0)
여자	917(57.7)	중	1244(78.2)
기관유형		하	152(9.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198(75.4)	중단학교 지역규모	
내일이룸학교	6(0.4)	대도시	539(33.9)
단기쉼터	13(0.8)	중소도시	846(53.2)
소년원/보호관찰소	147(9.2)	읍면지역	203(12.7)
대안교육기관	227(14.3)	학교를 그만둘 당시 성적	
응답자 유형 ⁵⁸⁾		상	366(23.0)
일반	1443(90.8)	중	488(30.7)
비행	146(9.2)	하	730(45.9)

분석 데이터의 ‘만16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구성을 보면 여자 청소년이 57.7%로 정확한 모집단 정보는 알 수 없으나, 조사 참여자 중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관 유형을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75.4%로 가장 많았다.

58) 응답자 유형의 ‘일반’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청소년단기쉼터,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청소년, ‘비행’은 보호관찰소와 소년원을 통해 조사된 청소년이다.

참고로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약 17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연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는 4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3). 전체 응답자의 약 10%가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비행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정고시 접수장을 통하여서도 일부 조사가 실시되나 자료분석을 위한 데이터에서는 표본설계 및 가중치를 통한 보정 등의 과정에서 제외되어 본 분석에서도 제외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중'이 78.2%로 많았는데 학생 대상인 「202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⁵⁹⁾와 비교하면 '상'의 응답비율이 적고 '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단학교의 지역규모는 중소도시가 53.2%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2025년 현재 대도시 거주자는 전체 인구의 42.8%, 2023년 기준 읍부, 면부 거주자는 18.9%인 점과 비교하여 보면(KOSIS 국가통계포탈, 2025.5.19) 중단학교 지역규모가 중소도시인 경우가 특히 학업중단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단, 모집단 정보는 아니므로 해석의 주의가 필요). 학업중단 시 성적은 '하'라는 응답이 45.9%로 많았는데, 마찬가지로 「202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⁶⁰⁾에서 '하'는 32.6%수준으로 이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학생에 비하여 경제수준과 학업성적은 낮게 인식하고, 학교 소재지가 중소도시인 경우가 많았다.

진로에 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1,590명 중 진로를 결정한 경우는 1,105명(69.5%)이며, 현재 어떠한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144명(9.1%)에 해당하였다. 「2024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의 71.0%가 희망 직업이 있었던 점과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으로 해석된다(교육부, 2024a).

표 IV-3. 향후 진로계획 및 현재 하고 있는 일

구분		명(비율)	구분		명(비율)
향후 진로계획	없음	480(30.3)	현재 하고 있는 일	없음	144(9.1)
	있음	1105(69.5)		있음	1438(90.9)

59) 학업중단이 가장 많은 시기인 중3-고2 학생의 가정 경제 수준에 대한 응답과 비교하였으며, 총 2,855명 중 '상' 1,517명(53.1%), '중' 1,056명(37.0%), '하' 283명(9.9%)로 나타났다.

60) 학업중단이 가장 많은 시기인 중3-고2 학생의 자신의 성적 수준에 대한 응답과 비교하였으며, 총 2,853명 중 '상' 796명(27.9%), '중' 1,127명(39.5%), '하' 930명(32.6%)로 나타났다.

2) 응답자 유형 구분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상태를 나타내는 변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에서는 정의적 특성인 진로성숙도, 진로탄력성을 다루기도 하였으나(예, 김성현, 2023; 박민정, 2022), 많은 연구들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상태 지표로서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 유무를 사용하였다(예, 박선하, 강영배 2021; 박지현, 황미영, 2017; 이재희, 이경상, 2018; 이화명, 김영미 2022; 하형자, 박희현, 2023). 본 연구 2장에서도 진로 결정과 준비를 주요한 진로 특성 변수로 제시하였고, 또한 기존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는 만큼 객관적 상태 지표인 진로결정 및 준비 유무를 활용하여 유형을 구분하였다.

표 IV-4. 응답자 유형 구분 기준 및 사례 수

(단위: 명, %)

		현재하고 있는 일 여부	
		있음	없음
향후 진로 계획	있음	[유형1] 1,049명(66.4%)	[유형3] 52명(3.3%)
	없음	[유형2] 387명(24.5%)	[유형4] 92명(5.8%)

두 문항은 각각 어떠한 진로를 결정하였는지, 어떠한 일을 현재 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과 여부를 함께 질문하는 문항으로, 여부를 기준으로 재코딩하여 유형 구분에 활용하였다.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진학을 준비하는 등의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와 창업준비, 직업훈련 등 직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서 넓은 범주에서 진로준비에 해당하는 활동들이었다. 다만 기존에 조사된 자료(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응답자 개인이 이를 진로준비로서 답변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유형2’는 진로결정은 하지 못하였으나 학업이나 직업분야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이고, ‘유형3’은 진로결정은 하였으나 현재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부여한 숫자 사이에는 심각성 등의 특성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진로를 결정한 ‘유형1’과 ‘유형3’의 결정이 이루어진 시기를 보면 각각 50.9%와 46.1%가 (일반)학교를 그만두기 전이었고, 각각 15.3%와 22.2%는 학교를 그만둔 후 6개월 미만으로 나타났다. 진로를 결정한 학교 밖 청소년의 약 70%는 학교를 그만두기 전 혹은 6개월 내 결정하였다. 또한 ‘유형1’ 60.4%, ‘유형3’ 57.6%는 진로를 혼자 결정하였다.

진로를 결정한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을 포함한 ‘정규학교 복학’과 ‘검정고시 준비’를 주요한 진로 계획으로 답하였다. ‘유형1’과 ‘유형3’의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IV-5.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

(단위: 명, %)

진로 계획	유형1	유형3
정규학교로 복학(대학 진학 포함)	492(46.9)	17(32.7)
대안학교 진학	24(2.3)	-
(대안학교를 다니지 않고)검정고시 준비	187(17.8)	11(21.2)
진학하지 않고 취업(창업)할 예정임	74(7.1)	3(5.8)
(취창업 대비)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임	62(5.9)	5(9.6)
취업과 진학 병행	82(7.8)	5(9.6)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임	31(3.0)	3(5.8)
해외 유학	63(6.0)	4(7.7)
기타	34(3.2)	4(7.7)
합계	1,049(100.0)	52(100.0)

한편, 현재 주로 하고 있는 특정한 일이 있는 청소년 유형은 ‘유형1’과 ‘유형2’인데, 주로 하고 있는 일 1순위로 응답한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표 IV-6.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

(단위: 명, %)

하고 있는 일	유형1	유형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 다니고 있음	316(46.9)	179(46.4)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음	149(2.3)	78(20.1)
대학에 다니고 있음	4(17.8)	2(0.5)
(대안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음	123(7.1)	26(6.6)
대입(수능)을 준비하고 있음	195(5.9)	15(4.0)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118(7.8)	62(16.0)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음	44(3.0)	7(1.8)
창업 또는 직장에 다니고 있음	27(2.6)	6(1.5)
기타	74(7.0)	12(3.0)
합계	1,049(100.0)	387(100.0)

3) 자료 분석 방법

진로 유형에 따라 다음의 변인을 비교하였으며, 분석 변인은 2장 선행연구 검토 내용을 근거로 데이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변인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IV-7. 유형별 분석 영역 및 내용

구분	영역	분석 내용
인적 특성	개인 특성	연령, 성별, 소속기관, 응답자 유형, 학교성적(중단 시)
	가정 특성	가정 경제수준, 중단 시 부모태도, 현재 부모태도
학업중단 관련 일반사항	중단 시기	중단 시기(학교급/학년), 중단학교 소재지
	학업중단 사유	학업중단 사유(1순위)
	중단 시 계획	학업중단 시 향후 계획
	중단 후 어려움	학업중단 후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학업중단 후 생활	중단 후 생활경험1	아르바이트, 유해장소 이용, 돈내기 게임 여부
	중단 후 생활경험2	대안학교, 검정고시, 진로상담, 직업훈련,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 등의 여부
신체적 특성	건강상태	신체운동 횟수(주간), 건강검진 여부, BMI
	흡연/음주	흡연 횟수(월간), 음주 횟수(월간)
심리정서적 특성	자신에 대한 생각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스마트폰 의존도	스마트폰 의존성 점수
	진로직업태도	진로 확산성, 진로 준비성
정책 경험 및 수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지 및 이용 여부, 계속 이용 및 참여 의향
	지원(사업)수요	진학 및 학업, 진로직업 관련 지원(사업) 수요
	참여효과분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참여 효과

(1) 빈도변인 분석 방법

빈도변인은 빈도와 각 유형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형 내 비율(%)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조사 당시 로직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무응답이 포함된 문항이 많지 않고, 최대 2% 수준임을 확인하여 무응답 범주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2.5%이상인 문항에 대해서는 구조적 무응답으로 간주하여 결과표에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2) 연속변인 분석 방법

연속변인인 자신에 대한 생각(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스마트폰 의존도, 진로직업태도의 경우에는 평균값을 제시하고 t-test를 통한 비교 검정을 실시하였다. 4개 유형이지만 집단 간 규모 차이가 크고, 소규모 집단에 대하여서는 평균 차이가 크더라도 계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대규모 집단 간에는 적은 차이에도 유의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 크기의 영향을 줄이고, 분석 결과의 함의를 직접적으로 정책제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진로미결정 및 미준비 유형2, 3, 4와 유형1로 나누어 두 집단 비교 검정을 실시하였다.

(3) 지원(사업) 참여 효과 분석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지원(사업)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참여가 미결정·미준비 상황을 완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은 진로유형이고, 독립변인은 선행연구 검토(2장 제시)를 통하여 영향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변인들을 투입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준용하여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을 투입한 모형 I 과 검증하고자 하는 정책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II을 비교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결정계수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변화량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각 변인 유의성과 Hosmer & Lemeshow 지표로 모형적합도 등을 비교하였다. 또한 Cox & Snell과 Nagelkerke 지표로 모형(추정)설명력을 살펴보았다. SPSS Statistics 20.0를 사용, 투입된 변수 및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IV-8.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투입 변수

	투입 변수		값	투입 근거(출처)
종속 변수	성별	남자, 여자	여자=0, 남자=1	(기본)개인 특성 변수
	만 나이	16세, 17세, 18세	16, 17, 18	
	응답자 유형	비행 또는 일반	비행=0, 일반=1	하정화, 박금식, 허두진, 2012
	(중단 시)부모태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없으셨다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	이재희, 이경상, 2018 박민정, 2022
	(중단 시)학업성적	상, 중, 하	상=3, 중=2, 하=1	전혜숙, 2022
	자아존중감	-	연속변수(1~4)	김성현, 2023
독립 변수	지원사업 참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없다=0, 있다=1	연구 관심 변수
	진로 유형	유형1 vs 유형2, 3, 4	유형1=0, 유형2, 3, 4=1	연구 대상 변수

3. 주요 분석 결과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만16세~18세 청소년 응답에 대하여 유형별 1) 인적 특성, 2) 학업중단 관련 일반사항, 3) 학업중단 후 생활, 4) 신체적 특성, 5) 심리·정서적 특성, 6) 정책 경험 및 수요의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으며,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인적 특성

유형별 인적 특성을 보면, 현재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고, 진로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유형4’에서 남자 청소년의 비율과 소속기관이 보호관찰소인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진로 결정은 하였으나, 준비는 하고 있지 못한 ‘유형3’과 마찬가지로 응답자 유형이 비행인 경우가 40% 이상을 차지하였다. ‘유형4’는 70% 이상의 청소년이 학업중단 시 성적을 ‘하’로 응답하였다.

표 IV-9. 유형별⁶¹⁾ 인적 특성

(단위: 명, 열%)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연령 (만나이)	16세	342(32.6)	132(34.0)	19(37.4)	33(35.7)
	17세	463(44.2)	171(44.1)	17(32.4)	44(47.4)
	18세	244(23.3)	84(21.8)	15(29.4)	16(17.0)
성별	남자	406(38.7)	176(45.6)	26(49.3)	58(63.2)
	여자	644(61.4)	210(54.3)	26(49.9)	34(36.8)
소속 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832(79.4)	278(71.8)	28(53.3)	52(56.6)
	내일아름학교	5(0.5)	1(0.2)	-	-
	단기쉼터	9(0.8)	2(0.5)	1(1.9)	1(1.1)
	소년원	9(0.8)	4(1.0)	8(16.0)	5(5.3)
	보호관찰소	37(3.6)	33(8.5)	15(27.9)	34(36.4)
	대안교육기관	158(15.0)	69(17.8)	-	-
응답자 유형	일반	1004(95.7)	350(90.4)	29(55.2)	54(58.3)
	비행	46(4.4)	37(9.5)	23(44.0)	38(41.8)
학교 성적	상	308(29.4)	45(11.6)	6(10.6)	7(8.1)
	중	317(30.2)	132(34.1)	17(32.2)	19(20.3)
	하	424(40.4)	205(52.9)	29(56.4)	66(71.6)

61) 유형1: 향후 진로계획 있음, 현재 하고 있는 일 있음. 유형2: 향후 진로 계획 없음, 현재 하고 있는 일 있음
 유형3: 향후 진로계획 있음, 현재 하고 있는 일 없음. 유형4: 향후 진로 계획 없음, 현재 하고 있는 일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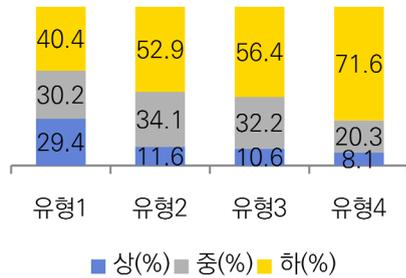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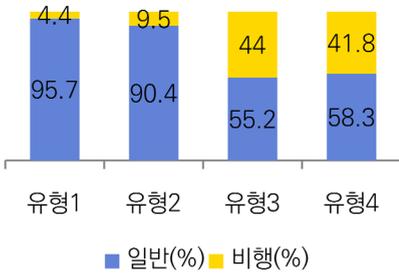


그림 IV-1. 유형별 일반·비행 분포

그림 IV-2. 유형별 학교성적 분포

현재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유형1’은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높고, ‘유형2’와 함께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되어있는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많았으며, 현재 진로 준비를 하고 있는 ‘유형2’와 ‘유형1’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되어있는 경우가 각각 71.8%, 79.4%로 많았다. 중단 시 학업 성적에 대하여서 ‘유형1’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성적을 ‘상’으로 답한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유형별 가정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IV-10. 유형별 가정 특성

(단위: 명, %)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가정 경제수준	상	132(12.6)	40(10.4)	9(17.3)	8(8.6)
	중	813(77.5)	312(80.7)	39(74.8)	71(77.4)
	하	102(9.7)	34(8.7)	4(7.0)	13(14.0)
중단 시 부모 태도	정서적 지지	853(81.3)	286(73.9)	40(76.3)	67(72.6)
	경제적 지원	882(84.0)	303(78.4)	42(80.9)	70(76.2)
	방임	163(15.5)	88(22.6)	13(24.9)	32(33.9)
	(언어)학대	112(10.7)	49(12.7)	13(24.9)	19(21.4)
현재 부모 태도	정서적 지지	964(91.9)	337(87.1)	46(88.1)	81(88.2)
	경제적 지원	889(84.8)	313(80.9)	43(81.8)	72(78.1)
	방임	149(14.2)	88(22.7)	12(22.8)	22(23.9)
	(언어)학대	62(5.9)	31(8.0)	9(17.0)	13(14.4)

* 주: 부모님(보호자)의 태도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합계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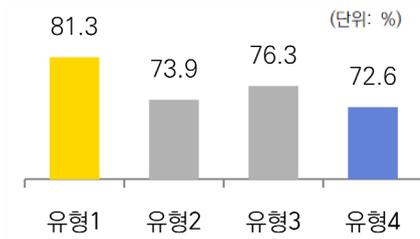


그림 IV-3. 중단 시 부모 태도 '정서적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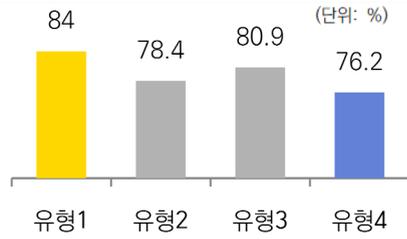


그림 IV-4. 중단 시 부모 태도 '경제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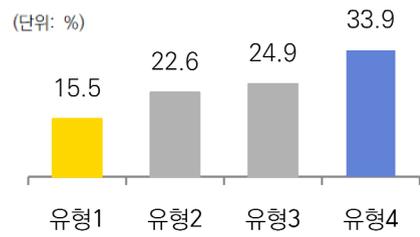


그림 IV-5. 중단 시 부모 태도 '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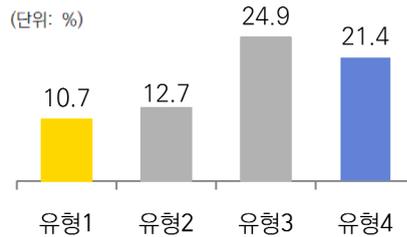


그림 IV-6. 중단 시 부모 태도 '(언어)학대'

유형별 가정 특성을 보면, '유형4'에서만 가정의 경제수준을 '하'로 답한 경우가 '상'보다 많았다. 중단 시 부모님의 태도를 보면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 같은 긍정 요소에 대해서는 긍정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고, 방임과 (언어)학대와 같은 부정 요소에 대해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업중단 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셨다(방임)'의 비율이 33.9%로 가장 높았다. 반면, 중단 시 및 현재 부모님의 태도는 '유형1'에서 긍정 요소의 비율이 가장 높고, 부정 요소의 비율은 가장 낮았다. 특히, 현재 부모님의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91.9%에 달하였다.

2) 학업중단 관련 일반사항

중단 시 학교 소재지를 보면 '유형4'가 읍면리 지역인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약간 높게 나타났고, 중단 시점은 고등학교 이후 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유형1'은 초등학교 시기 학업중단율이 10.4%로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 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각 집단별 고등학교 입학 이후 학업을 중단한 경우는 ‘유형4’ 79.1%, ‘유형3’ 83.2%, ‘유형2’ 69.1%, ‘유형1’ 69.1%이었다.

표 IV-11. 유형별 학교 소재지 및 학업중단 시 학교급·학년

(단위: 명, 열%)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중단 학교 소재지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363(34.6)	124(32.0)	20(37.8)	30(32.1)
	중소도시(시·군·구·동)	566(53.9)	206(53.3)	23(44.2)	44(48.0)
	읍·면·리 지역	120(11.4)	56(14.4)	9(17.1)	18(19.2)
중단 학교급·학년	초등학교	110(10.4)	20(5.2)	2(3.9)	2(2.3)
	중학교 미진학	45(4.3)	7(1.8)	-	1(1.4)
	중학교	100(9.5)	63(16.1)	1(2.2)	10(11.0)
	고등학교 미진학	72(6.8)	30(7.7)	5(9.4)	6(6.8)
	고등학교 1학년	450(42.9)	178(46.1)	28(53.8)	52(57.0)
	고등학교 2학년	259(24.7)	82(21.2)	13(25.5)	18(19.8)
	고등학교 3학년	15(1.5)	7(1.8)	2(3.9)	2(2.3)



그림 IV-7. 중단 사유 ‘심리·정신적인 문제’ 그림 IV-8. 중단 사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유형별 학업중단사유를 보면, ‘유형4’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유형3’은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유형2’와 ‘유형1’은, ‘심리·정신적 이유’를 주요 사유로 응답하였다. 학업중단사유는 여러 항목에 걸쳐 다양하게 응답이 흩어져있는 양상을 보이나, 2순위 응답을 보면 진로를 결정한 ‘유형3’과 ‘유형1’은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가 공통 2순위로 높게 나타났다. 또 앞서 ‘부모님의 태도’ 요인이 비교적 긍정적이었던 ‘유형2’와 ‘유형1’은 부모님의 권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4’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가 1순위였는데 이는 복합적인 의미를 포괄하며, 학교·학업에 대한 동기 및 흥미가 없거나, 무기력감·우울감이 있는 경우, 취침/기상 시간 등의 자기관리 부족이 해당할 수 있어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유이다. 2순위, 3순위 사유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와 ‘공부하기 싫어서’, ‘심리·정신적인 문제’인 것을 볼 때 ‘유형4’에서 특히 이들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표 IV-12. 유형별 학업중단사유

(단위: 명, 열%)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신체 건강상 이유	46(4.4)	21(5.5)	4(7.8)	3(3.3)
심리·정신적인 문제	206(19.8)	72(18.7)	4(7.8)	8(8.7)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18(1.7)	22(5.7)	3(5.9)	12(13.0)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66(6.3)	29(7.5)	4(7.8)	9(9.8)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12(1.2)	6(1.6)	4(7.8)	7(7.6)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7(0.7)	1(0.3)	-	-
부모님과 갈등, 가정불화	12(1.2)	7(1.8)	-	1(1.1)
부모님의 권유로	107(10.3)	40(10.4)	1(2.0)	2(2.2)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	16(1.5)	7(1.8)	3(5.9)	2(2.2)
학업(내신)성적이 잘 안 나와서	39(3.7)	14(3.6)	1(2.0)	1(1.1)
공부하기 싫어서	18(1.7)	18(4.7)	5(9.8)	8(8.7)
내 특기를 살리려고	63(6.0)	4(1.0)	1(2.0)	4(4.3)
이민 또는 해외 유학	44(4.2)	8(2.1)	1(2.0)	-
돈을 벌고 싶어서	14(1.3)	10(2.6)	1(2.0)	5(5.4)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107(10.3)	25(6.5)	6(11.8)	4(4.3)
학교 밖에서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27(2.6)	3(0.8)	1(2.0)	-
학교 친구(선후배 포함)들과의 문제(폭력, 따돌림 포함)로	68(6.5)	23(6.0)	3(5.9)	7(7.6)
선생님과의 갈등 때문에	16(1.5)	9(2.3)	1(2.0)	4(4.3)
학교 수업이 지루하고 흥미 없음	46(4.4)	11(2.9)	2(3.9)	5(5.4)
학교의 규칙이 엄격해서(징계 포함)	6(0.6)	6(1.6)	-	3(3.3)
학교 분위기가 나와 잘 맞지 않아서	53(5.1)	21(5.5)	-	1(1.1)
학교가 너무 멀어서	9(0.9)	8(2.1)	1(2.0)	3(3.3)
보호(또는 형사)처분을 받아서	7(0.7)	3(0.8)	4(7.8)	2(2.2)
기타	36(3.5)	17(4.4)	1(2.0)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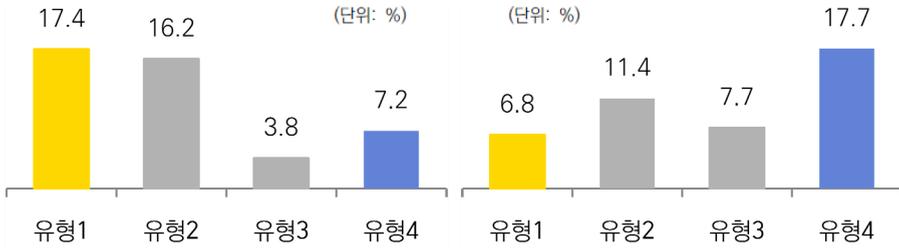


그림 IV-9. 중단 시 계획 '대안학교 진학' 분포

그림 IV-10. 중단 시 계획 '구체적 계획 없음'

다음으로 학업 중단 시 계획을 보면 모든 유형에서 검정고시 준비가 가장 많았다. 2순위 사유에는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유형4', '유형3'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 '유형2'와 '유형1'은 대안학교 진학(전학 포함)으로 나타났다. '유형3'은 계획이 없었던 경우가 7.7%로 '유형2'의 11.4%보다 적은 수준이지만 대부분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계획함에 따라 2순위 사유로 나타났다.

표 IV-13. 유형별 학업중단 시 계획

구분	(단위: 명, 열%)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대안학교 진학	183(17.4)	63(16.2)	2(3.8)	7(7.2)
검정고시 준비	679(64.7)	242(62.5)	37(71.3)	56(60.9)
해외 유학	29(2.7)	5(1.3)	2(3.8)	1(1.4)
대학 진학 준비	27(2.6)	8(2.2)	2(3.8)	1(1.4)
취업(창업)	24(2.3)	7(1.8)	2(3.8)	3(3.4)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준비 포함)	9(0.9)	4(1.0)	-	-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	10(0.9)	10(2.5)	1(2.1)	5(5.9)
상담 및 체험활동 (저연령) 홈스쿨링	6(0.5)	2(0.5)	-	-
기타	11(1.1)	2(0.5)	2(3.8)	2(2.3)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	71(6.8)	44(11.4)	4(7.7)	16(17.7)

* 주: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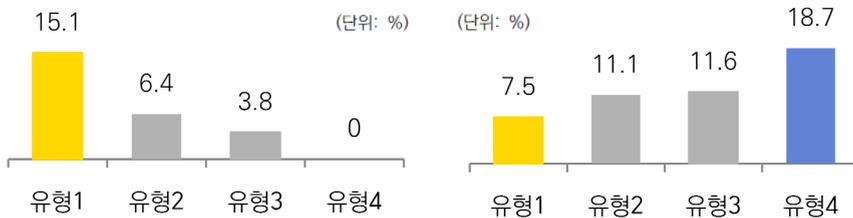


그림 IV-11. 중단 후 어려움 '대학진학 정보 접촉'

그림 IV-12. 중단 후 어려움 '의욕 없음'

유형별 학업중단 후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면, 대부분 집단에서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사례 수가 가장 적은 '유형3'만 1순위 사유는 선입견과 편견 등이었고, 2순위 사유로 어려움이 없었다가 많았음).

각 집단의 2순위 사유를 보면 '유형4'는 의욕 없음과 무기력함이었고, '유형2'는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 '유형1'은 대학 진학 정보 획득이었다. 현재 진로 준비를 하고 있는 '유형2'와 '유형1'은 진로와 진학 등 비교적 미래에 관한 탐색과 준비 면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유형4'에서 특히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는데, 이는 아직 본격적인 미래 고민과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표 IV-14. 유형별 학업중단 후 겪고 있는 어려움

(단위: 명, 열%)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부모와의 갈등	58(5.6)	37(9.6)	3(6.5)	10(11.1)
선입견, 편견, 무시	153(14.5)	38(9.8)	11(20.8)	13(13.7)
정서적 지원/지지 부족	44(4.2)	7(1.7)	2(3.8)	1(1.4)
내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의 어려움	95(9.1)	61(15.9)	6(11.6)	8(8.8)
대학진학관련 정보 찾기의 어려움	158(15.1)	25(6.4)	2(3.8)	-
필요한 도움을 받을 곳 없음	14(1.4)	5(1.4)	3(6.5)	1(1.4)
자널 곳 찾기의 어려움	3(0.3)	2(0.4)	1(2.1)	-
나 혼자라는 불안	43(4.1)	16(4.1)	3(6.5)	1(1.4)
의욕 없음(무기력함)	78(7.5)	43(11.1)	6(11.6)	17(18.7)
일,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움	22(2.1)	12(3.2)	2(3.8)	5(5.4)
건강이 안 좋음	11(1.0)	3(0.8)	1(2.1)	-
학교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51(4.8)	13(3.5)	2(3.8)	1(1.4)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어려움	68(6.5)	20(5.1)	2(3.8)	4(4.3)
어려움이 없었음	235(22.4)	99(25.5)	9(16.7)	30(32.7)

3) 학업중단 후 생활

학교를 그만둔 이후 아르바이트 경험과 유해 장소 이용, 도박 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유형4’, ‘유형3’에서 대부분에 대하여 빈도 및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형1’은 가장 낮았다.

표 IV-15. 유형별 학업중단 후 아르바이트 및 유해 경험

(단위: 명, %)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학업중단 후 아르바이트	498(47.5)	193(49.8)	30(58.5)	60(65.0)	
청소년 유해장소 이용	비디오/DVD방	26(2.4)	24(6.3)	5(10.1)	7(7.3)
	유흥/단란주점	42(4.0)	20(5.2)	9(17.0)	15(16.0)
	나이트클럽/음악클럽	16(1.5)	12(3.0)	2(4.4)	5(5.7)
	멀티방/룸카페	175(16.7)	60(15.4)	14(27.0)	18(19.5)
	일반숙박업소	138(13.2)	59(15.1)	21(40.3)	25(27.4)
	무인숙박업소	62(5.9)	34(8.7)	15(29.8)	21(22.6)
돈내기 게임	지난 3개월 동안 있음	134(12.8)	61(15.9)	6(11.9)	28(30.2)
	지난 3개월 동안은 없지만, 그 전에는 있음	84(8.1)	36(9.3)	12(22.4)	12(12.7)
	지금까지 한 번도 없음	829(79.0)	289(74.6)	34(64.9)	52(56.7)

* 주: ‘경험 있음’에 응답한 빈도 및 비율만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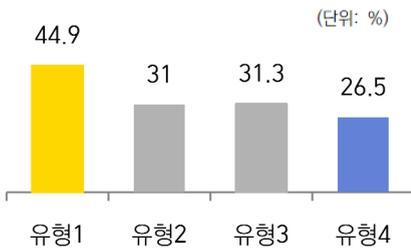


그림 IV-13. 중단 후 생활 ‘진로상담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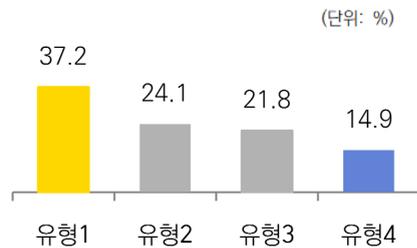


그림 IV-14. 중단 후 생활 ‘직업기술을 배움’

유형별 학업중단 후 생활을 질문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검정고시 준비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유형별로 유사하게 진로상담, 심리상담이나 치료, 직업기술을 배우는 경우(내일이룸학교, 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등)가 많았다. 학교 밖 청소년들

이 학업중단 후 많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유형별 차이가 없었으나, 이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각 응답에 대한 유형별 응답 비율(%)이다. ‘유형1’의 경우 검정고시 준비는 ‘유형4’에 비하여 26%p가량 높고, 진로상담이나 직업기술을 배우는 경우도 20%p 정도의 차이로 더 많았다.

표 IV-16. 유형별 학업중단 후 생활

(단위: 명, %)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대안학교에 다님	233(22.2)	99(25.6)	5(10.5)	10(10.6)
검정고시 공부를 함(학원 등)	924(88.0)	312(80.7)	37(70.8)	57(62.2)
정규학교 복교	18(1.7)	11(2.8)	3(5.7)	5(5.1)
진로상담을 받음	471(44.9)	120(31.0)	16(31.3)	24(26.5)
직업기술을 배움	390(37.2)	93(24.1)	11(21.8)	14(14.9)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401(38.2)	122(31.6)	17(32.1)	23(25.1)

* 주: 복수응답

이 결과를 ‘2) 학업중단 관련 일반사항’에서 앞서 살펴본 결과들과 종합하여 보면 학업 중단 시 ‘유형4’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경우도 많았고, 현재에는 의욕 없음과 무기력함이 다소 있으며, 검정고시 공부와 진로상담이나 직업기술 훈련 등 미래에 대한 준비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4) 신체적 특성

유형별 신체운동 횟수와 건강검진 여부를 보면 ‘유형4’의 신체운동 횟수가 가장 적고, ‘유형1’의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에 있어서도 ‘유형4’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유형1’의 42.3%가 이미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행동 부분에서 ‘유형4’와 ‘유형1’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표 IV-17. 유형별 신체운동·건강검진 여부

(단위: 명, 열%)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최근 7일간 신체운동 ^{주2}	최근 7일 동안 없다	498(47.5)	193(49.8)	30(58.5)	60(65.0)
	주 1일	111(10.6)	36(9.4)	4(8.5)	8(8.4)
	주 2일	110(10.5)	35(8.9)	5(9.6)	8(8.4)
	주 3일	113(10.7)	54(14.0)	5(9.6)	9(9.5)
	주 4일 이상	200(19.0)	54(14.0)	5(9.6)	12(12.5)
건강검진	처음 들어봤다	161(15.3)	97(25.0)	20(38.1)	43(46.8)
	알고는 있지만 건강검진을 받은 적은 없다	356(34.0)	113(29.1)	14(27.2)	21(23.1)
	신청했지만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79(7.5)	38(9.7)	6(10.8)	4(4.5)
	건강검진을 받은 적 있다	444(42.3)	136(35.2)	12(22.4)	18(19.7)
	모름/무응답	10(1.0)	4(0.9)	-	5(5.9)

* 주1: '경험 있음'에 응답한 빈도 및 비율만 제시하였음.

* 주2: '최근 7일 동안,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운동)을 60분 이상 한 일수'에 응답한 빈도 및 비율임.



그림 IV-15. 신체운동 여부 '최근 7일 동안 없다'

그림 IV-16. 신체운동 여부 '주 4일 이상'

반대로 건강 위험행동인 흡연과 음주를 보면(다음 장 표 참조) '유형4'의 경험율이 가장 높고, '유형1'은 가장 낮았다. 설문 대상이 현재 만16세~18세임을 생각할 때 이는 건강 위험행동이자 지위비행에 해당한다. 두 결과를 종합해보면 '유형4'는 건강행동은 덜 하고, 위험행동은 더 많이 하여 건강 취약성이 높은 상태로 나타났다.

표 IV-18. 유형별 흡연·음주 여부

		(단위: 명, %)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최근 30일 기준) 흡연 여부	최근 30일간 없다	880(83.9)	287(74.3)	27(52.9)	39(42.4)
	월 10일 미만	29(2.7)	15(4.0)	4(7.7)	6(6.9)
	월 30일 미만	15(1.4)	8(2.0)	2(4.3)	5(5.7)
	매일	124(11.8)	76(19.7)	18(34.3)	40(43.9)
(최근 30일 기준) 음주 여부	최근 30일간 없다	846(80.7)	299(77.1)	34(65.3)	54(59.2)
	월 10일 미만	176(16.8)	64(16.6)	11(21.2)	32(34.4)
	월 30일 미만	20(1.9)	21(5.5)	6(10.7)	5(5.2)
	매일	7(0.7)	2(0.6)	1(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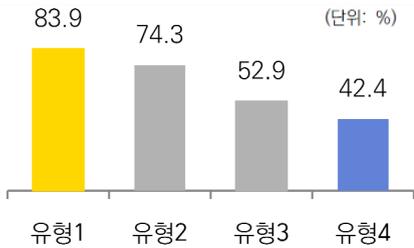


그림 IV-17. 흡연 여부 '최근 30일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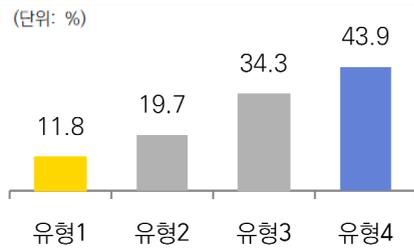


그림 IV-18. 흡연 여부 '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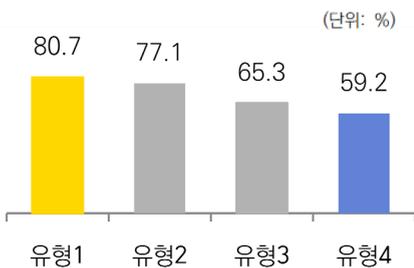


그림 IV-19. 음주 여부 '최근 30일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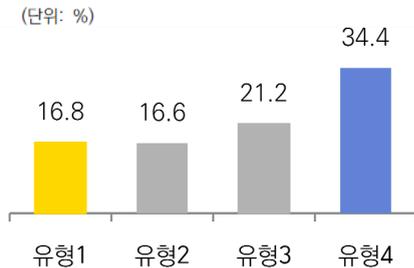


그림 IV-20. 음주 여부 '월 10일 미만'

5) 심리정서적 특성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질문하고 있는 심리정서적 특성으로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스마트폰 의존도가 있으며, 진로에 관해서는 진로확신성과 진로준비성 있다. 유형별 심리정서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이들 연속변수의 평균값을 제시하고 추리통계로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유형별 사례 수 차이가 추리통계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같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진로 미결정 및 미준비에 해당하는 3개 집단(유형2, 3, 4)과 유형1의 결과를 비교하는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IV-19. 유형 간 심리정서 특성 비교

	평균(표준편차)		t-test
	유형1(N=1,049)	유형2,3,4(N=530)	
자아존중감	3.04(0.70)	2.89(0.65)	4.068***
회복탄력성	2.55(0.71)	2.53(0.63)	0.565
스마트폰 의존도	2.05(0.83)	2.15(0.74)	-2.219*
진로확신성	2.74(0.81)	2.50(0.79)	5.434***
진로준비성	3.12(0.59)	2.75(0.72)	10.338***

* $p < 0.05$, ** $p < 0.01$,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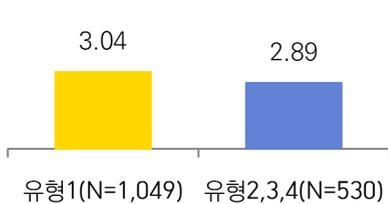


그림 IV-21. 심리정서 특성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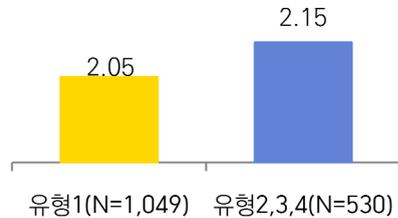


그림 IV-22. 심리정서 특성 '스마트폰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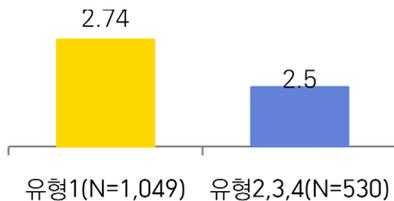


그림 IV-23. 심리정서 특성 '진로확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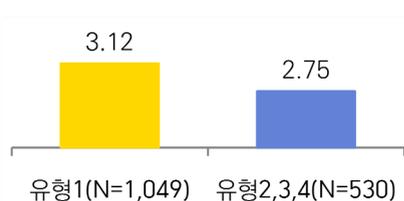


그림 IV-24. 심리정서 특성 '진로준비성'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의존도, 진로확신성과 진로준비성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유형1’의 자아존중감은 높고, 스마트폰 의존도는 낮았으며, 진로확신성과 준비성은 높았다. 개별 유형의 평균값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반드시 ‘유형4’가 가장 취약한 것은 아니었으며, 적은 차이이나 요인별 경향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다만 사례 수의 차이가 커서 평균값은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회복탄력성의 경우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회복탄력성 설문 문항이 긍정서술과 부정서술이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응답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진로확신성과 진로준비성은 진로결정 및 준비 유무와는 다른 청소년 개인의 태도에 관한 질문으로 진로를 결정한 경우(유형1, 유형3)에도 확신성이 낮을 수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유형1, 유형2)에도 준비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낮을 수 있는데, ‘유형1’의 경우에는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태도의 면에서도 확신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정책 경험 및 수요

(1) 센터 이용 경험 및 정책 수요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로부터의 진로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 지원과 서비스는 지역사회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부터 받게 된다. 따라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인지하고 이용하는 것은 진로지원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생활 전반적 지원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여기서는 센터 인지 및 이용 여부와 정책 수요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IV-20. 유형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지·이용·참여 의사

(단위: 명, %)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센터 인지 여부	995(94.8)	337(87.0)	40(77.3)	76(82.6)
센터 이용 여부	907(86.5)	308(79.5)	33(64.0)	64(69.8)
센터 계속 이용 여부	853(81.3)	294(76.1)	27(52.3)	54(59.1)
향후 센터 서비스 참여 의사	916(87.3)	308(79.5)	33(63.6)	61(66.7)

* 주 : ‘그렇다’에 응답한 빈도 및 비율만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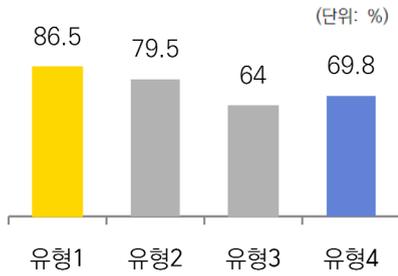


그림 IV-2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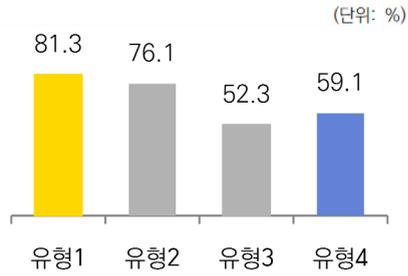


그림 IV-2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계속 이용 여부

결과를 보면 ‘유형1’이 전반적으로 센터 인지 및 이용 여부가 높게 나타났고, ‘유형4’와 진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유형3’이 이용 경험과 계속 이용 의사, 향후 참여 의사 등이 다른 집단에 피하여 다소 큰 폭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국가적 진로지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하여 이행되고 연계되는 경우가 많은데 진로미결정 및 미준비 상태의 ‘유형4’의 낮은 이용률은 진로 불안과 같은 관련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제적인 진로 결정과 준비의 면에서도 스스로 탐색하고 결정, 준비하는데 따른 여러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진로를 결정하였으나 준비를 하고있지는 못한 ‘유형3’도 센터 인지 및 이용률이 낮았다. ‘유형3’이 진로를 결정하였으나 현재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는 데에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또는 준비 방법을 모르는 경우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지원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다. ‘유형4’와 ‘유형3’의 낮은 센터 인지 및 이용률은 두 집단의 진로에 관한 어려움을 장기화 또는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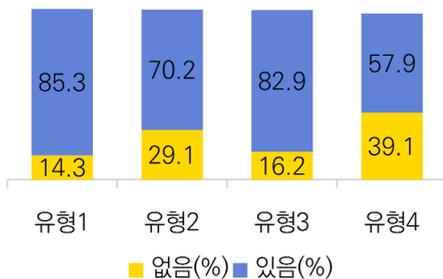


그림 IV-27. 유형별 희망 직업교육 유무

유형별로 희망하는 직업교육 유무를 질문한 결과, ‘유형4’에서 희망하는 직업교육이 없는 경우가 39.1%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래 진로·직업 관련 지원 필요성에 대한 유형별 설문 결과와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IV-21. 유형별 학업 및 진로·직업 관련 지원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학습 또는 진로 멘토	883(84.2)	273(70.5)	33(64.0)	54(58.2)
진학정보 제공 ^{주1}	938(89.4)	306(79.1)	39(74.1)	66(72.5)
검정고시 준비 ^{주2} 지원	890(84.8)	302(77.9)	43(82.9)	73(78.7)
대학 진학 및 대학 입시 상담	886(84.5)	282(72.8)	40(76.3)	60(65.6)
수능 심화교육 지원	776(74.0)	239(61.6)	32(61.8)	53(57.9)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887(84.5)	306(79.1)	37(70.1)	64(69.9)
직업교육·훈련	881(84.0)	299(77.3)	38(72.9)	67(72.1)
근로권익(노동인권) 교육	754(71.9)	228(58.9)	29(56.3)	49(53.7)
근로 중 피해 (언어폭력, 임금체불 등) 보호	802(76.4)	240(62.1)	31(59.6)	51(56.1)
자산관리 ^{주3} 관련 정보 제공	826(78.8)	250(64.5)	33(63.4)	55(60.5)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창)업을 연결하는 통합 프로그램	857(81.7)	277(71.4)	32(60.2)	60(64.9)
일학습 병행하며 훈련받는 지역사회 작업장 ^{주4}	738(70.4)	241(62.5)	25(48.8)	54(58.7)
진로담당교사 배치	739(70.5)	236(61.1)	32(61.0)	52(56.1)
직업훈련참여, 자격증 취득 등 자립수당 지원	895(85.4)	285(73.6)	36(69.3)	69(74.7)

* 주: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에 응답한 빈도 및 비율만 제시하였음.

* 주1: 검정고시, 입시정보, 대안학교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 주2: 학습, 비용을 포함함.

* 주3: 용돈이나 생활비 혹은 아르바이트비 등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을 포함함.

* 주4: 목공, 도예, 디자인, 인테리어 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로·직업 관련 지원을 설문한 결과 표에서 음영으로 처리한 '진학 정보 제공', '검정고시 준비 지원', '직업교육훈련'은 모든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진로를 결정한 유형의 대부분이 진학과 검정고시를 다음 단계의 진로로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지원 요구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에는 유형별 차이가 있었는데 '유형1'은 대체로 대부분 지원항목에서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유형4'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집단 간 필요성 인식에 차이가 있었던 지원 항목을 보면 진로를 결정한 '유형3'과 '유형1'은 대학 진학에 대한 상담(정보제공 포함) 수요가 높았다. 현재 진로 준비를 하고 있으나

미결정 상태인 '유형2'는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유형1'에서도 대학 진학 관련 상담 수요와 동일한 비율로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는 진로 재평가와 진로전환을 위한 수요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형4'와 '유형1'에서 자립수당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앞서 살펴본 유형별 희망직업교육 유무와 연관지어 보면 '유형4'의 청소년들은 아직 진로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직업교육 및 훈련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식(72.1%)하고 있으나, 희망하는 직업교육의 종류를 특정할 수는 없는 상태(39.1%)이며, 따라서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수당' 지원으로 응답이 모이게 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하'로 답한 경우가 다른 유형보다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에 대한 실질적 필요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2) 센터 이용 효과 분석

조사에 응답한 학교 밖 청소년의 83.1%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28.2%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주요한 대상자 접촉 경로가 소속기관이며, 그 가운데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경우가 많아 학교 밖 청소년 전체의 지원사업 이용 빈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데이터 내 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이 많은(과대 표집) 만큼 회귀분석을 통하여 정책 경험이 진로 유형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앞선 유형별 특성 비교에서 센터 이용률에 차이가 있었던 만큼 센터 이용이 진로 유형 구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기 앞서 투입된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진로 미준비 및 미결정' 집단(유형2, 3, 4)은 남자 청소년의 비율이 49%, 만 나이 평균은 16.87세로 나왔으며, 일반청소년이 82%(비행 18%)로 나타났다.

'유형1'은 남자 청소년 39%, 만 나이는 평균 16.91세로 약간 많았으며, 응답자 유형은 96%가 일반청소년이었다. '유형1'의 방임(부모태도) 정도가 낮고, 학업성적, 자아존중감은 높았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률은 두 집단 각각 77%와 87%로 '유형1'이 높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각각 25%와 30%로 '유형1'의 이용 경험이 많았다.⁶²⁾

62) 센터 유효 이용률: 센터에 대하여 알고 있는 청소년 가운데 이용률이며, 회귀분석을 위하여 '비인자' 청소년을 결측처리하여 도출된 값임. 실제 이용률은 각각 83.1%와 28.2%임(본문 참고)

표 IV-22. 집단별 투입 변인 기술통계

변인	평균(표준편차)		
	유형1	유형2, 3, 4	전체
성별	0.39(0.49)	0.49(0.50)	0.42(0.49)
만 나이	16.91(0.74)	16.87(0.74)	16.90(0.74)
응답자 유형	0.96(0.20)	0.82(0.39)	0.91(0.29)
부모태도(방임)	1.69(0.84)	2.00(0.86)	1.80(0.86)
학업성적	1.89(0.83)	1.54(0.69)	1.77(0.80)
자아존중감	3.04(0.70)	2.89(0.65)	2.99(0.6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87(0.34)	0.77(0.42)	0.83(0.3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0(0.46)	0.25(0.43)	0.28(0.45)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모형1의 Hosmer & Lemeshow 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 12.830(df=8, p=0.118)$, 모형2는 $\chi^2 13.528(df=8, p=0.095)$ 로 모형이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분류정확도 70.5%와 69.7%로 독립변인이 더 투입된 모형에서 오히려 분류정확도가 낮았다. 모형2에서 투입된 ‘센터 이용 경험 유무’ 변수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유사 R^2 은 소폭 상승하였는데, 모형1은 Nagelkerke지수 기준, 투입 변수들이 전체 변량의 약 14.8%를 설명하였고, 모형2는 15.1% 수준이었다.

다음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23>과 같다. 먼저 모형1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결정 및 준비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변인들로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모형1의 결과에서는 성별과 만 나이, 응답자 유형, 부모태도, 학업성적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여자 청소년인 경우, 만 나이가 많을수록, 응답자 유형은 비행이 아닌 경우, 부모가 자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유형1’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유의한 변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응답자의 유형(일반/비행)과 부모태도(방임)였다.

표 IV-2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인	모형1			모형2		
	계수(se)	Wald	Exp(B)	계수(se)	Wald	Exp(B)
성별	-0.28(0.12)	5.85*	0.75	-0.22(0.12)	3.26	.81
만 나이	-0.18(0.08)	5.24*	0.84	-0.18(0.08)	4.94*	.84
응답자 유형	1.39(0.20)	49.06***	4.01	1.31(0.22)	36.47***	3.71
부모태도(방임)	0.35(0.07)	26.85***	1.42	0.36(0.07)	27.32***	1.43
학업성적	-0.45(0.08)	33.81***	0.64	-0.46(0.08)	34.90***	.63
자아존중감	-0.16(0.09)	3.34	0.85	-0.17(0.09)	3.68	.84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0.19(0.17)	1.27	1.21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0.18(0.13)	1.76	1.19
상수	2.94(1.36)	4.65	18.99	2.75(1.39)	3.92	15.68
유사 R^2 (Pseudo)	Cox&Snell 0.106, Nagelkerke 0.148			Cox&Snell 0.109, Nagelkerke 0.151		

* $p < 0.05$, ** $p < 0.01$, *** $p < 0.001$

* 주: 제시된 R^2 값은 중다회귀분석의 결정계수와 다르며, 설명력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지 않음.

모형2에서는 모형1에 관심 변수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경험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두 변인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따라서 모형 설명력도 낮아졌다. 이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두 개의 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여부에 대한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분석 결과는 센터 이용 여부가 진로결정 및 준비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분석은 학교로부터의 진로지원이 부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담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진로 결정 및 준비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한 것이며, 본 데이터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만 본 데이터는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계된 조사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축된 데이터가 아니며, 본 분석의 결과로 해당 센터들의 진로지원 효과 유무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진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여러 특성의 비교와 유형 구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보았다. 진로 유형은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현재 하고 있는 일 유무와 진로 결정 유무를 조합하여 4개의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조사에서 질문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반드시 진로 준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유형별로 분명한 차이를 가지는 특성들이 있었다. 특히, ‘유형4’의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24. 2차 자료 분석 결과 종합

구분	영역		응답비율 순위
인적 특성	개인 특성	비행	유형4 = 유형3 >> 유형2 > 유형1
		학업성적‘하’	유형4 > 유형3 = 유형2 > 유형1
	가정 특성	경제수준‘하’	유형4 > 유형3 = 유형2 = 유형1
		부모 방임	유형4 > 유형3 = 유형2 > 유형1
학업중단 관련 일반사항	중단 시 계획	없었음	유형4 > 유형3 = 유형2 = 유형1
	중단 후 어려움	무기력함	유형4 > 유형3 = 유형2 > 유형1
		어려움 없었음	유형4 > 유형2 = 유형1 > 유형3
학업중단 후 생활	아르바이트 및 비행	아르바이트	유형4 > 유형3 > 유형2 = 유형1
		유해장소 이용	유형4 = 유형3 > 유형2 = 유형1
		돈내기 게임	유형4 > 유형3 = 유형2 = 유형1
	진로 준비	검정고시	유형1 > 유형2 = 유형3 > 유형4
		진로상담/기술	유형1 > 유형2 = 유형3 > 유형4
신체적 특성	건강 검진	처음 들어봄	유형4 > 유형3 > 유형2 > 유형1
	흡연/음주	(30일간)없다	유형1 > 유형2 > 유형3 > 유형4
심리정서적 특성	자아존중감/진로직업태도		유형1 > 유형2, 3, 4
	스마트폰 의존도		유형2, 3, 4 > 유형1
정책 경험 및 수요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여부 참여 의사	유형1 > 유형2 > 유형3 = 유형4
	희망 직업교육	없음	유형4 > 유형2 > 유형3 = 유형1

* 주: 5%P 차이 이내는 ‘=’ 20%P 차이 이상은 ‘>>’ 표시함.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고, 진로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유형4'의 경우 비행 유형의 청소년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많았고, 학업 중단 시 학업성취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았으며, 부모의 태도도 다소 부정적이었다. 학업중단 시 학교 소재지는 읍면리 지역인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많았고, 고등학교 입학 이후인 비교적 늦은 시기에 학업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중단의 사유는 뚜렷한 단일 사유보다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와 같은 복합적 사유가 가장 많았고, 학업중단 시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학업 중단 후 생활을 보면, 무기력함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유해 장소 및 돈내기 게임 경험의 정도와 빈도가 높았다. 반면 점검고시를 준비하거나 상담, 직업기술 학습 등의 활동에는 소극적이었다.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영역에서도 취약성을 보였는데, 신체운동 정도가 낮고 건강검진 경험이 적었으며 흡연과 음주의 비율은 높았다. 심리정서적으로도 자아존중감과 진로 확신성, 진로 준비성이 낮았고 스마트폰 의존도는 높았다. 마지막으로 센터 등 지원사업 이용 경험과 수요를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지 및 이용 정도가 낮고 각종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1'은 비교한 특성들에서 비교적 양호하거나 긍정적인 상태를 보였고, 진로를 결정하지는 못했으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는 '유형2'와 반대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없으나 진로는 결정하였다고 답한 '유형3'은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랐는데, 대체로 '유형2'는 '유형1'과 유사한 결과를 '유형3'은 '유형4'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

한편, 분석 결과는 변인들을 건강, 생활 등과 같이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각각은 진로 어려움이 큰 유형에 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변인일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유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적인 특성일 수도 있다. 영향 관계 파악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와 함께 이를 나누어보면, 먼저 원인에 해당하는 특성은 본인의 비행과 낮은 학업성취, 그리고 가정의 무관심이 주요했다. 또한 이 세 가지 요인들은 서로 깊은 영향 관계에 있기도 하다. 비행은 결국 낮은 학업성취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보호자의 방임학대 등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을 비행으로 내모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성별이나 만 나이(나이가 적을수록 미결정·미준비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음)도 일부 영향을 주기는 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기대와 압력 속에서 청소년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게 되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현재 생활에 관한 변인들도 진로 '미결정·미준비' 유형4에 속해있기 때문에 초래되는 또는 강화되고 있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현재 뚜렷한 진로를 결정하지 않고,

진로준비 행동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신체활동도 적고,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 중독 정도가 높아지고,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돈내기 게임 경험도 많아졌을 것이다. 자아존중감도 회귀분석에서 직접적 영향 관계가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유형 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로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가치가 있고, 유능한 존재라고 믿는 마음이라고 할 때,⁶³⁾ 낮은 자아존중감이 미결정·미준비 상황에 처하게 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뚜렷한 목표나 준비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신에 대한 가치를 알고, 유능성을 발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기도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업중단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무기력’을 들고 있는데 이 역시 무기력하기 때문에 진로 준비를 시작하기 어렵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서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부적 강화를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분석을 통하여 진로 미결정·미준비 청소년의 취약성과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확인하였고, 진로 미결정·미준비 청소년이 되는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변인을 구분 지어보았다. 결론적으로 진로 어려움 정도가 가장 강한 청소년들은 무기력과 낮은 자아존중감, 본인의 비행 이력과 부모의 무관심으로 진로 확신성과 진로 준비도가 낮은 상황에 놓여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을 하고 있지 않고, 여러 국가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도 낮아서 현재 처한 어려움들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즉 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정책적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적극적으로 유입시켜야 하는 대상임을 확인하였다.

63)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되지만(Rosenberg, 1965), 선행연구와 학자마다 그 초점이 다소 상이할 수 있어 여기에서는 일반적이고 직관적인 사전적 정의를 활용하였다(출처: 네이버 국어대사전 홈페이지(<https://ko.dict.naver.com>)에서 2025.4.14. 인출).



제5장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위기: 심층면접조사

- 1. 조사 개요
- 2. 조사 내용
- 3. 조사 및 분석 방법
- 4. 분석 결과
- 5. 소결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와 관련해서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경험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조사는 앞서 IV장에서 수행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대규모 실태조사(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양적 데이터 2차 자료분석과 함께 일종의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ology)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강점을 모두 취하고 한계를 보완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과 진로 위기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양적연구는 앞서 수행한 2차 자료 분석을 의미하며, 이는 본 연구의 규모에 따른 한계로 직접적인 양적 자료수집이 불가능함에 따른 불가피한 차선택이다. 그러나, 해당 실태조사를 과거 연구진이 직접 수행했을 뿐 아니라 진로와 관련한 여러 활용 가능한 변수가 포함됨에 따라 이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자료분석을 양적연구로 같음하였다.⁶⁴⁾ 그리고 이 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양적, 질적 자료 분석을 수행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도출한다는 점에서 넓은 범위의 혼합연구방식의 접근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이 장의 1절과 2절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절은 조혜영 교수(공주교육대학교), 3절과 5절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64) 본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양적 자료수집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밀한 혼합연구 설계에 기초한 연구라고 볼 수 없다. 참고로, 직접 자료 수집과 분석이 병행되었다면 혼합연구 설계 중 동시적 삼각화 설계 방식(concurrent triangulation design)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양적자료 분석이 선행됨에 따라 순차적 변형 설계(sequential transformative design)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Greene, 2011).

혼합연구방법은 그 목적에 따라 삼각화(triangulation) 혼합연구, 상호보완 목적의 혼합연구, 한 연구방법의 결과가 다른 연구방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혼합연구, 착안을 목적으로 한 혼합연구, 각각의 다른 연구 방법이 다른 현상을 평가하는 확장 목적의 혼합연구로 구분된다(Greene, 2011: 124-131), 본 연구는 삼각화와 상호보완의 목적으로 실태 조사 2차 자료 분석결과와 본 면접조사 결과를 통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진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폭 넓고 깊은 수준의 이해를 갖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면접조사 설계에 앞서 이론적 논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 내용과 그중에서도 진로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적 자료에 대한 2차 자료 분석 결과 일부도 면접지 개발에 참고하였으며,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더욱 다양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을 탐색, 조명하고자 하였다. 면접 결과는 양적자료 분석결과를 뒷받침하는지를 살펴볼 뿐 아니라 풍성한 질적자료 제공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둘러싼 진로 관련 이슈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이해를 기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본 면접조사는 다양한 상황의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과 진로에 대한 생각과 준비, 애로사항, 지원 요구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그 결과는 양적 조사결과와 함께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2) 조사 대상

학교 밖 청소년을 둘러싼 진로 이슈를 탐색하기 위해 제도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2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진로 관련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을 인터뷰함으로써 이들의 현재 진로 상태와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자기주도적으로 또는 지원체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면접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요구와 지원 정책에 대한 제안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후자의 경우 이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나 개입 등을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결정 여부뿐 아니라 진로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과 이를 위한 실천 노력, 관련 지원 경험 등에서 부정적이거나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즉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진로와 관련된 학교 밖 청소년의 어려움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질적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심층 면접조사 대상을 선정, 섭외하는 데 있어 진로 관련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은 이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특성 및 가정·환경적 배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이러한 개별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한 학교 밖 청소년을 면접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로에 대한 생각 유무, 진로 결정 여부 및 진로 계획 유무, 진로 준비 정도 등에 따라 매우 다른 상황일 수 있으나 20여 명으로 한정된 면접대상자 선정에 이러한 조건을 모두 고려하기 어려우며, 또 섭외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성별 및 연령대, 거주지역 규모에 따른 할당까지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진로관련 상황을 단순화하여 집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면접조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경험을 탐색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진로결정 여부를 우선 고려하였다. 이는 진로 결정 여부가 이후 구체적인 진로 계획 및 준비에 선행된다는 점에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며, 한편으로 상술한 면접대상자 섭외 편의를 위해 현실적인 잣대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따라서 본 면접조사에서 진로결정 여부는 진로와 관련된 집단 구분의 기준, 이를 전후한 진로발달 단계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탐색하기 위한 시작점으로만 기능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⁶⁵⁾ 이에 크게는 진로결정 여부를 중심으로 먼저 집단을 구분하여 대상자를 섭외하고, 또 지역사회 내 다체계 지원 연계가 연구의 주요 축임에 따라 그 안에서 거주지역 규모를 함께 고려하였다.

지역 규모는 보통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을 기준으로 구분하지만, 한정된 숫자의 면접 참여자를 고려할 때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 다른 기준들과 함께 할당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지역별 자원의 차이, 특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 편차와 인구 구성비 등 고려할 때⁶⁶⁾ 최소한 대도시와 중소도시·읍면의 2개 범주로 면접자 섭외 기준을 정하였다.⁶⁷⁾ 또한 진로와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대별 경험과 지원 요구에 차이가 클 것을 염두에 두고, 면접대상자를 고등학교 연령대인 만 15~17세⁶⁸⁾와 만 18~20세로

65)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결과뿐 아니라 진로미결정이 이후 부적응과 관련되어 있고(Creed et al., 2005), 불안(Fuqua, Newman, & Seaworth, 1988)과 우울(Saunders et al., 2000), 낮은 자아존중감과 생애 만족도(Creed et al., 2005) 등과 관련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을 볼 때(Skorikov, 2007: 10에서 재인용), 다른 진로 관련 성취와의 관계성을 예측해 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면접대상자 섭외를 위한 기준으로만 활용하였다.

66) 본 면접조사를 위한 전문가 자문에서도 이러한 지역 규모에 따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 지원 격차가 지적되었다.

67) 실제 대상자 섭외 과정에서 일부 중소도시 거주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되었다.

구분하였다. 특히 진로지원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연령대가 고등학교 시기 청소년 집단임에 따라 이 연령대 청소년에 좀 더 초점을 두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한편으로는 이보다 더 어린 연령대의 청소년을 면접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현장 전문가 자문과정에서 이 경우 대부분 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또,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연령대 청소년의 경우 본격적인 진로에 대한 고민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언어적으로 상세히 표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숙고하여 면접대상자 선정 범위를 최종 결정하였다.

이러한 면접대상자 섭외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현장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참고하였으며, 향후 조사위탁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적용하였다. 당초 총 2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섭외 완료된 대상자 수는 총 22명이었으며, 성별로도 각각 11명씩 동률로 구성하였다. 당초 계획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진로 결정 여부와 지역 규모 및 연령대⁶⁹⁾별로 비교적 균등하게 안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면접조사의 참여자 구성 결과는 <표 V-1>과 같다.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의 자발적인 조사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서면동의 등의 과정을 거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V-1.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구분		진로 결정		진로 미결정 ¹⁾		합계(명)
		지역 규모 ²⁾		지역 규모		
		대도시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읍면	대도시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읍면	
연령대	만 15~17세 ³⁾	5	6(5)	3	2(3)	16
	만 18~20세	2(1)	1	1(2)	2	6
	합계	7(6)	7(6)	4(5)	4(5)	22

* 주: 1) 여기에서 진로결정 여부는 진로관련 경험 및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진로 미결정이 진로 위기를 의미하지 않음.

2) 괄호()안의 숫자는 당초 계획된 숫자임. 당초 대상자 선정 과정에는 진로미결정으로 응답하였다가 실제 인터뷰 때에는 진로 결정으로 변경된 2개 사례로 시점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였음.

3)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만 6세에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명시됨. 이에 만 15~17세는 고등학교 학령기 청소년을 지칭함.

68)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만 6세에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초·중등교육법 검색 및 인출, 2025.5.21). 따라서 만 15~17세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학령기 청소년을 지칭한다.

69) 최종적으로 만16~17세, 만18~19세 연령 범위의 학교 밖 청소년이 면접대상자로 포함되었다.

2. 조사 내용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상황과 관련된 심층적인 내용과 필요한 지원 요구 등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지원 정책 도출에 활용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면접조사지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결과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 상황에서의 진로에 대한 내용에 더해 특히 진로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경험하는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서도 탐색이 가능하도록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들을 면접조사지에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과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질적연구의 조사지를 참고했을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와 같은 양적 연구내용(IV장의 2차 자료 분석 결과 포함)도 검토하여 면접지 개발에 참고하였다.⁷⁰⁾ 연구진이 개발한 면접조사지 초안은 이후 학교 밖 청소년과 진로 관련 분야의 학계·현장 전문가 5인의 검토 및 자문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진 협의를 통해 최종 정리하였다. 이후 기관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으며, 면접조사지 개발 및 면접 조사 착수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도식화하여 요약하면 [그림 V-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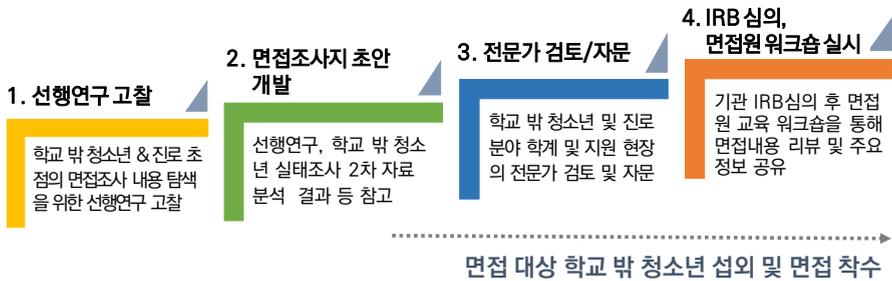


그림 V-1.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지 개발 및 면접 착수 과정 요약

면접조사 질문지는 영역별로 크게 1. 현재 생활 및 관심사, 2.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인식에서의 변화, 3.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과 진로 상황, 4.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 관련 지원 경험, 5. 개인적 특성(심리·사회·신체적 상태) 및 경제적 상황,

70) 김희진, 서고운, 조혜영(202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김희진 외(2023a)의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김희진 외(2023b)의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등

6. 지역사회 내 지원 연계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상세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진로와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두기 위해 앞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에서의 진로발달 단계를 염두에 두고 진로에 대한 생각과 인식, 진로 관련 자기 이해, 진로 결정 및 계획, 진로 준비 여부 및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과 맥락, 배경을 탐색하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포함하였다.

이외 개인 및 환경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진로와 관련한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과 이와는 다르게 자기주도적으로, 또는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를 통해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과 배경 등을 사례별로 탐색,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진로에 초점이 있는 만큼 이에 관한 내용을 앞서 배치하고 이에 상호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인, 가정, 환경적 특성은 바로 이어서 질문할 수 있도록 면접지를 구성하였다. 최종 개발된 면접조사지는 <표 V-2>와 같다.

표 V-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내용

영역	면접 내용(안)
1. 현재 생활 및 관심사	1-1. 현재 생활 탐색 : 관련 지원기관 이용 여부, 학업 및 진로/취업 준비 등
	1-2. 최근 고민과 관심사
2.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인식에서의 변화	2-1. 학교를 그만둔 이유 : 학교를 그만둔 배경과 진로 관련 이슈 탐색
	2-2.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가족, 친구 등 주변의 반응
	2-3. 학교를 그만두기로 선택하면서 기대한 것과 현실과의 차이 유무 및 이유
	2-4.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 경험 및 만족 정도
3.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과 진로 상황	3-1. 학교를 그만두기 전 진로 관련 경험 - 학교 재학 당시 진로관련 경험 : 진로 계획 유무, 진로 결정/진로 준비 여부 및 내용, 학교에서의 진로지원 도움 정도
	3-2. 학교를 그만두는 시점에서의 진로 문제 유무, 진로 결정/진로 계획, 진로 준비 상황 -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한 시기의 진로 계획, 진로에 대한 자신감 등
	3-3. 학교 밖 생활 과정에서 진로 인식 변화 - 학교를 그만둔 후 겪은 경험에 따른 진로 태도 변화, 진로에 대한 인식 변화 - 학교 밖 생활 과정에서 진로 계획·선택,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 심화 경험 탐색

영역	면접 내용(안)
4.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 관련 지원 경험	4-1. (진로에 대한 인식, 동기) 진로에 대한 생각, 인식 정도 - 진로에 대한 생각(고민) 유무, 자신의 삶에서의 진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바람직한 직업가치 유무 등 탐색 등
	4-2. (진로관련 자기 이해)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심리적,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 - 진로와 관련한 개인 특성(강점, 약점 등) 인식 수준, 흥미와 적성, 능력에 대한 이해 - 진로 관련 환경/상황에 대한 이해 정도(경제적 수준, 학업 수준 등)
	4-3. (진로 결정/진로 설계) 희망 진로 유무와 이해도, 현재 상태에서의 진로 결정 및 진로 설계 여부, 관련 요인, 계획 - 희망 진로 유무/배경, 진로 결정/미결정 여부, 이에 대한 진로 계획(설계) 수립 여부 ▶ 진로를 결정/선택하였다면 진로 계획(진로 설계) 및 진로 결정 내용과 이유, 희망 진로/직업 세계 이해 정도, 지원 체계/환경적 특성 탐색, 진로 결정, 진로 설계와 관련한 도움 내용 및 정도, 어려움, 지원 요구 등 탐색 ▶ 진로를 결정/선택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와 현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영향(불안) 유무, 동기 부족,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아쉬운 점, 향후 계획
	4-4. (진로 준비) 현재 진로 준비 상황 및 목표와 내용, 계획, 지원 경험 및 요구 ▶ 현재 진로 준비 중 : 구체적인 준비 내용 및 활동, 진로 준비에서의 지지 체계 및 지원 경험, 진로 계획에 따른 준비 활동과 어려움 및 애로사항, 지원 요구 ▶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이유와 배경, 관련 어려움, 향후 계획, 지원 요구
	4-5. 현재 생각하는 진로 및 자립 준비와의 관계, 향후 계획
5. 개인적 특성 (심리·사회·신 체적 상태) 및 경제적 상황	5-1. 자신의 심리적 측면 인식(우울, 불안 등) - 학교를 그만둔 이후와 현재의 심리적 상태, 변화 - 학교를 그만둔 후 자신이 취했던 진로 관련 행동이나 실천에 대한 인식과 정서
	5-2. 학교 밖에서의 사회적 관계 :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 역할 모델,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 사회적 지지 체계
	5-3.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상태
	5-4. 현재 경제 상황: 주 수입원, 채무 유무 및 내용, 진로와 관련된 문제
6. 지역사회 내 지원 연계	6-1. 진로와 관련한 지역사회 지원 경험
	6-2. 지역사회 내 진로 관련 지원 경험 만족도 및 아쉬움, 희망사항 및 요구

3. 조사 및 분석 방법

1) 조사 방법

상술한 본 연구의 면접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안내를 통해 인터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조사위탁기관과의 의사소통 후 대상자 섭외가 완료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발적으로 본 연구의 면접 대상자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였으며, 미성년인 경우 법적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면접대상자로 확정하였다. 면접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중 청소년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22명의 청소년 중 11명은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의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11명의 청소년은 편한 이동 거리를 고려하여 인근 스터디 카페나 회의실 등에서 편안한 분위기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대상자 섭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에 단기간 면접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진과 질적연구 전문가인 외부 전문가,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면접을 수년간 수행해 온 청소년복지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를 추가 섭외하여 동시에 면접을 실시하였다. 단기간 효율적인 면접 추진을 위해 복수의 면접원이 활동하게 되면서, 또 충실한 질적자료 수집을 위한 면접원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 면접조사와 관계된 인력들을 대상으로 면접원 교육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 워크숍에는 연구진과 외부 질적연구 전문가, 외부 면접원뿐 아니라 면접조사 대상자 섭외 및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는 조사위탁기관 관계자가 모두 참석하였다. 그리고 워크숍에서는 본 연구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배경 등을 공유하고, 질적연구 전문가의 주도로 면접 조사지를 함께 리뷰하면서 면접조사내용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충실히 면접조사를 준비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별 면접 질문에 대한 숙지와 함께, 과거 유사 상황의 면접 진행 시 발생했거나 예측되는 문제들에 대해 협의 과정을 거쳐 원활한 면접 진행이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면접 질문지의 많은 내용을 모두 소화하는 데만 초점을 두기보다 면접 대상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이 모두 다름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의사와 처한 상황에 우선하여 질문들을 유연하게 활용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내용들 역시 워크숍에서 공유하였다.

개별 인터뷰마다 면접원들은 면접 진행 상황과 면접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분위기와 정서, 비언어적 태도를 관찰하여 현장 노트(Field note)를 작성하였다. 온라인 면접의

경우 한계가 있으나 가능한 범위에서 면접 당시의 분위기와 연구 참여자의 태도와 기분 등에 대해 메모하였고, 이 내용 역시 전사자료와 함께 분석에 활용되었다.

2) 분석 방법

연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별 인터뷰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거쳐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자료는 상세하게 전사한 뒤 분석에 활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사례연구 및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사례연구는 실제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시대 현상에 대한 실증적 탐구방법 중 하나이며(Yin, 2018), “하나의 사건, 현상 혹은 사회적 단위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체적인 설명과 분석”(Merriam, 1998: 21;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159에서 재인용)이라고도 정의된다.

사례연구는 현재의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서 특정한 변인을 선택하여 관계 설정을 하거나 인과 관계 등을 파악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경험과 인식이 발생하는 상황과 맥락 안에서 전체적이고 심층적인 탐구를 추구한다(유기웅 외, 2018). 요컨대, 사례연구는 총체성, 맥락성, 특수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먼저 총체성은 현상을 몇 가지 변인이나 변인들의 함으로 설명하기보다 현상의 복잡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며, 맥락성은 탈맥락화를 경계하면서 실생활의 이해를 위해 통제해야 할 변인들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서경혜, 2023; 유기웅 외, 2018). 또한 특수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사례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해를 우선시하고자 한다(서경혜, 2023; 유기웅 외, 2018).

사례연구 수행의 목적 차원에서 본 연구는 구체적 사례의 특성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례 자체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위주로 하는 본질적 사례연구(intrinsic case study)의 유형보다는 사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는데 더 집중하기 위한 도구적 사례연구(instrumental case study)(유기웅 외, 2018; Stake, 1995)의 속성을 띠게 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사례연구의 유형 중 복수사례연구(다중사례연구)로 수행된다. 복수사례연구의 분석은 개별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넘어서 사례 간 비교 분석을 통해 유사성과 차이점을 도출해 내는 방식으로 복수사례 분석은 개별 사례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개별사례 분석과정에서도 총체성을 유지한다(유기웅 외, 2018). 즉, 개별사례 분석과정에서 각 사례들의 변인을 선정하여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도출하여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례의 전반적인 맥락과 총체성을 유지하며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서경혜, 2023). 그 이후 사례 자체의 이해를 넘어서서 사례 간 비교 분석을 시도하며, 이를 통해 사례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담아내고자 한다(서경혜, 2023; 유기웅 외, 2018).

사례연구 분석과정에서는 사례 내 분석을 통해 개별 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이고 맥락적인 검토를 거친 후 개별 사례들을 관통하는 주요 범주와 주제들을 도출하는 사례 간 분석을 적용한다(강준혁, 주완태, 2018; 홍지선, 2020). 1차적 분석인 사례 내 분석에서는 학교를 그만두고 진로 계획 및 준비과정에서 개별 청소년들은 어떠한 경험을 해 왔는지 개별 청소년들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시도하였다. 개별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배경,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과 진로 상황, 학교를 그만두기 전과 후에 갖게 되는 진로 인식, 진로 관련 자기이해, 진로 설계 및 진로 준비 활동 정도, 현재적 시점에서 인식하는 심리 정서와 사회관계, 진로 관련 지지체계, 지원 경험, 개인적 어려움과 진로 장벽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개인의 진로 상황에 대한 맥락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례 간 분석에서는 개별 사례들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토대로 부각되는 중심 주제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 간 분석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주요 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적용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 과정은 면접 전사자료에 대한 반복 읽기에서 시작되며,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서 주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개방 코딩’, 코딩 자료들을 묶어가는 ‘범주화’, 수립된 범주들을 반복적으로 비교하는 ‘범주 확인’ 과정을 거쳐 주요 주제를 도출하게 된다(유기웅 외, 2018; Merriam & Tisdell, 2015).

개별 사례 및 사례 간 분석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삼각검증 과정을 거쳤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선택 및 진로준비, 진로결정 과정 등을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관련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자문, 연구진 간 범주화 과정에 대한 교차 검토, 기존에 수행되었던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진로 관련 연구 보고서 분석 등을 활용함으로써 본 연구자료 분석과정에서 편향성이나 왜곡을 가급적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4. 분석 결과

1) 사례 내 분석: 개별 참가자들의 학교 밖 삶과 진로 상황

개별 사례에 대한 분석은 연구 참가자별로 개인별 특성, 학교를 그만둔 시기와 학교를 그만둔 주요 이유, 학력 취득 상황, 현재의 주요 관심사, 진로 계획, 현재의 심리·정서상태, 경제여건, 가족관계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대체로 사례 내 분석의 경우 참가자 수가 5인(강준혁, 주완태, 2018) 혹은 4인(홍지선, 2020) 등 소수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상세한 맥락 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규모가 22인으로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및 연령대 등 개인 배경,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이후의 진로와 관련된 일들, 아르바이트 경험, 진로계획, 심리·정서적 상태, 가정의 경제적 상황 및 가족관계와 같은 주요 이슈를 표 IV-3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참가자 청소년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이름 대신 청소년1, 청소년2와 같은 ID를 부여하였고 출생 연도와 학교를 그만둔 시기 등은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특정 지명과 장소, 기관이나 회사명 등은 모두 삭제하였다.

사례 내 분석을 위해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였고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기도 한 진로결정 여부에 대한 청소년의 응답으로 사례를 구분하였다.⁷¹⁾ 이를 위해 진로 결정을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집단과 결정하지 못했다고(또는 았았다고) 응답한 집단에 대해서 기본 배경과 학교를 그만둔 이유, 최근 관심사와 고민 등에 대해 기술적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진로결정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와 관련 맥락을 우선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71) 면접대상자 섭외를 목적으로 질문한 진로결정 여부에 대한 초기 응답 결과와 시간이 경과된 이후 실제 인터뷰 당시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2개 사례가 진로미결정에서 진로결정으로 변경되었으며, 본 분석에서는 인터뷰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표 V-3. 연구참가자의 학교 밖 생활과 진로 상황

ID	성별	연령대* ①만15-17 ②만18-20	지역 규모	학교를 그만둔 시기	학교를 그만둔 주요 이유	검정고시 취득 여부	희망 학력	근래 관심사/ 현재 주로 하는 일	아르바이트 경험	진로결정 여부 청소년 응답**	진로 계획	자퇴 후 심리장서	경제상황	가족관계
청소년1	여	①	대도시	2024년 상반기	친구 관계, 병원 입원, 학교 교육 과정 부적응	고졸 검정고시 합격	대졸	대입과 취업 준비 병행	편의점	진로 결정	취업/창업, 상급학교 진학	심리적으로 편안해짐	간헐적 아르바이트로 용돈 충당(부모님 편의점)	부모의 지지
청소년2	여	①	대도시	2024년 하반기	교사 관계, 학교와 맞지 않음.	올해(8월) 고졸 검정고시 준비	대졸	검정고시와 대입 준비 병행	-	진로 결정	검정고시, 수능 준비	편안해짐	부모가 용돈 제공	가족관계 친밀한 편
청소년3	여	②	중소 도시	2023년 상반기	과거 따돌림 경험, 학교 공간 트라우마, 정서적 어려움 (공황장애)	고졸 검정고시 합격	대졸	검정고시 준비	음식점	진로 결정	상급학교 진학	우울, 공황 완화, 타 질환 약물 복용 중	경제적으로 여유, 스스로 아르바이트하여 용돈 충당	부모의 적극적 지원
청소년4	여	②	읍면 지역	2023년 상반기	친구 관계, 그림 그리는 데 전념 희망	고졸 검정고시 합격	대졸	(그림)작가 보조, 개인 작업 병행	그림 그리기	진로 결정	웹툰 관련 진로 희망	우울증 치료 후 개선되고 있음	매우 어려움 (꿈드림센터 를 통한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	부모 이혼으로 엄마, 할머니와 가주
청소년5	여	①	중소 도시	2024년 하반기	친구 관계, 학업 성적 고민	내년(4월) 고졸 검정고시 준비	대졸	검정고시 재응시, 대입 준비	-	진로 미결정 (후에 결정 으로 변경)	상급학교 진학	자퇴 후 우울감이나 불안감 없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인식	자퇴/진로계획서 어머니의 조언, 지지있었음.
청소년6	여	①	중소 도시	2024년 하반기	진로가 명확함, 조기 수능 응시 통해 추가 기회 마련	고졸 검정고시 합격	대졸	검정고시, 대입, 아르바이트, 직업교육 병행	카페, 음식점	진로 결정	상급학교 진학	자신감 증만 → 평정심 유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인식	부모와의 관계 좋은 편
청소년7	여	②	대도시	2025년 상반기	친구 관계	올해(8월) 고졸 검정고시 응시	대졸	검정고시 준비, 아르바이트 병행	음식점	진로 미결정 (후에 결정 으로 변경)	대학진학	자퇴 후 우울감 개선	어렵지 않은 것으로 인식	가족관계 좋은 편, 대학 진학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와 지원

ID	성별	연령대* ①만15-17 ②만18-20	지역 규모	학교를 그만둔 시기	학교를 그만둔 주요 이유	검정고시 취득 여부	희망 학력	근래 관심사/ 현재 주로 하는 일	아르바이트 경험	진로결정 여부 청소년 응답**	진로 계획	자퇴 후 심리정서	경제상황	가족관계
청소년8	남	①	대도시	2024년 상반기	정서적 어려움 (공황장애), 학교 분위기 부적응	올해(8월) 고졸 검정고시 응시	고졸	직업교육	-	진로 결정	음악 관련 진로 희망 일할 예정	자퇴 후 편안해짐	어렵지 않은 것으로 인식	가족의 지지
청소년9	여	②	대도시	2022년 하반기	친구 관계	고졸 검정고시 합격	고졸	희망 진로 업계에서 인턴 중	베이커리 학원 등	진로 결정	제과제빵 진로 희망	자퇴 후 우울감 개선	어렵지 않은 것으로 인식	진로와 관련해 아빠와 갈등을 겪기도 함
청소년10	남	①	중소 도시	2023년 상반기	전학, 통학 거리, 학교 분위기 부적응	올해(8월) 고졸 검정고시 응시	대졸	검정고시 준비	-	진로 결정	상급학교 진학	자퇴 후 긍정적 감정 고조 → 차분함 유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인식	아빠, 형과의 관계 친밀
청소년11	여	②	읍면 지역	2024년 상반기	정서적 어려움 (공황장애, 우울), 학교 분위기 부적응, 친구 관계	올해(8월) 고졸 검정고시 응시	고졸	꿈드림센터 프로그램 참여	꿈드림센터 직업체험(카페)	진로 결정	바리스타, 베이킹 분야 취직 희망, 제과제빵 자격증 취득 희망	우울증 개선	어렵지 않은 것으로 인식	부모의 지지
청소년12	남	②	읍면 지역	2024년 상반기	학교 분위기 부적응, 가출	올해(8월) 고졸 검정고시 응시	대졸	바리스타 자격증 준비, 대학입시 준비, 아르바이트	음식점	진로 결정	상급학교 진학	자퇴 후 행복감	어렵지 않은 것으로 인식	부모와 갈등 회복 후 지지(엄마가 역할 모델)
청소년13	남	①	대도시	2024년 하반기	외교 진학 실패, 학교 분위기 부적응,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 우수	올해(8월) 고졸 검정고시 응시	대학원 졸	대학 입시 준비	-	진로 결정	대학 진학	편안함 유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인식	부모의 지지, 아버지의 진로 조언에 대해 긍정적 평가
청소년14	남	②	대도시	2024년 상반기	특성학교 진학 실패, 학교 분위기 부적응, 진로 목표 실현	고졸 검정고시 합격	대졸	제과 기능사 자격증 준비, 창업 준비	베이커리 인턴 (꿈드림센터)	진로 결정	창업(카페)	우울증 개선	어렵지 않은 것으로 인식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
청소년15	여	②	중소 도시	2024년 상반기	친구 관계, 학교 분위기 어려움, 정서적 어려움(공황장애)	고졸 검정고시 합격	대졸	아르바이트	음식점	진로 미결정	대입 수시모집 준비 중	재학 중 공황장애 자퇴 후 편안함	어렵지 않은 것으로 인식	부모의 지지

ID	성별	연령대* ①만15-17 ②만18-20	지역 규모	학교를 그만둔 시기	학교를 그만둔 주요 이유	검정고시 취득 여부	희망 학력	근래 관심사/ 현재 주로 하는 일	아르바이트 경험	진로결정 여부 청소년 응답**	진로 계획	자퇴 후 심리정서	경제상황	가족관계
청소년16	남	①	중소 도시	2025년 상반기	학교와 맞지 않음, 학교 다니는 것이 의미 없음.	내년(4월) 고졸 검정고시 준비	고졸	검정고시 준비와 아르바이트 병행	음식점, 일용직	진로 미결정	-	다소의 후회감	어렵지 않은 것으로 인식	진로 관련 의견 차이는 있지만 지지해주는 편
청소년17	남	①	대도시	2025년 상반기	학교분위기(규칙적인 생활) 부적응, 학업 압박감	내년(4월) 고졸 검정고시 준비	고졸	검정고시 준비	-	진로 미결정	-	재학 중 우울증	어렵지 않은 것으로 인식	가족관계 원만
청소년18	여	②	중소 도시	2024년 하반기	부모님 자퇴 제안(대학 입학에 검정고시가 더 유리하다는 의견)	올해(8월) 고졸 검정고시 응시	대졸	검정고시 준비	-	진로 미결정	검정고시 응시 예정, 대학 진학 희망	후회감 → 안정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족관계 원만
청소년19	남	①	대도시	2024년 하반기	교사 관계, 신체적 건강, 정서적 어려움	올해(8월) 고졸 검정고시 응시	대학원 졸	대입 준비	-	진로 미결정	상급학교 진학	우울증 치료	풍족하지는 않다고 인식	부모와의 관계 원만
청소년20	남	①	대도시	2022년 하반기	학교생활 어려움, 학교 분위기 부적응	고졸 검정고시 합격	대졸	하는 일 없음	꿈드림센터 통한 인턴	진로 미결정	대학 진학 희망	다소의 후회감	경제적으로 어려움	부모의 지지
청소년21	남	②	읍면 지역	2024년 하반기	학교 분위기 (규칙적인 생활) 부적응, 학교 수업 지루함	올해(8월) 고졸 검정고시 응시	대졸	음식점 아르바이트	음식점	진로 미결정	창업(카페), 대학 입시, 회사 취업	별 감정 없음	어렵지는 않으나 스스로 아르바이트하여 용돈 충당	가족관계 원만
청소년22	남	②	대도시	2024년 하반기	진로 포기(운동), 학교 분위기(수업 방식) 부적응	내년 고졸 검정고시 준비	고졸	일용직, 음악(악기)	일용직	진로 미결정	-	심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무난

주: * 참가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2025-출생연도'로 만 나이 산출 및 범주화하여 제시함.

** 면접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초기 조사위탁기관의 질문에는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나, 후에 면접 진행과정에서 진로 결정으로 상황이 변경되었음.

(1) 진로 결정 응답 사례

① 기본 배경과 진로계획

먼저, 진로를 결정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개인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들은 2006년에서 2008년 출생자들로 17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이다. 성별은 여자 청소년이 9명, 남자 청소년은 5명이었다. 거주지역은 대도시 7명, 중소도시 4명, 읍면지역 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선택한 진로계획을 보면 대체로 상급학교 진학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총 14명의 참가자 중 9명은 상급학교(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5명은 취업이나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대체로 2년 이내로 나타났다. 이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학력을 취득한 바 있으며, 검정고시에 응시할 계획이 없는 참가자의 경우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하며 고졸 학력 취득을 염두에 두고 있다.

② 학교를 그만둔 주요 이유

이들이 학교를 그만둔 주요 이유는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기보다는 친구관계 문제, 교사와의 관계 문제, 학교 분위기에 부적응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친구관계의 어려움 등과 관련하여 우울이나 공황장애 등 개인 심리 정서적 문제가 겹치면서 학교에 다니기 힘들어진 사례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1: 제가 중학교 다닐 당시에 **학교에 좋은 기억이 많이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 당하고, 중학교 2학년 때 대안학교를 가고 거기서도 안 좋게 끝나서, 중학교 3학년 때 대안학교를 다녔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예 첫날부터 내가 여기서 진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없고, **친구를 사귀는 방법도 없고**. 아예 커리큘럼 자체가 일반계는 다르니까. 여기에 **적응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청소년2: 학교가 저한테 안 맞는 것도 있었고, **선생님이랑 불화도 있었어서**.

청소년9: 다른 학교 다니다가 전학을 간 학교였는데, 거기 학교에서 친구가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면서 **왕따 비슷하게 당해서** 그만뒀어요.

청소년3: 제가 사실 중학교 때 **왕따**를 좀 당했었는데,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 자체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원래 솔직히 교우 관계도 되게 좋고 성적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학교 다닌 지 한 달 만에 반장도 하고 친구들이랑도 엄청 열심히 놀러 다녔는데, (중략)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재미있게 다녔는데 공황장애가 심해지고 우울증이 왔었어요. (중략) 제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자기 비하가 심했던 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 막막함도 있었던 것 같고.

진로를 결정했다고 응답한 참가자 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하는데 학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등교하지 않다가 결국 그만둔 사례도 있었다. 이 참가자의 경우에도 학교 다니는 동안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배정받았지만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한편으로 진로 설정 과정에서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참가자들의 경우 대입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전략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선택을 한 사례들도 있었다.

청소년4: 그때부터(중학교) 이미 그림을 엄청 많이 그리고 있어서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림만 집중을 하고 싶단. 해서, (중략) 엄청 어려웠 때부터 계속 그렸는데 계속 비중이 느는 거예요. 그림의 비중이 삶에서. 그랬더니 학교를 가니까 너무 힘들다 했어요. 학교 갔다가 와서 바로 다시 그림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청소년6: 저희 09년생부터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저희 학년은 재수를 못 하거든요. 교육 과정이 다 바뀌어서. 차라리 1년 일찍 수능을 봐서 기회를 1번 더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저는 꿈이 명확했던 케이스라서 자퇴하고 그에 관련된 알바를 하거나 더 경험하고 싶어서 자퇴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13: 외국에서 살다 왔는데. 환경도 다르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도 않아서. 성적이나 교내 활동이나.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왔거든요. 내신보다. 그래서 수능으로 대학에 가야겠다 하고 (중략) 결국 나와서 자퇴하고 수능 공부를 계속하는데 (중략) 수학이 안 돼 결국 수능은 포기하고 검정고시 수시를 알아보게 된 거죠.

③ 최근 관심사나 고민

진로를 결정하였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최근 관심사나 고민에 대하여 대체로 진로와 관련된 것을 언급하였다.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참가자들의 경우 대학 입시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으며, 원하는 대학 입학 가능성 여부에 대한 우려가 큼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진로 계획 관련하여 대학 입학을 결정하였으나, 전공을 정하지 못하여 여전히 고민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청소년7: 고민거리는 **대학교 입시** 관련해서 고민이 있어요.

청소년6: 대학 입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학 수능을 잘 봐야 해서 대학을 제가 원하는 곳에 붙을 수 있을지가 제일 큰 고민거리예요.

청소년5: 고민거리라고 하면 **대학교 학과**가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10: 제가 대학교를 갈 것 같은데. 어떻게든. **가도 나중에 커서 뭘로 돈을 벌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중략) 과나 그런 건 아직 못 정해서.

한편, 어느 정도 직업 분야를 정하여 대학 입학 전략을 수립한 참가자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규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대학 진학 이후 학업 적응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 창업으로 카페를 구체화한 참가자도 창업을 염두에 두면서도 대학 진학에 대한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지 않고 현재 희망하고 있는 베이킹 분야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참가자의 경우에는 인턴십 연장 여부를 고민하고 있었다. 진로를 결정하였다는 참가자 중에는 대입 준비 등 진로 고민 외에 친구 관계 부재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12: **제가 대학교 가서 잘할 수 있는지 제일 고민이에요.** (중략) 대학교 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가서 제가 검정고시 졸업자니까 거기에 가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경쟁을 하기에는 너무 박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학점 따서 장학금이 목표거든요. 그게 어려울까봐 고민이에요.

청소년14: 고민은 사실 사업자를 내면서...(중략) 생각이 좀 많아져서... **대학교를 가야 될지 아니면 아예 집안일을 도와서 가게 차리는 거를 도와줘야 될지가 있습니다.** (중략) 집에서는 애기 많이 해 보긴 했는데, 아직 결론이 난 게 없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가게를 하다가 욕심이 생기면 대학 진학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보는 중이에요.

청소년9: 고민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인턴십이다 보니까. 이거 끝나고 계속 연장되면 좋는데 **연장이 안 됐을 때 뭘 해야 될지 아직 고민 중이에요.**

청소년1: 아무래도 대입 준비. **친구 없는 거.** (중략) 사귄 수는 있는데 센터에서 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보기가 힘들어요.

청소년8: 고민은, **친구가 없습니다.** 자주 만날 친구가. (중략) 센터에서도 딱히 친구를 못 사귀어서.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중략)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동갑내기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 진로 미결정 응답 사례

① 기본 배경과 진로계획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총 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출생 연도는 2006년에서 2009년 출생자들로 16에서 19세 청소년들이다. 성별은 여자 청소년이 2명, 남자 청소년은 6명이었고, 거주 지역은 대도시 4명, 중소도시 3명, 읍면지역 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지만, 실제로 상급학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참가자가 3명으로 나타났으며, 막연하지만 대학 입학을 염두에 두는 참가자 1명, 여러 가지 취업이나 창업을 고민하는 참가자 1명 등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반면, 여전히 무엇을 하면 좋을지 방황하거나 구체화하지 못한 참가자가 3명 있었다.

진로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은 모두 검정고시를 통한 고졸 학위 취득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이미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하거나 취득한 참가자가 5명, 조만간 응시 예정인 참가자가 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대체로 1년 내외로 나타났다.

② 학교를 그만둔 주요 이유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이 학교를 그만둔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학교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움, 규칙적인 등교의 어려움, 친구관계 문제, 교사와의 관계 문제 등이 많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녀의 진로 설정 과정에서 부모 권유로 정규학교를 그만두고 대안학교를 선택하거나, 검정고시를 치르도록 안내받은 참가자도 있었다.

청소년16: **학교랑 잘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맨날 같은 시간에 등교해서 하는 것도 힘들고.

청소년15: 딱히 **공부에 대해 흥미가 없었어요** 학교를 갔다 오면 하루가 끝나 있는 게 너무 저한테 **시간 낭비**라고 느껴져서. 학교도 살짝 분위기가. 저는 규칙을 잘 따르는 쪽인데 거기 학교는 질이 낮은 학교라 **애들이 도박하고 그런 느낌의 학교**라 괜히 스트레스.

청소년17: **원래도 학교를 싫어했어요** 중학생 때도 많이 빠졌는데. 제가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학교를 가면서. 중학생 때 한 번씩 스트레스가 쌓여서 터져서 가끔씩 가출하였다가 학교 완전 빠지고. 졸업 이수 채울 정도는 아니고. 한 학년에 무단으로 7일 정도 빠진 것 같고. 병가를 내고 그냥 빠진 게 열흘에서 15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청소년21: 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기도 했고, **학교 수업을 좀 지루해했어요**, 많이. 계속 그 틀에 맞게 같은 일상 계속 반복하는 게 너무 좀 그렇고 해서. 그럼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겠다 부모님 설득해서 자퇴하게 됐어요.

청소년18: 처음에는 학교를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 **부모님께서 대안학교라는 학교를 어쩌다 보니까 듣게 되셨나 봐요**. 그 대안학교라는 곳에서 검정고시가 학교 시험보다 훨씬 쉽다. 그리고 검정고시가 합격하면 더 검정고시라는 게 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좋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부모님께서 솔깃하셨는지 ○○아 너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는 건 어떠냐?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자퇴하고 싶지 않다고 하다가 설득을 당해서 자퇴를 한 것 같아요.

진로와 관련하여 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세 번 자퇴를 경험한 참가자도 있었다. 특성화고에 진학하여 스포츠 관련 전공을 염두에 두었으나, 추후에 운동에 재능을 보여 이를 지원하는 대안학교에 진학하여 운동선수의 길을 가고자 하였다. 하지만, 경제 여건 및 제반 사항을 고려한 부모님의 권유로 대안학교를 그만두고 일반 정규 고등학교로 한 학년 낮추어 편입하게 되었고 그 학교에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역시 그만두는 선택을 하게 된다.

청소년22: 제가 학교를 고2 때 세 번 자퇴를 했는데.(중략) 그냥 일반적인 특성화고에서 스포츠와 같은 걸 들어가서 지내다가 생활을 하다가.(중략) 대안학교에 ○○부(운동부)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이제 거기도 관두게 되었는데, 대안학교를 관두게 되면서 같은 학년대로 전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1년 아래로 학교를 다녔었죠. 그래서 관둘 당시에는 고2였어요. (중략) 교과서 곁에 있는 것만 그냥 달달이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고 (중략)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오는 기쁨이 되게 컸거든요. (중략)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이해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중 알려주고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되게 짜증이 났어요.

③ 최근 관심사나 고민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의 경우도 대체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진로 관련 고민은 대학 입학 가능성을 타진하는 수준부터 특정 대학 특정 학과에 합격하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택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된 고민을 하는 수준으로 분화되고 있었다.

청소년15: 지금 당장 **대입** 말고는 크게 없어요.

청소년18: 어제까지만 해도 감정고시를 잘 치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컸어요. 제가 점수, 정답지가 나와서 해보니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음 목표를 준비해 나가야 되죠. 지금으로서는 딱히 고민이라는 게 별로 생기지는 않았는데 생길 것 같은 고민이, **어느 학과를 정해야 될지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내가 대학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간단하면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지. 그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청소년19: 제일 큰 거는 학업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어제도 그것 때문에 **많은 날을 진로 진학 고민해 잠도 잘 못 자고.** 불면증이 살짝 있어요. (중략) 내가 과연 그 성적을 맞출 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 진로진학 관련해서 요즘 대입에 생기부를 반영한다고 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생기부는) 사실상 없으니까. 그거를 **대학교는 정량 평가를 해서 a b c d등급으로 나눈다고 그러거든요. 상위 학과는 a등급 b등급 안에 못 들면 못 간대니까. 탈락될 수도 있다고 하고 점수가 많이 깨이니까. 그 부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서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건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진로 미결정 청소년들의 경우 막연하게 자신의 관심 분야 진로가 무엇인지 찾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싶지만, 마땅한 가이드가 제시되지 않아 게임을 하거나 혼자 생각하는 수준에 머무르거나 방황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청소년16: **아무리 생각해도 진로가 아닌가 (중략) 제가 이렇게 대책 없이 살아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갈피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중략) 부모님은 주로 기술 같은 걸 배워서 먹고 살아라. (중략) 자동차 쪽으로. (중략) (저는) 다른 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중략) 진로가 방해물입니다. (중략) 답답해지면 기분 전환할 때 게임하러 가는 거 같아요. (중략) PC방 가서.**

청소년20: 제가 관심 가는 건 많아요. 다 조금씩 궁금하고 관심갖고. 괜찮은 것 같고 하면 이거를 내 진로에 맞나?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가 보면 막상 해보면 질리고 막상 흥미를 못 느끼고.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게 있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뭘 잘하진 않아도 진짜 좋아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떤 형은 바둑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는데 바둑을 꿈을 갖고 하는 것도 멋있고. **나는 딱히 뭘 좋아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생각이 많아지고.**

청소년22: **지금 많이 방향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누가 가는 길을 잡아 주려고 하거나 조언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제가 하려는 많은 것들을 만류하려는 느낌이 많았어서. (중략) 고민할 새도 없이 20살이 돼 버렸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방향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를 책임지기 위해서, 혹은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계속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이 자본을 벌어들일 궁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직장에 들어와서 하더라도 그렇게 성취감 있게 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할 만한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진로 미결정 청소년들 중에는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고민은 하고 있지만 현재의 관심사는 자신의 취미생활을 위한 소비재 구입이나 행복한 삶을 위한 버킷리스트 채우기 등으로 응답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청소년21: (요즘 고민거리는) 크게 없는 거 같아요. (중략) **살짝 그냥 미래에 뭐 어떻게 할지, 그냥 그 정도?** (중략) (근래 관심은) 관심 있는 분야요? 저 바이크를 타고 싶어 가지고.

청소년17: 고민거리는 딱히 없는데. 관심사는 제가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버킷 리스트 100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정해보고 이걸 하면서 살면 내가 그래도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해보고 있어요. (중략) 지금은 25개 정도밖에 못 적긴 했는데. 한 가지를 예시로 들면 제가 좋아하는 책을 리스트를 만드는 걸 하거든요. 지금은 40권 정도밖에 없긴 한데 그걸 천 권 정도 채워보려고. 그리고 제가 라틴어나 불어 이탈리아어도 배워보고 싶어서 그런 언어들을 적고 제가 *****(악기)**도 배우고 있잖아요. ***를 그래도 전공자 정도는 아니고. 아마추어에 대해서 상위권 정도는 해보자 해서 그런 것도 적어 놔어요.

2) 사례 간 분석: 학교 밖에서의 진로 탐색, 진로 준비 및 지원 경험⁷²⁾

(1) 학교를 그만두는 시점에서의 진로 계획

① 학교 자퇴 시점에 진로(일, 취업) 계획 수립

학교를 그만둘 무렵에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정한 참가자들의 사례들도 있었다. 다수는 아니지만, 한 참가자의 경우 베이킹 관련 진로를 정하였고, 관련 분야의 인턴 체험을 지속하고 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직업을 염두에 두고 고등학교를 그만둔 후 또래에 비해 좀 더 빨리 대학에 진학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청소년9(결): 계속 하고 싶은 거 하자, 라는 생각으로 했었어요. (중략) 일단 그래도 비교적 저렴한 학원을 찾아서 자격증이라도 먼저 따자는 생각을 했었어요. (중략) 그런데 부모님께서 먼저 검정고시부터 따라 하셔서 그거부터 먼저 공부했었어요.

청소년6(결): 일단은 자퇴한다는 게 중졸이 되는 거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했던 것 같아요. 일단 검정고시를 보고 자격증 준비를 한다던가. 만약 전문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더라도 저는 그때 졸업을 해도 19살인가 20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을 어떻게 더 쌓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중략) 저는 인터넷에서 따는 반려동물 사육 훈련사 자격증을 따려고 했었어요. 결국에는 그때가 자퇴한 다음이었는데 그때는 꿈드림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거를 먼저 목표로 했어서. 아직 그거는 준비를 안 했고, 그때는 꿈드림센터에 가서 꿈을 전달하고 그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 1순위로 뒀던 것 같아요.

② 대학 진학 전략으로 검정고시 계획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대학 입학에 위한 전략으로 검정고시 고득점을 노리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단순히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방법을 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퇴를 택하는 경우보다는 학교 재학 중 친구관계 문제나 학업 성적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자퇴를 고려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대학 진학을 위한 또 다른 전략으로 검정고시를 통한 입시를 계획하게 된다.

청소년18(미): 무조건 검정고시부터 먼저 보자. 일단 검정고시부터 생각하자. 검정고시만 생각하고 공부하자 해서 검정고시를 합격으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검정고시 점수가 잘 나오는 걸 목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박세게 했던 거 같아요.

72) 학교 밖 청소년의 직접 인터뷰 내용(음영 박스 처리 부분)에서 ID옆에 표시된 ‘(결)’은 처음 면접대상자 섭외 시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다’고 응답한 것을, 또 ‘(미)’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진로계획 및 관련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이러한 응답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관찰되면서 이 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관련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표시하였다.

청소년7(결): 학교에서 성적 받는 것보다 검정고시 거의 만점 받아서, 만점을 받으면 대학교마다 등급 환산을 해주거든요. **그 등급 환산해주는 게 더 높아서 검정고시로 대학을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5(결): 그때는(학교 그만두는 시점에 진로계획)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검정고시 성적 보고 갈 수 있는 직업으로 하자고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중략) 간호사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기보다는 그 학과에 들어가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자격증 공부 같은 거를 어떻게 미리 준비하면 좋을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③ 진로계획 불확실, 불명확한 진로

학교를 그만두는 시점에 진로 계획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참가자들도 있었다. 학교 분위기와 맞지 않아 학교 자퇴를 선택한 참가자들의 경우 뚜렷한 진로 계획을 설정하고 자퇴하기보다는 학교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학교 분위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학교를 중단한 사례들이다.

청소년10(결): **계속 뭐 하지 생각을 계속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어서.** (중략) 학교 나가는 것도 귀찮고 하니까. 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 치르고 집에서 쉬어야 하나? 이런 고민도 가끔 하고 그랬어요.

청소년16(미): 아버지 말대로 자동차 쪽으로 배워볼까 했는데 안 와 달아가지고. (중략) **어떻게 살지는 계획은 없었어요.** (다른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건) (중략) 따로 없어요.

청소년22(미): (진로 계획이) **딱히 없었던 거 같아요. 애초에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놓지를 않았었고** 그때 당시에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이걸 계속 이어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했을 뿐이지. 미래가,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하긴 했는데 이걸로 무슨 기술을 배워야겠다, 나중에 대학에 가서 내가 뭘 배우고 싶다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2) 학교를 나온 뒤 경험하는 진로 현실

① 계획과는 다르게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일과

학교를 자퇴한 뒤 청소년들은 스스로 세운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체감하게 된다. 자퇴를 결심하고 부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세우고 허락을 받았지만, 실제로 자퇴 후에는 계획대로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진로를 결정했다고 응답한 청소년과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모두에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3(결): 자퇴하면서 제가 계획을 처음에 짰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씩 공부하고 이런 걸 하겠다. 라면서 계획을 짜서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자퇴를 허락받은 건데. 모든 자퇴생의 공통점일 텐데, **그렇게 계획을 짜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패턴이 바뀌고, 사실 늦게 일어나는**

것도 늦게 일어나게 되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규칙적인 게 있지만, 사실 자퇴를 하게 되면 백수잖아요.

청소년6(결): **저는 자퇴를 하면 제가 정말 열심히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자퇴해서 저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늘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알바나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하기도 해서 오히려 이럴 거면 차라리 학교에 가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나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래도 괜찮아진 것 같아요.

청소년13(결): **공부에 무조건 집중할 줄 알았죠**. 하루에 10시간 넘게 막 공부를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형 독서실도 다니고, 재수 종합 학원도 다녔어요. 당연히 힘들어서 나가떨어졌죠. 몇 달 다니다가 그만두고, 혼자서 해보겠다고 하다가 공부에 집중을 못 하게 돼서, 결국은 수능을 그만둔 거고,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22(미): 스스로 많이는 모르겠는데 하루하루를 성실한 일들을 하면서 즐겁게 채워 나가고 싶었던 거 같아요. (중략) **사실 박살이 났죠**. 그런 생각들은 거의 다 박살이 났어요.

② 선생님의 가이드 부재로 겪는 어려움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학습이나 진로 안내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하였다. 주변에서 일과를 챙겨주거나 학습에 대한 지도가 주어졌던 학교를 떠남으로써 이들은 심리적으로 우울하거나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다.

청소년3(결): 백수가 계획에 맞춰 살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중략) 일단 누군가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학교 밖은... 학교 안은 선생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애들도 다 똑같이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학교를 그만두니까 누가 이거 공부 계속해야 돼. 이거 해야 돼. 하는 느낌도 아니고, 무엇보다 저는 수동적으로 이런 걸 잘 하지는 못하는 편이에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 하는 편인데, **자퇴하고 당시에는 계획만 짜 났었지 주변에서 말하는 것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우울의 길로 빠졌던 것 같아요**.

청소년19(미): **지지 기반이 많이 없다는 거**. 입시 컨설팅 같은 게 상담이 어려운 게 큰 것 같아요. (중략)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공부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면 좋는데 그런 게 더 이상 없으니까 사실상 어렵잖아요. 반기가 힘든니까... 그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략) 맨땅에 헤딩이에요.

③ 생각보다 어려운 검정고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학 입학을 위해 검정고시 고득점을 얻고자 하지만, 학력 취득을 위한 기준 점수에 비해, 대입 경쟁에 유리한 고득점을 얻는 것이 예상보다 쉽지 않음을 체감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검정고시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토로하였다.

청소년5(결): 검정고시라는 게 학교에서 매달 시험 보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난이도보다는 쉽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서, 검정고시를 조금만 준비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겠지?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현실에 맞닥뜨리니 그렇지 않았고. 정말 노력한 대로 나오는 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18(미): 그때는 조금 어려웠죠. 내가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검정고시도 잘 봐야지 결과가 잘 나와야지 그나마 대학에 들어갈까 말까인데, 만약 합격만 하고 점수가 낮으면 대학을 못 가게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심하게 낮았어요. 진로도 그렇고요.**

④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진로 준비 제약

학교를 자퇴한 후 비교적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 제약에 부딪히게 된다. 실제로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진로 준비를 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음을 체감하게 된다. 청소년 나이대에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아르바이트 구직도 쉽지 않았다. 그리고 원하는 분야에 도전하고 싶었지만 경제적 제약으로 배움의 기회를 얻기도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청소년10(결): 제 또래에 비해서 빨리 돈 벌고 알아서 살 수 있고. 이런 걸 빨리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나이는 좀 어려도 성인들처럼,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게 컸었는데. 그게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중략) 알바도 해보고. 배달도 해보니까. **이게 힘든 거구나.** 생각도 해 보고. 일단 나이도 어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제한되다 보니까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12(결): 자유는 있었죠. 신체적 자유는 있었죠. **경제적 자유가 없었죠.**

청소년20(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해보고 했는데도 딱히 흥미를 찾는 그런 게 없고. 어정쩡한 그런 것들밖에 없어서 **내 진로 찾기가 아직도 완벽하게 못 찾은 것 같아요.** (중략) 뭔가 해보고 싶는데 할 때마다 **경제적으로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중략) 음악 분야에도 해보고 싶었고. 공학적으로도 해보고 싶었고. 컴퓨터 쪽으로도 해보고 싶었고.

청소년1(결): 꿈드림에서 인턴도 시켜주고 우리나라에서 해주는 건 많기는 했는데. **대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아직 어려워요.** 아예 처음부터 대입을 하려고 자퇴를 애들은 학원에서 다 도와주긴 하겠지만. 저 같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집안은 아니고. **혼자 준비해야 될 게 많은 사람한테는 아직 부족한.**

⑤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연습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서 청소년들은 심적으로 불안감, 막막함, 두려움 등을 느끼게 된다. 학교 안에서 당연히 주어지는 배움에 대한 기회가 사라졌다는 현실, 대다수 학생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선택하는 전형이 아닌 검정고시 고득점 취득 등을 통해 별도의 입시전형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 혼자서 원하는 직업을 얻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불안감 등을 감당해야 한다.

청소년9(결): 아무래도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서 **학교 다니는 애들보다 뒤쳐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중략) 개네들은 학교에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저는 아무래도 학교 밖 청소년이다 보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청소년7(결): 그때는 학교를 아예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때도 꿈드림을 몰랐어서. 혼자 찾아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대학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불안했을 것 같아요.**

청소년18(미): 좀 불안했죠. (중략) **불안함이 너무 커서** 다른 거는 잘 느끼지 못했어요.

청소년19(미): **막연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나오면 내가 과연 잘해서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청소년5(결): 학교를 그만뒀을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행복했는데. 학교를 그만둔 지 좀 됐기도 하고. 지냈을 때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과 압박이 간혀 있었을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도 정말 많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길을 제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런 선택에 있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청소년20(미): 처음에는 자퇴할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되겠지 되겠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너무 찾기가 힘들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⑥ 자퇴 후 진로 선택지 마련: 긍정적 변화

한편, 학교 밖에서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자퇴 이후 긍정적 변화와 자신감을 키운 사례도 있었다. 가족과 함께 디저트 카페 창업 계획을 세운 참가자, 세무사로 직업 방향을 설정한 참가자 등 좀 더 구체적으로 직업을 정한 사례들에서 이러한 태도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14(결): 자퇴할 때는 우울증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힘들어서 자퇴하는 느낌이 있었고. 자퇴하고 나서 계획이 생긴 거예요. (중략) **청소년센터 다니면서** 친구도 사귀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도 나고 해보고 싶은 게 점점 생기니까 그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금까지. (중략) 저는 **자퇴하고 나서 좀 더 재밌게 생활한 거 같아요.**

청소년12(결): 그 이전에는 사고도 치고 그랬으니까. 불안함이 굉장히 컸죠. 그때 상처도 많이 받고. 사람을 믿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고. **지금은 약간 편해요.** 행복하기도 하고. 물론 힘들긴 하죠. 사람 관계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니까. 힘들긴 한데 예전보다 많이 행복해요.

(3) 학교 밖 생활 중 진로 인식 변화

① 직업 세계의 냉혹한 현실 및 장벽 등 체감

학교 밖 생활 과정에서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 세계의 동향을 파악하게

된다. 웹툰작가를 꿈꾸며 창작활동을 하는 참가자의 경우 본격적인 직업 세계로 들어서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업계에서 원하는 분량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점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막연하게 카페 창업을 염두에 두었던 참가자의 경우도 창업 비용이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부담 등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현실을 체감하고 있었다.

청소년4(결): 제가 맨 처음에 만화를 그릴 때는 편당 40컷으로 그렸는데 업계 쪽을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요즘 산업 웹툰들은 너무 가혹하더라고요. 분량이 70컷 이상을 주마다 그려야 되는 건데. 저 같은 인디 작가들은 많이 힘들죠. 70컷을 그리는 게. 그거 보고 나서 이건 사람이 할 게 아닌 것 같다. 지금도 허리가 안 좋거든요. 거의 종일 작업을 해서. (중략) 저는 60컷 정도로 하거든요. 많이 힘들어요.

청소년21(미): (카페 창업이) 살짝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좀 많아서.** 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는 살짝 그런 느낌. (중략)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데 금전적으로 좀 많이 하기도 하고, 한번 차렸다가 실패하면은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너무 선부르게 행동하기가 좀 어려운 거 같아요.

② 전공 및 진로방향 변화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그만둘 즈음에 구상한 대학의 전공에 대해 되돌아보고 새롭게 전공 선택을 하거나 진로 방향을 바꾸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행정학과를 희망하다가 전공 공부 후 명확한 직업 연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정보를 얻는 동시에 전혀 다른 분야들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영문학이나 마케팅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진로 관심 변화를 보였던 참가자도 있었다. 그리고 검정고시 준비 과정에서 간호학과가 요구하는 등급이 높다는 현실을 파악하면서, 또 다른 대체 직종을 모색하는 참가자도 있었으며, 유아교육 전공을 택했을 때 향후 진로 전망이 밝지 않다고 파악하여 다른 학과를 모색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청소년7(결): 행정학과는 **일단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진로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중략) 계속 찾아보니까 행정학과를 나오면 명확하게 배우는 게 없다고 유튜브에서 봐서. 다른 쪽으로 관심이 생겼기도 해서 굳이 **학과를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중략) 어학연수? 워홀. 해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걸 느끼고 싶어서. ****학과나. 최근에 생각한 거는 화장품 회사를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마케팅 쪽으로 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청소년5(결): 간호학과도 정말 높은 등급을 원하는 등급이었어서. 학교마다 검정고시 등급에 반영해주는 건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낮은 등급으로 봤을 때 내가 간호학과를 갈 수 있는 등급을 맞는다는 보장이 없었기에. 그 등급보다 간호사와 비슷한 직업을 생각했을 때에 **어떤 직업이 나에게 맞는지. 그런 고민들은 조금 있었어요.**

청소년18(미): 유아교육과가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이기도 하고. 내가 유아교육과를 가서 유치원 선생님이나 그런 사람이 됐다고 쳐도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아교육과가 됐는데, 유아교육과를 지원해서 선생님까지 됐는데, 애들이 별로 없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잘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그때는 지금처럼 많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중략) **다른 학과라도 알아볼까 싶었던 거 같아요.**

③ 개인 생활 과정에서 진로 계획 구체화

학교를 그만두고 방황하던 생활에서 가족의 영향으로 진로 계획을 구체화한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의 경우 가출이나 일탈을 하던 시기에 어머니가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자신도 진로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청소년12(결): 저희 어머니가 제가 가출할 시기에 솔직히 부모님들은 자식이 가출하면 힘들어 하시잖아요. 힘든 시기에 ****라는 자격증을 공부하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그런데 어머니가 그 힘든 와중에도 이겨내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결국엔 따셨어요. ****자격증을. (중략) **그걸로 정신 차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걸로 영감을 받은 거죠 내가. (중략)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긴 한데. 제가 수학을 탁월하게 잘해요. 제 꿈을 쫓기 위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저는 제 장점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중략) 원래 처음에 은행원을 생각을 했었어요. 은행원은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알아보다가 엄마가 **** 하셨다고 했잖아요. ****에 관련된 직업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부모님 지원도 받고. 돈도 받고 하나씩.

④ 지속되는 진로 고민

학교 밖 생활 과정에서 여전히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선택지에 대해 막연하게 고민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한 참가자의 경우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계속 탐색하고 있으며, 직업 선택과 관련해서는 우선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찾아보겠다는 잠정적인 결정을 내렸다.

청소년17(미): 아직 몸 쓰는 일이나 알바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알바 같은 걸 오래 하다 보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해보고 나에게 적성에 맞다 싶으면 알바를 하면서 먹고 살아도 될 것 같고. 그래도 살 수는 있지만. 만약 맞지 않는다. 이것도 힘들 것 같다 싶으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일할 방법을 찾아 봐야하지 않나. (중략) **제가 꿈이 순차적으로 바뀌었는데** 맨 처음에 제가 소설을 되게 좋아했어요. 나도 소설을 써보고 싶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서 어떨까? 라고 해봤는데 상상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고 그리고 *******(악기) 소리 너무 좋다. 나도 해보고 싶다 해서 그걸 꿈꿔봤는데, ***은 재능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음치 박치 정도는 아닌데 제가 예술가를 할 정도로 제가 감각이 좋지 않은 거예요. (중략) 천재나 수재 정도는 아니고. 제가 그래도 범재보다는 딱 평범한 정도라서 그런 걸 직업으로 삼을 정도로 뛰어난 것 아니고요. 지금은 먹고 살기라도 하자. 먹고 살기만 할 수 있으면 문제는 없다.

한편, 운동선수의 꿈을 키우며 학교에 다니다가 경제 상황 등 여건이 여의찮아 운동선수의 길을 포기하고 학교를 그만둔 참가자의 경우, 자발적 포기가 아닌 아버지의 강요로 인해 중단하게 되었다. 그 이후 다양한 스포츠활동에 도전하였지만, 여전히 진로 설정이 어렵고 방향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둔 뒤에도 스포츠 관련 자격증에 도전해 보기도 하였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둔 참가자의 경우도 대학 진학이라는 진로는 결정하였지만, 여전히 어떤 전공을 택하고 직업을 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상황이었다.

청소년22(미):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라는 게 많이 분석하고 그 스포츠의 특징에 따라서, 그 스포츠의 특징을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더 잘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가 옆에서 알려줬다면 잘해 나갈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난데없이 관두라 그래서 많이 당황하긴 했죠. 그때 길을 잃었던 것 같아요. (중략) **지금 많이 방향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중략) **정보가 많이 없다는 것도 있는 거 같고,** 그 정보를 얻을 힘이 저한테 있는데 그거를 할 만한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핑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주변에 그런 지식들을 알려줄 만한 선생님들이 없었기 때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10(결): (스포츠) 배우다가 적성에 맞다 하면 강사 자격증도 나중에 따고 그렇게 해 보려고 생각했는데. **하다가 질려서 그만뒀습니다.** (중략) **제가 대학교를 갈 것 같은데. 어떻게든. 가도 나중에 커서 뭘로 돈을 벌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중략) **과나 그런 건 아직 못 정해서.** (중략) 뭘 해야 할지 알면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고 체험도 하면 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시작 자체가 안 되니까.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미래 직업으로 간호사를 꿈꾸며 대학 전공을 좀 더 구체화하여 고민하던 참가자의 경우도 간호사라는 직업의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된 후 미래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확신이 줄어들고 있으며, 다른 선택지들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

청소년15(미): 저도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제 성격유형검사 해서 어떤 직업이 잘 맞는다. 제 강점도 다 알아봤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잘 맞는 거는 회계나 그런 게 잘 맞다고 하더라고요. 회계나 사람 잘 안 만나는 그런 거랑 잘 맞는다고는 하는데 그런 게 되려면 고학력자에다 취업이 될지도 문제이고. 대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인데 요즘은 대학이랑 연계가 되면서 대학교에서 전공을 잘 가야 나중에 취업이 잘 된다. 이런 말들도 있으니까 **무조건 직업은 정해놓고 들어가야겠다는 압박 때문에 지금 더 혼란스러운 상태인 거 같아요.** (중략) 간호사라는 직업은 태움이라고 갑질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3교대라서 너무 박 센데 월급은 그대로 못 받고. 이런 거에 현실적인 거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심리나 경영 쪽으로도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면 전문대 간호대 같은 데에서 임상병리학이랑 방사선학과 갈 수 있더라고요. 사람을 별로 안 만나는. 딱히 얘기를 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데라도 갈까?

구체적인 직업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 진학을 고려하던 참가자의 경우에도 막상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됨을 토로하였다.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였지만, 수시 입시 절차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정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점,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청소년20(미): **지금 막상 대학 시즌 수시 시즌이 다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중략) 3개월 전만 해도 이번에 꼭 대학 들어가서 일찍 일찍 하자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막상 다가오니까 내가 이걸 전공해서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입학금도 있다 보니까 알바를 구하고 대학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중략) 꿈드림에서 대학 컨설팅을 받긴 했었어요. 갈 수 있는 대학은 성적으로 정해졌긴 했는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있지만, 그걸 내가 진짜 대학은 전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공을 할 만큼 그런 실력이 아직도 있지 않고 아직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4) 특정 분야 진로에 대한 관심 계기

① SNS 및 매체

우리 사회의 일상을 구성하는 환경에서 SNS 등 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에 따라 청소년들이 특정 직업에 대한 관심도 매체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상에서 접하는 SNS 정보를 통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된다. 연구 참가자들 중에서도 SNS를 통하여 관심 분야 직업인들을 접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SNS 정보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지인이나 개인의 특별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진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청소년5(결): SNS를 보면서 남들이 잘 되는 모습을 많이 봤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신 어떤 의과 대학을 합격하신 분을 봤었는데. 우연히 그분을 보니까 멋져 보이는 감정이 들었는데 (중략) **처음에 SNS에서 그걸 접했을 때는 그냥 하고 싶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주변에서 의료 쪽의 직업은 어떨겠냐? 라고 (중략) 그런 권유를 계속 듣다 보니까 (중략) 저 직업이 정말 나랑 잘 맞는 직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8(결): SNS에서 어떤 DJ가 클럽에서 디제잉 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도 DJ가 돼서 꼭 사람들이 내 음악에 춤을 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DJ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략) 제가 원래 ○○○ 선수였거든요 (중략) (부상으로) ○○○ 선수라는 꿈을 접고 절망하고 있을 때 제 알고리즘에 딱 DJ가 나타나서 “너 DJ 해라” 느낌으로 영상을 보여줘서 DJ를 하게 된...

청소년7(결): 마케팅 말씀하신 선생님은 센터 선생님이셨어요. 상담하다가 화장품 관련된 회사 들어가고 싶다고 하니 마케팅이 제일 많으니까 그쪽으로 잡아라 하셔서.(중략) **유튜브가 가장...**(정보 얻기 좋아요) 치면 다 퇴사 후기. 이런 게 나오니까. 무슨 일을 했는데 퇴사했다.

청소년14(결): 배우는 건 학원에서 많이 배웠고 나머지는 **유튜브 찾아보면서**. 아니면 만들면서 애가 왜 실패했는지 애는 왜 또 이렇게 잘 됐는지 그런 거에서 많이 배운 거 같아요. 저는.

② 부모의 삶으로부터 영향

청소년들의 진로 관심 형성 배경으로 부모의 삶에서 영향을 받는 사례들도 있었다. 한 참가자의 경우 청소년기 일탈과 방황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시험 준비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세무사의 진로를 택하였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즐겨하던 홈베이킹을 하며 연습하는 과정에서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부모의 직업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그 직업을 갖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여전히 진로 방향을 모색 중인 참가자의 경우 아버지의 직업은 너무 엄격한 일정 관리 부담이 있음을 체감하며, 이 직업을 택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였다.

청소년12(결): 저희 엄마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가 애초에 어렵기도 한데. 그 외중에 제가 기출하고 힘든 상태인데 그 어려운 걸 해내셨으니까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청소년14(결):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그때부터 부모님이 원래 취미로 하셨는데 해보고 싶다고 부모님도 그래서 집에서 홈베이킹 하는 거 보고 그 때까지는 저도 잘 못했거든요 사실. 취미로만 갖고 있었고.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 부모님 보고 나도 연습을 해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더 적성이 맞는 거 같고 흥미가 생겨서. 직업으로 갖고 싶다고 생각해서 가진 거예요.

청소년17(미): 아버지가 사는 걸 보니까 이거 편할 것 같긴 한데 너무 내가 하기엔 귀찮을 것 같다. 딱 납품 기한을 못 맞출 것 같다. 그래서 일찍이 그만둘 생각을 했어요.

③ 주변 사람들의 전공이나 직업으로부터 관심

연구 참가자들의 진로 관심은 자신이 주변에서 접하는 사람들로부터 발전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진로 선택지 중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종사하는 일이 자신의 진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형제자매가 종사하는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례도 있었고, 엄마의 영향이 컸지만 친척 중에 회계사와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어서 자신도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또한, 아직 구체적인 진로 방향을 설정하지는 못했지만, 주변 친척들의 직업을 살펴보며 직업적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하는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10(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헤어 디자이너도 해 보고 싶어서.(중략) **가 미용사인데, **할 것도 없고 생각해 보다가**, 제가 헤어 디자이너 하면 제 머리로 깔끔하게 만질 수 있으니까.

청소년12(결): 거기에 관련된 게 세무사더라고요. 저희 사촌 형이 회계사를 하신대요. 거기서 저희 삼촌이랑 이모도 공인중개사 하시고 있거든요. 지금, 친척이나 가족들끼리 연관되고. 저도 세무사를 하면 거기 지금 완전히 연결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걸 알아봤는데 연봉도 세더라고요. 돈도 꽤 쓸쓸하게 벌고. 이걸로 충분히 먹고 살 것 같다 해서.

청소년17(미): 준비는 없었는데. 사촌 형 중에 공무원이 한 명 있고 저희 이모가 선생님이거든요. 중학교 영어 선생님. 그래서 이모가 사는 거 보면 저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싶고. 저희 공무원 하는 형이 한 번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휴가가 있잖아요. 휴가를 한꺼번에 몰아 써서 여행 다녀오는 거 보면 **아, 저렇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싶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역시 일부 참가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지인들의 선택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진로도 모색하고 있었다. 한 참가자는 주변 친구들의 대학 진학 선택을 보고 자신도 대학 진학을 고려하거나, 다른 참가자의 경우 종교시설의 선배들을 통하여 대학 전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창업과 관련하여 지인의 사례를 파악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지어보는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7(결): 이번에 제 주변에 센터 애들은 다 대학을 간다고 목표를 잡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나도 대학을 가야겠구나 생각하고**, 부모님도 고졸 검고는 안 되니까 대학이라도 전문대라도 가라. 이런 마인드여서. 대학은 꼭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청소년21(미): 제가 **을 다니는데, **의 청년부 누나가 이제 사회복지과 나와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를 봤는데, (중략) **얘기 들어보면** 막 그렇게까지 힘들어 보이거나 그런 것까지는 없어서. (중략) 한번 해보자 해서 하게 된 거 같아요. (중략) **밴드부를 제가 하는데. (중략) **청년부 누나 중에 거기서 일하는 누나가 한 명 있어서, 경영학과에 대한 것도 살짝 물어보고 했더니, 야간수업이 있고 이런 것도 조금 들어서. 상황 아닌 상황이 좀 가까워졌던 거 같아요, 학교랑. (중략) 아는 동생 부모님께서 카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놀러 가보기도 했는데. 뭐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중략) 친구 어머니가 이제 인테리어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친구 어머니하고는 제가 친분이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 인테리어도 이렇게 하면 좀 필요하겠단다' 이런 식으로. 음. 그냥 진짜 간단한 그런 금액 정도도 알려 주시고, 그냥 살짝 그렇게 조금씩 조언 아닌 조언을 들어서.

④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관심사 발견

진로에 대한 관심사는 청소년 개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경험했던 생활 사건들과 관련하여 발전하기도 하였다. 한 참가자의 경우 청소년기에 미국에서 몇 년간 생활하는 가운데 배우게 되었던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언어 재능을 체감하게 되었으며, 영어 뿐

아니라 러시아어, 일본어 등에 대한 흥미와 학습에 두각을 나타냄을 깨달으며 언어학자가 되고 싶다는 진로를 설정한다.

청소년13(결): **어를 배우는데 이거를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것도 있는데. 제가 또래 애들보다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영어는 싫어했었는데 **어는... 영어는 남들 다 하는 거니까 그걸 잘 해도 크게 뭘 못 느꼈거든요. (중략) 다른 외국어도 일본어라든지. 러시아어도 했고. (중략) 혼자서 책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면서 하는데 그것도 재밌고 잘 익혀지는 거예요. 그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진로를 굳히는 데에 있어서. 그게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이었다면 진로를 이렇게 못 정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중략) ***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수업에 배웠던 단어들을 사용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외국어를 갖고 실생활에 사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정말로 너무 좋았어요. 그런 행동이.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게.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배워보고 싶다 하고 배우다 보니까 언어학도 알게 되고.

스스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진로를 학교 밖 청소년을 돕는 분야로 설정한 참가자도 있으며, 어린 시절 떠나보낸 반려견에 대한 기억, 반려견을 떠나보낸 친구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또 개인적으로 가족의 중증 질환들을 경험하고 병원 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료진을 접하게 되었고, 환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의료인으로 진로를 설정한 참가자도 있었다.

청소년3(결):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다 일탈 청소년이다, 비행 청소년이다. 이런 생각이 많은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른들이 방향하는 거를 못 잡아줘서 그런 쪽으로 간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꼭 방향하는 친구를 보면 꼭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청소년6(결): 동물과의 교감이 저한테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강아지를 1마리 키웠었는데 그 친구를 일찍 떠나 보내서. 그 후로는 동물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개를 보내고. 어느 날 친구랑 같이 동물원에 중1 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큰 동물원을 돌아다니면서 이 친구들과 함께 교감해 보고 싶고, 있어 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알아보다가 결국에 꿈을 고정적으로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중략) 그것도 있었고. 중2 때 딱 고정으로 하게 된 거는 친구네 강아지를 보면서. 친구네 강아지가 많이 아팠었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는 저는 떠나보내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는데, 그 친구가 정말 학교에서도 계속 기운이 없고 학교도 못 나오더라고요. 저렇게까지 깊게 동물을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저렇게 저런 깊은 교감이나 유대관계를 형성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큰 원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19(미): 제 가족은 대체로 환자분들이 많았어요. (중략) 저도 아팠고. 가족적으로 봤을 때 아픈 분들이 많았는데, 좋은 의료진 선생님들도 많았죠. 그런데 환자를 배려해 주지 못하는 의료진 선생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힘이 되고 싶어요. (중략)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같이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료인이 되고 싶었어요.

한편, 요식업 창업과 관련된 진로를 설정한 뒤 식당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요식업 분야의 다양한 업종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게 장단점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업종으로 진로를 구체화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청소년21(미): 제가 처음에 요식업 쪽으로 창업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중략) 좀 음식보단 덜 헤비하게 할 수 있는 거 같아서, 카페 창업이 하고 싶었어요. (중략) **일바를 하면서 살짝 그런 생각이 좀 생긴 거 같아요.** (중략) 제가 밥 먹고 카페 가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또 카페 가면 카페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다른 분위기에서 뭔가 조금씩 조금씩 아쉬운 거 같은, 손님의 입장에서 아쉬운 거 같은 그런 거가 살짝 있는 거 같아서, 저는 나중에 그런 거 없이 최대한 완벽하게 좀 해보고 싶어서.

⑤ 자신의 흥미와 소질

진로 분야 설정 과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흥미와 두각을 보였던 분야를 선택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유아기부터 꾸준히 흥미를 갖고 좋아하는 활동이 진로와 연결된 사례들이다. 한 참가자의 경우 미술과 음악 중에서 자신이 미술에 더 흥미와 관심이 있음을 깨닫고 관련 분야인 영상 미디어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였으며, 또 다른 참가자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려왔고 현재 웹툰 작업으로 이어진 사례이다.

청소년4(결): (그림을) 엄청 좋아해요. (중략) **유치원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하루 종일 유치원 가서도. (중략) 너는 그림은 취미로만 해라. 이 말을 듣고도 계속 그렸어요. 약간 똥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2(결): 원래는 미대 가려고 하긴 했었어요. (중략) 학교를 그만두고 난 바로 직후에는 음악을 했었는데. 그것도 하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엔 만드는 미술 말고 그림 그리는 미술을 했었어요.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서. 비실기로 내가 하고 싶은 쪽이 디자인이라서. 비실기로 미대를 가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중략)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이 있었어서.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5) 진로준비 과정

① 고군분투하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혼자 분투하고 있었다. 대학 입시 관련 수능을 준비하는 참가자의 경우에는 혼자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며, 문제집을 사서 공부하고 있으며, 대입 관련 준비 과정에서도 학교에서 정보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그리고 웹툰 분야로 진로를 설정한 한 참가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청소년6(결): 일단 지금 제가 진로를 이루려고 할 때 가장 큰 부분이 저는 대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학 입시가 중요하잖아요. 학교를 안 가면 좀 고정적으로 가는 곳이 없다 보니까. 해이해지기도 하고 잡아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 혼자서 다 인강이나 찾아보고 저 혼자 문제집 사서 공부하니까 **학습적 도움을 받지 않는 게 저한테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청소년5(결): **학교를 다니면서는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대학교의 정보나 인시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학교 밖에 나오게 되면서 그런 정보들은 얻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4(결): 도움을 받으면 좋은 사람이 있긴 있는데 결국 본인이 열심히 그려야 하는 거라서. 진짜 포트폴리오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실력이.(중략) 업계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조언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훨씬 좋긴 한데, 결국 그건 본인이 그려야 하는 거라서.

② 관련 분야 자료 검색을 통한 정보 습득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스스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노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관심 분야의 전문적 정보를 얻거나 도서관에서 전문 서적을 빌려서 읽어보기도 하였다.

청소년1(결): 제가 찾아보긴 하는데. (중략) 사람들이 올려준 논문. (중략) 학술 전공으로 들어가서. (중략) 보통은 네이버나 구글 쪽이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청소년19(미): 제 꿈이 의료인이라 해서 지금 당장 의료 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학 도서 많이 읽고 있어요. 전문 대학교재 같은 것도 빌려서 보고 있어요. (중략) 구립 도서관에도 많이 있고. 병원을 자주 할머니랑 저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병원에 보면 도서관이 따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건강이랑 의료 관련해서 지식을 얻는 것 같아요. (중략) 제가 꼭 이것만큼은 알고 싶고 이거를 꼭 습득해야겠다 하는 분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르는 거 검색하면서 보고 파고드는데. 일반적으로 읽을 때는 제가 얻을 수 있는 내용만 얻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청소년6(결): 서울대공원에서 일하고 계신 사육사분이 쓰신 책을 봤었거든요. 일단 일찍 출근해야 되고. 동물들의 상태를 다 확인해야 되고. 먹이를 주거나 환경들을 점검하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의 건강이나 사육 환경을 체크하고. 가장 큰 거는 동물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③ 관련 분야 직업 활동 참여

면접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중 특정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고자 진로를 설정한 청소년 들은 유사한 직업체험이나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었다. 관심 분야 직업과 관련된 직장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에 부합함을 파악한 참가자도 있었고, 애견카페 아르바이트나 클럽 DJ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 분야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는 참가자

도 있었다. 웹툰 작가를 꿈꾸는 참가자의 경우에도 의뢰가 들어온 작품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쌓고 있었다.

청소년9(결): (원데이 클래스 강사, 베이킹 수업 관련) 처음에 수업을 할 때 제가 딱 느낀 게, 나는 업장에서 만들고 그러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걸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더 즐거워한다는 걸 느꼈어요. (중략) 지금 하는 곳에서 예전 대표님께서 클래스를 진행하자는 권유를 하셔서 그때 1번 하게 됐는데, **너무 적성에 맞다 보니까 그때부터 결정한 것 같아요.**

청소년11(결):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하고 싶다, 저게 하고 싶다'라는 거 다, 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다 해보고했는데, 딱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제과 쪽으로 바꾼 거 같아요. (중략) 아무래도 꿈드림센터 카페가 좀 널널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다른 일반카페랑 양식은 지켜가지고. 좀 다른 카페에 가도 어렵긴 하지만,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중략) 알바까진 아니고 꿈드림센터에서 하는 직업체험훈련으로 돈을 좀 벌고 있어요. (중략) 커피나 빵 쪽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딱히 배운 거라고 하기보단 그냥 터득한 거긴 한데, 서비스업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사람 대하는 법이나.

청소년6(결): 지금 애견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1시간만 놀아줘도 지치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잘 놀아서. (중략) 반려동물도 정말 귀엽고 좋지만 야생동물과 교감하는 다규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사자는 맹수라는 인식이 깊은데, 사육사와는 정말 깊게 교감을 한다든가. 사육사를 알아보고 다가가려다가 이런 경험에서 동물과의 교감이 깊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청소년8(결): 강점... 강점은 노래를 잘 선택한다. (중략) 예를 들어서 클럽에서 사람들이 놀잖아요. 뛰어들면서 점점 분위기가 고조가 돼요. 그 고조되는 분위기에 맞게 더 더 더 신나는 곡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분위기에 맞춰서 노래를 잘 선택한다 정도.

청소년4(결): 일어나면 손그림, 낙서 같은 거 그려요. 의뢰에 많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부터 처리하거나 요 (중략)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팔로우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략) 단독으로 저 혼자 스토리랑 그림 짜서 꾸준히 올려요. 주마다 1번씩.

④ 대학 입학 을 위한 학과 홈페이지 등 검색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학 입시 준비는 일반 학교 재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 대해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직접 대학별로 입학 요강을 찾아봐야 하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위한 홈페이지 검색 등을 통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세부 내역을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 진학에 관심을 둔 참가자의 경우 대학 홈페이지를 검색하면서 학년별 교육 과정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청소년3(결): 8월 말부터 준비하고 9월에 원서접수 하려고요. (중략) **이거는 혼자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관심 가는 대학교 입학 요강을 찾아봤어요.** (중략) 헛갈리는 게 수시 입학 요강이나 검정고시생들이 갈 수 있는 게 거의 교과밖에 없어요. 학종은 못 넣고. 그거를 저도 센터에서 처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런 정보나 팁들을 알 수 있었으면 더 편했을 것 같아요.

청소년12(결): '검정고시 대학 어디 가'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 성적을 입력하고 산출해서 거기서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쪽 나열해 놓거든요. 거기에서 일일이 하나씩 다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떻게 갈 수 있냐. 커트라인이 몇인가? 이러면서 알아본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청소년2(결): 그냥 검색하는 거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분야는 어떻게든 끝까지 파고드는 성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중략)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학년에 무슨 과정을 배우는지 다 찾아 봤었어요. (중략) 여러 학교 많이 찾아본 거 같아요.

⑤ 관련 분야 전문가에 대한 탐색 및 연계 시도

자신이 염두에 둔 진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 대해 탐색하며, 배울 점을 찾아가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 활동에 대해 검색해서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이메일을 하며 연계를 시도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청소년1(결): 저는 특수 반려 동물 하시는 분들 대해서, 베타라는 물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수족관 직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진짜 자기 수족관을 더 확장하고 알리기 위해서 별별 활동을 다 하시는데. 그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면접자: (전문가에게) 직접 이메일도 한다고 했잖아요. 답장을 주시요?

청소년1(결): 네. **(답장을) 주시는 분도 계세요.** (중략) 보통은 훈련하시는 분.

청소년19(미): 제일 결정적이었던 계기는 그것도 할머니랑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중략) *****병원을** 다니고 계세요. 이게 왜 발생한 건지 궁금하니까. 저는 의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독서했는데 꽤 흥미로웠어요. 세포가 분열하면서 어디서 문제가 생겨서 (중략)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하시던 의사 선생님께서 워낙 좋은 분이셔서 **룰 모델을 만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⑥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한 진로 적성 및 장단점 파악

참가자 중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지 못하였지만, 아르바이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이나 장단점을 파악하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더 잘 터득하고 요식업 분야가 더 자신의 적성에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거나, 빵집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손님들을 대하면서 부적절한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알게 된 참가자도 있었다.

청소년16(미): 시급은 세차장이 훨씬 좋습니다. (중략) 일반 세차가 아니고 디테일 세차예요. (중략) 세차하는 거는 똑같은데 실외 실내. 그리고 광택이나 그리고 유리막 작업도 있고요. (중략) 처음에 (세차장) 하려고 했는데. 제가 꼼꼼한 성격은 아니라서. (중략) (음식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람 대하는 거 좀 잘 하는 거 같아요. (중략) 눈치도 좋아졌고. 손도 살짝 빨라졌고.

청소년21(미): **알바하면서 안 거 같은데.** 알바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어쨌든 서빙하고 이런 것도 서비스업이잖아요. (중략) 이런저런 손님을 만나보니까 되게 많은 감정이나 많은 배울 점 이렇게 좀 드는 거 같은, 생각이. (중략) 완전히 맛있다곤 할 수 없고 조금 힘들긴 했는데. (중략) 이제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나가면, 그건 그거만큼 기쁘게 없는 거 같아요.

청소년15(미): 알바 해보니까. (중략) 완전 아무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잘 대해주는데 **조금이라도 이상한 질문을 하거나 저를 답답하게 하면 바로 표정이 안 좋아져요.** (중략) 제가 갑자기 화나니까 엄청 패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⑦ 진로준비 과정에서 힘이 되는 지지의 원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주요 지지원은 대체로 부모나 가족들로 파악되었다. 부모의 격려와 경제적 지원, 정보 제공 등이 큰 지지원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한 참가자의 경우 학교 재학 중 선생님이 제공한 진로 관련 조언과 정보가 큰 지지원이 되고 있었다.

청소년14(결): **부모님 영향이 제일 컸어요.** (중략) 힘들어할 때 그래도 옆에 같이 있어 주시기도 하셨고 집에 있을 때 부모님이랑 대화를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중략) **사실상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라고 하셔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청소년13(결): **아버지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저 혼자였으면 못 했을 일들인데. 아버지께서 함께 알아봐 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중략) 제가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고 하면 최대한 해보시고. 그러다가 제가 싫증 내고 관두면 혼내시고. 그럴 거면 왜 하나? 라고 하시고. 진지하게 생각하길 원하셨던 거죠. 항상 매사에. 경험도 경험이지만. 경험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어요.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진로가 정해지고. 결국 부모님을 잘 만난 거죠. (중략) 부모님이 다 알아서 본인 돈 버시고 가정에 투자를 하시고. 그런 부분이 제가 온전히 이런 공부를 하는 데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니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21(미): 엄마 아빠... 친구들이 하는 얘기도 뭐 들어서 좀 말해 주고, **대학교를 알아보면서 제가 모르고 빠졌던 부분을 엄마가 캐치해서 말해주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청소년16(미): (부모님이) 창업을 할 거여도 확실하게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템을 들고 와 봐라. (중략) **창업을 한다고 하면 도와주신다고** (중략) 금전적으로 돈 열마가 있는데 창업을 하려면 이만큼 필요하다 하면 부족한 거 좀 보태 주시고. (중략) 여유는 없는데 뭔가 한다고 하면.

청소년6(결):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쌤은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그때 이후로 관련된 책도 선물해주시고. 고등학교는 특성화고인데 동물 관련한 학교가 있다는 식으로 많이 **알아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6) 진로 관련 지역사회 지원 경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

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부터 받은 검정고시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 관련 지역사회 지원을 받은 경험으로 검정고시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검정고시를 위한 학습 지원, 장소 제공, 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급식 지원,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또래 교류 등 검정고시 지원은 단순히 시험 관련 지원을 넘어서서 보다 포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청소년1(결): 그 (꿈드림)센터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검정고시를.

청소년4(결): 청소년 센터(꿈드림센터)에서 공부를 꾸준히 했었어요.

청소년3(결): 수학을 사실 검정고시를 보기엔 조금 모자랐는데. **꿈드림센터에서** 수학 수업을 전문 강의 선생님이 해주신다고 하길래. 수학 수업을 처음엔 들으려고 나갔다가, **친구들도 사귀고 선생님들 이랑도 친해져서 점점 많이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15(미): 일단은 단체 접수하는 거. 선생님께서 대신 해주셨고. 급식 지원도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도시락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수업도 학교처럼 짜서. (중략) 2달. (검정고시 준비에 도움이) 생각보다 많이 됐어요.

청소년20(미): 꿈드림에서 검정고시 대비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검정고시 시즌만 되면 도와주는 분야가 있어서. **거기 참여해서 도움을 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비도 지원을 잠깐 해주셔서. 학원도 다녀보고. (중략) 2개월 3개월 준비했어요.

청소년5(결): 검정고시 특강이나 자격증 따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청소년6(결): 일단 검정고시 수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월화수목금이니까 제가 원하는 곳에 가서 들으면 됐고.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제가 시험을 보는 과목을 할 때는 3시간 정도 하는 수업인데 그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자격증 시험도 어쨌든 제가 시험을 봐야 하니까, 수업을 나가야 하니까. 그래도 **공부하거나 집중할 수 있는 쪽은 그래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꿈드림센터에서.**

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업체험활동에 의미 부여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체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직업세계를 체험하는 것에도 재미를 느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4(결): 직업 체험 같은 거. 그런 **체험 활동이 전체적으로 제일 재미있었어요.** (중략) 1달마다 2번 정도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중략) 최근엔 바리스타. 제과제빵

면접자: 직업 체험 중에 관심 있게 했던 활동이 있을까요?

청소년3(결): 저는 웹툰 작가.

청소년22(미): 직업 체험 그 바텐더 있잖아요. 바텐더도 해 봤고. (중략) 호텔리어도 해 봤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많이 하긴 했는데. (중략) 센터에 전문직인 분들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거나, 저희가 그분들이 일하는 업장에 실제로 가서 경험을 하는 두 가지 경우인 거 같아요.

③ 인턴 체험을 통한 현장 실무 경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턴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관심 분야 직업과 관련된 사업장 연계를 통해 직접 실무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좀 더 구체적인 진로 모색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9(결): 맨 처음에 저한테 이거 '꿈*'이라는 프로그램을 권유하신 **(꿈드림) 선생님 덕분에.** (중략) 그 선생님께서 제가 애초에 처음에 요리도 그렇고 그쪽에 꿈을 많이 접은 상태였는데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중략) 맨 처음에 100시간만 실무 경험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원장님께서 저 하시는 거 보고 3개월 동안 인턴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하자고 말씀하셔서 하게 됐어요.

청소년14(결): M구 꿈드림에서 한 건 아니고, **시 꿈드림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현장 나가서 일일 체험 해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 잠깐 했었던 거 같아요. (중략) 100시간 체험인데. (중략) 디저트 만드는 데요. (중략) 주로 디저트 관련해서 수업하시는 분이세요. 받아 주셔서 거기서. 손님들한테 나갈 쿠키나 뭐 케이크 같은 거 제작해서 밀키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포장해서 나갔고요. 나머지는 사장님이 알려 주시는 디저트 같은 거 주로 배웠어요. (중략) **저한테 지금 많이 도움이 돼서, 그때 사장님한테 장사하는 법도 배웠고.** 만들 때 유의할 점이라든가 그런 거 많이 배워서.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던 프로그램인데.

청소년6(결): 지금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거기는 원래 센터랑 협력하는 회사가 있는데. 원래는 없었는데 **센터장님이 제가 동물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연결해 주신 데거든요.** 맞춤형으로 해주신 건데. 같이 상담하고 갔다 오고. 같이 계속 고민 관찰냐고 고민도 나눠주시는 게 저한테는 **제일 도움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④ 대입 관련 상담 및 설명회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개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지역의 해당 센터 연계를 통해 입시 컨설팅이나 대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러한 대입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3(결): 검정고시는 수업하고 센터에서 도움을 주는 게 많은데 교재도 지원해주고. 수업이랑 입시 컨설팅도 지원해 주셔서 저는 다 받았었어요. (중략) 저희 센터랑 연결된 컨설팅 회사가

있어서. **컨설팅 회사 도움받아서 했었어요.** (중략) 최근에 받았어요. 4월 검정고시 끝나고. (중략) 저는 센터를 다니면서 진로가 뭘 해야겠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청소년19(미): J구 꿈드림 기관에서는 딱히 입시 컨설팅을 해준다, 입시 상담을 해준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구 주관으로 최근에 입시 설명회를 했었어요. 그 입시 설명회도 들으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대학교 입학사정관님이 한 분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입시 컨설팅 업체에서 대표님이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어요.

⑤ 자격증 취득 및 학원 수강 지원

참가자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관련 분야 종사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 이를 위한 학원 수강 지원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반응하였으며, 직접적으로 대학 입학이나 관련 분야 직종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경험과 함께 사회생활에 필수적이라 여겨지는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반응하였다.

청소년11(결): 계속 자격증이나 취업이나 그 외에도 뭐 해보고 싶은 거 찾는 거라든가 **그런 걸 계속 연계해 줘서 도움이 많이 됐던 거 같아요.** (자격증) 아직은 없긴 한데,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긴 해요. (자격증은) 제과제빵. (중략) 지금 학원 다니고 있고. 필기는 현재 공부를 하면서 다음 주쯤에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중략) 필기를 보려면 1년까지는 그게 유효해가지고, 좀 더 배우다가 갈 거 같아요.

청소년18(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원을 다니기로 했어요. (중략) 처음에는 진짜 할 게 없어서. 애들 해 놓은 거 보니까 제과제빵 베이커리나 카페하고 저는 코딩이랑 진짜 할 게 없어서 사회복지학과가 **시에는 딱히 없더라고요. 학원이. 뭐 하지? 뭐 하지? 하다가 진짜 할 게 없어서 베이커리 했는데 된 거예요. 코딩이랑 베이커리 2개가 돼서 18일부터 배우거든요. 코딩 쪽은 지금 학원이 지금 안 잡혀서.

청소년19(미): **진학 관련된 정보도 잘 주시니까 그런 정보도 습득하고** 활동 같은 것도. 재밌는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올해 1, 2월쯤이었는데. 꿈** 과정이라고 바리스타랑 파티시에 양성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머니께서도 커피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거에 취미로 들어가게 돼서. 지금 그 과정은 다 끝났고요. 바리스타 2급 자격증도 취득할 기회를 꿈드림에서 주셨어요.

청소년9(결): **자격증 프로그램이 있어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나 바리스타. 이런 걸 1년에 2번 정도 진행을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편이에요. (중략) 바리스타랑 팻푸드 자격증을 뒀어요.

청소년3(결): 자격증도 되게 많은데 제과제빵, 바리스타, ITQ, 미용. (중략) (ITQ 자격증 취득했어요.) 연계된 학원 다니면서 준비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꿈드림센터를 다니면 취업 쪽도 도와주시고 진로 찾는 것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자격증이 미용처럼 자격증만 따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청소년6(결): **그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라서 진짜 도움도 됐었고** 드론은 정말 저희가 날려보는 것도 해서 전문 국가자격증도 딸 수 있어서 그 프로그램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20(미): 바리스타랑 포토샵. (중략) 알바 할 때 쓸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건 전문적으로 따로

따야 되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겠다 싶어서 그렇고. 포토샵은 컴퓨터 관련돼서 내가 편집을 할 수 있어야지 회사 같은 데 가서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딴 것 같아요.(중략) ITQ도 회사 가면 엑셀이랑 파워포인트 한글은 다 쓸 줄 알아야 되니까 ITQ도 있겠어 해봤어요.

청소년4(결): (자격증은) 생활 간호요. 2급이었는데 그거를 뺐었던 것 같아요. (중략) 집 안에 불이나 사고가 났을 때 대처 요령. CPR이요.

⑥ 멘토링을 통한 상담 및 학습 지원

참가자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멘토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비교적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진로 상담이나 학습 지원을 함으로써 진로 설정이나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청소년14(결): 진로 상담이라기보다는 꿈드림센터 내에서 **대학생 멘토**를 해서,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로 진로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받았죠.(중략) 거의 매주 했던 거 같아요. (중략) 진로 상담받으면서 좀 더 내가 이 직업에 대해서 욕심을 내도 되겠구나라고 확신을 얻었던 거 같아요.

청소년18(미): 수업하러 오시는 멘토 선생님들이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라 보니까. 이해도 더 잘 되고. **말이 더 잘 통하니까 이해도 잘 되고**, 학원에서 나이 든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이해가 더 잘 되더라고요. 좀 더 선생님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더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7(결): 센터에서 대학 탐방을 다니거든요. 저는 도움이 진짜 됐고 멘토링 하시는 선생님들도 다 이름 있는 대학에서. ○○대에서 오는데 그 선생님하고 수업 외에도 수업할 때 사담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선생님도 제가 진로 잡는데 도움 주시고 상담 잘해주셔서** 멘토링하는 것도 좋았어요.

⑦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나오면서 또래 관계 형성의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동아리활동이나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교류와 소통할 기회를 얻게 된다.

청소년3(결): 인턴십 체험이나 직업 체험도 꾸준히 가고. 그런 다음에 동아리도 뮤지컬, 웹툰, 소설 작가, 밴드.... 이런 것 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청소년7(결): **센터 다니면서 체험이나 동아리를 하니까 제가 더 뭘 원하는지는 알 것 같긴 했어요.** (중략) 선생님마다 동아리가 있어요. 욕상 농부라고 해서 작은 텃밭 같은 거 가꾸거나 타로 동아리, 재봉틀 동아리. 이런 거 있어서 취미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거 하면서 관심 가는 것도 있고 이걸 진짜 아니다 라는 것도 있어서 그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청소년4(결): 체험활동을 꾸준히 나가고 그랬어요. 지금도요. (중략) 최근에는 수학여행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달에. 거기도 가고 싶고요. 최근에 영화 보기 독서 활동.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DIY. (중략) **제가 친구가 없어서 심심한데 거기 나가니까 재밌어요** (중략) 어디 놀러 가는 날이 있어요. 그런 것도 너무 좋아요. (중략) **정신적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⑧ 사회관계 형성 및 심리정서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벗어남으로써 청소년기에 중요한 또래관계 형성의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그에 따라 이들이 비슷한 연령대의 청소년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공간은 소중한 의미로 남게 된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기 전후 가졌던 심리적 문제에 대하여 상담 서비스 등이 제공되거나 연계됨으로써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청소년3(결): 저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긴 어렵고. 다른 친구들도 센터를 다니면서 다 느낀 점은 학교를 그만두기 시작하면 확실히 친구라는 걸 사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학교에서 친구를 많이 사귀니까. **친구를 다시 사귄 수 있고 어른들과도 다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좋다는 느낌을 저는 받은 것 같아요.**

청소년11(결): 일단 자퇴하면은 사람을 못 만난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게 좀 덜해졌고.

청소년22(미): 심리 상담 빼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되었던 거는 크게 많이 있는 거 같진 않아요.

(7) 진로지원 경험에 대한 아쉬움과 희망사항

① 더욱 전문화된 대입 관련 상담 요구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체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대입 관련 지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나 입시 전형에 대해 일반적으로 학생 청소년들과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지원을 희망했다. 전형별, 전공별 지원 전략에 대한 전문가 연계, 개별 청소년 진로에 부합하는 대학 선정 전략,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학 진학 설명회 다양화 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입시 지원 서비스가 더욱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청소년1(결): **제가 알고 싶은 분야나 깊게 상담하는 거나 그런 건 부족해요.** (중략) 저는 예술계 대학에 갈 거예요 라고 하면 딱 끊기는 거예요.

청소년7(결): 진로보다는 **대학 전형 같은 것도 잘 몰라서.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중략) 제가 어제 센터 쌤이랑 상담하면서 물어봤는데 대학교 가는 애들이 별로 없다고 하셔서. 쌤들도 그런 거는 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학교 제도 입시 그런 거는.

청소년9(결): 제 입장은 아닌데 대학 입시 같은 게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중략) 애들 이야기 들어보면 **꿈드림에서는 검정고시만 지원하고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지원하지 않아서 직접 찾아야 되고.** 대학도 거의 직접 찾는 게 더 많아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청소년7(결): 대학교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영어영문, 마케팅이랑 다른 과를 하나 알아보래요. **뭘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모르니까 찾아봐야 되고, 그런 게 고민이에요.** (중략) 입시 제도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5(결): 어쨌든 학교 다니는 친구들과 학교 밖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대학과 학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쪽에 있어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거나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정보를 주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검정고시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상담,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20(미): 컨설팅을 받긴 했는데, 갈 수 있는 대학만 알려줬지 **어떻게 길지는 사실 저도 잘 몰라서, 그런 건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년19(미):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학교를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는 모종의 사유로 상처받는 일이 있어서나 질병 사유로 자퇴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 친구들한테라도 입시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대학에 뜻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아요. (중략)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입 진학 설명회 같은 게 다양화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이외의 것들은 본인이 노력해야겠지만.

② 학습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

학교를 그만둔 뒤 혼자 대입 전형을 치러야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검정고시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감을 표하고 있지만, 수능 공부라든지 개인적 관심으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창구가 마땅치 않음을 토로하였다. 학원이나 사교육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의 경우 더욱 학습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1(결): **솔직히 공부 도와주는 사람이 더 있으면 좋겠어요.** 입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공부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학원도 별로 없다 보니까.

청소년5(결): 저는 어쨌든 고1때 학교를 그만둔 상태에서 고2와 고3의 과정을 제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부분이기에 때문에, 대학에 진학을 해서도 그런 부분의 배움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중략)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정말 섬세하게 배우지는 않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에게 학교를 그만둔 상태에서 고2 고3의 과정을 배울 수 없는 친구들에게 그런 과정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14(결): **공부를 혼자 하려다 보니까 질문을 할 사람도 없고 해서,** 관련된 지원으로 공부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학원 선생님처럼 내가 물어보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중략) 전에 비슷한 걸로 물어봤는데 주 분야가 아니라서 대답을 못 해 주신다고

청소년19: **은퇴하신 선생님분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학습법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정규로 계신 선생님들이 아니더라도 (중략) 그분들한테도 꽤 크게 정보를 받을 수 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략) 공부법을 대학생 선생님들도 잘 아시지만, 더 전문적인 분들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의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법 관련되거나, 말 그대로 학교 교무실 찾아가는 것처럼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습지원과 관련된 요구에서는 학습을 도와주는 전문가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스터디 공간이 제공되어 청소년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희망하였다.

청소년14(결): 가장 필요한 지원은 아무래도 관련 직종으로 해서 실습 같은 거. 아니면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중략) 스터디카페처럼. 아니면은 뭐 이런 룸같은 데서. (중략) 집에서 했을 때는 집중이 안 되고 도서관이 좀 멀어서.

③ 동아리 및 문화체험 활동 지원 확대 요구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문화활동 참여 기회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특정 센터를 다니며, 공모전이나 행사 등을 기획하더라도 예산 문제 등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고충을 토로하는 참가자도 있었으며, 보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다.

청소년1(결): 센터에서도 준비한 게 있어서. 얘기를 해주면 어느 순간 (위에서) 잘려요. (중략) 행사 같은 것도 있었고, 우리 공모전이나 여러 가지. (중략) 전체에서 다른 센터들은 여기서 한다고 그래서 놀러 간다해서 야 우리도 놀러가자 이래서 했는데 잘렸어요.

청소년7(결): 동아리라도 영어 동아리 같은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센터에서. (중략) 활동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수업보다는.

청소년5(결): **활동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고.** 그런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또래끼리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6(결): **경연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기간이나 수요도가 다양해졌으면 좋겠고** 과반수가 넘어가는데 소수 친구들이 하는 거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④ 인턴십 등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아르바이트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좀 더 다양한 직업체험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수가 희망하더라도 관련된 직업 분야 체험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하였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싶지만,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적절한 일터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아르바이트 연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하였다.

청소년2(결):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직업체험)

청소년7(결): 직업 체험. 지금도 많긴 하거든요. 알바 형식으로 해서 돌봄센터 애들 얘기를 봐주는

알바나 베이킹 하는 것도 있고. 그거 말고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중략) 선택 폭이 좁다고는 생각했는데. 애들이 안 모이면 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청소년10(결): 애들이 하고 싶은 거. 체험하게 해 주는 거. 도자기도 있겠지만. *****가 해보고 싶다면 이런 거 공부나. 하고 싶은 거 체험을 시켜주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직접 해보면 된 느낌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청소년14(결): 사장님이 주로 마카롱이나 케이크 같은 거 알려 주셨는데 (중략) 나머지 시간에 좀 장사하는 그런 팁이라든가. 장사하는 방법 그런 거를 배우고 싶어서. (중략) (베이킹 시간) 그런 거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고. 나머지는 좀 회계 쪽에 제가 약해서. 그거 관련해서 배우고 싶었어요.

청소년17(미): 여러 가지의 알바 또는 **직업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중략) 제가 알바를 처음 하다 보니까 고용인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처음이기도 하니까 (중략) 시 또는 나라에서 지정을 해서 그런 체험 같은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⑤ 학원 수강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이 관심을 두는 진로와 관련하여 학원 수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현재도 학원비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진로 관심을 전문적으로 키우고자 할 때 자격증 취득 등 관련 분야 학원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였다.

청소년2(결): 학원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중략) 학원비 지원을 향후에 지원을 해주시면 더 제 꿈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중략) **제가 하고 싶은 진로 분야에 관련된 학원**

청소년8(결): 굳이 얘기하자면 레슨비 지원 같은 거. 학원비. 그런 거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청소년20(미): 전문적으로 배우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지원을 받거나 해서 학원 같은 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걸 지원을** 해줬으면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6(결): 이거는 정확하게 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학이 가장 중요하데. 그래도 인터넷에서 보는 반려동물 전문 자격증들이 꽤 있거든요. 원래 제가 작년에 센터에 들어왔는데 제가 딱 들어오기 한 달 전에 동물 관련 자격증을 했었는데 제가 결국엔 못 들었거든요. 다음에도 이런 관련된 **자격증 수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⑥ 진로 상담 및 컨설팅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지원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로 컨설팅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진로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며 고군분투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전반적인 상담 지원과 병행하는 진로지원이 이루어져야 함도 지적하고 있었다.

청소년9(경): 진로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약간 무슨 진로를 선택하게 되면 이 진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하냐 할지.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그런 거를 알려주면 좋겠어요.

청소년16(미): 진로 상담 같은 거. (중략) 있어도 조금의 홍보가 더 필요한 거 같아요.

청소년22(미): 자꾸 회피하고 음악에만 빠지려고 하고 그런 거 같아요. (중략) 일단은 지금 당장 심리 상담을 다시 받는 게 되게 좋을 거 같고, 제가 안고 있는 고민들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싶고. 그리고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기초적인 지식들이나 진짜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꿈드림이나 그런 데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걸 가르쳐 줄 선생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19(미): 학업적으로 지원을 잘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분이랑 사회복지사 선생님같이 사회 인프라를 잘 살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선생님도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 꿈드림 선생님들같이 청소년 상담사분들도 한 분 계시면. 학교 밖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 학생들처럼 정서 상태가 많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청소년상담사 선생님 3명이 팀을 이루어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⑦ 식비, 도서구입비, 수능 준비비 등 진로 준비 학교 밖 청소년 실비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진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은 학원 수강 등 취업 준비 비용 뿐 아니라, 식사 비용, 도서 구입 비용 등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이 타 지자체로도 확산되어야 하며, 범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진로 준비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18(미): 식비 올려주는 거. 딱히 그런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학생이 많아서 전에 식비가 떨어져 선생님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중략) 여기에 수업 들으러 오는 애들이 수업도 안 듣고 밥만 먹고 가는 애들이 몇 명 있던 것 같아요.

청소년17(미):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책을 사는 걸 몇 개씩 있는데 그런 걸 구매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런 걸 지원해 주면 좋겠다.

청소년19(미): 서울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서울시가 복지가 좋아서. (중략)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연간 100만 원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략) 정확한 정식 명칭이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지원금으로 알고 있어요. (중략) (추가로) 교재 구매나 그런 거는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편이죠. 만약 자방에 살았다고 하면 서울이 아니라 당장 경기도권이라고만 해도 그런 지원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나 교육부에서 범부처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5. 소결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조사(In-depth interview)는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진로 생각 및 계획, 진로 준비 상황, 진로 관련 지원 경험(연계 지원 포함) 및 어려움과 지원 요구 등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만 16세~19세 사이의 학교 밖 청소년 22명으로 연령대, 지역 규모, 성별 등을 안배하여 선정하였고, 청소년의 선호에 따라 오프라인과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녹취, 전사된 자료는 연구자에게 전달되었으며, 사례연구 중 복수사례연구와 반복적 비교 분석법 등을 적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학교 밖 청소년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진로를 결정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14명은 여자 청소년이 9명, 남자 청소년 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체로 대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대부분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학력을 취득했거나 준비 중이었다. 진로 선택은 대학 진학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일부는 취업이나 창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친구 관계나 교사와의 갈등, 학교 부적응,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이 많았으며, 일부는 대학 입시에 유리한 전략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선택을 하였다. 최근 이들의 관심사는 대학 입시 준비와 전공 선택, 학업 적응에 대한 걱정이었으며, 창업이나 인턴십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대학 진학을 병행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또한 진로 문제와 더불어 친구 관계 단절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반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총 8명으로 여자 청소년이 2명, 남자청소년이 6명이었다. 이들은 진로 미결정이라고 응답했지만 대부분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을 계획하고 있었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학교 분위기 부적응, 규칙적인 등교의 어려움, 친구 및 교사 관계 문제 등으로 나타나, 진로 결정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일부는 부모의 권유에 따라 대안학교나 일반고, 특성화고를 오가며 여러 차례 학교를 그만두기도 했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도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진로 고민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진로 계획은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특정 대학과 학과를 염두에 두고 진로 준비를 하는 청소년도 있는 반면, 대학 진학을 희망하거나 취업이나 창업 혹은 대학 진학을 막연히 고려하는 수준도 있었다. 고민은 진로 선택과 대학 진학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주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게임이나 취미, 개인적 소비, 버킷리스트와 같은 진로와 무관한 관심도 상당히 두드러졌다.

진로를 결정했다거나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에 상관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선택 뒤에 이루어지는 진로 계획과 진로 탐색, 진로 준비 과정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개별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 여부에 대한 응답과 관계없이 희망 진로의 구체성이나 준비도는 명료하게 이분법적 구분이 된다고 볼 수는 없었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하듯이 진로결정의 개념은 진로결정과 미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한 지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10: 258-259; 김정숙, 2017: 32). 이러한 이해의 기반하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를 그만둔 시점에서의 진로 계획, 진로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진로 인식 변화, 진로 모색 과정, 진로지원 경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아쉬움 등을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학교를 그만두는 시점에서의 진로 계획을 살펴보면 학교를 그만둘 무렵에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정한 참가자들도 있지만, 여전히 진로계획이 불명확한 참가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진로 관련 이슈로 자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학교 적응과정에서 발생한 심리 정서적 문제, 또래 관계 문제, 학교 분위기 적응상의 문제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일단 학교를 나오게 된다. 한편, 이 과정에서 대안적 진로 모색이 병행된 사례들도 있으며, 검정고시를 통한 대학 입학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나름대로 대학 진학 전략을 세운 사례들도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들은 학교를 나온 뒤 생활하는 과정에서 진로 현실에 부딪히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자퇴를 결심하면서 스스로 규칙적인 생활 계획을 수립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체감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진로를 결정했다고 응답한 청소년과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모두에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학교에서는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학습이나 진로 안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하였다. 이들은 대학 진학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검정고시 고득점을 노려보지만, 고득점을 얻는 것이 예상보다 쉽지 않음을 체감하게 된다. 그에 따라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토로하였다.

이들은 학교를 나온 뒤 비교적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 제약에 부딪히게 된다. 진로 준비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구해보지만 아르바이트 구직이 쉽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하는 분야에 도전하고 싶었지만 경제적 제약으로 배움의 기회를 얻기도 어려움을 호소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서 심적으로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함, 막막함, 두려움 등을 느끼게 된다. 특히 대학입시 준비 과정에서 일반 학생들이 가는 전형이 아닌 별도의 입시 전형을 혼자 터득해야 한다는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었다. 한편, 학교 밖에서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자퇴 이후 긍정적 변화와 자신감을 키운 사례도 있었다. 가족과 함께 디저트 카페 창업 계획을 세운 참가자, 세무사로 직업 방향을 설정한 참가자 등 좀 더 구체적으로 직업을 정한 사례들에서 이러한 태도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학교 밖 생활 중 나타나는 진로 인식 변화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부 참가자들은 직업 관련 활동을 시작하면서 관련 업계 냉혹한 현실을 체감하거나 실질적 어려움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재학 중 꿈꾸던 전공이나 직업 분야를 바꾸는 조정기를 겪기도 한다. 전공의 비전이나 자신의 성적, 입학 전형 등 여러 가지 현실 요건을 고려하며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한편, 학교 밖 생활 과정에서 여전히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선택지에 대해 막연하게 고민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명확한 진로 방향 없이 우선 검정고시 취득과 대학 입학이라는 진로를 설정해 놓았지만, 전공 선택에 대한 어려움, 대학 진학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관심사가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이들은 SNS 및 매체의 영향으로 특정 직업 분야에 대한 관심사를 키우고 정보를 얻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모와 가족의 영향으로 부모가 즐겨하던 일을 따라하거나, 부모의 역경 극복 과정을 지켜보며 역할 모델로 삼기도 하였다. 반면에 부모가 종사하는 직종을 지켜보며 업무의 어려움을 알게 되어 부모의 직업을 기피하고자 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부모 외에 형제자매나 주변 지인들이 하는 일을 통해 직업 정보를 얻고 이에 종사하고자 하는 참가자도 있었으며,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겪었던 특별한 경험들이 자신의 진로 관심사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아동기부터 자신이 두각을 보여왔던 분야에 지속적으로 흥미를 느끼며 직업이나 전공으로 연결시키는 참가자도 있었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모색 과정을 살펴보면 이들은 고군분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대입 준비 과정이나 진로 개척 과정은 결국 혼자서 감당해 내어야 하는 길이라는 반응을 하였다. 직접 대학별로 입학 요강을 찾아봐야 하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위한 홈페이지 검색 등을 통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세부내역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노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관심 분야의 전문적 정보를 얻거나 도서관에서 전문 서적을 빌려서 읽어보기도 하였고, 자신이 염두에 둔 진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 대해 탐색하며, 배울 점을 찾아가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한편, 참가자 중에는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지 못하였지만, 아르바이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이나 장단점을 파악하는 사례도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주요 지지원은 대체로 부모나 가족으로 파악되었다. 부모의 격려와 경제적 지원, 정보 제공 등이 큰 지지원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진로 준비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한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 관련 지역사회 지원을 받은 경험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체험활동과 인턴십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직업세계를 체험하는 것에도 재미를 느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개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지역의 해당 센터 연계를 통해 입시 컨설팅이나 대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러한 대입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멘토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비교적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진로 상담이나 학습 지원을 함으로써 진로 설정이나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기회 및 심리상담 제공 등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외에도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울런 프로그램 사업을 통한 학습지원 및 학업 지원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곱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한 지원에 대한 아쉬움과 향후 제안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대입 관련 지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나 입시 전형에 대해 일반적으로 학생 청소년들과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리고 수능 공부라든지 개인적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 지원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였다. 학습지원과 관련된 요구에서는 학습을 도와주는 전문가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도 희망하였다. 이 외에도 동아리 및 문화체험활동 지원 확대 요구, 인턴십 등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아르바이트 지원 확대, 학원 수강 지원 확대, 진로 상담 및 컨설팅 지원 확대, 식비, 도서구입비, 수능 준비비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희망하고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진로 현실과 지원 경험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V-4.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여정과 지원 경험

중심 주제	하위 주제
학교를 그만두는 시점에서의 진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자퇴 시점에 진로(일, 취업) 계획 수립 • 대학 진학 전략으로 검정고시 계획 • 진로계획 불확실, 불명확한 진로
학교를 나온 뒤 경험하는 진로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과는 다르게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일과 • 선생님의 가이드 부재로 겪는 어려움 • 생각보다 어려운 검정고시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진로 준비 제약 •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엄습 • 자퇴 후 진로 선택지 마련: 긍정적 변화
학교 밖 생활 중 진로 인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세계의 냉혹한 현실 및 장벽 등 체감 • 전공 및 진로방향 변화 • 개인 생활 과정에서 진로 계획 구체화 • 지속되는 진로 고민
특정 분야 진로에 대한 관심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및 매체 • 부모의 삶으로부터 영향 • 주변 사람들의 전공이나 직업으로부터 관심 •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관심사 발전 • 자신의 흥미와 소질
진로준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서 고군분투하기 • 관련 분야 자료 검색을 통한 정보 습득 • 관련 분야 직업 활동 참여 • 대학 입학에 위한 학과 홈페이지 등 검색 •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한 탐색 및 연계 시도 •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한 진로 적성 및 장단점 파악 • 진로준비 과정에서 힘이 되는 지지원
진로 관련 지역사회 지원 경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부터 받은 검정고시 지원 • 꿈드림센터 직업체험활동에 의미 부여 • 인턴체험을 통한 현장 실무 경험

중심 주제	하위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 관련 상담 및 설명회 • 자격증 취득 및 학원 수강 지원 • 멘토링을 통한 상담 및 학습 지원 •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 사회관계 형성 및 심리정서 지원
지원 경험에 대한 아쉬움과 희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전문화된 대입 관련 상담 요구 • 학습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 • 동아리 및 문화체험활동 지원 확대 요구 • 인턴십 등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아르바이트 지원 확대 • 학원 수강 지원 확대 • 진로 상담 및 컨설팅 지원 확대 • 식비, 도서구입비, 수능 준비비 등 진로 준비 학교 밖 청소년 실비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기 진로 탐색 과정에서 중요한 미시체계 중 하나인 학교라는 환경을 벗어남으로써, 진로 준비활동에서 개별 청소년이 동원할 수 있는 미시체계에서의 자원은 개인적 배경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진로 준비 여건에 편차가 커질 수 있다. 청소년기에 필요한 진로 탐색과 준비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학교를 그만두는 선택은 학교 재학 중 감당해야 했던 심리 정서적 어려움, 교우관계 문제 및 학교 적응 스트레스 등이 작용한 결과이다. 학교를 그만둔 뒤에 학교 재학 중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경감되거나 해소되었지만, 진로 준비와 관련된 여러 차원의 어려움에 맞서야 하며, 이 과정은 개별 청소년과 그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과업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이 당면한 진로 준비과정은 단순히 진학이나 취업 준비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생활 설계가 아닌, 여러 차원의 문제들이다. 학교 재학 중 겪어왔던 심리정서적 문제, 학교를 나온 뒤 겪는 고립감, 사회관계 부재,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대응, 장기간 학교에 나가지 않아서 손실된 학업 역량 등 본격적인 진로·진학 준비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과업들이 병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모 등 가족 구성원들의 지원 여부와 정도는 청소년 자녀의 진로 탐색과 준비에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다.

대체로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는 학교를 그만두는 선택에 대해서 심한 반대를 하거나 강압적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지지하는 분위기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자녀의 진로 준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역할 모델이 된 부모도 있는 반면, 자녀가

경제적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스스로 고군분투하며 진로를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가족의 경제적 여력은 학교를 벗어나 진로 준비 자원을 획득하는 데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 관심있는 진로나 흥미를 키울 수 있는 학원이나 강의 수강 등에도 모두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청소년의 진로 위기를 감소시키거나 진로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진로 준비 과정은 단순히 개인의 진로 목표를 위해 매진하는 것을 넘어서 또래 관계 형성이나 청소년기 발달에 필요한 문화자본 축적, 품성 및 소양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나 제반 프로그램 참여도 병행되어야 한다. 요컨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위기 극복은 협의의 진로 목표 설정 여부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청소년기 발달 과업 수행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강화되어야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면접조사 결과는 4장의 2차 자료 분석결과에 대한 삼각화 및 상호보완의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2차 자료 분석결과에서는 진로 계획과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유무에 따라 유형 구분이 가능했고, 그에 따라 학업성적, 비행 경험, 가정환경과 배경뿐 아니라 심리적, 행동적 특성과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본 심층면접조사에서도 유사한 맥락에서 다양한 진로관련 경험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면접조사 하기 위한 기준으로 진로결정여부를 활용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관련 스펙트럼의 다양성과 질적 차이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면접조사 결과에서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생각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빈번히 변화하였으며, 다양한 진로 관련 기회와 경험을 오가면서 당초 진로결정 여부나 생각과 무관하게 진로 경로를 밟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으로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한 선편론 이분법, 또는 유형별 엄격한 구분에 그치지보다 이들에 대한 개별적 탐색을 통한 심층적인 질적 확인의 필요성과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재조명해 주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양적 2차 자료 분석 결과를 더욱 풍성하고 심층적으로 보완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 — 제6장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현황·의견조사: 종사자 조사·전문가 FGI

- 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의견조사(웹설문)
- 2. 학계·현장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GI) :
진로지원 초점
- 3. 소결

본 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진로지원 정책 및 사업 수행에 대한 어려움과 개선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양적·질적 조사 과정과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로지원 현황과 의견에 대한 양적 조사를 웹설문 방식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깊이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계 및 현장·진로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여 두 조사 결과를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하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의견조사(웹설문)

1) 조사 문항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지원 정책(사업)의 현장 인지 및 이행 정도와 어려운 점,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견 조사지를 제작하였다. 먼저 연구진이 검토한 문헌과 정책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설문 최종안 작성의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VI-1. 조사지 개발 과정 흐름도

* 이 장의 1절은 김성은 선임연구위원과 김현수(창원대학교), 2절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절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진로지원 정책 관련 학계 전문가를 섭외하여 문항 검토 및 조사 결과 활용에 대하여 자문하였다. 1차 수정을 거친 후에는 현장 전문가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3인을 섭외하여 문항 추가 및 개선 의견을 자문하였다. 현장 전문가 중 2인은 시·도 센터장, 1인은 시·군·구 센터장으로하여 센터 규모별로 질문의 적절성과 응답의 용이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현장에서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구분, 체감하는 청소년 발굴 경로로 기존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응답 편의성을 제고하여 최종본을 작성하였다.

표 VI-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의견조사」 조사내용 및 참고문헌

구분	영역	내용	참고문헌
기관일반사항	응답자 정보	직급, 근무 기간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김희진, 서고운, 조혜영 2022)
	기관 규모	상근직원 수, 청소년(이용자) 연인원	
	청소년 이용 경로	청소년 이용 및 발굴 경로(1~3순위)	
	운영 프로그램	주요 운영프로그램 영역(1~3순위)	
기관 특성	청소년 (진로)특성	청소년 진로 준비도, 가족의 지원정도	한국교육고용패널Ⅱ '진로에 관한 생각과 태도 문항' 참고·개발
	위치 및 여건	위치 및 여건(시설, 공간, 인력 등)	2019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종사자 조사' 참고·개발
진로직업 지원사업 이행	진로지원 영역	지원영역별 지원하는 종류, 방식, (연계 시) 협력 기관	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고·개발
	진로지원 사업	중앙부처 진로지원 사업별 인지, 실시 유무 및 내용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정책 참고·개발 (본 보고서 3장 참조)
진로지원에 관한 의견	필요 진로지원	청소년 진로 유형*별 필요 진로 사업 및 영역	연구진 자체 개발
		(해당 시) 타 기관 연계 사례	
	자유 기술 문항	진로지원 사업 실시에 어려운 점 진로지원 정책/사업에 바라는 점	

* 주: 본 연구의 선행연구 검토(2장 제시)를 통하여 진로 유형을 구분

조사는 크게 1) 기관 일반 사항, 2) 기관 특성, 3) 진로직업 지원사업 이행, 4) 진로지원에 관한 의견 4가지의 구분을 두고, 각각 하위 영역을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먼저 ‘기관 일반 사항’에서는 응답자 직급과 경력 등의 기본 정보를 질문하고, 상근직원 수와 청소년(이용자) 수를 통하여 기관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수는 기관에 따라 실인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 연인원으로 질문하였다. 이어 청소년 이용/발굴 경로와 주요 운영 프로그램을 질문하였다.

‘기관 특성’으로는 청소년의 진로 준비도, 진로 준비에 대한 가족의 지원 정도 등 센터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청소년의 진로 특성을 질문하였고, 센터의 시설과 공간, 인력 등 위치 및 여건 사항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진로직업 지원사업 이행’에서는 진로지원의 여러 영역별 어떠한 종류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지와 방식을 질문하고, 연계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협력 기관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부처의 주요 진로지원 사업에 대하여 인지 및 실시 유무를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지원에 관한 의견’에서는 청소년 진로 유형별 필요 지원사업을 질문하였다. 진로 유형은 선행연구 검토(본 연구 2장에서 제시)를 통하여 진로 상태 구분에 진로 결정 유무와 준비 유무가 중요 특성임을 확인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자유 기술 문항을 개발하여 타 기관과의 연계 사례, 진로지원 사업 실시에 어려운 점과 개선 요구를 수렴하고자 하였다.

문항의 개발은 유사 선행 연구 및 조사를 참고하여 자체 개발하였으며, 참고한 연구 및 조사는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설문은 [부록]에서 제시하였다.

2) 조사 과정

조사는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약 50%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표본조사로 진행하였다. 전수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 규모, 소재지 등의 사전 정보로 표본을 설계하여 진행하였다. 상세한 조사 방법 및 실사 단계는 아래와 같다.

표 VI-2. 조사 단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기관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22개 기관 전체에 해당
조사 대상자	현재 근무 중이며, 해당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실무자, 기관별 1인
목표 표본	110명 내외 (모집단의 약 50%) ※ 조사는 130명(모집단의 58.6%)으로 완료하였음
조사 방법	웹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 발송 후 참여 유도)
실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기관에 유선으로 협조 요청 - 2단계: 대상자 조건 안내 후, 기관에서 선정된 실무자에게 웹설문 링크 개별 발송 및 참여 요청 - 3단계: 설문조사 진행, 미진행 시 유선 독려 - 4단계: 참여자에게 답례품 발송

또한 조사는 7월 웹설문 제작을 시작으로 4주간의 실사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표 VI-3. 조사 과정

구분	일정
웹설문 제작 및 확정	7월 7일 ~ 7월 18일
실사 진행 전산시스템 구축	7월 10일 ~ 7월 17일
협조공문 발송	7월 14일
유선 접촉원 교육	7월 17일
실사 기간(4주)	7월 21일 ~ 8월 14일
- 전체 기관 대상 접촉	7월 21일 ~ 8월 6일
- 미완료 기관 독려	8월 7일 ~ 8월 14일

최종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총 130명으로 모집단의 58.6%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다. 응답자 일반 현황은 <표 VI-4>와 같다.

표 VI-4. 응답자 일반 현황

(단위: %)

	전체	센터구분		센터 이용 연인원			지역규모		
		시도 센터	시군구 센터	100명 미만	100명 이상 250명 미만	250명 이상	대도시	소도시/ 읍면지역	
전체(개)	100.0 (130)	5.4 (7)	94.6 (123)	30.0 (39)	44.6 (58)	25.4 (33)	35.4 (46)	64.6 (84)	
성별	남자	23.1	42.9	22.0	28.2	17.2	27.3	30.4	19.0
	여자	76.9	57.1	78.0	71.8	82.8	72.7	69.6	81.0
	비율	100.0	5.4	94.6	30.0	44.6	25.4	35.4	64.6
연령대	20대	16.9	14.3	17.1	7.7	19.0	24.2	26.1	11.9
	30대	46.9	28.6	48.0	43.6	50.0	45.5	47.8	46.4
	40대	20.0	28.6	19.5	30.8	15.5	15.2	15.2	22.6
	50대 이상	16.2	28.6	15.4	17.9	15.5	15.2	10.9	19.0
근무 기간*	1년 미만	12.4	-	13.1	15.8	6.9	18.2	4.3	16.9
	1년 ~ 2년	17.1	14.3	17.2	23.7	15.5	12.1	23.9	13.3
	2년 ~ 3년	9.3	-	9.8	5.3	15.5	3.0	15.2	6.0
	3년 ~ 5년	18.6	14.3	18.9	13.2	19.0	24.2	17.4	19.3
	5년 이상	42.6	71.4	41.0	42.1	43.1	42.4	39.1	44.6
직급	시설장	0.8	-	0.8	-	-	3.0	2.2	-
	팀장급 이상 선임 실무자	40.8	57.1	39.8	43.6	37.9	42.4	47.8	36.9
	실무자	58.5	42.9	59.3	56.4	62.1	54.5	50.0	63.1

* 주: 결측 케이스 1건 제외함. 6개월 이상 재직자만 조사에 참여하였음

응답자가 소속된 학교밖지원센터는 시도 센터 7개(5.4%), 시군구 센터 123개(94.6%)였고, 소속 센터의 이용 연인원은 100명 미만 39개소(30.0%), 100명 이상 250명 미만 58개소(44.6%), 250명 이상 33개소(25.4%)였다. 센터 소재 지역의 규모는 대도시 46개(35.4), 소도시/읍면지역 84개(64.6%)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자(76.9%)가 남자(23.1%)보다 많았고, 연령대는 30대(46.9%), 40대(20.0%), 20대(16.9%), 50대 이상(16.2%) 순으로 많았다. 근무기간은 5년 이상(42.6%), 3년 이상 5년 미만(18.6%), 1년 이상 2년 미만(17.1%), 1년 미만(12.4%), 2년 이상 3년 미만(9.3%) 순이었고, 실무자(58.5%), 3년 이상 종사자인 팀장급 이상 선임 실무자(40.8%), 시설장(0.8%) 순이었다.

3) 조사 결과

(1) 기관 일반 사항

① 센터의 상근직원 수

센터의 상근 직원 수는 <표 VI-5>와 같다. 센터 상근직원 수는 1~3명(44.6%)과 4~7명(44.6%)이 가장 많았다. 센터구분에 따라 시도 센터의 경우 4~7명(57.1%)이, 시군구 센터의 경우 1~3명(47.2%)이 가장 많았고, 센터 이용 연인원에 따라 100명 미만의 경우 1~3명(79.5%), 100명 이상 250명 미만은 4~7명(60.3%), 250명 이상도 4~7명(54.5%)이 가장 많았다. 지역규모에 따라 대도시는 4~7명(54.3%), 소도시 및 읍면지역의 경우 1~3명(51.2%)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연인원이 많고, 시도센터, 대도시지역 센터 일수록 직원 수가 많았다.

표 VI-5. 센터 상근직원 수

(단위 : %, 명)				
	1~3명	4~7명	8명 이상	평균(명)
전체	44.6	44.6	10.8	4.46
센터구분				
시도 센터	-	57.1	42.9	8.57
시군구 센터	47.2	43.9	8.9	4.23
센터 이용 연인원				
100명 미만	79.5	12.8	7.7	3.44
100명 이상 250명 미만	39.7	60.3	-	4.05
250명 이상	12.1	54.5	33.3	6.39
지역규모				
대도시	32.6	54.3	13.0	4.80
소도시/읍면지역	51.2	39.3	9.5	4.27

② 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이용자) 연인원

연간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표 VI-6>과 같다. 전체 응답자 소속 센터를 기준으로 이용자 연인원은 100명 이상 250명 미만(44.6%)이 가장 많았다. 센터구분에 따라 시도 센터는 100명 미만(57.1%), 시군구 센터는 100명 이상 250명 미만(45.5%)가 가장 많았고, 지역규모에 따라 대도시는 100명 이상 250명 미만, 소도시 및 읍면지역은 100명 미만(41.7%)이 가장 많았다.

표 VI-6. 센터 학교 밖 청소년(이용자) 연인원

(단위 : %, 명)

	100명 미만	100명 이상 250명 미만	250명 이상	평균(명)
전체	30.0	44.6	25.4	191.5
센터구분				
시도 센터	57.1	28.6	14.3	134.1
시군구 센터	28.5	45.5	26.0	194.7
지역규모				
대도시	8.7	65.2	26.1	207.9
소도시/읍면지역	41.7	33.3	25.0	182.5

③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이용(발굴) 경로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1~3순위 경로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VI-7>과 같다. 1~3순위 경로는 본인, 친구 및 선후배, 가족의 추천 등 개인이 직접 센터를 찾게 되는 경우(91.5%), 학교·교육청을 통한 경우(87.7%), 검정고시 접수장·시험장을 통한 경우(27.7%)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센터 구분에 따라 시도 센터는 개인(100.0%)과 학교·교육청을 통해(100.0%)와 검정고시 접수장·시험장(57.1%)을 통한 경우가 많았고, 시군구 센터는 개인(91.1%), 학교·교육청을 통해(87.0%) 뿐 아니라 꿈드림 센터에서 직접 발굴(27.6%)도 많았다. 센터 이용 연인원에 따라 100명 미만은 학교·교육청을 통해(92.3%), 개인(87.2%), 꿈드림 센터에서 직접발굴(41.0%) 순으로, 100명 이상 250명 미만은 개인(93.1%), 학교·교육청을 통해(86.2%), 검정고시 접수장·시험장(31.0%) 순으로, 250명 이상은 개인(93.9%), 학교·교육청을 통해(84.8%), 검정고시 접수장·시험장(39.4%)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지역규모 기준으로 대도시는 개인(93.5%), 학교·교육청을 통해(84.8%), 검정고시 접수장·시험장(37.0%) 순으로, 소도시/읍면지역은 개인(90.5%), 학교·교육청을 통해(89.3%), 꿈드림센터에서 직접 발굴(27.4%)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표 VI-7.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이용(발굴) 경로(복수응답)

(단위 : %)

	학교· 교육청 통하여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대안 학교	청소년 쉼터	경찰, 법원, 법무부 기관	검정 고시 접수장· 시험장	개인	센터 직접 발굴	기타
전체	87.7	17.7	14.6	3.1	19.2	27.7	91.5	26.9	3.8
센터구분									
시도 센터	100.0	14.3	-	-	14.3	57.1	100.0	14.3	-
시군구 센터	87.0	17.9	15.4	3.3	19.5	26.0	91.1	27.6	4.1
센터 이용 연인원									
100명 미만	92.3	23.1	7.7	2.6	20.5	12.8	87.2	41.0	5.1
100명 이상 250명 미만	86.2	20.7	15.5	3.4	17.2	31.0	93.1	24.1	3.4
250명 이상	84.8	6.1	21.2	3.0	21.2	39.4	93.9	15.2	3.0
지역규모									
대도시	84.8	19.6	10.9	4.3	17.4	37.0	93.5	26.1	4.3
소도시/읍면지역	89.3	16.7	16.7	2.4	20.2	22.6	90.5	27.4	3.6

④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주요 영역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주요 영역 1~3순위를 종합한 결과는 <표 VI-8>과 같다. 1~3순위 영역은 기초학습, 검정고시, 대학진학, 복고, 기초소양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교육지원(95.4%), 동기강화, 직업교육, 취업·창업 지원, 자립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자립지원(83.1%), 문화예술, 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활동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활동지원(73.8%)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센터구분에 따라 시도 센터는 자립지원(100.0%)의, 시군구 센터는 교육지원(95.9%)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센터 이용 연인원에 따라 100명 미만은 교육지원(92.3%), 100명 이상 250명 미만은 교육지원(98.3%), 250명 이상은 교육지원(93.9%)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결과도 유사하게 대도시도 교육지원(95.7%)이, 소도시/읍면지역도 교육지원(95.2%)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VI-8.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주요 영역(복수응답)

(단위 : %)

	상담심리	건강	보호	생활	교육	자립	활동
전체	26.2	3.8	0.8	16.9	95.4	83.1	73.8
센터구분							
시도 센터	14.3	-	-	14.3	85.7	100.0	85.7
시군구 센터	26.8	4.1	0.8	17.1	95.9	82.1	73.2
센터 이용 연인원							
100명 미만	25.6	10.3	-	12.8	92.3	89.7	69.2
100명 이상 250명 미만	25.9	1.7	-	24.1	98.3	77.6	72.4
250명 이상	27.3	-	3.0	9.1	93.9	84.8	81.8
지역규모							
대도시	26.1	2.2	-	15.2	95.7	80.4	80.4
소도시/읍면지역	26.2	4.8	1.2	17.9	95.2	84.5	70.2

* 주: 상담심리 지원: 상담, 심리검사·치료, 부모교육, 상담 관련 비용지원
 건강 지원: 관리 및 교육, 검진, 진단 및 치료, 건강 관련 비용지원
 보호 지원: 긴급개입, 일시·단기·중장기 보호
 생활 지원: 의복 및 세탁, 식사 및 위생, 일상활동 및 관련 비용지원
 교육 지원: 기초학습, 검정고시, 대학진학, 복교, 기초소양, 관련 비용지원
 자립 지원: 동기강화, 직업교육, 취업·창업 지원, 자립 관련 비용지원
 활동 지원: 문화예술, 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활동 관련 비용지원

(2) 기관 특성

○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인식

①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인식: 이후 단계에 대한 진로계획

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의 이후 단계에 대한 진로계획(복교·진학, 취업, 창업 등)을 분석한 결과는 <표 VI-9>와 같다. 센터 등록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후 단계에 대한 진로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 그렇다(83.8%, M=2.98)가 많았고, 센터구분에 따라 시군구 센터(M=2.99)는 84.6%, 시도 센터(M=2.71)는 71.4%로 나타났다. 센터 이용 연인원에 따라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아졌는데, 250명 이상(87.9%, M=3.00), 100명 이상 250명 미만(86.2%, M=2.97), 100명 미만(76.9%, M=2.97) 순이었다.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소도시/읍면지역(84.5%, M=2.96)이 대도시(82.6%, M=3.00)보다 약간 높았다. 대체로 연인원이 많은 시군구 센터에서 청소년들이 이후 단계 진로계획이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표 VI-9. 이후 단계에 대한 진로계획

(단위 : %)

1) 이후 단계에 대한 진로계획(복고·진학, 취업, 창업 등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③+④)	평균 (점)	표준 편차
전체	-	16.2	70.0	13.8	16.2	83.8	2.98	0.55
센터구분								
시도 센터	-	28.6	71.4	-	28.6	71.4	2.71	0.49
시군구 센터	-	15.4	69.9	14.6	15.4	84.6	2.99	0.55
센터 이용 연인원								
100명 미만	-	23.1	56.4	20.5	23.1	76.9	2.97	0.67
100명 이상 250명 미만	-	13.8	75.9	10.3	13.8	86.2	2.97	0.49
250명 이상	-	12.1	75.8	12.1	12.1	87.9	3.00	0.50
지역규모								
대도시	-	17.4	65.2	17.4	17.4	82.6	3.00	0.60
소도시/읍면지역	-	15.5	72.6	11.9	15.5	84.5	2.96	0.53

②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인식: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장기 진로계획 수립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VI-10>과 같다.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장기 진로계획 수립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59.2%)가 그렇지 않다(40.8%)보다 많았으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응답 평균은 2.64이다. 시도 센터(M=2.57)의 그렇다는 응답비율(57.1%)이 시군구 센터(M=2.64)의 응답비율(59.3%)보다 낮았으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센터 이용 연인원에 따라서는 100명 미만(66.7%, M=2.72), 250명 이상(57.6%, M=2.70), 100명 이상 250명 미만(55.2%, M=2.55) 순이었다.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소도시/읍면지역(60.7%, M=2.65)이 대도시(56.5%, M=2.61)보다 높았다. 상대적으로 센터 이용 인원이 적은 센터에서 장기적 진로계획 설정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지만 50%~60% 정도의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진로계획이 있다고 답한 이전의 응답에서 80%내외의 응답이 나온 것에 비하여 낮은 정도를 보였다.

표 VI-10.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장기 진로계획 수립

(단위 : %)

2)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장기적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③+④)	평균 (점)	표준 편차
전체	2.3	38.5	52.3	6.9	40.8	59.2	2.64	0.65
센터구분								
시도 센터	-	42.9	57.1	-	42.9	57.1	2.57	0.53
시군구 센터	2.4	38.2	52.0	7.3	40.7	59.3	2.64	0.65
센터 이용 연인원								
100명 미만	2.6	30.8	59.0	7.7	33.3	66.7	2.72	0.65
100명 이상 250명 미만	3.4	41.4	51.7	3.4	44.8	55.2	2.55	0.63
250명 이상	-	42.4	45.5	12.1	42.4	57.6	2.70	0.68
지역규모								
대도시	2.2	41.3	50.0	6.5	43.5	56.5	2.61	0.65
소도시/읍면지역	2.4	36.9	53.6	7.1	39.3	60.7	2.65	0.65

③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인식: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한 정보

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한 정보(학력·자격증 등)를 알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VI-11>과 같다. 센터 등록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 그렇다는 응답(60.8%)이 그렇지 않다(39.2%)보다 높았고, 응답 평균은 2.64이다. 센터구분에 따라서는 시도 센터(M=2.86)의 그렇다는 응답비율(71.4%)이 시군구 센터(M=2.63)의 응답비율(60.2%)보다 높았다. 센터 이용 연인원별로는 100명 미만(79.5%, M=2.85), 250명 이상(54.5%, M=2.58), 100명 이상 250명 미만(51.7%, M=2.53) 순이었다.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소도시/읍면지역(66.7%, M=2.67)이 대도시(50.0%, M=2.59)보다 높았고, 대도시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동일했다. 상대적으로 센터 이용자 연인원이 적은 경우에 직업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79.5%) 답하였고, 대도시에서는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반반인 것으로 답하였다.

표 VI-11.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한 정보

(단위 : %)

3)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한 정보(학력·자격증 등)를 알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③+④)	평균 (점)	표준 편차
전체	3.8	35.4	53.8	6.9	39.2	60.8	2.64	0.67
센터구분								
시도 센터	-	28.6	57.1	14.3	28.6	71.4	2.86	0.69
시군구 센터	4.1	35.8	53.7	6.5	39.8	60.2	2.63	0.67
센터 이용 연인원								
100명 미만	5.1	15.4	69.2	10.3	20.5	79.5	2.85	0.67
100명 이상 250명 미만	1.7	46.6	48.3	3.4	48.3	51.7	2.53	0.60
250명 이상	6.1	39.4	45.5	9.1	45.5	54.5	2.58	0.75
지역규모								
대도시	2.2	47.8	39.1	10.9	50.0	50.0	2.59	0.72
소도시/읍면지역	4.8	28.6	61.9	4.8	33.3	66.7	2.67	0.65

④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인식: 원하는 진로 준비 방법

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이 원하는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VI-12>와 같다. 원하는 진로 준비방법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50.8%)가 그렇지 않다(49.2%)보다 많았으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응답 평균은 2.55이다. 센터구분에 따라 시도 센터(M=2.57)는 그렇지 않다 응답비율(57.1%)이 그렇다(42.9%)보다 높았고, 시군구 센터(M=2.54)는 그렇다(51.2%)가 그렇지 않다(48.8%)보다 비율이 높았다. 센터 이용 연인원에 따라 그렇다는 응답비율(69.2%)이 더 높은 100명 미만(M=2.74)을 제외하고 100명 이상 250명 미만(60.3%, M=2.40)과 250명 이상(51.5%, M=2.58)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대도시(M=2.52)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54.3%)이 더 높았고 소도시/읍면지역(M=2.56)은 그렇다는 응답비율(53.6%)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진로 준비 방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센터 구분에 따라 30%대 응답이 나오는 등 다른 진로관련 상황 문항에 비하여서도 특히 낮은 긍정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 VI-12. 원하는 진로 준비 방법

(단위 : %)

4) 원하는 진로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③+④)	평균 (점)	표준 편차
전체	1.5	47.7	45.4	5.4	49.2	50.8	2.55	0.62
센터구분								
시도 센터	-	57.1	28.6	14.3	57.1	42.9	2.57	0.79
시군구 센터	1.6	47.2	46.3	4.9	48.8	51.2	2.54	0.62
센터 이용 연인원								
100명 미만	-	30.8	64.1	5.1	30.8	69.2	2.74	0.55
100명 이상 250명 미만	1.7	58.6	37.9	1.7	60.3	39.7	2.40	0.56
250명 이상	3.0	48.5	36.4	12.1	51.5	48.5	2.58	0.75
지역규모								
대도시	2.2	52.2	37.0	8.7	54.3	45.7	2.52	0.69
소도시/읍면지역	1.2	45.2	50.0	3.6	46.4	53.6	2.56	0.59

⑤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인식: 진로에 대한 소통

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이 가족 및 보호자와 진로에 대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VI-13>과 같다. 청소년들이 가족 및 보호자와 진로에 대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73.8%)가 그렇지 않다(26.2%)보다 많았고, 응답 평균은 2.79이다. 센터구분에 따라 시군구 센터(M=2.79)는 그렇다는 응답비율(74.0%)이 그렇지 않다(26.0%)보다 높았고 시도 센터(M=2.86)의 그렇다는 응답비율(71.4%)보다 높았다. 센터 이용 연인원별로 보면 250명 이상(78.8%, M=2.79), 100명 미만(76.9%, M=2.90), 100명 이상 250명 미만(69.0%, M=2.72) 순이었다.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소도시/읍면지역(77.4%, M=2.83)이 대도시(67.4%, M=2.72)보다 높았고 응답비율의 차이는 10%p 가량 나타나, 상대적으로 대도시에서 가족 및 보호자와 진로에 관한 소통을 덜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VI-13. 진로에 대한 소통

(단위 : %)

5) 가족 및 보호자와 진로에 대한 소통을 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③+④)	평균 (점)	표준 편차
전체	0.8	25.4	67.7	6.2	26.2	73.8	2.79	0.55
센터구분								
시도 센터	-	28.6	57.1	14.3	28.6	71.4	2.86	0.69
시군구 센터	0.8	25.2	68.3	5.7	26.0	74.0	2.79	0.55
센터 이용 연인원								
100명 미만	-	23.1	64.1	12.8	23.1	76.9	2.90	0.60
100명 이상 250명 미만	-	31.0	65.5	3.4	31.0	69.0	2.72	0.52
250명 이상	3.0	18.2	75.8	3.0	21.2	78.8	2.79	0.55
지역규모								
대도시	-	32.6	63.0	4.3	32.6	67.4	2.72	0.54
소도시/읍면지역	1.2	21.4	70.2	7.1	22.6	77.4	2.83	0.56

⑥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인식: 진로 관련 경제적·정서적 지원

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이 가족 및 보호자로부터 진로와 관련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VI-14>와 같다. 진로 관련 경제적·정서적 지원에 대한 응답비율은 그렇다는 응답(73.1%)이 그렇지 않다(26.9%)보다 높았고, 응답 평균은 2.78이다. 센터구분에 따라 시도 센터(M=2.86)는 그렇다는 응답비율(85.7%)이 그렇지 않다(14.3%)보다 높았고 시군구 센터(M=2.77)의 그렇다는 응답비율(72.4%)보다 높았다. 센터 이용 연인원별로 보면, 100명 미만(76.9%, M=2.90), 250명 이상(75.8%, M=2.76), 100명 이상 250명 미만(69.0%, M=2.71) 순이었다.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소도시/읍면지역(77.4%, M=2.83)이 대도시(65.2%, M=2.67)보다 높았다. 가족 및 보호자로부터의 지원 문항은 센터 구분에 따른 응답비율 차이가 다소 있었는데, 시도센터와 시군구 센터 간 긍정응답 비율 차이는 13.3%p였고, 대도시와 소도시/읍면지역의 긍정응답 비율차이도 12.2%p였다. 즉, 상대적으로 대도시지역 시 센터에서 지원 정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표 VI-14. 진로 관련 경제적·정서적 지원

(단위 : %)

6) 가족 및 보호자로부터 진로 관련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③+④)	평균 (점)	표준 편차
전체	-	26.9	68.5	4.6	26.9	73.1	2.78	0.52
센터구분								
시도 센터	-	14.3	85.7	-	14.3	85.7	2.86	0.38
시군구 센터	-	27.6	67.5	4.9	27.6	72.4	2.77	0.52
센터 이용 연인원								
100명 미만	-	23.1	64.1	12.8	23.1	76.9	2.90	0.60
100명 이상 250명 미만	-	31.0	67.2	1.7	31.0	69.0	2.71	0.50
250명 이상	-	24.2	75.8	-	24.2	75.8	2.76	0.44
지역규모								
대도시	-	34.8	63.0	2.2	34.8	65.2	2.67	0.52
소도시/읍면지역	-	22.6	71.4	6.0	22.6	77.4	2.83	0.5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인식에 대하여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부분의 청소년(83.8%)은 이후 단계에 대한 진로계획이 있었고 대체로 가족 및 보호자와 소통하며, 가정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여 원하는 진로를 준비하는 방법, 장기적 진로 계획 등은 40%~50%에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직 모르고 있거나 없다고 답하였다. 즉, 센터 종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 계획은 있으나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발하는 역량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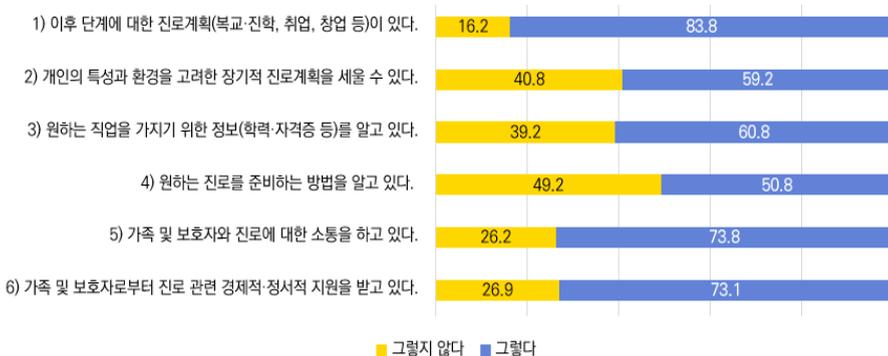


그림 VI-2.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인식(%)

○ 기관 위치 및 여건에 대한 인식

① 기관 위치 및 여건에 대한 인식: 청소년이 찾아오기 편리함

기관의 위치 및 여건(시설, 공간)이 청소년이 찾아오기 편리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VI-15>와 같다. 센터의 위치가 청소년이 찾아오기 편리한 곳에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70.8%)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29.2%)는 응답보다 많았고, 응답 평균은 2.92이다. 센터구분에 따라 시도 센터(M=3.29)는 그렇다는 응답비율(85.7%)이 그렇지 않다(14.3%)보다 높았고 시군구 센터(M=2.90)의 그렇다는 응답비율(69.9%)보다 높았다. 센터 이용 연인원별로 보면, 100명 이상 250명 미만(77.6%, M=2.95), 250명 이상(75.8%, M=3.12), 100명 미만(56.4%, M=2.72) 순이었다.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대도시(78.3%, M=3.07)가 소도시/읍면지역(66.7%, M=2.85)보다 높았다. 상대적으로 시도센터일수록, 대도시에 위치할수록, 연인원 규모가 클수록 접근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VI-15. 청소년이 찾아오기 편리함

(단위 : %)

1) 청소년이 찾아오기 편리한 곳에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③+④)	평균 (점)	표준 편차
전체	3.8	25.4	45.4	25.4	29.2	70.8	2.92	0.81
센터구분								
시도 센터	-	14.3	42.9	42.9	14.3	85.7	3.29	0.76
시군구 센터	4.1	26.0	45.5	24.4	30.1	69.9	2.90	0.81
센터 이용 연인원								
100명 미만	7.7	35.9	33.3	23.1	43.6	56.4	2.72	0.92
100명 이상 250명 미만	3.4	19.0	56.9	20.7	22.4	77.6	2.95	0.74
250명 이상	-	24.2	39.4	36.4	24.2	75.8	3.12	0.78
지역규모								
대도시	2.2	19.6	47.8	30.4	21.7	78.3	3.07	0.77
소도시/읍면지역	4.8	28.6	44.0	22.6	33.3	66.7	2.85	0.83

② 기관 위치 및 여건에 대한 인식: 활동 공간이 충분함

기관의 활동 공간(교육실, 활동실 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VI-16>과 같다. 기관의 활동공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응답비율은 그렇다(52.3%)가 그렇지 않다(47.7%)보다 높았으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응답 평균은 2.48이다. 센터구분에 따라 시도 센터(M=3.00)는 그렇다의 응답비율이(71.4%), 시군구 센터는(M=2.46) 그렇다의 응답비율(51.2%)보다 20%p가량 높았다. 센터 이용 연인원에 따라 250명 이상(M=2.82)인 경우 그렇다(72.7%)는 응답비율이 그렇지 않다(27.3%)보다 높았으나, 100명 미만(56.4%, M=2.26)과 100명 이상 250명 미만(53.4%, M=2.45)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대도시(54.3%, M=2.67)가 소도시/읍면지역(51.2%, M=2.38)보다 높았으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대체로 연인원의 규모가 큰 센터, 시도센터에서 활동 공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VI-16. 활동 공간이 충분함

(단위 : %)

2) 활동 공간(교육실, 활동실 등)이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③+④)	평균 (점)	표준 편차
전체	19.2	28.5	36.9	15.4	47.7	52.3	2.48	0.97
센터구분								
시도 센터	-	28.6	42.9	28.6	28.6	71.4	3.00	0.82
시군구 센터	20.3	28.5	36.6	14.6	48.8	51.2	2.46	0.98
센터 이용 연인원								
100명 미만	25.6	30.8	35.9	7.7	56.4	43.6	2.26	0.94
100명 이상 250명 미만	19.0	34.5	29.3	17.2	53.4	46.6	2.45	0.99
250명 이상	12.1	15.2	51.5	21.2	27.3	72.7	2.82	0.92
지역규모								
대도시	13.0	32.6	28.3	26.1	45.7	54.3	2.67	1.01
소도시/읍면지역	22.6	26.2	41.7	9.5	48.8	51.2	2.38	0.94

③ 기관 위치 및 여건에 대한 인식: 시설 및 기자재가 충분히 구비됨

기관의 위치 및 여건(시설, 공간)의 시설 및 기자재가 충분히 구비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VI-17>과 같다. 시설 및 기자재가 충분히 구비되었는지에 대한 응답비율은 그렇다(52.3%)가 그렇지 않다(47.7%)보다 높았으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응답 평균은 2.52이다. 센터 구분에 따라 시도 센터(M=2.86)는 그렇다는 응답비율(57.1%)이 그렇지 않다(42.9%)보다 높았고 시군구 센터(M=2.50)도 그렇다는 응답비율(52.0%)이 높았으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센터 이용 연인원에 따라 250명 이상(69.7%, M=2.82)과 100명 미만(51.3%, M=2.44)인 경우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으나, 100명 이상 250명 미만(43.1%, M=2.40)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대도시(M=2.70)인 경우 그렇다(58.7%)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고, 소도시/읍면지역(M=2.42)의 경우 그렇지 않다(51.2%)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센터 구분에 따라 대체로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50% 내외 응답을 보였고, 센터 이용자 연인원이 많은 경우에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VI-17. 시설 및 기자재가 충분히 구비됨

(단위 : %)

3) 시설 및 기자재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③+④)	평균 (점)	표준 편차
전체	15.4	32.3	37.7	14.6	47.7	52.3	2.52	0.93
센터구분								
시도 센터	-	42.9	28.6	28.6	42.9	57.1	2.86	0.90
시군구 센터	16.3	31.7	38.2	13.8	48.0	52.0	2.50	0.93
센터 이용 연인원								
100명 미만	23.1	25.6	35.9	15.4	48.7	51.3	2.44	1.02
100명 이상 250명 미만	15.5	41.4	31.0	12.1	56.9	43.1	2.40	0.90
250명 이상	6.1	24.2	51.5	18.2	30.3	69.7	2.82	0.81
지역규모								
대도시	8.7	32.6	39.1	19.6	41.3	58.7	2.70	0.89
소도시/읍면지역	19.0	32.1	36.9	11.9	51.2	48.8	2.42	0.93

④ 기관 위치 및 여건에 대한 인식: 운영 인력이 충분함

센터 운영 인력이 충분한지 분석한 결과는 <표 VI-18>과 같다. 인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응답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68.5%)이 그렇다(31.5%)보다 높았고, 응답 평균은 2.09이다. 센터구분에 따라 시도 센터(M=2.14)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85.7%)이 그렇다(14.3%)보다 높았고 시군구 센터(M=2.09)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67.5%)이 높았다. 센터 이용 연인원별로 보면, 100명 이상 250명 미만(81.0%, M=1.86), 250명 이상(66.7%, M=2.21), 100명 미만(51.3%, M=2.33) 순이었다.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대도시(76.1%, M=2.07)가 소도시/읍면지역(64.3%, M=2.11)보다 높았다. 인력 충분성은 대체로 낮은 긍정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VI-18. 운영 인력이 충분함

(단위 : %)

4) 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이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③+④)	평균 (점)	표준 편차
전체	25.4	43.1	28.5	3.1	68.5	31.5	2.09	0.81
센터구분								
시도 센터	-	85.7	14.3	-	85.7	14.3	2.14	0.38
시군구 센터	26.8	40.7	29.3	3.3	67.5	32.5	2.09	0.83
센터 이용 연인원								
100명 미만	17.9	33.3	46.2	2.6	51.3	48.7	2.33	0.81
100명 이상 250명 미만	32.8	48.3	19.0	-	81.0	19.0	1.86	0.71
250명 이상	21.2	45.5	24.2	9.1	66.7	33.3	2.21	0.89
지역규모								
대도시	21.7	54.3	19.6	4.3	76.1	23.9	2.07	0.77
소도시/읍면지역	27.4	36.9	33.3	2.4	64.3	35.7	2.11	0.84

⑤ 기관 위치 및 여건에 대한 인식: 센터 내 진로지원 인력이 있음

센터 내에 진로를 지원하는 인력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VI-19>와 같다. 센터 내 진로지원 인력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76.9%)이 그렇다(23.1%)보다 높았고, 응답 평균은 2.00이다. 센터구분에 따라 시도 센터(M=2.14)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85.7%)이 높았고 시군구 센터(M=1.99)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76.4%)이 높았다. 센터 이용 연인원별로 보면, 100명 미만(82.1%, M=1.92), 100명 이상 250명 미만(77.6%, M=1.98), 250명 이상(69.7%, M=2.12) 순이었다.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소도시/읍면지역(81.0%, M=1.92)이 대도시(69.6%, M=2.15)보다 높아, 진로 전문 인력에 대해서도 부정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VI-19. 센터 내 진로지원 인력이 있음

(단위 : %)

5) 센터 내 진로지원 전문 인력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③+④)	평균 (점)	표준 편차
전체	23.8	53.1	22.3	0.8	76.9	23.1	2.00	0.70
센터구분								
시도 센터	-	85.7	14.3	-	85.7	14.3	2.14	0.38
시군구 센터	25.2	51.2	22.8	0.8	76.4	23.6	1.99	0.72
센터 이용 연인원								
100명 미만	25.6	56.4	17.9	-	82.1	17.9	1.92	0.66
100명 이상 250명 미만	24.1	53.4	22.4	-	77.6	22.4	1.98	0.69
250명 이상	21.2	48.5	27.3	3.0	69.7	30.3	2.12	0.78
지역규모								
대도시	15.2	54.3	30.4	-	69.6	30.4	2.15	0.67
소도시/읍면지역	28.6	52.4	17.9	1.2	81.0	19.0	1.92	0.71

⑥ 기관 위치 및 여건에 대한 인식: 연계 가능한 전문 진로지원 인력/기관이 있음 센터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가능한 진로 전문인력 혹은 기관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VI-20>과 같다. 연계 가능한 전문 진로지원 인력/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비율은 그렇다(66.9%)가 그렇지 않다(33.1%)보다 높았고, 응답 평균은 2.68이다. 센터구분에 따라 시군구 센터(M=2.68)는 그렇다는 응답비율(67.5%)이 그렇지 않다(32.5%)보다 높았고 시도 센터(M=2.57)의 그렇다는 응답비율(57.1%)보다 높았다. 센터 이용 연인원별로 보면, 250명 이상(78.8%, M=2.88), 100명 미만(66.7%, M=2.64), 100명 이상 250명 미만(60.3%, M=2.59) 순이었다.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대도시(78.3%, M=2.83)가 소도시/읍면지역(60.7%, M=2.60)보다 높았다. 연계 가능한 전문

인력과 기관에 대하여서는 대도시 지역, 연인원이 많은 센터의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고, 시도 센터의 긍정응답 비율은 낮았다.

표 VI-20. 연계 가능한 전문 진로지원 인력/기관이 있음

(단위 : %)

6) 센터와 연계된(혹은 연계 가능한) 전문 진로지원 인력/기관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③+④)	평균 (점)	표준 편차
전체	6.9	26.2	59.2	7.7	33.1	66.9	2.68	0.72
센터구분								
시도 센터	-	42.9	57.1	-	42.9	57.1	2.57	0.53
시군구 센터	7.3	25.2	59.3	8.1	32.5	67.5	2.68	0.73
센터 이용 연인원								
100명 미만	7.7	25.6	61.5	5.1	33.3	66.7	2.64	0.71
100명 이상 250명 미만	6.9	32.8	55.2	5.2	39.7	60.3	2.59	0.70
250명 이상	6.1	15.2	63.6	15.2	21.2	78.8	2.88	0.74
지역규모								
대도시	2.2	19.6	71.7	6.5	21.7	78.3	2.83	0.57
소도시/읍면지역	9.5	29.8	52.4	8.3	39.3	60.7	2.60	0.78

⑦ 기관 위치 및 여건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됨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VI-21>과 같다.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되는지에 대한 응답비율은 그렇다는 응답(89.2%)이 그렇지 않다(10.8%)보다 높았고, 응답 평균은 3.05이다. 센터구분에 따라 시도 센터(M=3.00)는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100%였고 시군구 센터(M=3.05)의 그렇다는 응답비율(88.6%)도 그렇지 않다(11.4%)보다 높았다. 센터 이용 연인원에 따라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는데, 250명 이상(93.9%, M=3.06), 100명 이상 250명 미만(91.4%, M=3.07), 100명 미만(82.1%, M=3.00) 순이었다.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대도시(91.3%, M=3.04)가 소도시/읍면지역(88.1%, M=3.05)보다 높았지만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VI-21.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 체계가 구축·운영됨

(단위 : %)

7)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③+④)	평균 (점)	표준 편차
전체	2.3	8.5	71.5	17.7	10.8	89.2	3.05	0.60
센터구분								
시도 센터	-	-	100.0	-	-	100.0	3.00	-
시군구 센터	2.4	8.9	69.9	18.7	11.4	88.6	3.05	0.61
센터 이용 연인원								
100명 미만	5.1	12.8	59.0	23.1	17.9	82.1	3.00	0.76
100명 이상 250명 미만	1.7	6.9	74.1	17.2	8.6	91.4	3.07	0.56
250명 이상	-	6.1	81.8	12.1	6.1	93.9	3.06	0.43
지역규모								
대도시	2.2	6.5	76.1	15.2	8.7	91.3	3.04	0.56
소도시/읍면지역	2.4	9.5	69.0	19.0	11.9	88.1	3.05	0.62

기관 위치 및 여건에 대한 응답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부분(89.2%)의 응답자는 센터와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직장 인턴십이나 체험, 훈련 등은 센터 자체 진행이 어려워, 여러 연계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센터와 연계 가능한 전문적인 진로지원 인력이나 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33.1%가 없다고 답하였고, 센터 내 진로지원 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기관에서 없는 것으로 답하였다. 이는 현재의 연계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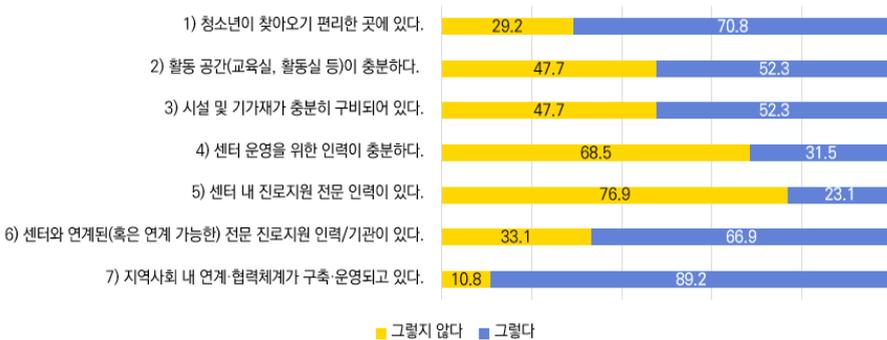


그림 VI-3. 기관 위치 및 여건에 대한 인식(%)

(3) 진로직업 지원사업 이행

○ 진로지원영역별 중요도 및 실시 정도

진로지원영역은 성평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의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설문하였다. 첫 번째는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로 진로심리검사, 진로 및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는 진로(자립)동기 강화로 직업 인과의 대화, 현장 견학 및 직업 체험을 포함하여 캠프나 특강 등으로 동기를 강화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기초기술 훈련으로 자격증 취득 지원과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본격적인 직업기술 훈련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관리 프로그램 역시 직업 기초기술의 한 영역으로서 다루어지게 된다. 다음은 직장체험(인턴십)으로 일터와 연계하여 실제 업무를 경험하게 된다.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에서는 이 4개의 단계를 거친 후 직업 훈련·교육 지원으로 연계되거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 훈련·교육 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나 청소년비즈쿨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진로지원영역: 진로지원영역별 중요도

진로지원영역별 중요도 1~3순위를 종합한 결과는 <표 VI-22>와 같다. 중요도 1~3순위 영역은 기초기술훈련(87.7%), 직장체험(64.6%), 진로(자립) 동기 강화(59.2%),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44.6%)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센터구분에 따라 시도 센터는 기초기술훈련(85.7%)과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71.4%)의 비율이 높았고, 시군구 센터는 기초기술훈련(87.8%)과 직장체험(65.0%)의 비율이 높았다. 센터 이용 연인원을 기준으로 100명 미만은 기초기술훈련(84.6%)과 진로(자립)동기강화(69.2%), 100명 이상 250명 미만은 기초기술훈련(89.7%)과 직장체험(70.7%), 250명 이상은 기초기술훈련(87.9%)과 직장체험(69.7%)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는데 대도시는 기초기술훈련(87.0%)과 직장체험(65.2%), 소도시/읍면지역도 기초기술훈련(88.1%)과 직장체험(64.3%)의 중요도 비율이 높았다.

표 VI-22. 진로지원영역별 중요도 (복수응답)

(단위 : %)

	진로 상담 검사	동기 강화	기초 기술 훈련	직장 체험 (인턴십)	직업 훈련· 교육	취업 연계	창업 체험· 교육	기타
전체	44.6	59.2	87.7	64.6	25.4	13.8	3.1	1.5
센터구분								
시도 센터	71.4	57.1	85.7	57.1	-	28.6	-	-
시군구 센터	43.1	59.3	87.8	65.0	26.8	13.0	3.3	1.6
센터 이용 연인원								
100명 미만	46.2	69.2	84.6	51.3	25.6	15.4	5.1	2.6
100명 이상 250명 미만	48.3	55.2	89.7	70.7	22.4	10.3	3.4	-
250명 이상	36.4	54.5	87.9	69.7	30.3	18.2	-	3.0
지역규모								
대도시	47.8	56.5	87.0	65.2	30.4	10.9	2.2	-
소도시/읍면지역	42.9	60.7	88.1	64.3	22.6	15.5	3.6	2.4

* 주: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 진로심리검사, 진로 및 직업정보 제공, 설계지원
 진로(자립)동기 강화: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 캠프·특강
 기초기술·훈련: 자격증취득 지원, 기술훈련 제공, 생활관리
 직장체험(인턴십): 직장체험 및 인턴십 연계 지원
 직업 훈련·교육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소년비즈쿨 등 직업훈련
 취업 연계: 취업 지원

② 진로지원영역: 센터에서 직접 실시하는 진로지원 영역

센터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는 진로지원 영역은 <표 VI-23>과 같다. 센터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는 영역은 기초기술훈련(88.5%),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80.8%), 진로(자립) 동기강화(78.5%), 직장체험(77.7%)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센터구분에 따라 시도 센터에서는 기초기술훈련(100.0%)과 직장체험(100.0%), 시군구 센터는 기초기술훈련(87.8%)과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80.5%) 비율이 높았다. 센터 이용 연인원에 따라 100명 미만은 기초기술훈련(79.5%)과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79.5%), 100명 이상 250명 미만은 기초기술훈련(89.7%)과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84.5%) 및 진로(자립) 동기강화(84.5%), 250명 이상은 직장체험(100.0%)과 기초기술훈련(97.0%)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대도시는 기초기술훈련(93.5%)과 진로(자립) 동기강화(91.3%), 소도시/읍면지역은 기초기술훈련(85.7%)과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79.8%)의 비율이 높았다.

표 VI-23. 센터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는 진로지원 영역 (복수 응답)

(단위 : %)

	진로 상담 검사	동기 강화	기초 기술 훈련	직장 체험 (인턴십)	직업 훈련· 교육	취업 연계	창업 체험· 교육	기타
전체	80.8	78.5	88.5	77.7	44.6	26.9	20.8	3.1
센터구분								
시도 센터	85.7	85.7	100.0	100.0	71.4	57.1	28.6	-
시군구 센터	80.5	78.0	87.8	76.4	43.1	25.2	20.3	3.3
센터 이용 연인원								
100명 미만	79.5	74.4	79.5	64.1	43.6	33.3	17.9	2.6
100명 이상 250명 미만	84.5	84.5	89.7	74.1	41.4	22.4	24.1	1.7
250명 이상	75.8	72.7	97.0	100.0	51.5	27.3	18.2	6.1
지역규모								
대도시	82.6	91.3	93.5	82.6	58.7	28.3	21.7	-
소도시/읍면지역	79.8	71.4	85.7	75.0	36.9	26.2	20.2	4.8

* 주: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 진로심리검사, 진로 및 직업정보 제공, 설계지원
 진로(자립)동기 강화: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 캠프·특강
 기초기술 훈련: 자격증취득 지원, 기술훈련 제공, 생활관리
 직장체험(인턴십): 직장체험 및 인턴십 연계 지원
 직업 훈련·교육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소년비즈쿨 등 직업훈련
 취업 연계: 취업 지원

③ 진로지원영역: 타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진로지원 영역

타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진로지원 영역은 <표 VI-24>와 같다. 타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진로지원 영역 비율은 직장체험(76.9%), 기초기술훈련(68.5%), 진로(자립)동기강화(57.7%), 직업훈련·교육지원(53.8%) 순으로 높았다. 센터구분에 따라 시도 센터에서는 진로(자립)동기강화(85.7%), 기초기술훈련(85.7%), 직장체험(85.7%)의 비율가 가장 높았고, 시군구 센터는 직장체험(76.4%)과 기초기술훈련(67.5%)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센터 이용 연인원에 따라 100명 미만은 기초기술훈련(74.4%)과 직장체험(66.7%), 100명 이상 250명 미만은 직장체험(79.3%)과 기초기술훈련(65.5%), 250명 이상은 직장체험(84.8%)과 기초기술훈련(66.7%) 비율이 높았다.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대도시는 직장체험(87.0%)과 진로(자립)동기강화(76.1%), 소도시/읍면지역은 직장체험(71.4%)과 기초기술훈련(70.2%)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I-24. 타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진로지원 영역 (복수 응답)

(단위 : %)

	진로 상담 검사	동기 강화	기초 기술 훈련	직장 체험 (인턴십)	직업 훈련· 교육	취업 연계	창업 체험· 교육	기타
전체	41.5	57.7	68.5	76.9	53.8	29.2	13.8	3.1
센터구분								
시도 센터	42.9	85.7	85.7	85.7	57.1	57.1	28.6	-
시군구 센터	41.5	56.1	67.5	76.4	53.7	27.6	13.0	3.3
센터 이용 연인원								
100명 미만	43.6	61.5	74.4	66.7	53.8	30.8	12.8	-
100명 이상 250명 미만	44.8	58.6	65.5	79.3	55.2	32.8	17.2	1.7
250명 이상	33.3	51.5	66.7	84.8	51.5	21.2	9.1	9.1
지역규모								
대도시	43.5	76.1	65.2	87.0	54.3	39.1	17.4	2.2
소도시/읍면지역	40.5	47.6	70.2	71.4	53.6	23.8	11.9	3.6

* 주: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 진로심리검사, 진로 및 직업정보 제공, 설계지원
 진로(자립)동기 강화: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 캠프·특강
 기초기술 훈련: 자격증취득 지원, 기술훈련 제공, 생활관리
 직장체험(인턴십): 직장체험 및 인턴십 연계 지원
 직업 훈련·교육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소년비즈쿨 등 직업훈련
 취업 연계: 취업 지원

진로지원의 영역별로 중요도와 실시 정도, 연계하여 실시하는 정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기술훈련의 경우 중요도와 실시 정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고, 연계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즉 현장에서는 기초기술훈련의 중요성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고 이에 따라 활발히 시행하며, 필요한 기관과는 연계하여 운영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턴십 등 직장체험의 중요성과 실시 정도, 연계하여 실시하는 정도가 고르게 높은 영역이었다. 특히 직접적인 체험이 필요한 영역으로 연계하여 실시하는 정도가 전 영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중요도와 실시 정도가 불일치 하는 영역도 있었다. 진로상담과 진로적성검사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44.6%로 타 영역에 비하여 중간 정도였으나, 실시 정도는 80.8%로 차이가 있었다. 가장 차이가 큰 영역은 창업 체험과 교육이었는데, 종사자들은 창업 체험과 교육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지원은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운영과는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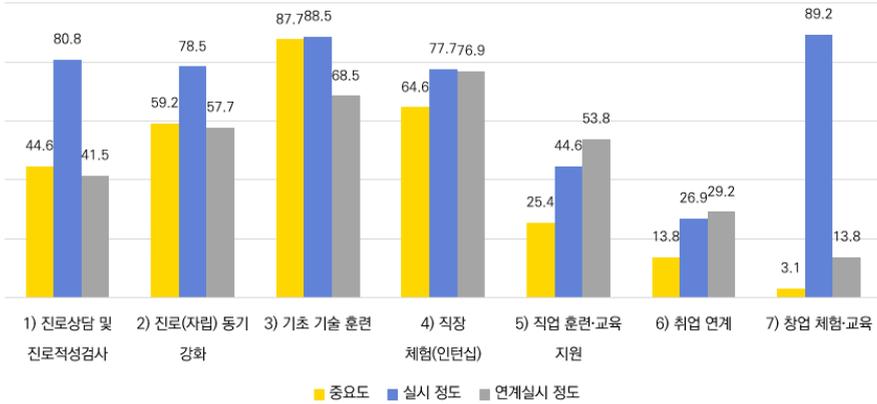


그림 VI-4. 진로지원영역별 중요도, 실시도, 연계실시도(%)

진로지원 영역별 연계 기관유형을 보면, 모든 진로지원 영역의 연계 기관 유형은 공공기관 및 정부/지자체 유관기관, 대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상담 및 적성검사 영역은 공공기관 및 정부/지자체 유관기관, 대학교와 연계한 비율이 98.1%, 진로(자립) 동기강화는 92.0%, 기초기술훈련은 60.7%, 직장체험(인턴십)은 56.0%, 직장 훈련·교육지원은 65.7%, 취업연계는 65.8%, 창업 체험·교육은 72.2%로 타 기관/시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기초기술훈련 영역의 경우 공공기관 및 정부/지자체 유관기관, 대학교 외에도 학원(민간 학원) 및 교육컨설팅 업체가 25.8%, 개인사업장이 16.9% 순서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직장체험(인턴십) 영역은 개인사업장 42.0%, 사회적 기업 및 민간재단이 12.0%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 훈련·교육지원 영역은 학원(민간 학원) 및 교육컨설팅 업체가 28.6%, 개인사업장이 14.3% 순서로 비율이 높았고, 취업연계 역시 개인사업장이 15.8%, 학원(민간 학원) 및 교육컨설팅 업체가 13.2%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창업 체험·교육은 개인사업장 22.2%, 사회적 기업 및 민간재단 11.1%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연계 유형이 공공기관 및 정부/지자체 유관기관, 대학교임에 따라 기관 유형별 분류에 영빈도가 많아 결과표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전체값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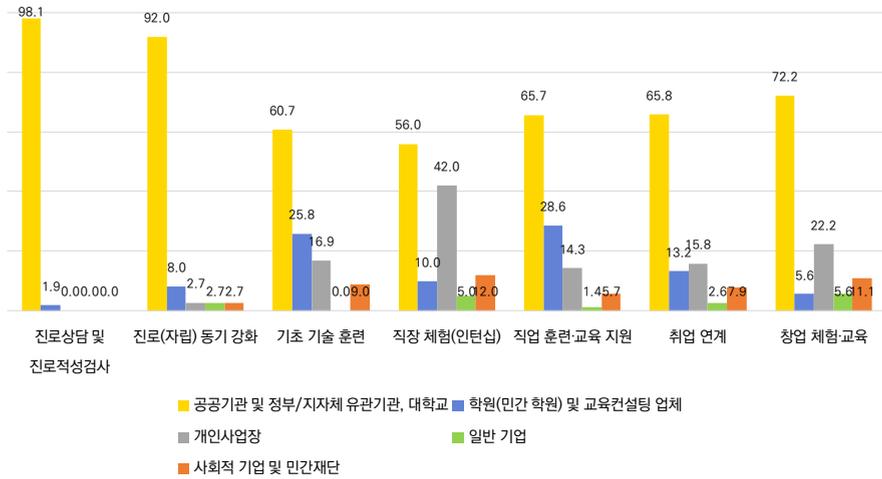


그림 VI-5. 진로지원유형별 중요도, 실시도, 연계실시도(%)

○ 중앙정부 진로지원사업 별 인지 및 실시 유무

① 진로지원사업: 진로/직업 지원사업 인지 여부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진로/직업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표 VI-25>와 같다. 부처별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성평등가족부의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97.7%)과 자립·취업지원 서비스(96.2%)는 90% 이상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청소년수련시설 진로체험(60.0%)을 인지하는 사례는 그보다 적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부의 진로 체험(교육)지원센터(76.9%)와 인증 진로체험기관(60.8%)는 커리어넷(93.1%)보다 인지하고 있는 사례가 적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50.0%)과 청년일경험지원(65.4%)은 국민취업지원제도(91.5%)보다 인지 비율이 낮았고,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26.2%)은 인지하고 있는 사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5. 진로/직업 지원사업 인지 비율

(단위: %)

구분	성평등가족부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성평등가족부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진로체험	교육부 진로체험(교육) 지원센터	교육부 인증 진로체험 기관
전체	97.7	96.2	60.0	76.9	60.8
센터구분					
시도 센터	100.0	100.0	57.1	71.4	57.1
시군구 센터	97.6	95.9	60.2	77.2	61.0
센터 이용 연인원					
100명 미만	97.4	94.9	56.4	71.8	56.4
100명 이상 250명 미만	100.0	94.8	63.8	82.8	62.1
250명 이상	93.9	100.0	57.6	72.7	63.6
지역규모					
대도시	100.0	97.8	65.2	80.4	63.0
소도시/읍면지역	96.4	95.2	57.1	75.0	59.5
구분	교육부 커리어넷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 제도	고용노동부 K-디지털 기초 역량훈련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지원
전체	93.1	50.0	91.5	26.2	65.4
센터구분					
시도 센터	85.7	57.1	85.7	28.6	71.4
시군구 센터	93.5	49.6	91.9	26.0	65.0
센터 이용 연인원					
100명 미만	92.3	35.9	84.6	15.4	51.3
100명 이상 250명 미만	93.1	46.6	93.1	27.6	65.5
250명 이상	93.9	72.7	97.0	36.4	81.8
지역규모					
대도시	95.7	50.0	91.3	26.1	76.1
소도시/읍면지역	91.7	50.0	91.7	26.2	59.5

② 진로지원사업: 진로/직업 지원사업 활용 여부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진로/직업 지원사업을 실시·이용·연계하고 있는지 여부는 <표 VI-26>과 같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평등가족부의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85.0%) 과 자립·취업지원 서비스(84.0%)는 청소년수련시설 진로체험(34.6%)보다 실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음으로, 교육부의 진로체험(교육)지원센터(50.0%)과 커리어넷(63.6%)은 인증 진로체험기관(39.2%)보다 실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56.3%)를 제외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27.7%), K-디지털기초역량훈련(11.8%), 청년일경험지원(9.4%) 모두 실제 활용 사례는 인지 사례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6. 진로/직업 지원사업 활용 비율

(단위: %)

구분	성평등가족부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성평등가족부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진로체험	교육부 진로체험(교육) 지원센터	교육부 인증 진로체험 기관
전체	85.0	84.0	34.6	50.0	39.2
센터구분					
시도 센터	85.7	85.7	50.0	60.0	25.0
시군구 센터	85.0	83.9	33.8	49.5	40.0
센터 이용 연인원					
100명 미만	78.9	83.8	59.1	60.7	40.9
100명 이상 250명 미만	87.9	81.8	18.9	45.8	38.9
250명 이상	87.1	87.9	36.8	45.8	38.1
지역규모					
대도시	93.5	91.1	30.0	62.2	44.8
소도시/읍면지역	80.2	80.0	37.5	42.9	36.0
구분	교육부 커리어넷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 제도	고용노동부 K-디지털 기초 역량훈련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지원
전체	63.6	27.7	56.3	11.8	9.4
센터구분					
시도 센터	66.7	25.0	50.0	-	20.0
시군구 센터	63.5	27.9	56.6	12.5	8.8
센터 이용 연인원					
100명 미만	69.4	35.7	48.5	-	10.0
100명 이상 250명 미만	57.4	22.2	61.1	6.3	7.9
250명 이상	67.7	29.2	56.3	25.0	11.1
지역규모					
대도시	56.8	34.8	69.0	8.3	11.4
소도시/읍면지역	67.5	23.8	49.4	13.6	8.0

* 주: 인지한 사업 가운데 활용하고 있는 비율의 값임

중앙정부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포함) 진로 및 직업지원 사업별 인지와 활용 비율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평등가족부의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자립·취업지원서비스는 대부분의 센터가 인지하고 있고, 활용도도 비교적 높았다. 교육부의 커리어넷과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인지 비율이 높았으나, 활용 비율은 50~60% 수준을 보였다. 인지비율과 활용도 간 차이가 가장 큰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이었는데, 대상자 또는 조건상의 제한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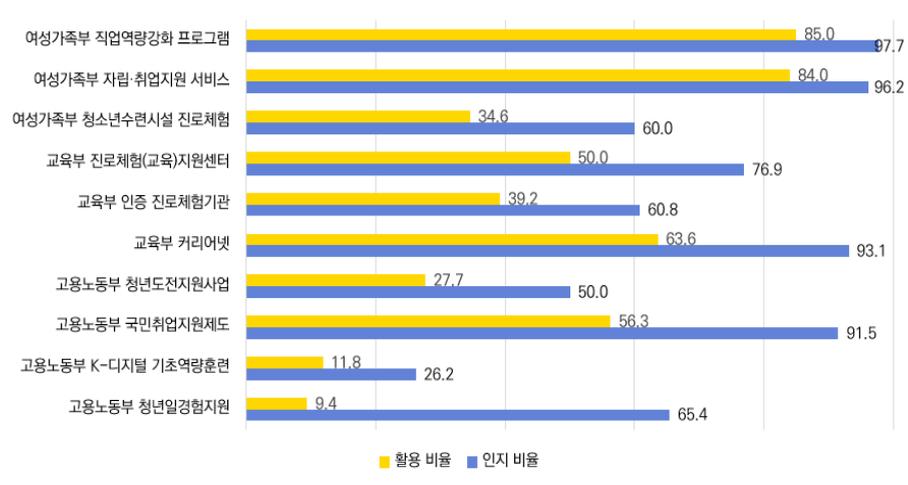


그림 VI-6. 진로/직업 지원사업 인지 및 활용 비율(%)

(4) 진로지원에 관한 의견

이 영역의 질문 중 '사업 실시의 어려운 점', '연계 운영의 어려운 점' 등은 자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오픈형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유사 응답을 분류하여 복수 응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빈도를 산출한 것이다. 응답에서 센터 및 지역 규모별 응답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아 결과는 전체 값(N=130)을 기준으로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① 진로준비 상태별 가장 필요한 진로지원 영역

진로준비 유형별 가장 필요한 진로지원 영역을 보면 첫째, 진로미결정-진로미준비 유형의 경우 자기이해(59.2%)와 진로·직업이해(28.5%) 응답비율이 높았다. 둘째, 진로미결정

-진로준비 유형의 경우 진로·직업이해(50.0%)와 자기이해(28.5%), 진로준비이행(20.0%)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진로결정-진로미준비 유형은 진로준비이행(52.3%)과 진로·직업이해(31.5%) 응답 비율이 높았다. 넷째, 진로결정-진로준비 유형의 경우 진로준비이행(62.3%)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로 결정 및 준비가 아직 되지 못한 청소년, 혹은 결정 없이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자기이해,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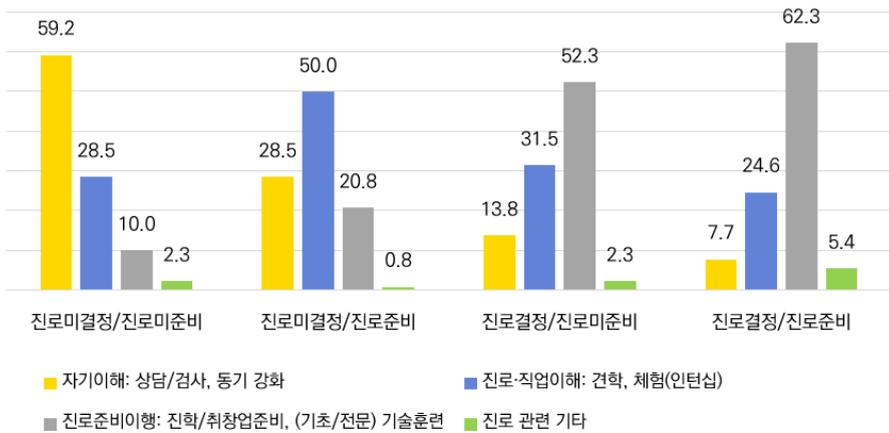


그림 VI-7. 진로준비 상태별 가장 필요한 진로지원(%)

② 진로지원사업 실시에 어려운 점

진로지원 사업을 실시할 때 느끼는 어려운 점을 보면 전체 사례 중 청소년의 참여 저조(50.8%)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청소년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 어려움 및 중도포기로 인한 운영 곤란(20.0%)과 관련 지원사업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16.2%)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VI-8. 진로지원사업 실시(이용·연계 포함)에 가장 어려운 점(%)

③ 국가 진로지원정책 개선 의견

국가 진로지원정책에 바라는 점 또는 개선점,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진로지원에 대한 의견을 보면, 기타 의견을 제외하고 개인별 맞춤형/원스톱 지원 필요(30.8%)와 체험 및 인턴십 프로그램/기관 다양화 필요(26.2%) 의견이 많았다. 다소 광범위한 응답들로 유사 항목으로 묶이지 않거나 진로지원 정책에 관한 개선이 아닌 경우는 기타(26.2%) 사항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VI-9. 국가 진로지원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

2. 학계·현장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GI) : 진로지원 초점⁷³⁾

1) 조사 개요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연계 방안 탐색 및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도출의 실증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과 진로 유관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개 집단으로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Group1은 학계 전문가, Group2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 전문가, Group3은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내 진로지원 유관 기관의 현장 전문가들로 집단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roup1에는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취약 및 위기 청소년 분야, 그리고 교육체계 내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대학 및 유관 공공기관에서 교수 및 연구자로 활동한 전문가들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배경 및 관심사의 차이, 또 일정 조정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이유와 전문성에 기반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실제 FGI는 청소년 분야와 진로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야의 현장 전문가 집단인 Group2와 진로지원 실천 분야 현장 전문가 집단인 Group3의 경우 가능한 팀장급이나 선임급의 깊이 있는 실무 유경험자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지역사회 안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진로지원 및 연계 현황과 실태,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 도출에 초점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특히 Group3의 경우 진로지원 실천 현장의 전문가 중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현장 전문가와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진로지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포함되었는데, 이 역시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한 깊이 있는 토의를 위해 민간 기관 현장 전문가와 교사 집단을 구분하여 FGI를 진행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과 관련한 다각적인 의견 청취를 위해, 현장 전문가의 경우 소속 기관이나 시설 소재지 지역을 고려하여 섭외하였다. 지역 규모 및 지자체에 따른 지원 및 자원(인프라) 격차를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등 가능한 범위에서 균등하게 섭외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도시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여러 지역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Group1의 학계 전문가와 Group3의 교사들은 연구자가 연구 논문, 기관 홈페이지

73) 본 FGI는 직업 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연계가 아닌 진로상담, 진로교육 등 진로탐색과 진학 등을 위한 진로지원에 초점을 두어 따라 고용노동부 관련 체계가 아닌 교육부 소관의 진로교육체계의 연계에 초점을 두었다.

등을 통해 직접 섭외하거나 연계 경험이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Group2와 Group3의 현장전문가는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 연계 경험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조사위탁기관에서 접촉하여 해당 실무에 전문성이 있는 참여자를 섭외하였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섭외에 성공하여 집단면접에 참여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배경 및 특성을 정리하면 <표 VI-27>과 같다.

표 VI-27.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 FGI 참여자 구분 및 특성

구분	집단 특성	FGI 일시	ID(참여자)	지역	기관 및 직위, 특성
Group 1 (학계·연구자)	학교 밖 청소년 및 청소년, 진로 분야 교수 및 연구자	7월 24일 14:00~ 15:30	학계1-A (유○○)	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교 교수 청소년 분야 학계 전문가
			학계1-B (이○○)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교 교수 청소년 분야 학계 전문가
			학계1-C (김○○)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자, 청소년지원기관 부장 청소년 지원 관련 연구 및 실천 전문가
		7월 25일 10:00~ 11:30	학계1-D (이○○)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교 교수 진로 분야 학계 전문가
			학계1-E (정○○)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진로 분야 정책 연구자
			현장2-F (임○○)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 담당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 경험
Group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	8월 18일 9:20~ 11:00	현장2-G (박○○)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급/선임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연계 경험
			현장2-H (안○○)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 진로교육원과 연계 경험
			현장2-I (신○○)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 ▽○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급/선임 청소년직업장 등과 활발한 연계
			현장2-J (김○○)	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급/선임 진로교육원과 연계 경험
Group 3 (진로지원 현장)	진로체험지원센터 실무 담당, 진로교육원 파견 및 활동 교사	9월 4일 10:30~ 11:30	진로3-K (김○○)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구 진로체험지원센터 팀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연계 경험
			진로3-L (최○○)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 ▽△시 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연계 경험
			진로3-M (정○○)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 △○ 진로체험지원센터 팀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연계 경험
	9월 8일 3:00~ 4:00	진로3-N (김○○)	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원 진로체험 담당 파견교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연계 경험 	
		진로3-O (유○○)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원 진로 진학지원단 활동 퇴직 교사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진학 지원 경험 	

2) 조사 내용

전문가 대상 FGI의 조사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한 일반적인 특성과 지원 현황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되, 그중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연계 지원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내용은 집단별 조사 내용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나, 집단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사 영역과 내용에 다소 차이를 두었다. 본 FGI의 주요 내용과 면접 내용별 해당 집단 등을 개괄하면 <표 IV-28>과 같다.

표 VI-28.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 FGI 내용

영역	내용	해당 집단
○ 학교 밖 청소년과 진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관련 문제, 진로 지원에 대한 의견 ▪ 진로에 특별히 취약한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논의 ▪ 필요한 진로지원 내용 및 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up1: 학계 전문가 • Group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 전문가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실천 현장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에서의 애로사항 중심(제도적, 실천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up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 전문가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 현황, 우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up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 전문가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 애로사항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 관련 애로 사항 및 개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up3: 진로분야 현장 전문가
○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활용 가능한 진로지원 체계 및 기관(조직)에 대한 의견 ▪ 지역사회 내 연계 방안과 현실 가능성, 현장 적용을 위한 제도 및 실천적 방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up1: 학계 전문가 • Group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 전문가 • Group3: 진로분야 현장 전문가

집단별로 살펴보면, Group1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그중 진로에 특별히 취약한 청소년의 특성과 필요 지원 내용을 주요 조사내용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의 연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및 지자체, 중앙부처 등 다체계 차원에서의 지원과 이를 위한 제도 및 실천에서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학계 전문가 FGI의 경우 집단 면접에 기초한 자문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과 진로 분야의 교수 및 연구자들과 심층적인 논의 방식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Group2는 학교 밖 청소년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현장 실무자들로 구성됨에 따라 Group1과 달리 현장에서 대면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관련 현안과 특별히 진로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 사례 등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현장에서의 어려움 및 애로사항들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 이 센터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진로 관련 기관들과 연계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곳들로 이렇게 진로지원 연계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벤치마킹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연계를 통한 진로지원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탐색하고, 제도적, 실천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수한, 복합적인 진로관련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연계 지원 방안과 이를 위한 지역사회 내 가능한 체계(기관이나 조직)와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Group3은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현장 전문가들과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원을 통해 진로체험 활동 제공 및 진로·진학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교원들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진로지원 경험 현황과 관련 애로사항, 향후 연계 지원 방안에 초점을 두어 면접을 진행하였다. 현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 모형이 주로 단위 학교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수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구체적인 욕구를 고려한 진로지원 연계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그동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진로체험지원센터 간 연계 사업은 드물게 있었으나,⁷⁴⁾ 대부분 단기간에 수행되거나 일회성 이벤트 형식으로, 향후 수요를 고려한 더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즉,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같은 기관 단위 연계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후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진로지원 연계까지 현실화할 수 있도록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Group3 대상의 FGI에서는 과거 및 현재의 학교 밖 청소년대상 진로지원 연계 경험을 토대로 향후 연계 사업 확대와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특히 복합적인 진로 관련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을 위한 진로체험, 진로 설계, 진학 지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지역사회 내 진로지원 연계 체계 구축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74) 강원도민일보(2024.6.23.).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꿈꾸집' 진행.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50974>에서 2025.5.21. 인출. 호남뉴스라인(2022.7.14.).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http://www.honamnewsline.com/article.php?aid=10601746382>에서 2025.4.21. 인출.

3) 조사 및 분석 방법

학계 및 현장 전문가 FGI는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 회의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전국 각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내 지원 기관의 현장 전문가들이 시간과 장소 이동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편히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15명의 FGI 참여자들의 일정을 맞춰 FGI를 실시하는 데에 3개월이 소요되었다.

집단별 FGI 진행을 위해 <표 VI-28>의 조사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변경하고, 집단 역동을 고려한 깊이 있는 탐색을 위해 맥락은 유지하되 질문 방식을 유연하게 변경, 활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자발적 동의와 온라인 화상회의 참여를 위한 사전 준비 및 안내 등은 조사위탁기관에서 수행하되, 원활한 FGI 수행을 위해 진행은 일부 FGI 참여자를 직접 섭외한 연구진이 담당하였다. 본격적인 FGI 시작 전 영상 녹화/녹음에 대한 이해를 구하여 동의를 얻었으며, 이후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연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하여 FGI가 수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FGI에 소요된 시간은 집단별로 60~100분 내외였으며, 이후 영상/녹음자료는 조사기관을 통해 녹취, 전사되어 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진에게 전달되었다.

연구자는 FGI 실시 후 순차적으로 전달된 전사자료를 검토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진로관련 현안, 진로 위기 상황, 연계 지원 방안 등에 초점을 두어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귀납적 분석을 수행하되, 유사 질문에 대해서는 집단별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비교, 분석하였고, 각 집단의 전사자료를 개별 사례로 간주하고 동일 질문과 사안에 대한 집단 간 차이와 이에 따른 함의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관련 현안 및 진로 위기 특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전문 분야별로 학계와 현장의 이해가 다를 수 있다. 일례로, 연계 지원 방안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 전문가와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현장 전문가, 진로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교원들과의 의견의 차이가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전략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개별 집단의 영역별 인터뷰 내용의 특이 사항과 유사점 및 차이점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의미단위들을 코딩하면서 범주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의미단위와 범주화 작업 결과는 연구진 간 검토를 통해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외부 질적연구 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을 통해 그 타당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4) 주요 결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의 FGI 결과는 통합하여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는 크게 (1) 학교 밖 청소년과 진로, (2)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애로사항 및 개선점, (3)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 현황, (4)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 애로사항, (5)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 방안으로 영역을 재구조화하여 제시하였다. FGI 집단에 따라 동일 질문에 대한 응답과 논의에서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강조하였고, 특히 각 집단의 전문성에 기반한 응답들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1) 학교 밖 청소년과 진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한 집단면접 결과는 크게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패러다임의 변화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관련 다양한 현안으로 범주화되었고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패러다임의 변화

가. 학생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 인식 전환 필요

본 FGI를 시작하면서 인상적인 부분은 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진로지원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된 점이다. 전문가A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지원을 동일하게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고, 전문가C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생과 같은 수준의 진로지원 체계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현재 퇴직 교사로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진로·진학컨설팅을 하고 있는 퇴직교사인 전문가O 역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공적 체계를 통한 진로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 전문가는 학생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틀어 본인의 진로 및 진학과 관련된 전문 교사의 지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같은 청소년이지만 진로 준비와 지원에 있어서 다른 현실을 대면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학생들이 받는 거 다 받게 하고 학교에 있지 못한, 그 학교에 있는 애들이 받는 거를 받게 하는 게 일단 가장 급한 게 아닐까...(학계1-A)

저는 학생하고 동일한 수준의 진로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학계1-C)

근데 아이들은(학생) 간단하게 교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트라든가 장소라든가... 시공간적 장소만 있게 되면 털어놓을 수가 있어요. (중략) 근데 그(학교 밖) 친구들에게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중략) 학교 밖 친구들도 진로를 찾아서, 그리고 진학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공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로3-0)

나.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 강조

학계 전문가B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이 학교에서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때, 결국 지역사회나 국가에서 담당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진로분야 학계 전문가D는 진로교육법에 소외계층 진로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즉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현장에서 이러한 법률적 내용과 책무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 결정이나 준비에 대한 지원을) 그걸 **학교가 할 수 없다면 부모나 지역사회나 부처에서 나라에서 이런 지원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저는 좀 타당할 것 같아요. (학계1-B)

진로교육법에 소외계층에 대한 진로지도를 해라, 거기에 대한 모든 학생들 학교 안이든 밖이든 진로교육 학습 권리를 얘기했고 국가 지자체는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될 책무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계1-D)

다.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다변화 및 진로지원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에 대한 논의에서 학계 전문가A는 관련 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과거 학교 밖 청소년과 이들을 위한 진로지원에 대한 인식이 이른 시기 취업 및 자립에 초점을 두면서 고등학교 시기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 체험이나 취업 지원이 성급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진로분야 학계 전문가E는 과거처럼 청소년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연결하기보다 청소년 나름의 목표 설정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삶의 꾸러가는 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은 과거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지원이 이제는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전문가E는 현재 고등학생들이 과거와 달리 대학 진학 희망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취업 희망 및 진로 미결정 학생 비율의 증가,

은둔 및 무기력 사례 증가, 대학에 대한 투자 가치에 대한 의문 등의 이유와 함께 더욱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향후 결국 학교 밖 청소년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임에 따라, 장기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에 참고할 사항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이 처음에 생긴 게 2013년인가 14년인가 그때 생긴 거잖아요 (중략) 그때만 해도 학교를 안 다니는 거는 뭔가 크게 잘못되는 일이었고 (중략) 어떻게든 빨리 직업을 가지게 해야 된다, 뭐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일종의 강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중략)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고등학교 대충 그 정도잖아요. 그렇게 됐다면 이 직업 체험하고 취업지원 이 부분은 좀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학계1-A)

예전에 해왔던 이 아이의 적성과 소질을 살려서 정말 잘 맞는 직업을 매칭하는 이런 과정의 진로지도가 아니라 이 친구 나름의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본인의 삶을 꾸러가는 과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을 때는, 이 청소년들에게는 본인의 목표를 설정해서 행동을 실현해 나가는 그 부분에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학계1-E)

고등학교 2학년들이 대학 진학하는 희망률이 거의 2023년 24년 비교했을 때 11%가 줄었다 (중략) 대학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한 저하도 있을 수 있을 것 (중략) 아이들이 조금 더 다양한 진로 경로를 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계1-E)

공교육에 있는 메인스트림 아이들도 진로 경로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하고 (후략) (학계1-D)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전문가들은 과거와 다른 학교 밖 청소년의 여러 특성에 대해 보고하였다. 현장 전문가들은 과거 학교 밖 청소년들은 현장 실무자들의 지도에 따르며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의지가 있었으나, 현재는 무기력하거나 고립, 은둔 사례가 많아졌고 특히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진 것을 과거와 크게 다른 점으로 지적하였다. 또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과거에는 비행·이탈의 모습이 많았으나, 이제는 학교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찾고 싶어 하며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진로·진학 컨설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현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많으며, 이들은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는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이끌면 좀 따라왔던 거 같아요 (중략) 요즘에는 아예 움직이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등록만 해 놓고 (중략) 운동고립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중략)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중략) 과거와 굉장히 다른 점이라는 생각... (현장2-H)

비행청소년에서 조금 더 자기가 목표나 혹은 그래도 학교에서 얻지 못하는 걸 찾고 싶다고 생각하고 오는 청소년들이 비율이 많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중략) 아이들 욕구가

다양해지고 부모님 욕구도 거기다 플러스가 되니까 많은 정보를 좀 수집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변화이기도 하면서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장2-J)

학교 밖 친구들이 사실은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부러 학교를 벗어나는 아이들이 수도권에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 아이들에게 가려져서 한 몽둥그림으로 자기들도 그런 아이들 취급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진로3-O)

②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관련 다양한 현안: 진로 위기, 진로지원 취약 등

가. 환경적 차원의 원인과 개입에 초점을 둔 접근 필요

학교 밖에서는 공교육을 통한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에 어려움이 있는 진로 위기 청소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학계 전문가B는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스스로 목표를 가지고 유학이나 검정고시로 진로를 결정하고 대학 진학을 하려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진로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청소년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전문가A는 학교 재학과 관계없이 진로와 관련한 상태(예, 진로성숙도)나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모두 진로 위기로 볼 수 없으며, 학교를 통한 진로지원의 결핍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C전문가는 진로 위기라는 단어에서 낙인이나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하였지만, 한편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 위기 상태는 기회가 없고, 진로와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학계 전문가들은 진로 위기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학교에서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차원에서의 기회 제공 및 서비스 접근의 불균형 등에 원인을 두고 진로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진로 위기에 대한 접근은 청소년들의 개인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아닌 진로계획 및 준비 등 적극적인 진로활동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요인을 환경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에 개입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보통 학교 밖 청소년이 다 진로 위기는 사실 아니기도 하고 (중략) 의도를 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검정고시를 봐서 난 이 길을 가겠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또 좋은 대학교 가려는 애들은 어쨌든 고1때 자퇴하고 학원에서 검정고시 하는 애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학교 밖'이라고 했을 때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랬는데, 어쨌든 '진로 위기의 학교 밖' 이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용어 자체는 (학계1-B)

학교에 있다고 해서 특별히 뭐 진로와 관련해서 이게 진로성숙도나 뭐 이런 것들이 높을까 잘 모르겠어요 (중략) 다만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환경적인 차원에서 좀 더 결여돼 있다 이런 맥락으로 (학계1-A)

선입견으로 작용하거나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게 요인으로는 적절할 수는 있겠지만 (중략) 진로 위기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회도 없고 진로로 인해서 문제가 있고 하여튼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의 아이들**이라고 하면 (학계1-C)

환경적인 차원에서 어떤 기회의 불균형 내지는 뭐 이런 서비스 접근의 불균형 이런 맥락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진로 위기를 정의하는 거는 개인 차원으로 정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환경 차원은 그런 개인 차원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원인으로.. (학계1-A)

나. 과거 대비 심리정서, 사회적 문제 사례 증가로 진로지원이 어려움

과거와 다른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변화에 대해 FGI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와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현장 전문가I와 H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우울증과 자해·자살 위기로 병원 치료를 병행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심리적 안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진로를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고하였다. 특히, H전문가는 정서적 문제가 있는 사례가 많아 지원을 위해 큰 노력과 에너지를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점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임을 강조하였다. 현장 전문가G는 학교 밖 청소년의 고립·은둔 문제로 교통비만 수령할 뿐 실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해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 사례들을 보고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또 다른 현장 전문가F는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확신과 계획이 없으며,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있어 진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이 전문가는 오히려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이미 자신의 진로를 잘 찾고, 진로를 결정하면서 센터 이용은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더욱 여러 가지 이유로 진로에 취약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

저희 센터를 방문하는 친구들중에서도 **우울증하고 또 뭐 자살 자해 위기를 겪고 있고 (중략)**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장 본인의 삶을 어떻게 좀 더 안정하게 유지하는 게 목표가 있지 **진로까지 다가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었고 (현장2-I)

(전략)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 친구들을 끌어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애정을 쏟아야** 열 번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와 굉장히 다른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2-II)

고립·은둔 청소년들 이슈가 가장 좀 큰데.. (중략) 교통비만 받으러 오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그 친구들도

다 뭐 고립·은둔 청소년들이어 가지고 (중략) 진학에 대한 정보나 진로체험에 대한 프로그램 홍보를 하면은 아 **참여는 하고 싶는데 제가 밖에 잘 못나가서요. 약간 이런 경우가 많아서** (현장2-G)

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고 계획이 없고, 사실 무기력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어떤 기대가 좀 덜하다라고..(중략)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학업 중단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센터 프로그램 많이 이용 안 하고, 바깥에서 더 진로를 많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센터는 최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편이고 알아서 자기 진로를 잘 찾아가기는 해요. (현장2-F)

다. 가족 내 지지 체계 및 지원 부재 학교 밖 청소년의 장기적인 진로 준비 미흡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당장에 아르바이트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장기적인 진로 설계를 하기 어려운 사례들도 보고되었다. 현장전문가 B는 앞에서의 심리정서적 문제 외에도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아르바이트하는 사례가 많음을 언급하였고, 또 현장 전문가G 역시 당장의 아르바이트를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사례(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준비 등을 위해)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이들 사례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여의찮은 경우 아르바이트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진로 준비가 어려우며 당장에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바리스타나 제과제빵 등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경제적 이슈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경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단기적인 활동을 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진로준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친구들의 이제 어떤 경제적인 수준, 또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 받기가 좀 무안해서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중략) **본인의 어떤 진로탐색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 하고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한데, 당장 아르바이트 관련된 뭐에서 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기 위해서 뭐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든가, 자기가 아르바이트할 때 필요한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선호하고** (현장2-I)

당장에 알바를 목적으로 센터 이용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중략) 아무래도 조금 선호도가 높은 게 뭐 바리스타나 제과제빵 요런 쪽이다 보니까 (중략)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명확한 한계점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물론 청소년들의 수요가 많아서 진행을 하는 거긴 하지만, 조금 다 똑같은 걸 지역 안에서 하다 보니까 뭐 특색도 없는 거 같고..(현장2-G)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다문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으로 인한 가정 환경적 문제로 충분히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 사례들도 보고되었다. 학계 전문가 B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음에도 하루 종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다문화 청소년을 만난 경험을 진술하였다. 현장 전문가G는 역시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면서 이들 가정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진로를 희망하기보다 최소한의 학력 취득과 당장의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함을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조손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의 학대 경험으로 원가정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필요로 하는 사례도 관찰되었다(현장2-J).

최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센터를 방문하는 등 부모가 자녀의 학교 밖 상황을 수용,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여전히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해 혼자서 센터의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저조한 상황도 보고되었다(현장2-I).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이렇게 가정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더욱 진로와 관련하여 취약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 국적의 아이인데, 아침부터 와서 거기 하루 종일 거기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있어요, 개가. 그래서 뭐 커피도 배워서 커피도 갖다주고 (중략) 근데 매일 거기 온대요.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개를 학교에 돌려보내기에는 좀 힘들겠다. 아직 말도 잘 못하고 좀 어렵겠다 (학계1-B)

다문화 가정도 많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뭔가 당장 진로를 희망하기보다는 그냥 학교 그만두고 나왔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냥 고졸 학력만 취득하려고 검정고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뭔가 본인이 대학을 어느 학과를 어느 대학을 가서 내가 어떤 꿈을 가지겠다라기보다는, (중략) 뭐 정시 원서 접수하는 데 돈 없으니까 돈 주세요. 약간 요런 경우가 되게 대다수이고 (현장2-G)

(전략) 저희 아이들은 돈이 당장 필요하거든요. **나의 진로 미래 뭐 1년 2년 후에 문제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살게 없거나** (중략) 조손가정도 그렇고 한부모가정에서도 혹은 학대를 받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 목표가 크거든요. **빨리 탈출해서 경제적 자립을 해야겠다.** (현장2-J)

가정 내 지지체계가 있나 없나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센터에 부모님하고 같이 온 청소년들 중에서 그래도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었었고, 반면에 이제 혼자 센터를 찾아온 청소년들 중에서는 (중략)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분만 받고 뭐 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은 뭐 높지 않다던가 (현장2-I)

현장 전문가들이 보고한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 사례들은 충실한 진로를 계획하거나 원활한 진로 준비 활동을 하는 경우와는 거리가 멀다. 심리정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이주배경이나 학대 피해와 같은 가정 환경적인 이슈가 있거나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생활과 진로를 준비하지 못하고 혼자서 센터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 등은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특히 진로와 관련하여 더욱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의 청소년들이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학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자원과 지지체계의 부재에 더해 이렇게 현장에서 대면하는 진로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가정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진로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VI-29. 학교 밖 청소년 진로관련 현안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패러다임 변화	학생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 인식 전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권리의 주체로서 학생과 격차없는 수준의 지원 제고 • 학생 수준에 상응하는 진로지원 체계 마련 시급 •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생과 동일하게 공교육 진로지원 프로그램 기회 제공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수준의 진로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주도적 역할 강화 • 소외계층 진로지원에 대해 법률상 국가 책무 요구 규정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다변화를 반영한 진로지원 인식 변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의 다소 성급한 취업, 자립 지원에 대한 재고 필요 • 적성-직업 연결이 아닌 인생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으로서의 진로 지도 필요 •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저하 및 다양한 진로경로 탐색 경향에 대한 함의 도출 필요 • 증가하는 무기력, 은둔, 고립, 정서 문제 심화 사례에 대한 관심 제고 • 학교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얻고자 하며 욕구가 다양해짐 • 현행 교육과정이 맞지 않아 학교를 그만둔 사례에 대한 대응 필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관련 다양한 현안-진로 위기, 진로지원 취약 사례	환경적 차원의 원인 과 개입에 초점을 둔 접근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모두가 진로 위기는 아니므로 이를 구분한 개별적인 접근 필요 • 진로 위기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만 해당하지 않으며 환경 차원의 어려움에 초점 필요 • 진로 위기 명칭의 부정적 인식 초래 위험 • 진로 위기는 기회도 없고, 진로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 • 진로 위기는 개인 차원이 아닌 기회 불균형과 같은 환경적 원인으로 접근해야 함
	과거 대비 심리정서, 사회적 문제 사례 증가로 진로지원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증, 자해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진로 준비 불가능 • 과거에 비해 정서적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 사례 증가로 지원에 있어 많은 수고와 에너지 소모 • 많은 고립·은둔 청소년들의 소극적인 프로그램 참여 • 센터 이용 청소년들의 진로 계획 불투명, 무기력 현상 관찰
	가족 내 지지 체계 및 지원 부재 학교 밖 청소년의 장기적인 진로 준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에 치중하면서 진로 프로그램 참여 불가 • 아르바이트 구직에 유리한 자격증(바리스타 등) 취득 선호 • 미래에 대한 준비보다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른 자립 선택 •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가 미흡한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 필요 • 학대 피해로 적절한 진로 준비 없이 이른 경제적 자립 시도 • 가정 내 지지 체계 부재 사례 조명 필요

(2)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애로사항 및 개선점

연계를 통한 진로지원 이전에 우선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진로지원 전반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에 대한 FGI 결과를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현 진로지원 각 측면에서의 애로사항과 진로지원에서의 개선 요구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① 현 진로지원 각 측면에서의 애로사항

가. 진로지원에서의 전문성 부재 상황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연구자와 지원 현장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진로지원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지적하였다. 전문가C는 청소년들이 친근함과 소속감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지만, 현실적으로 진로지원 전담 기관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을 언급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현장 전문가H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취업지원 서비스의 경우 진로 전문가가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 소진 등에 따른 높은 이직률을 보고하였다. 현장 전문가D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실무자들이 직업체험,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도 전문성에 대해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 학계 전문가B는 학생기록부와 다르게 청소년생활기록부가 충실하게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현장 전문가G는 대학 입시 상담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나아가 전문가I는 재학생의 경우 교육청 등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언급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진로지원 전문성 부족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아이들 입장에서 친근한 곳이 꿈드림센터라면 (중략) **선생님들이 진로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말이에요.** (중략) **진로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학교 밖에 너무 필요하지** (학계1-C)

이 자취서(자립취업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시센터의 인력도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라, 어떤 교육적으로 이 사람을 키워서 이 업무에 투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일반 뭐 상담사라든지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냥 정말 경력도 없고 그 인건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중략) 업무를 익히고 난 다음에 **소진돼서 또 금방 나가 버려요** (현장2-H)

실무자들이 이 뭐 **직업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운영하는 과정 내에서 준비하고 또 친구들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현장2-I)

(청소년생활기록부와 같은) **서류를 열면 볼 게 없어요.** 검정고시 출신의 아이들은 학교 밖뿐만 아니라 대안학교에 이런 아이들은 그냥 대안학교든 어디 그런 서류가 하나 오는 거예요 (학계1-B)

대학교 입시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마다 **대학교마다 입시정책이 바뀌고 있고**, 제가 상담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되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재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중앙에서 이런 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어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자원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현장2-1)

나. 현 진로지원의 운영 및 관리의 문제 : 단순, 비효율, 불성실, 참여율 저조 등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서의 진로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여러 의견이 수렴되었는데, 먼저 현장 전문가F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단순 업무 위주로 진행되면서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을 전달했다. 학계 전문가B는 집단 교육이나 단체 프로그램의 비효율성과 개별 접근의 필요성을 진술하였고, 현장 전문가J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자립취업지원 서비스의 경우 본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결정에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특정 진로 분야에 관심이 떨어지거나 변경되는 등 중도하차 시 발생하는 문제와 이후 추가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회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였다. 이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장 체험에서의 불성실 문제(현장2-J)와 최근 들어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른 현장지원에서의 어려움도 보고되었다(현장2-H).

학교 밖은 정말 저는 이런 **집합 교육이나 이런 단체 프로그램은 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꿈드림 애들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학계1-B)

직업역량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략) **다양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좀 단순업무 위주, 신체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중략)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2-F)

직업역량이나 자립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경험을 주기는 하지만 (중략) **이게 꾸준히 아이의 진로를 결정해 주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중략) 눈에 보이는 성과 말고 이게 중도하차하면 저희 아이들이 혜택이 없는 거 아니죠? (중략) (관심이 없어) 중간에 멈추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중략) 이런 부분 때문에 탈락을 시키고 다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막고 있는 건 아닌가** (현장2-J)

매번 성실한 청소년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중략) 저희가 약속을 다 정해 놔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체험에서) **말없이 출근을 안 한다든지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관리의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장2-J)

물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욕구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하지만, **한 3년 전부터는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중략) 근 2-3년간에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측면이거든요 (현장2-H)

다. 다양한 수요와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움

일부 현장 전문가들은 진로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와 청소년과 부모들의 과도한 요구에 따른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현장 전문가H는 거주 지역에 따라 진로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구 차이로 이에 맞게 프로그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 다른 현장 전문가 J는 마치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요구하듯이 이제는 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졌고, 다양한 요구들에 대한 소진의 문제들을 토로하였다. 프로그램 수준과 내용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와 부모들의 많은 요구는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센터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희도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을 때, **욕구가 맞지가 않아요** 일단은.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신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더 높은 퀄리티의 어떤 직업체험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반면에**, 원도심의 친구들은 살기 위한 내가 진짜 이 기술을 배우고 이 직업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투입돼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의 균형을 맞추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현장2-H)

학교처럼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들이 부모님들이 좀 많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저희 아이들 검정고시 준비 하는 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였다면, 요즘에는 선생님 이런 것들은 왜 안 해 줘요? 선생님 이것도 해 주세요 저것도 해 주세요 하고 (중략) 꼭 학교에 있는 공교육 선생님들한테 요구하듯이, '왜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데 안 해 주죠?'라는 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중략) 그러다 보니 그 진로나 검정고시 지원 외에도 부모님을 상대해야 되는... (현장2-J)

라. 전문적인 진로지원 인력 부족과 소진의 문제

학교 밖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원을 제공할 인력 부족의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장 전문가는 청소년 특성에 맞춘 지원의 중요성에 비해 담당 인력의 부족과 1인당 사례 건수의 과다함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였고 전문가D 역시 개별화된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의 부족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은 적절한 인력과 또 필요한 훈련이 없는 상황(청소년생활기록부 작성 등)에서의 개별화된, 전문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며, 결국 현재 인력의 소진과 높은 이직률이 뒤따를 수밖에 없음을 보고하였다 (학계1-B, 학계1-C, 현장2-I).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중략) **담당 인력이 되게 부족하다. 1인당 담당 사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정말 친구들이 많으면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칭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현장2-1)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개발 지원은 여전히 여전히 굉장히 부족하다. **프로그램 면에서 지원하는 전문 인력 측면에서** (학계1-D)

(진로지원) 다 개별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인원은 부족하고** (중략) 평가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총체적 문제가 저는 몰려 있는 곳이다. (학계1-B)

꿈드림센터에 인력도 주지 않고 훈련도 시키지 않고 줬다. 그건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선생님들을 더 로테이션을 시키는 (중략) **이직하게 하는 원인이 될 거라고** (학계1-C)

생각한 인원보다 많이 부족하게 모집이 된다던가,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잠수를 타서 안 와 버리면 거기에 따른 **실무자들 에너지 소진**하고 또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좀 아픔이 크기 때문에 (현장2-1)

② 진로지원에서의 개선 요구

가. 운영 방식 개선 : 표준화된 지원, 개별 접근, 진로초점 사례관리

현재 진로지원에서의 애로사항과 더불어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FGI에 참여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장 전문가F는 학교 밖 청소년 모두가 거주 지역이나 이용하는 센터가 다르더라도 유사한 수준의 진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과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이 가능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를 강조하였다. 학계 전문가B는 현장에서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접근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고, 전문가C는 단순한 진로 멘토 수준이 아닌 사례관리 시 진로지원에 더욱 초점을 두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를 위한 진로전문가 인력 투입과 해당 매뉴얼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는 개별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일반적인 사례관리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진로설계 전반을 포함하는 진로지원에 대한 사례관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비슷한 수준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매뉴얼이나 이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지원들을 좀 활용을 해야될 거 같고 (중략) 다양한 직업 체험들을 할 수 있게끔 좀 **인프라를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현장2-F)

꿈드림 애들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고, 그 **개별적인 터치에 따라서 사실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학계1-B)

진로지원과 관련해서 사례관리의 단계들을 좀 정리하는 게 어떨까. (중략) 아이랑 확실히 자기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단계를 좀 매니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화시킬 필요는 확실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단순 멘토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진로지원 교사 같은 역할의 인력이 투입된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 매뉴얼로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학계1-C)

나. 진로지원 담당 인력 전문화

앞에서 전문적인 진로지원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FGI 전문가들은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전문 인력 투입 및 배치와 기존 인력의 역량 강화로 의견이 구분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진로지원에서의 전문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먼저 학계 전문가C와 현장 전문가는 학교에서의 진로전담교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 투입에 대해,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시도센터 단위에서 진로지원 담당관을 배정하여 관할 시군구 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 다른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 및 연수,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학계1-B, 학계1-D, 학계1-E, 현장2-I, 현장2-J). 이 가운데 학계 전문가B는 진로관련 심리 교육 등의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전문가E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실무자들이 진로개발관점에 대한 이해와 관련 역량을 향상시킬 때 지속적인 진로지원이 가능함을 역설하였다. 현장 전문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자립취업지원서비스 담당 인력을 전문가로 배치하여 시군구센터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선생님들이 진로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로지원 교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투입이 더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학계1-C)

광역 단위로 진로지원 담당관 배정이라든가.. (중략) 광역에서 한 명 정도 배정을 해서 그분이 뭐 광역 내에 있는 구 센터, 시군구 센터를 지원해 주는 형식이 되면 좋겠고요 (현장2-I)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그 **진로와 관련된 심리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또 교육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연관되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학계1-B)

담당 인력에게 진로지도 진로상담에 대한 전문성 연수를 강화하는 거..(중략)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수**를 계속 가야 되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학계1-D)

아이의 **진로개발 관점에서**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은 결국에는 여기 **꿈드림센터에 계신 분들의 역량이 향상되어**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중략) **기초 기본적인 역량 자체에** (학계1-E)

직업역량강화랑 자립취업서비스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중략) 그런 분들의 인력을 그렇게 쓰기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현장2-J)

다. 장기적 관점의 충실한 진로설계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 제공

진로지원과 관련하여 FGI에 참여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내용 측면에서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C는 다소 이상적일 수 있지만 학생 청소년에게 자유학기제가 제공 되는 것과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 역시 공식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로 분야 학계 전문가D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해 청소년 자신에 대한 이해와 목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 진로 선택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 전문가와 진로 분야 현장 전문가들(N, O) 역시 장기적인 진로 설계의 일환으로 진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해 청소년이 진로 관련 검사 및 상담, 활동에 대한 누적 정보들에 대한 연계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 산하의 진로·진학지원단에서 활동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O는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 직면하는 대입에서의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청소년생활기록부를 충실히 채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 안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 약간 그런 장치를 좀 더 적극 활용하거나 아니면 학교 밖에도 자유학기제 같은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거 (학계1-C)

진로와 직업이란 교과서에 우리가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중략) 먼저 내가 누군가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 대한 관심, 초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의 목적을 정하기 위해서 직업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평생학습 시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에게 있는 합리적 진로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중략) 기본적인 진로개발역량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학계1-D)

고등학교 기준으로 3년을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 본인의 진로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지속성이 좀 확보가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진로 포트폴리오를 청소년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같은 것도 (현장2-1)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중략) 항상 고민하던 부분이 진로의 연계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검사를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게 초중고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중략)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진로 연계가 한 눈에 좀 보이지 않을까 싶는데 (진로3-N)

학교에서 1학년 때 여러 가지 검사 있었던 것들이 연계해서 넘어올 수만 있고 그것이 청소년센터에서 누적, 보관이 된다면 진로 활동이라든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되겠죠 (진로3-O)

학교 밖 친구들은 생활기록부가 없잖아요.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대처하는 서류가 있어요. (중략) 그렇다면 청소년센터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많이 열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보내서 그 친구들도 학교 안에 친구들이 하는 만큼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면 되는데 (중략) 대입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로3-O)

표 VI-30.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애로사항 및 개선점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내용)
현 진로지원 각 측면에서의 애로 사항	진로지원에서의 전문성 부재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내 진로지원 전담 기관 부재 • 전문성을 보유한 진로지원 인력 부재 • 직업체험 및 자격증 취득 등 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과정의 어려움 • 전담 인력의 개인 역량에 기반한 대학 입시 지원으로 전문서비스 제공 한계
	현 지원에서의 운영 및 관리의 문제 : 비효율, 불성실, 참여율 저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및 단체 프로그램 효과성 제고 필요 • 단순 업무(인턴십)나 단순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다양성이 떨어짐 • 현 직업역량, 자립지원서비스의 효과성 문제 • 진로 프로그램 참여율 저조로 관리가 어려움
	다양한 수요와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모두 맞추기 어려움 • 학교 밖 청소년 부모의 과도한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움
	전문적인 진로지원 인력 부족과 소진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제공에 있어서의 인력 부족의 문제 • 전문적인 인력 및 프로그램 부족 • 학교 밖 청소년을 1:1 개별 접근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함 • 인력 부족, 훈련 부재 등은 청소년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이직의 원인 • 실무자들의 소진 문제
진로지원에서의 개선 요구	운영 방식 개선 : 표준화된 지원, 개별 접근, 진로초점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 개별 역량이 아닌 표준화 지원체계 구축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필요 • 단체 프로그램보다는 개별 접근이 더 효율적 • 진로에 초점을 둔 사례관리 필요(또는 사례관리 과정 내 진로 관련 사항 중점 개입)
	진로지원 담당 인력 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투입 필요 • 광역 단위 진로지원 담당관 배치를 통해 시군구 센터 지원 • 교육, 연수, 지원을 통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 진로지원 역량 강화 • 광역 단위 시도 센터의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전문화 및 시군구 센터 지원
	장기적 관점의 충실한 진로 설계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자유학기제와 같은 공식적이고 충분한 진로 탐색 시기 필요 • 진로개발역량에 필요한 요소 함양 필요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 포트폴리오 및 진로 정보 연계 • 청소년생활기록부를 충실하게 채울수 있는 기회 제공

(3)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 현황

본 연구의 초점이 연계를 통한 진로지원에 있는 만큼 여기에서는 FGI에서 파악된, 지자체 및 지역사회 내 연계를 통한 진로지원 현황을 제시하였다. 연계 현황(주로 진로체험 지원센터, 시도교육청 진로교육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의 연계)에 대한 FGI 결과, 진로지원 기관의 경우 대부분 학생 중심의 진로 체험과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계는 그중 일부이거나 매우 작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계 사례는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를 위한 주요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어 가능한 한 상세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FGI 결과는 다양한 방식과 내용의 연계 지원 현황과 확산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우수사례로 범주화하여 해당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① 다양한 방식과 내용의 연계 지원 현황

가. 지자체 위탁운영 시 같은 법인임에 따른 비교적 원활한 연계

상술한 바와 같이 전문적인 진로지원체계는 학교, 학생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렵고 또 이를 위한 예산과 시간도 거의 할애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의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한 연계 사업은 지자체로부터 같은 청소년법인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진로지원을 위한 센터가 함께 위탁운영 받음에 따라 비교적 연계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수행되었다. 진로지원기관의 현장 전문가M은 이러한 특수성을 가진 같은 법인 산하 기관으로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유기적인 업무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일 년에 3~4회, 최대 5~6회 연계를 하고 있었는데, 적지 않은 기회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상시 수준의 연계 및 업무 협력 방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 전문가G의 기관은 청소년센터 내에 진로교육지원센터가 같이 위치해 있어 연계가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입 박람회, 취·창업박람회, 창업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진로 활동을 연계하고 있었으며, 해당 센터를 통해 현 고등학교 진로담당교사를 통한 진학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었다.

○□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위탁기관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특수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지원센터와 유기적인 업무연계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20**년부터 현재까지 1년에 한 3회에서 4회 또는 많게는 5회에서 6회 정도 지금 연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로3-M)

저희 센터 안에 진로교육지원센터가 같이 있다 보니까 **진로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보통 뭐 대입 박람회나 아니면 뭐 진로·진학, 취업·창업 박람회 이런 거를 진로센터에서 하면은, 저희 학교 박 센터 안에 **창업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청소년 비즈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애들이 참여를 해보기도 하고, 꼭 창업 동아리원이 아니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박람회 참여해 가지고 뭐 다양한 취·창업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참여를 해본다든지 (현장2-G)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공식화, 명문화를 통한 연계 지원

비록 진로지원 기관들이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자체 조례나 위탁운영을 위한 과업지시서 등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연계 지원의 정당성을 갖는 사례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의 G전문가는 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 조례를 통해, 또 진로지원 전문기관의 K전문가는 자치구 조례를 통해 청소년시설로 운영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연계 환경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시 과업 지시서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지원이 가능했던 사례도 있었다(진로3-L). 이러한 사례들은 먼저 지역사회 내 진로지원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명문화만 되어 있고 실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먼저 이를 공식화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과제이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뭐 **지자체에 학교 밖 조례도 있어 가지고** 추경 예산도 주시고 뭐 교육지원청에서 예산도 주시고 하셔서 조금 다양하게 하는 편인데 (현장2-G)

○○구 **청소년시설로 여기를 조례로 해주셔 가지고**, 여기는 구립 청소년시설로 운영이 되고있는 좀 특이한 형태이기는 합니다. (중략) 독립된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공간을 이용해서, 단순 진로체험을 신청해서 오시는 그런 대안학교들, 그리고 꿈드림도 있고요 (진로3-K)

□□ **교육지원청에서는 저희 진로체험지원센터 수탁을 줄 때, 그 과업 지시 중 하나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과업을 통해서 (중략) 학교 밖 친구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로3-L)

다. 시도교육(지원)청 진로지원체계를 통한 일부 한정 지원

진로 분야 현장 전문가 FGI에 참여한 한 기관은 시도교육청 산하 진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4~5년 전부터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파견 교사이면서 해당 기관의 담당자인 전문가 N은 이러한

지원은 진로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기관의 지원 목표에 따른 일환으로 설명했고(특수학교·다문화 배경, 소년원 청소년에게도 진로체험 지원), 지자체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소통 및 사전 조사를 통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일 년에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 뿐이지만, 전문가 N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진로상담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고 부연하였다.

앞서 교육지원청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시 과업 지시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연계는 또 다른 방식의 전문가 N의 사례와는 다르지만, 한편으로 시도교육(지원)청 진로지원체계를 통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다소 상이하지만, 현장 전문가O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에서 요청이 있을 때 시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산하 진로·진학지원단을 통한 파견 성격의 지원이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역시 앞선 사례와 구분되지만, 향후 이러한 개별적 현장 요청에 따른 지원이 아닌 제도화가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니까 ○○에 **개의 꿈드림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연계를 해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인원을 센터에서 알려 주시면 저희가 그 인원**에 맞게 몇 개의 체험 마을을 열어 드리고 (중략) 상반기 5월에 한 번, 그리고 하반기 9월에 한 번 해서 총 2회 운영이 되는데요 (중략) 4년? 5년? 전부터 있었는데 시작이 언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진로3-N)

□□ 교육지원청에서는 저희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수탁을 줄 때, 그 과업 지시 중 하나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로3-L)

교육청의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중략) 다문화 외국인들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하게도 **학교 밖은 사실 실제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중략) 그래서 사실 ○○교육청만 얘기하더라도 ○○에 있는 단위 청소년센터에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그중에서 경험이 있는 몇몇 교사들이 가서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지, 교육청 안에서 학교 밖 친구들을 위한 행사를 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진로3-O)

라. 기관장 및 실무자 등을 통한 개별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개인 관계망, 인맥에 의지한 사례도 있었다. 현장 전문가J는 센터장을 통한 타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유의미한 진로체험 경험을 보고하였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드물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장 실무자 개개인의 지원 요청과 해당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원 장학사의 승인에 따른 진학 상담 및 컨설팅 지원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진로3-O). 이렇게 개별 실무자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또 해당 교육청 소관 기관 담당자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원 여부 결정은 결국 실무자의 소진뿐 아니라 센터별 지원 격차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력개발원이나 이런 부분이 ○▽(지역)에 포진되어 있어서 그쪽하고는 많이 연계돼 있는 거 같아요. 저희는 최근에 한국도로공사 △○본부에 가서 진로체험을 하고 왔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제가 원했다 기보다는 **기관장님들끼리의 연계가 있다 보니까** (현장2-J)

교육청은 진로 쪽보다도 진학 쪽. 아까 말씀하셨던 □▽ 교육청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연계하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교육청만 얘기하더라도 ○○에 있는 **단위 청소년센터에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그중에서 경험이 있는 몇몇 교사들이 가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지 (진로3-O)

마. 지역사회 연계 등 여러 방식을 활용한 진로상담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 및 탐색을 토대로 진로에 대한 목표 설정이나 계획이 가능하다고 할 때, 이러한 과정에서 진로상담의 역할은 매우 크다. 관련 질문에서 진로 분야 현장 전문가L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진로상담이 가능한 곳과 연계하고 있었다. 또 다른 전문가M의 기관에서는 진로상담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시 해당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의 진로상담을 위한 청소년상담사 고용 사례를 공유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진로상담을 위한 지역사회 내 연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진로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진로지원 연계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희 센터도 뭐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직업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요. 대신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그게 가능한 쪽으로 연계해서 인력풀을 제공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3-L)

개인진로상담을 하고 있던 않지만 **진로상담 지원사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리검사라든지 **진로 상담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들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센터는 아니지만 뭐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해서 진로상담사업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는 형태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로3-M)

② 다양한 형태의 연계 진로지원 우수사례

가. 지자체, 시도교육청 차원의 의미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

앞서 기술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진로지원 기관과의 연계 현황과 관련하여 특히 우수사례로 언급할 수 있는 연계 지원들이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전문가G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예산을 제공받아 다양한 연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FGI에 참여한 다른 기관들, 특히 진로지원 기관의 경우 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예산이 거의 없었는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진로지원 기관과의 연계 시 결국 예산의 문제가 이후 실무자 소진과 연계 지원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 해당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예산 지원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분야 현장 전문가O는 진로·진학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OO시의 대학 수시(입학) 박람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했던 경험을 공유하였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종류의 대학 진학 박람회에 참여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 활동 경험을 토대로 이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활용은 매우 유의미한 사례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진로교육원에서의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역시 더욱 확대가 필요해 보이는 우수 사례이다(진로3-N). 이 사례에서 진로상담을 포함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또 진로교육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 역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뭐 지자체에 뭐 학교 밖 조례도 있어가지고 **추경 예산도 주시고 뭐 교육지원청에서 예산도 주시고** 하셔서 조금 다양하게 하는 편인데 (현장2-G)

OO시 쪽을 가서 전체 **학교 밖 친구들을 모아서**, 그때는 강의를 하는데, 설명회를 하는데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OO시 수시박람회에, 그러니까 대입 수시박람회라는 전체 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더라고요** (중략) 이런 행사들을 할 때 학교 밖 친구들이 들어와 있는 사례를 보지 못했는데 OO시에 가니까 그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진로3-O)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체험이 너무 재미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서술된 글 안에는 **진로 목표를 찾고 싶은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중략) 이런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도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일반 체험을 하면서 이런 활동이 나의 진로와 맞는지, 그럼 이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중략) 예산도 저희는 가능하고요. 횡수를 늘리는 방법, 마을을 조금 더 다양하게 열어 드리는 방법이 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로교육원과 마찬가지로 기관 대 기관으로 연계해서 협의하시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진로3-N)

나. 연계를 통한 진로 적성 탐색 및 진학 우수사례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 적성을 찾고 이와 관련한 대학 진학에 성공하는 사례들도 보고되었다. 현장 전문가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내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면서 이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이 후에 관련 학과로 대학에 진학하였고, 또 참여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된 유의미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현장 전문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적성과 흥미에 부합하는 직업 체험이 결국 청소년들의 해당 학과 진학 및 자격증 취득과 연결되면서 어떻게 이들의 진로를 구성하는데 기여하였는지 잘 보여주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현안 중 하나인 무기력 상황에서도 청소년의 적성에 맞는 체험 기회가 이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어떠한 시발점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조명해 주었다. 이 외 현장 전문가는 해당 지자체 내 청년센터와의 단계별 연계 지원에서 나타난 후기 학교 밖 청소년들의 높은 만족도를 강조하였다.

사회적 기업이란 연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중략) 커피를 무역하는 공정무역까지 아이들한테 조금 점차적으로 단계를 밟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무역학과를 진학하는 청소년이 생기기도 했고**, (중략) 지역방송국에서 또 인터뷰를 하게 돼서 아이들이 엄청 자랑스럽게 저 꿈드림센터에 다니고 있어요 라고..(현장2-J)

경찰학교 체험을 해보고 경찰의 꿈을 갖고 **대학 진학을 경찰 관련된 학과로 진학을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중략) 정말 무기력했던 친구가 드론 자격증 과정을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금은 그 창업을 하고 있어요. (중략) 자기한테 맞는 체험이고 맞는 자격증이고 어떤 활동들을 딱 맞게 하게 되면 **이 친구가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꿈과 진로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친구들이구나라는 생각을...**(현장2-H)

△□ 지역에 있는 청년센터에 연계해서 후기 학교 밖 청소년들 또는 종결된 청소년들 대상으로 어 청년 도전자지원사업 연계해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도전자지원사업이 단기, 중기, 장기, 1개월, 3개월, 5개월 과정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참여한 청소년들 만족도가 되게 높았었고 (현장2-I)

다. 꿈드림 센터장 및 실무자의 노력에 따른 전문적인 진로지원 연계

FGI에 참여한 대부분의 진로분야 현장 전문가들은 기관의 주요 지원 대상자가 정규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임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시간, 예산, 인력을 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소외계층 청소년의 진로를 지원하는 것을 기관의 책무로 생각하는 기관장 사례가 있었다. 기관 실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별도 지원팀을 구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더욱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진로지원을 하고 있었다(진로3-K). 또한 비록 같은 법인 소속 기관으로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했을 수 있으나 진로지원 기관의 도움을 통해 현지 학교의 진로부장교사를 섭외하여 수시 대학 진학상담 등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현장2-G).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진로지원 분야 현장 전문가의 이러한 보고 내용은 지역사회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진로지원 기관과의 연계는 같은 법인이거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근접성, 과거 유기적인 연계 경험 등의 영향이 있지만, 기관의 리더십과 실무자의 노력이 더해질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진로지원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실적이 진짜 안 돼요.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는 거에 또 아이들이 개별화된 그런 맞춤을 해주려면, 거기 들어가는 인력의 품은 또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중략) 저희는 그 팀도 **자립지원팀을 따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건, 요거는 약간 저희 센터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센터장님께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해야되는 일이다, 꼭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진로3-K)

저희는 수시접수 바로 직전에 그 진로센터 선생님들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고등학교 진로부장 선생님들을 모셔와 가지고 진학상담을 바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저희는 한 건물 안에 진로센터랑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 연계가 수월해서 잘 운영이 돼서 우수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장2-G)

표 VI-3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 현황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내용)
다양한 방식과 내용의 연계 지원 현황	지자체 위탁운영 시 같은 법인임에 따른 비교적 원활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로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다른 청소년기관과 함께 위탁 운영 청소년센터에 함께 위치해 있어 대입 박람회, 취·창업박람회, 창업동아리 등 다양한 진로 활동 연계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공식화, 명문화를 통한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 조례 관련성에 따른 연계 가능 자치구 조례에서 유사 청소년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비교적 원활한 연계 수행 교육지원청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시 과업지시서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명시
	시도교육(지원)청 진로 지원체계를 통한 일부 한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원 자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체험 기회 제공 진로교육원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사업 위탁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간접 지원
	기관장 및 실무자 등을 통한 개별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장, 센터장의 개인 관계망에 따른 다양한 지원 연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개별 실무자의 노력과 의지를 통한 지원 연계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내용)
	지역사회 연계 등 여러 방식을 활용한 진로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의 전문인력 활용 • 진로지원기관에서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하여 진로상담 제공
다양한 형태의 연계 진로지원 우수사례	지자체, 시도교육청 차원의 의미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교육청 차원에서의 예산 배분을 포함한 연계 지원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수시 박람회(전문가 진행) 진행 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전문적인 지원 혜택 • 진로교육원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연계 지원 확대 기대
	연계를 통한 진로 적성 탐색 및 진학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 연계를 통한 직업체험과 관련 전공 대학 진학, 이에 따른 자긍심 고취 • 학교 밖 청소년의 적성, 수요 맞춤 진로지원 성과 사례(대학 진학 및 유관 자격증 취득) • 청년센터 연계 지원에서의 후기 학교 밖 청소년의 높은 만족도 사례
	꿈드림 센터장 및 실무자의 노력에 따른 전문적인 진로지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지원 기관장의 의지에 따른 별도 지원 연계팀 구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기회 제공 • 같은 법인 산하 진로지원 기관의 도움을 통한 현직 진로부장교사의 진학상담 진행

(4)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 애로사항

여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진로지원 연계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FGI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계 지원과 관련한 개선 요구의 경우 대부분 향후 연계 지원방안과 유사함에 따라 FGI 전문가들이 제시한 개선 요구는 이후 연계 지원 방안에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진로지원 연계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FGI 결과는 서비스 전달체계 차이 및 인프라 부족에 따른 연계 애로사항과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차원의 애로사항으로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

① 서비스 전달체계 차이 및 인프라 부족에 따른 연계 애로사항

가. 정책·서비스 전달체계 차이로 연계가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주요 지원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성평등가족부 산하이며, 주로 학생 대상의 진로지원 기관인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교육부/시도교육청 산하의 기관이다. 두 곳 모두 전국 각지의 행정구역 대부분에 위치해 있어 같은 지역사회 내 공공의 목적을 지닌 지원 시설이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같은 법인에 속해 있거나 가까이 위치해 비교적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는 예외 사례를 제외하면 실제 연계

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C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로지원 기관과의 연계가 쉽지 않으며, 연계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방문하거나 유선 연락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장 전문가G는 본인이 속한 기관은 비교적 지역 내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가 잘 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다른 연계 상황을 볼 때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이 관찰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학교, 학급 단위의 대규모 진로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관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적어 이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 대비 그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음을 토로하였다(진로3-L).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관할 부처가 다르며 직접적인 정책 대상이 아닌 경우 성과 평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제가 ○○지역을 좀 물어보니, **정말 찾아가고 전화하고 구걸하다시피 해서 이제 더 이상 연락 더 이상 안 해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쪽하고 이제 만나서** 올해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실 꿈드림센터가 그렇게 구걸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학계1-C)

사실 그 ○○지역 안에 그 진로센터도 구분별로 다 있거든요. 16개가. 근데 뭐 시 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밖 센터들이 진로센터가 지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잘 안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현장2-G)

이제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인원도 적고 하지만 거기에 인원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예산 단가도 높아지고, 봤을 때는 **저희는 예산에 대비해서 지원에 나오는 평가는 굉장히 수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진로3-L)

나. 진로지원 기관의 대규모 학생 중심 운영 방식 및 지원 예산 부족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경우 학생 중심의 운영 방식과 이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투입이 우선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과의 연계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로 분야 현장 전문가 L은 학교 상황에 맞추어 학급 단위의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학교 예산이 감소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전문가F는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진로지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적어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최소 인원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유사하게 진로체험지원센터 역시 행정구역별로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각기 달라 예산 상황이 다소 불안정한 문제도 보고되었다(진로3-K, 진로3-L).

또한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의 진로체험처 발굴 및 인증(특별한 혜택이 없음)과 직접 관리의 부담(진로3-L) 등에 대한 어려움이 보고되었고, 현재 시도교육청에서의 학생 대상 진로지원 컨설팅에도 역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진로3-O).

규모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좀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는 큰 규모로 들어갈 때는 **학교 단위로 큰 규모로 들어가지만** (진로3-L)

저희가 아무래도 외부기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인원수가 저희가 너무 적어 가지고 **그 최소 인원을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현장2-F)

○○○에서도 지금 워낙 **학교들의 예산이 줄어든다 보니까** (중략) 학교 측에다가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 반면에 그렇게 되면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들어간 예산은 저희가 점점 줄 수밖에 없는 (진로3-L)

이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거를 구마다 진로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불안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진로3-K)

예산 상황이 너무 불안정하고 (중략) 진로지원센터가 안정적이질 못해서 학교나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결국 돌아가는 예산이라든지 그 규모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진로3-L)

그 인증시스템이라는 거 (중략) 저희 쪽에서도 **체험처를 이제 발굴을 하면서** 꿈길에 등록을 해 주세요, 말씀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아지지 않으면 업체 측에서도 이제 꿈길을 등록하고 이용하는 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3-L)

상담해 주거나 컨설팅을 해줄 만한 **진로·진학 전문가나 전문적인 시간 확보가 만만치가 않다고** (중략) 교육청 베이스에서는 다른 아이들. 예컨대 현역 아이들이라든가 혹은 졸업생들에 (진로3-O)

②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차원의 애로사항

가. 학교 밖 청소년 특성,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어려움

앞서 학교 밖 청소년의 무기력이나 은둔·고립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와 저조한 프로그램 참여율에 대한 지원 현장 전문가들의 보고가 있었다. 진로분야의 현장 전문가M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서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취소하거나, 또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뒤따랐던 경험을 토로하였다. 또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경우 학생 대상의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면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기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는 학교 환경에 맞게 학급별 대규모 지원 방식이 주를 이룸에 따라 소수이면서도 다양한 욕구를

가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인력과 예산 등에서 애로사항이 있음을 시사하였다(진로3-K, 진로3-M).

대상군이 다양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중략)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부분들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략) 그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중략) 또 체험처에 갔을 때 수업 환경이 조성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현장에서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진로3-M)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20대 초반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주제 자체가 뭐 취업 지원이나 사회진입 단계에 해당이 되는 진로지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 진로센터 입장에서는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학교 밖만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간 할애가 좀 어렵습니다 (진로3-M)

그 학교 세팅에 맞춰서 대규모로 반별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는데, 학교 밖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소수의 그런 니즈가 다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로3-K)

학교 밖은 대어섯 명 정도 그룹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략) 연계할 때 정말 재능기부 마인드로 재료비만 받고 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프로그램 제공이 좀 어렵고요 (진로3-M)

나. 단순한 단발성 연계 사업 중심의 한계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진로지원 연계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전문가와 진로분야 전문가 모두 대부분의 연계 진로지원이 단발성에 그치면서 그 효과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현장 전문가F는 연계를 통한 직업체험활동이 다양하지 않으며, 단순한 체험 위주의 일회성이어서 아쉬워하였고, 진로 분야 현장 전문가M도 이러한 연계 진로 사업이 대체로 단순한 일회성 경험임을 보고하였다.

또 다른 전문가G는 시도교육청을 통한 진로체험활동에 연 1~2회에 참여하고 있으나, 그 경험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참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반응을 전하였다. 전문가G는 이에 대해 프로그램 참여 횟수가 적고 또 참여 대상 맞춤형이 아닌 것에서 이유를 찾고 있었으나, 그러한 기회 역시 많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들을 계속 참여시키고 있었다.

직업체험이 다양하지 않고 예술적인 거, 그니까 뭐 단회기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치중해서 (중략)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좀 주고 싶은 그런 직업체험이 아니라 어, 좀 단순히 체험할 수 있는 윈데이클래스 같은 식의 직업체험으로 좀 변형이 되고 있는 거 같아 가지고 (현장2-F)

그렇다 보니까 깊게 있는 체험을 하기보다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단순일회성 체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로3-M)

(시도교육청 진로교육원의 진로체험활동에) 저희 아이들이 다녀오고 나면은 선생님 근데요, 잘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그만큼 짧다는 얘기겠죠 (중략) 그게 저희 아이들한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현장2-J)

표 VI-32.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 애로사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내용)
서비스 전달 체계 차이 및 인프라 부족에 따른 연계 애로사항	정책·서비스 전달체계 차이로 연계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달체계 차이로 인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가능한 진로지원 연계 지역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진로체험지원센터 간 원활하지 않은 연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원은 투입 인력, 예산 대비 실질적인 실적 평가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음
	진로지원 기관의 대규모 학생 중심 운영 방식 및 지원 예산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연계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최소 인원 맞추기 힘들 학교 중심 운영 방식에 따라 소규모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움 학교 예산 감소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도 어려움 발생 개별 센터의 체험처 발굴 및 직접 관리의 부담 시도교육청의 진로지원 컨설팅에도 여력이 없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차원의 애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특성,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정서적 문제 등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에서의 애로사항 연령 및 진로단계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 어려움 소규모의 다양한 욕구를 가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 어려움
	단순한 단발성 연계 사업 중심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직업체험이 아닌 단순한 단회기, 일회성 체험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음 1년에 1~2회 연계 진로체험으로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음

(5)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 방안

진로지원 연계 방안은 본 FGI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FGI 내용은 진로지원을 위한 교육체계와의 연계 분위기 조성, 구체적인 제도 및 체계 개선,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전문성 강화 및 맞춤형 지원으로 범주화되었으며, 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진로지원을 위한 교육체계와의 연계 분위기 조성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본격적인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이전에 필요한 진로지원을 위해 교육체계의 진로지원사업과의 연계에 초점을 두었다. 본 FGI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B는 교육체계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진로지원을 위해서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에 대한 교육체계의 인식 전환과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진로 분야의 현장 전문가O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지속적인 지원 요청을 토대로 지속적인 연계 지원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와 교육체계의 의지가 필요하며, 탐색적인 연계를 통한 긍정적인 반응이 뒤따른다면 본격적인 예산 마련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래서 저는 문을 개방해야 될 거는 사실은 교육부와 교육청 아닐까 싶고, 거기서 일반 청소년이 아니라 학령기 아동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어느 일부라도 교육청을 통해서 (중략) 한 70% 정도 열어준다면 저희는 훨씬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학계1-B)

(지원) 요청을 하면 계속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략)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의지일 것 같아요. 일단은 학교 안 교육청과 지금 ○○지역처럼 그런 프로그램이 연계가 돼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중략) 점점 호응이 좋고 만족도가 좋고 학부모의 긍정적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는 방향이 되더라고요 (진로3-0)

② 구체적인 제도 및 체계 개선

가. 법률 개선을 통한 전문 진로지원 제도화 및 표준화

앞서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연계 진로지원이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는 사례는 시 조례나 사업위탁 시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향후에는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더욱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계 전문가A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소 이른 직업 체험이나 취업지원보다는 해당 법률에 진로지원에 관한 내용을 좀 더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문가C는 진로교육법의 소외계층 지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자동 연계하여 전문적인 진로지원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진로 분야의 현장 전문가G 역시 이러한 양 체계의 현장 지원 기관 간 연계 진로지원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시가 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전문가M은 관련 지침에 연계를 통한 전문적인 진로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연계 지원의 당위성, 명분을 가질 때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정책적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관련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체계에서의 해당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고등학교 대충 그 정도잖아요. 그렇게 됐다면 이 직업 체험하고 취업지원 이 부분은 조금 좀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차라리 진로와 관련된 내용으로 법령을 좀 바꿔주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학계1-A)

진로교육법에 보면, 소외계층의 학교 밖이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라도 진로지원센터가 꿈드림센터하고 자동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더 갖춰진다면 (학계1-C)

기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과업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일정 부분 진로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식으로 명시가 돼서 내려오면 지원하기 가장 좋고 편리할 것 같고요 (진로3-L)

학교 밖 자침이나 이런 곳에 진로센터와의 지원에 대한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간다면 저희도 제공하는 입장에서 연계를 하는데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 (중략) 진로센터 입장에서는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학교 밖만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간 할애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조금 개발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학교 밖을 기준에 넣어 준다면 네트워크를 맺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제공할 수 있는 명분이 더 될 거 같고요 (진로3-M)

이러한 연계 진로지원이 제도화될 때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점은 지역이나 센터별 진로지원에서의 격차를 다소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전문가들은 센터장이나 센터 실무자의 역량, 능력에 치우치지 않는 타 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전문가는 이를 위해 중앙지원기관이나 부처 차원의 연계가 제공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큰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현재와 같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재 지역별 지원에서의 차이뿐 아니라 센터장 개인의 사적 관계망이나 실무자의 역량에 따른 연계 지원이 아닌 해당 지역사회 내 진로지원 기관과의 연계가 제도화된다면 적어도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전문적인 진로 지원 확대를 더욱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로 약간 센터장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저희처럼, 여러 군데에서 러브콜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중략) 단지 센터에 있는 사람들의 역량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한청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나 여가부(성평등가족부)에서 아예 연계를 딱 해 주신다면 저희한테는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장2-J)

꿈드림센터들이 대부분 그 선생님들의 역량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중앙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개인의 능력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게끔 다른 기관들이 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매뉴얼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2-F)

나. 필수 연계기관으로서 전문 진로지원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체, 연계망 마련

FGI에 참여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중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전문적인 진로지원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체 구성 또는 진로지원 연계망 구축과 같은 제안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학계 전문가D는 국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개발이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때, 유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제안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전문가K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필수 연계기관처럼, 진로와 관련한 필수 연계기관과 같은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 다른 현장 전문가G는 진로지원 관련 연계망 구축과 지원 내용의 매뉴얼화를 통한 전국 시군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 전문가가 제안한 유관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이나 진로지원 연계망 구축 등은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특히 지역사회 내 진로관련 체험처, 청소년시설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를 의미한다. 또한, 관련 법률, 정책, 지침 등을 통한 제도화나 MOU 체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식화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전문적인 진로지원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개발에 대한 정말 초미의 관심과 그리고 지원을 하겠다는 국가적 정책 의지를 갖고 있다면, **관련된 부처 간에 아주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 (중략) 여가부, 법무부 그리고 교육부 간에, 3자 부처 간에, 정말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함께 공동으로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계1-D)

근데 이제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필수 연계기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진로와 관련해서는** 뭐 진로교육센터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곳들이 있을 텐데 이런 **필수연계기관들이 좀 인프라가 좀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장2-H)

또 **진로지원에 대한 외부 기관 같은 경우가 연계망을 좀 구축해서 매뉴얼화해서** 전체적인 시군구 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2-I)

다.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연계 기반 마련 : 예산 및 평가 체계 개선

FGI 결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원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 제공 방식의 제도화와 필요한 예산 지원, 진로 프로그램 연계에 대한 실적 산정 또는 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분야 전문가L은 양 지원체계 간 MOU 체결 등을 통한 연계 지원은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또 다른 전문가M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진로 체험의 경우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됨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진로지원 기관의 경우 필요한 전문성과 인적자원 등이 갖추어진 만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진로3-K).

예산과 관련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은 참여 인원으로 인해 투입되는 자원 대비 사후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평가 시 지표를 다르게 설계하거나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진로3-L).

또한 진로 분야 전문가K는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수 연계 지원의 경우 실적 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하였는데, 유사한 맥락에서 전문가M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평가에서도(중앙 및 지자체 포함) 진로지원기관과의 연계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역사회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 쪽이랑 같이 연계를 하든, MOU를 맺어서 하는 방법이 두 번째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진로3-L)

학교와 다르게 학교 밖 같은 경우는 소규모 인원으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중략) 자격취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진로체험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학교 밖으로 내려 준다거나 하게 되면, 훨씬 더 그런 체험에 대한 수요나 또 진행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진로3-M)

이제 학교 밖 센터에 이제 진로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확보가 된다면, 그걸 가지고 저희는 왜냐면 여태까지 해 왔던 노하우와 자원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중략) (진로3-K)

실적이 진짜 안 돼요.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는 거에 또 아이들이 개별화된 그런 맞춤을 해 주려면, 거기 들어가는 인력의 품은 또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진로3-K)

인원도 적고 하지만 거기에 인원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예산 단가도 높아지고, 봤을 때 저희는 예산에 대비해서 지원에 나오는 평가는 굉장히 수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진로3-L)

학교 밖 평가 기준 내에 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에 대한 부분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혹은 지자체에서 청소년진로지원에 대한 평가기준의 항목이 추가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센터에서도 좀 더 연간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집중해서 좀 사업을 확대하는 데 힘을 쏟지 않을까 (진로3-M)

인센티브나 지표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지표나 평가 부분을 다르게 책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 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높게 받을 수 있거나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진로3-L)

③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전문성 강화 및 맞춤형 지원

가. 교육체계 퇴직 교원 활용 : 진로·진학지원단, 퇴직 진로상담교사 등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전문적인 진로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전문 인력 활용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FGI에 참여한 여러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퇴직 교원 활용을 제안하였다. 학계 전문가B는 교육청 내 퇴직 교사 풀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해, 또 다른 학계 전문가D는 해외의 수감청소년에 대한 인근 학교의 진로상담교사나 전문가들을 통한 진로상담 의무화와 진로설계 지원을 공유하면서 지역사회 내 전문가들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퇴직 직업상담사, 진로전담교사 등의 전문 인력풀을 통해 진로개발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퇴직교사로서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원의 진로·진학지원단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O는 간혹 다문화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어 해당 부분에 전문성이 갖춰지게 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위의 학계 전문가들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향후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만 전문가O의 사례를 통해 현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학상담 요청 시 이에 응하는 지원단 내 활동 교사가 많지 않다는 점과 개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요청 시 활동비를 위한 예산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교육청 내에서 그런 퇴직 교사 풀들이 와서 어찌 됐든 아이들 진로와 관련된 포트폴리오 관리라든가 이런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진로상담교사가 하는 역할들을 좀 순화하면서 해주기만 해도 (학계1-B)

청소년들이 감옥에 가면은 노르웨이의 법무부 법령안에 반드시 수감되어 있는 동안 진로지도를 진로상담을 일주일에 몇 시간씩 받게 되어 있고,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자는 **인근 학교 진로상담교사** 혹은 교도관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중략) 어떻게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진로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계1-D)

퇴직한 직업 상담사, 퇴직한 진로전담교사,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의 풀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소외계층의 진로개발 지원을 하는 멘토로 이렇게 만드셔서 (학계1-D)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더 하십시오. 하면서 주로 맡기는 게 다문화, 학교 밖 친구들을 맡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저는 그렇게 된 게 아닌데 전문화가 돼 버렸더라고요 (진로3-O)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학교 밖 친구들을 하겠다고 하는 선생님들은 많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진로도 진로지만 진로가 진학과 연계가 되면은 어려운 부분이 나오거든요 (진로3-O)

저는 센터에서 보니까 저하고 계약을 맺더라고요. 계약서를 쓰고, 거기 나름대로 그 계약에 의해서 수당처럼 이렇게 지급을 했었어요 (진로3-O)

나. 연계가 필요한 진로지원 내용 : 진로상담, 실질적인 직업 세계 정보 제공 등

FGI에 참여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여러 진로지원 내용들을 제안하였다. 학계 전문가A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 이해 특히 진로와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전문가B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미래의 삶을 계획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전문 분야별로 주변 지원체계와 역할을 분담하는 효과적인 연계 지원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진로분야 전문가O는 앞의 전문가A와 같은 유사한 맥락에서 다양한 진로적성검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해 스스로 궁금한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 다른 진로

전문가N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진로지원 연계 시 진로상담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을 강조하였는데, 이 역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있어 진로상담의 중요성을 조명해 주고 있다.

자기이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좀 더 좀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중략) 자기 이해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집중적으로 좀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학계1-A)

청상복에서 더 심리나 상담적인 부분을 커버해 주시고 사실 학교 밖의 꿈드림이 애들을 데리고 있는 아지트의 역할도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일대일로 이 약간 속도가 느린 아이들을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면 전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학계1-B)

개별적인 컨설팅을 했었을 때 그 학생들의(학교 밖 청소년 지칭)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이죠. (중략) 우리가 진로 검사라고 하죠. 직업흥미검사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궁극한 사항을 풀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구나... (진로3-O)

유독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진로상담 마을에 신청을 많이 해서 그게 조금 놀라운 점이었고요.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꿈드림센터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다섯 개 체험 마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도 진로 상담 마을이 포함이 됐습니다 (진로3-N)

진로상담과 더불어 연계가 필요한 진로지원 내용으로 여러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진로분야 학계 전문가N은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방향성의 일환으로 직업 가치에 대한 내용이 진로지원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진로지원에 있어 당장의 진로체험이나 진로결정,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앞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와 직업에 대한 자기이해와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전문가N은 연계 진로지원 사업에서 특정 공공기관과 직업인을 통한 직업 세계와 전망, 특히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실제로 진로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 직업이라고 하는 거 내가 내 진로를 설계하는 거는 자아실현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기여에 대한 부분들도 아이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중략) 직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에게 진로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주요한 영역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계1-E)

(연계를 통한 진로 프로그램에) 갔다 와서 아이들이 만족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중략) 물어봤더니, 진짜 일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거기서 직무·직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다 보니, 이 고졸 학력만 가지고도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떤 시험을 볼 거고 어떤 걸 준비해 가지고 오면 내년에 너희가 응시할 수 있어라는 걸 알려 주시다 보니 막연했던 직장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게 됐더라는 (현장2-J)

그 담당자분이 오셔가지고 ***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고 월급은 얼마고 집은 어떻게 구할 수 있고 하니깐, **아이들이 아 그렇다면 내가 진로를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많았었거든요 (현정2-J)

다. 진로초점 사례관리와 교육청 연계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 필요

FGI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및 진로 분야의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은 연계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또 다른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C는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진로와 관련하여 단계별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례관리 성격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전문적인 진로지원을 단순 멘토 등으로 충족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단기적 대응보다 장기적인 진로설계와 진로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포함한 진로초점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같은 연계 기관과의 협업 시(교육부와의 사전 협업을 전제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상황들을 면밀하게 사전 공유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는데(학계1-D), 이는 연계 방식의 진로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진로 분야 현장 전문가K 역시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뤄 줄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진로와 관련한 사례관리 단계들을 확실히 좀 해서 아이가 확실히 자기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단계를 좀 매니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화시킬 필요는 확실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단순 멘토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학계1-C)

국가가 정책을 기획하고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정말 학교 밖 청소년이 갖고 있는 특수한 특성을 잘 고려하고 (중략) 그것을 지역 진로체험센터에 요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중략) **교육부의 협업과 연계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학계1-D)

이제 어떤 학교 시스템 밖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좀 자신이 진짜로 좋아하는 거를 힘을 내서 이제 나와야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중략) **그 친구들이 정말 원하는 거를 연계를 시켜서, 좀 깊이 있게 다뤄 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이 친구들에게는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진로3-K)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중 과거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⁷⁵⁾ 소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내신 등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사례를 제외하고라도 여전히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을 희망하며 준비하고

75) 앞서 진로지원의 패러다임 변화 부분에서 다른 바와 같이, 진로 분야 학계 전문가들은 현재 학생들의 대학 진학 희망 비율이 감소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게 될지 주목할 부분이다.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규모 인력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생활기록부 작성과 복잡한 대학 입시 방법 등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기는 비현실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FGI에 참여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시도교육청을 통한 진로·진학컨설팅을 제안하였다. 특히 진로 분야 현장 전문가들은 현재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원 내 진로·진학지원단의 일원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진로·진학 컨설팅 경험에 기반하여 점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더욱 확대,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이다.

학력을 연장하기 위한 진로지원에서는 그 지역사회에 교육청 내에 진로전담교사가 이 아이의 또 다른 생기부를 좀 관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청의 역할이 있으면 좋겠다 (학계1-B)

예컨대 대학 가는 거에 대한 좀 상담을 받고 싶더라고 했을 때는, 실은 진로교사 선생님 말고도 교육청 내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컨설턴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연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니까 (학계1-E)

학교 밖 친구들도 진로를 찾아서, 그리고 진학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공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로3-0)

표 VI-33.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 방안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내용)
진로지원을 위한 교육체계와의 연계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체계의 진로지원 허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연계 의지와 노력, 만족도 향상을 통한 예산 마련 등 분위기 조성
	구체적인 제도 및 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 이른 직업 교육, 취업 지원보다 진로지원 내용이 관련 법률에 포함되는 방안 제시 • 진로교육법의 소외계층 대상 지원을 근거로 자동 연계 진로지원 시스템 마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 진로지원기관의 연계를 법률 상 명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및 지침 등을 통한 연계 진로지원에 대한 당위성 마련
	필수 연계기관으로서 전문 진로지원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체, 연계망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간 긴밀한 협력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협의체 채널 구축 및 강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처럼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필수 연계 기관 확보 • 진로지원 연계망 구축 및 매뉴얼화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내용)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연계 기반 마련 : 예산 및 평가 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 체결 등을 통해 진로지원 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경우 예산 절감 이점 • 진로지원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도 활용하기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진로지원기관의 연계 진로지원에 대한 별도 실적 산정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진로지원 관련 각 기관에 가산점 부여 등 평가 방식 개선 필요(추가 지표 개발 등)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전문성 강화 및 맞춤형 지원	교육체계 퇴직 교원(진로·진학지원단, 퇴직 진로상담교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내 퇴직 교사 등을 활용한 진로 포트폴리오 관리 • 지역사회 내 전문가 활용을 통한 진로계획, 설계 지원 • 퇴직 직업 상담사·진로전담교사 등을 진로개발 멘토로 활용 • (시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위원 활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경험 누적으로 전문성 강화
	연계가 필요한 진로지원 내용 : 진로상담, 직업 세계 정보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이해에 대한 집중 지원 선행 필요 • 심리적 문제 관리와 진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지원기관 간 역할 분담 • 자신의 진로적성 파악(직업흥미검사 등) 필요 • 연계 진로지원 시 수요와 만족도가 높았던 진로상담 강화 • 진로지원에 있어 직업 가치에 대한 내용 포함 • 직업세계 및 취업 자격 등에 대한 실제적, 현실적인 정보 제공 필요
	진로초점 사례관리와 교육청 연계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성 단순 멘토가 아닌 장기적 진로초점 사례관리 필요 • 진로체험지원센터 연계 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구 공유 • 학교 밖 청소년 수요 맞춤형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대학 진학 지원을 위한 전문 지원 연계: 진로·진학 컨설턴트 활용 등

3. 소결

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의견조사 결과와 함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의견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장기적인 진로계획 수립과 계획이행을 위한 실제적인 정보 및 방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들은 센터 등록 청소년들이 이후 계획에 대한 단기적인 진로계획이 있다(83.3%)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장기적 진로계획 수립(59.2%)이나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한 정보 보유(60.8%)나 진로준비방법에 대한 이해(50.8%)는 높지 않다고 인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센터에 등록된 청소년들이 단기적으로는 복교나 진학, 검정고시 준비, 취/창업 등에 대한 진로를 설정하고 있으나 그 이후 장기적인 진로계획은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은 센터 등록 청소년들이 진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직업정보나 실제적 방법 인지는 부족하다고 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설정한 진로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단기적으로 선택하는 진로계획이 향후에 장기적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진로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참여 동기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센터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진로지원의 어려움 중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이 참여 청소년의 동기 수준이 낮은 것과 참여를 지속하지 않는 것이었다. 실제로 진로준비 상태에 따라 가장 필요한 진로지원 영역을 조사한 결과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진로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자기이해를 위한 상담/검사와 동기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1순위인 점도 청소년의 동기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데에는 검정고시 준비나 취업, 실기 등 진로에 전념하기 위한 것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이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향후 질적연구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진로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동기가 낮은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여 실제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 연계가 필요하다. 센터 종사자들이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위해 타 기관과 연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

수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는 직장체험(76.9%), 기초기술훈련(68.5%), 진로(자립)동기강화(57.7%), 직업훈련교육지원(53.8%)을 위한 타 기관 연계가 많았다. 한편 국가 수준에서 시행하는 진로/직업 지원사업이 개인 맞춤형/원스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체험 및 인턴십 프로그램/기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개선의견 역시 많았다. 이 두 가지 응답을 통해 현재 센터에서 연계하고 있는 타 기관은 개별 학생의 필요에 따른 연계이기보다 센터 내 한정된 자원을 보완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역에서 타 기관과 실시하는 연계일 수 있어 보인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면담을 통해 타 기관과의 연계 실태를 실제적인 관점에서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에 대해 섬세하게 파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표준적 진로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시군구 센터나 이용자 연인원이 적은 센터일수록 접근성과 기자재,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대도시지역의 센터에서 가족 및 보호자와 진로에 관한 소통을 덜 하고, 지원이나 지도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하고 있는 진로지원 정책에 대하여서도 비교적 인지도와 활용도가 높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을 제외하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대하여서는 센터별 인지 및 활용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여기에 대부분 센터가 답한, 센터 운영 인력 및 진로지원 인력 부족과 진로지원에 관한 전문성있는 기관 및 인력 연계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센터별로 연계를 통한 진로지원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 여건에 맞는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혜자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표준적 서비스 제공은 필요할 것인바 시도센터 중심 사례 공유나 중앙에서의 가이드 제공 등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다섯째, 각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교박지원센터 종사자가 성평등가족부의 대표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사업 3가지 중 2가지를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90% 이상이었고,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비율 또한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부 지원사업 3개 중 1가지만 90% 이상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 활용한 사례는 63.6%였다.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진로지원 사업 4가지 중 90% 이상의 센터 종사자가 인식하는 사업은 1가지였고, 실제 활용하는 비율은 56.3%로 나타났다. 지역 연계처 확보를 위하여 개별 센터의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별 센터 단위에서 부처별 지원 사업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도록 권하기보다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 가능한 양질의 부처별 사업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한다면 실제적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계 및 현장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와 논의

본 연구에서 FGI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 및 연계 현황을 살펴보고 연계 확대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총 1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과 진로 분야의 학계 전문가 집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 전문가 집단,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진로교육원 소속 현장 전문가 집단으로 총 3개 집단을 구성하여 집단 면접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FGI가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교육이나 취업 지원이 아닌 그 이전의 진로상담 및 진로설계와 같은 진로 탐색과 준비를 위한 것으로 교육부의 진로교육체계와의 연계에 초점을 두었다. 현장 전문가의 경우 수도권, 비수도권, 대도시, 중소도시 등 지역 간 편차를 고려해 균형 있게 섭외함으로써, 집단별 특성과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한 현장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FGI 조사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의 일반적 진로 특성 및 지원 현황을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 연계와 관련한 애로사항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내 교육체계 중심의 연계 지원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집단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집중 질문에 차이를 두었으며,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FGI 결과인 전사자료는 수차례 검토하며 의미단위를 코딩한 후 범주화와 재범주화를 반복하며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과 진로 영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패러다임의 변화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관련 다양한 현안(진로 위기, 진로지원 취약 등)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원은 기존의 직업교육 및 취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과 동등한 진로지원 보장과 국가·지자체의 공적 책무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FGI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은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닌 삶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목표 설정과 자기 탐색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진로발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장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무기력·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정서적 회복과 심리 안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 위기 상태가 아니므로 환경적 요인과 지원 서비스 접근 불균형을 고려한 세분화된 지원이 요구되었다. 즉, 진로 위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기회 불균형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진로지원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형 아르바이트에 집중하거나 다문화·한부모가정의 가정 내 지지체계

가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특히 진로설계 및 실질적인 진로준비에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양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을 위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진로체험지원센터 등이 협력하는 다기관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에 있어서의 현재 주요 애로사항은 전문성 및 인력 부족으로 파악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 전문가를 찾기 힘들며 관련 실무자들의 경우 낮은 처우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이직과 소진이 빈번하였다. 또한 현재의 진로지원은 일회성 활동이거나 단순 업무 중심으로 다양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며, 집합교육 방식의 비효율성과 참여율이 저조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한편, 지역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가 상이하거나 부모의 과도한 요구로 현장 부담이 커져 한정된 인력으로 개별 맞춤 지원이 어려웠고, 진로지원이 단기성과 중심이 되어 실질적 진로 설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 요구로 FGI 참여 전문가들은 표준화된 진로지원과 인프라 확충, 진로에 초점을 둔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 도입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문 인력 배치와 실무자 역량 강화 연수, 광역 단위 진로지원담당관 배치 등의 필요성과 함께, 단기 취업 중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진로설계와 포트폴리오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FGI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 현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제한적으로나마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교육원과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같은 법인 내(같은 시설 내) 기관 간 연계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일부 지역에서의 조례나 사업 위탁 시의 과업지시서를 통한 제도적 근거는 이러한 연계 진로지원에 대한 공식화, 명문화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FGI에 참여한 시·도교육청 진로교육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외에는 기관장·실무자의 개인 네트워크나 외부 인력풀을 활용한 개별 연계가 다수였다. 한편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통한 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 대입박람회 운영, 사회적 기업 연계를 통한 직업체험 및 대학 진학 사례, 특히 센터장의 리더십과 실무자의 노력에 따른 전문적인 청소년 맞춤형 진로지원 등은 우수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FGI 결과, 먼저 성평등가족부 소속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교육부·교육청 소속 진로체험지원센터 간 정책·서비스

전달체계의 차이가 원활한 연계를 저해했으며, 이는 결국 성과 평가와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법인이나 인접한 기관을 제외하면 협력이 제한적이었으며, 실무자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연계가 이루어지는 등 구조적 제약이 컸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학생 중심의 대규모 운영 방식이었는데, 예산·인력 부족과 성과 평가 이슈로 소수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였으며, 다양한 위탁운영 방식과 예산 편차, 체험처 관리 부담 등도 연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차원에서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취약성과 낮은 참여율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이 어려웠으며, 연령별, 대상별 차이에 맞춰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계 사업은 단발적 체험 중심으로, 연 1~2회 수준의 일회성 운영에 그쳐 진로 탐색의 깊이와 지속성 부족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연계 방안으로, 우선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전문적인 연계 진로지원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계를 통한 진로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법·제도 기반의 체계 개선과 전문적 맞춤형 지원의 선행, 필수 연계 기관 및 진로지원 연계망,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예산 반영에도 힘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계 진로지원 실적을 평가 체계와 인센티브 항목에 포함하여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및 센터 간 역량 격차를 완화하는 표준화된 연계망과 매뉴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진로지원의 전문성과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퇴직(진로)교사 등 교육체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진로 포트폴리오 관리, 진로·진학 컨설팅, 실질적 직업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기간의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수준이 아닌, 사례관리 기반의 장기적인 진로설계 지원체계로의 전환도 요구되었다. 시도교육청의 진로·진학컨설팅과 연계한 대학진학 상담 및 청소년생활기록부 관리 등 교육체계 연계형 맞춤 지원 역시 제도화를 통한 전문적인 진로지원을 위한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 주요 결과
- 2. 정책 제언

1. 주요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따라 연구 결과를 요약하였으며, 장별 주요 연구 결과와 결과 함의는 <표 VII-1>에 제시하였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특성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진로 계획’이 모두 없는 청소년은 무기력함, 높은 스마트폰 의존도, 낮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진로직업태도 수준을 보였고, 이들 청소년은 또한 수당 지급 외에는 국가적 진로지원에 대한 인지 정도와 참여 의사가 낮아 자발적 의지 보다는 외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실태조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향후 진로 계획이 있는 청소년은 69.5%, 현재하고 있는 일이 있는 경우는 90.9%였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들 역시 대부분 청소년이 다음 단계 진로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그러나 장기적 계획이나 구체적인 준비 방법의 인지, 필요 정보 수집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청소년 인터뷰를 통하여서도 청소년이 스스로 답한 진로결정 여부는 진로계획과 탐색, 준비 과정에 유의미한 질적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즉, 진로결정과 준비의 구체성 차원에서 결정/미결정이 이분화될 수는 없었다.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진로계획이 없는 청소년은 심리-정서적 또는 생활 관리 차원에서 취약해질 수 있으며, 진로계획이 있다고 답한 경우에도 그 질적인 차원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개인 내적 특성과 사회환경적 요소가 함께 청소년의 생애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며,

* 이 장은 김성은 선임연구위원과 김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청소년기에 미래 직업사회와 변화에 준비되지 못하면 성인기 이행이나, 이후 삶에서 직업과 관련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Savickas, 2020) 이 시기 국가적 진로지원은 중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로부터의 진로지원이 부재하다는 사실로부터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있었고, 일부는 진로미결정과 미준비로 인하여 진로불안을 겪고 있기도 하였다. 자신의 진로개발역량이나 가정·환경적 지지가 부족할 경우 반드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진로차원의 위기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심리적, 환경적 어려움으로 진로지원 조차 받지 못하는 더욱 취약한 진로 위기 청소년도 있었다. 한편으로, 현장 전문가들은 자신의 진로계획 실천을 위하여 학교를 그만둔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 위기 상태는 아니며, 이러한 경우가 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기도 하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 상황과 지원 수요가 다양하고, 이러한 경향성은 점차 뚜렷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2)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환경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같은 유관 중앙정부에서는 다양한 진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현장 활용이 높은 정책 및 사업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 정책을 제외하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사업에서는 각각 커리어넷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는 실시 정도가 높지 않았다. 일부 사업은 학생 및 학교 단위로 신청을 제한하거나,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이 수혜받고 있는 사업임에도 명목상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요건에 따라 참여가 제한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또한 사업의 활용과 운영은 지역별 인프라 차이, 센터 종사자 개인 역량과 센터 운영 형태 및 주체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청소년기에 중요한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내용은 제한적으로 포함하고, 취업, 직업훈련, 경제적 자립에 초점이 있었다. 청소년기에는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와 직업의 계속적인 재탐색과 설계를 가능케 하는 역량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가보다, 평생의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진로교육법」에서는 진로개발역량으로 표현하여 담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률에서는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그에 맞춘’ 직업 준비 정도로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진로지원을 위하여서는 실제 현장에서의 체험이 중요

한바 진로지원에 있어서 타 기관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현재 법령에서는 센터의 기능 중 한 가지로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담고 있지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방법이나 대상 등의 상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서, 타 기관 연계에 대한 근거법으로 활용되기에는 보완이 필요하다.

(3)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현황경험 및 정책 요구

청소년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직업체험으로 직업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증가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고, 사전 상담을 통해 진로적성 및 흥미를 파악한 후 맞춤형 인턴십이 제공되었을 때 해당 분야 진로설계로 이어지는 등 실질적 진로준비를 가능하게 하였다. 직업체험에서도 구체적인 자격 요건 등의 정보가 함께 주어질 때 생활관리 및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즉, 청소년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지원, 구체적인 정보와 체험을 제공하는 경험을 통하여 진로지원을 받을 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를 통하여 맞춤형 지원에 대한 요구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문화된 학습지원과 대입상담, 인턴십과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확대 제공, 학원 수강료, 식비 등의 실비 지원 등 학습부터, 직업취업, 경제적 지원까지 각자의 상황과 진로 수요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실효성 있는 진로지원과 청소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전문화된 진로 체험 및 인턴십, 학습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계 대상이 되는 기관 역시 인력 및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평가 체계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업무 근거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종사자들은 연계 실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전문성 있는 연계체와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센터는 맞춤형 지원 연계 및 포트폴리오 작성 지원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연계에 관한 어려움 외에도 청소년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속하게 하는 것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표 VII-1. 장별 주요 내용(요약)과 결과 함의

구분	주요 내용
기존 자료 검토를 통한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1.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현황 파악 및 질문 구성을 위한 사전 자료 확보 2. 진로지원 중요성에 대한 근거 마련과 법·제도 개선안 모색 등 정책 제언 도출
	<p>II. 학교 밖 청소년과 진로 위기에 대한 논의</p>
	<p>▶ (연구 질문) ①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특성은 어떠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이 커짐. 학교를 그만두는 주요 이유도 심리정신적 문제,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거나 부모님의 권유 등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 • 이론고찰 : 전통적인 생애진로발달이론부터 최근의 진로구성주의까지 여러 이론을 검토함. 개인적 특성과 사회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며, 청소년기에 미래 직업사회와 변화에 준비되지 못할 경우 성인기 이행 및 이후 삶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 선행연구 :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로부터의 진로지원의 부재로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일부는 진로미결정과 미준비로 인하여 진로불안을 겪고 있었음. 개인적 진로발달 상황 미흡, 가정·환경적 지지 부족은 반드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진로차원의 위기 상태에 처할 수 있음 <p>⇒ (결과함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성인기 이행 및 사회일원으로서의 건강한 성장과 변화하는 미래사회 적응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p> <p>(정책제언) III-1. 심리·정서·사회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진로지원 III-2. 진로발달 상황 맞춤 생애 진로 설계 실천</p>
	<p>III.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p>
	<p>▶ (연구 질문) ①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특성은 어떠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진로 계획이 있는 청소년은 69.5%, 현재하고 있는 일이 있는 경우는 90.9%였음 • 하고 있는 일과 진로 계획이 모두 없는 청소년은 학업중단 당시 학업성적이 낮고, 비행 경험이 높았으며, 부모의 무관심, 낮은 경제수준을 보였음. 현재 상태로는 무기력함, 높은 스마트폰 의존도, 낮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진로직업태도 수준을 보였음 • 이들 청소년은 또한 수당 지급 외에는 국가적 진로지원에 대한 인지 정도와 참여 의사가 낮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음 • 진로 계획과 하고 있는 일이 모두 있는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이 가장 안정적이었으며, 계획이 없더라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역시 유사한 수준을 보였음. <p>⇒ (결과함의) 진로 발달 정도에 따라 심리적, 행동적 특성 차이를 보임에 따라 진로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진로지원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음</p> <p>(정책제언) III-1. 심리·정서·사회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진로지원</p>
	<p>IV.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법·제도 분석</p>
<p>▶ (연구 질문) ②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발달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환경은 어떠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검토: 유관 중앙정부에서는 다양한 진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부 	

구분	주요 내용
	<p>학생 및 학교 단위로 신청을 제한하거나,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이 수혜받고 있는 사업에서도 명목상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검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 관련 법령에서는 청소년기 진로개발에 대한 내용을 제한적으로 포함하고, 취업, 직업훈련, 경제적 자립에 초점이 있었음. <p>⇒ (결과함의) 청소년기에 중요한 진로개발역량을 포함하도록 법 조항의 개정이 요구되며, 학교 안팎의 구분을 벗어난 대부분 진로지원 서비스 실현이 요구됨</p> <p>(정책제언) Ⅱ-2.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정책 개선 방안 Ⅱ-3.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법 개선 방안</p>
<p>의견 수렴을 통한 방안 구체화</p>	<p>• 목적: 청소년·전문자·종사자 의견 수렴을 통한 진로지원 방향성 모색 및 정책제언 도출</p>
	<p>V.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현황특성 조사: 심층면접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질문) ①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특성은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스스로 답한 진로결정 여부로는 실제 진로계획과 탐색, 준비 과정에 두드러진 질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아, 진로결정과 준비의 구체성 차원에서 결정/미결정이 이분화될 수는 없었음 • 학교를 그만둔 주요 이유 : 친구 관계, 교사와의 갈등, 학교 부적응,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이었으나, 일부는 대학 입시에 유리한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음 ▶ (연구 질문) ② 진로 지원을 위한 지원 현황 및 연계 경험, 요구는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상황 : 대학 진학 준비가 다수였으며, 취·창업을 계획하기도 했으나 막연히 희망하기도 했고, 상당수 학교 지원 부재와 생활 관리 어려움, 정보 부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경험함 • 진로지원 : 직업체험을 통해 관심이 커지는 경험을 하였고, 사전 상담과 같은 준비과정을 통해 파악된 진로적성 및 흥미를 토대로 맞춤 인턴십 제공 시 실질적 진로준비로 이어지기도 하였음 • 지원 수요: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전문 학습지원과 대입상담, 인턴십·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확대 제공, 학원 수강료, 식비 등 실비 지원 등 각자의 상황과 진로 수요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p>⇒ (결과함의)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관점은 이분화보다 질적 차원의 깊이 있는 이해를 토대로, 적성과 흥미, 심리정서·환경적 상황을 고려한 개별화된 진로지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p> <p>(정책제언) Ⅲ-1. 심리정서·사회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진로지원 Ⅲ-2. 진로발달 상황 맞춤 생애 진로 설계 실천</p>
	<p>VI.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현황·의견 조사: 웹설문, FGI</p> <p>〈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의견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질문) ①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특성은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진로 현황: 대부분 청소년이 다음 단계 진로계획이 있었으나, 장기적 계획이나 구체적인 준비 방법의 인지, 필요 정보 수집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 질문) ② 진로 지원을 위한 지원 현황 및 연계 경험, 요구는 어떠한가?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지원 영역: 교육(검정고시 포함)지원과 자립지원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으며, 진로지원 영역에서는 직업체험, 기초기술훈련, 진로(상담)검사의 실시가 많았는데, 진로(상담)검사와 직업 체험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낮아 실제 실시 정도와는 차이가 있었음 • 정부사업 이행: 여성가족부의 진로사업은 인지정도와 실시정도가 모두 높았으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사업에서는 각각 커리어넷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제외하면 실시정도는 높지 않았음 • 어려움 및 개선요구: 연계 실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문성 있는 연계처와 양적 확대가 필요하였으며, 센터는 맞춤형 지원 연계 및 포트폴리오 작성 지원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음. 또한 가장 큰 어려움은 청소년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속하는 것이었음 <p>⇒ (결과함의) 중앙 정부부처를 포함하여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진로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계를 실시하고 있었고, 연계처 확대와 전문성 제고, 청소년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였음. 또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수요 및 진로발달 단계에 맞는 사례 관리 중심 접근이 필요함 (정책제언) I-1.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연계 지원 II-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할 및 진로 전문성 강화</p>
	<p>〈학계 및 현장 전문가 의견 조사: FG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질문) ①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특성은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현상 :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교를 그만두거나 부모의 지원을 배경으로 한 사례도 많아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 위기 상태는 아니며, 이러한 사례가 증가 추세임이 보고됨. • 주요 특성 : 심리·정서·사회·환경적 어려움으로 진로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더욱 취약한 진로 위기 청소년에 대해 국가적 진로지원의 책무성이 강조됨 ▶ (연구 질문) ②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발달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환경은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진로 지원을 위한 지원 현황 및 연계 경험, 요구는 어떠한가? • 지원 현황 : 지역 자원의 차이와 특성, 기관장 및 실무자의 개인 역량, 센터 운영 형태와 주체에 따라 연계 지원 서비스의 편차가 크며, 표준적 형태의 제안 및 가이드라인이 요구됨 • 지원 방식 : 진로지원의 전문성, 즉 진로지원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전문인력의 활용과 단기적, 일회성의 행사 참여보다 장기적인 진로설계지원 및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 연계 현안 : 청소년 수요에 따른 진로지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협력체계는 필수적이며 중앙 단위 협력과 시도센터 중심의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군구 센터로의 확산이 필요하며, 연계 기관 자원의 제약,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지원의 근거 부족 및 실적 산정 등에서의 애로사항이 파악됨. <p>⇒ (결과함의)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에 대한 인식 및 접근 방식의 전환,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전문적인 진로지원을 위한 연계와 이를 위한 제도화가 요구됨. 연계 기관 상호 간 공동의 이점이 있는 토대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연계 체계 구축 가능 (정책제언) I-1.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연계 지원 I-2. 복합적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II-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할 및 진로 전문성 강화</p>

2. 정책 제언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이 연계되는 다체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였다. 정책 제언은 4가지 방향성을 바탕으로 조직하였으며, 3개 영역에 대한 7가지 정책과제와 16개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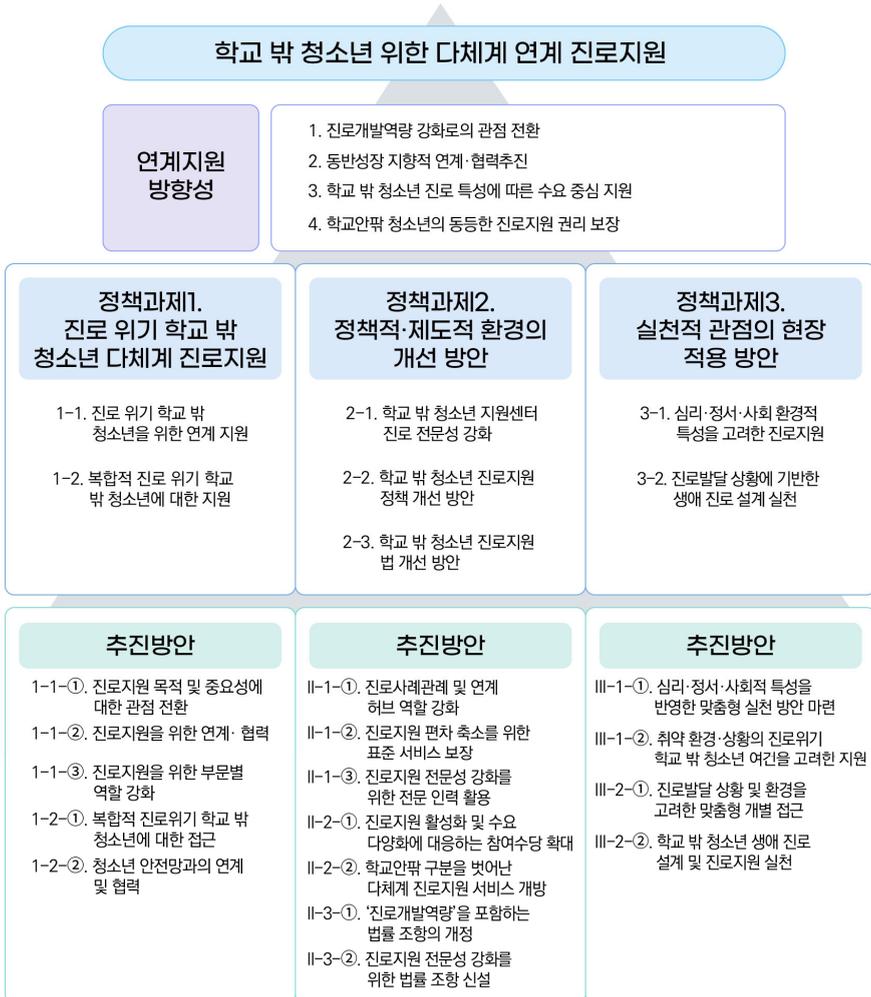


그림 VII-1. 학교 밖 청소년 다체계 진로지원을 위한 제언

1) 연계 지원 방향성

정책적 대안 제시에 앞서 연구 결과를 통한 논의의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진로개발역량 강화로의 진로지원 관점 전환, 동반성장 지향적 연계협력 추진, 학교 밖 청소년 진로 특성에 따른 수요 중심 지원, 학교안팎 청소년의 동등한 진로지원 권리 보장의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정책제언은 다음의 방향성에 따라 조직 및 전개하고자 한다.

(1) 진로개발역량 강화로의 진로지원 관점 전환

학생 대상의 진로지원 관련 법과 진로교육 체계내용을 비교하여 보며,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 법과 정책에서 청소년기에 필요한 자기 자신과 사회 및 직업에 대한 이해 부분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구성이론(Savickas, 2020)에 따르면 청소년기에는 진로적응성을 키우고 스스로 진로 방향성과 필요한 요소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직업사회에 적응하고, 직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진로지원의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진로개발의 역량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고, 전문가 FGI에서도 지원정책이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에 초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실행의 차원에서 볼 때에도 직업체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흥미 및 동기 유발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직업 이해로 이어져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부문의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및 법령의 정비를 제언함에 있어서 '청소년기 진로개발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 동반성장 지향적 연계협력 추진

연계협력적 진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계 대상이 되는 기관의 전문가, 종사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특히, 교육부 교육기부 인증제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전국 200여 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가 가장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많은 청소년 사례를 관리하는 것에 비하여 인력 수 및 고용안정성이 낮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진로체험지원센터 역시 예산과 인력, 운영 근거 부족 등의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지자체로부터의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 센터의 경우는 인건비 없이 사업비 일부를 보조받아, 타 위탁 사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현재는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센터의 운영이 어렵다면 학교 밖 청소년에게까지 서비스가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도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연계가 수월할 수 있는 기관도 확인되었지만, 이처럼 연계의 대상이 되는 기관 간의 예산과 인력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을 때는 연계를 통한 성과 공유, 자원 활용 효율화를 함께 고려해야 지속가능한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진로 특성에 따른 수요 중심 지원

청소년들의 진로 수요와 상황적 다양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진로지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며, 본 연구의 청소년 당사자 인터뷰, 전문가 FGI를 포함하여 2차 자료 분석, 선행연구 분석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관련 상황이 매우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학교를 그만둔 후 가정의 지원을 바탕으로 실기에 매진하고 있는 경우, 반면 이후 단계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인 준비 방법이나 정보가 없는 경우, 가정 해체를 경험하며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진로는 아직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다양하였고, 현장에서도 그 다양성에 맞는 개별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었다. FGI에 참여한 진로교육 전문가는 학생의 경우에도 대학 진학률이 감소하고, 전보다 더 다양하게 진로를 고민하고 있어 전반적인 사회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장에 제공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진로 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VII-2.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의견 수렴

전문가(FGI)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진로미결정 및 미준비, 그로 인한 진로 불안, 본인의 심리적 어려움, 가정해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로고민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 학업중단 자체에서 오는 진로장벽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는 '진로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수렴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진로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로 차원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보았다. 또한 가정적,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로지원 영역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는 복합적 진로 위기 상태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다부분 연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 학교안팎 청소년의 동등한 진로지원 권리 보장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 방향성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학생 청소년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에 대한 언급을 접할 수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선행 연구와(김희진 외, 2023a 등) 현장 전문가들,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를 통해서도 제안되었으며, 진로지원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할 방향성이다. 청소년 인터뷰에서도 학업중단 전의 계획과 달리 학교 선생님의 도움이 없고, 학교 통학을 대신하여 스스로 자신의 일정을 관리하는 것, 검정고시 등 학업을 스스로 이어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여, 진로와 관련하여 학교의 부재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주로 가족이 지지를 받으며 혹은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진로탐색과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점진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 청소년 수준의 지원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진로지원의 경우는 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진로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아닐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필요와 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청소년기에 필요한 진로개발역량을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 청소년 대상의 진로 관련 법령과 학생 및 학교 단위 신청만 가능한 진로지원 서비스 등의 개선을 통하여서도 학생 청소년 수준의 진로지원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정책 제언

1.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 다체계 진로지원

1-1.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연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사실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단일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진로, 자립, 취업을 포함한 학업, 심리상담, 건강 및 경제지원과 사례 관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지원과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대하여서는 여러 공적·사적 부문과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 종사자 설문에서도, 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FGI에서도 더 다양하고 많은 연계의 필요성과 타 체계의 기존 자원의 개방을 요구하였고, 정책 검토를 통해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 확대 가능한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하여 연계협력해야 하는 주체들은 어디이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제안한다. 또한 구체적인 다체계적 연계 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청소년기 진로지원의 목적과 중요성을 논의하고, 기존 관점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1-1-①. 진로지원 목적 및 중요성에 대한 관점 전환

본 연구에서 진로와 관련한 이론적 고찰 결과, 전통적 관점의 발달단계별 진로 과업 달성에서 점차 사회환경적인 변화에 적응하는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선행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과 미결정 여부, 진로장벽 등이 이들의 심리·정서적 측면 등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 종사자 설문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FGI를 통한 현장 전문가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에 대하여 여러 인식이 혼재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즉, 본 연구를 통해 대면한 전문가와 실무자들은 진로지원 자체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지만,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직업을 결정해야 하는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진로 준비를 해야 하는가?, 휴식 기간을 가지거나 혹은 성인 이후의 다양한 직업 경험으로 진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안 되는가? 같은 많은 질문을 연구자에게 남겼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진로지원의 방향성을 ‘진로결정’과 ‘그에 따른 준비’라는 두 축으로 해석할 때 발생할 수 있다. 확신 있는 진로의 결정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진로준비는 진로성숙의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직관적 측정이 가능한 지표로서 청소년의 진로 상황을 파악하기에도, 정책과 사업 효과 판단에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측정 지표와 목적은 다를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 진로지원의 유일한 목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청소년기에 필요한 진로지원의 방향성을 알기 위하여 학교 진로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물론 학교 진로교육의 양적 성장 이면의 부분들이나 내실화를 위한 개선 요구도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은 논외로 두고, 먼저 오랜 기간 고민과 실행을 해온 진로교육 분야를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생과 동등한 수준의 진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함의를 얻고자 한다. 우리나라 진로교육은 1982년부터 연구와 사업이 시작되었고, 2011년 교육부 정책수립, 2015년 「진로교육법」 수립이 이어지며 현재에 이르렀다(김민경 외, 2023). 2022 개정 교육과정 ‘진로와 직업’ 교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VII-2. 2022 개정 교육과정 ‘진로와 직업’ 교과목표

교과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진로와 직업’은 삶과 진로, 직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특성과 성장 가능성, 도전의 기회를 발견하며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이끌어 나가는 진로 개발 역량 을 함양한다.	‘진로와 직업’은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나의 이해, 급변하는 직업 세계의 이해, 심층적인 진로 탐색을 바탕으로 잠정적인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교 안팎의 구체적인 진로 정보를 활용하여 진로 설계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낼 수 있는 진로 개발 역량 을 함양한다.

* 출처: 교육부(2022a), 2022 개정 교육과정-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
교육부(2022b), 2022 개정 교육과정-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진로교육법」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었던 ‘진로개발역량’이 바로 진로와 직업의 교과 목표로 서술되어 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이해, 우리 사회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 정보를 활용하는 등 자기 주도적인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FGI를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점차 청소년의 진로발달,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한 논의 역시 변화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가 비행이나 일탈에 따른 것으로 보는 인식이 많아 이들의 빠른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에 초점이 있었다면 점차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사유는 매우 다양해졌고, 각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관련 상황에 따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이후 바로 진로를 결정하거나 취업 및 자립준비를 하도록 돕기보다는 먼저 본질적인 청소년기 진로지원의 방향성, 그 중에서도 ‘진로개발역량’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도 이처럼 자기 자신과 사회, 직업 세계, 직업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갈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 이것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평생을 살며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직업 재탐색과 진로 변경을 대처하게 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진로교육은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과 연계나 교과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그들의 상황과 특성, 수요에 맞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운영될 때 비로소 학생과 동등한 수준의 진로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오히려 현재의 운영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종사자 설문 결과(VI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주요 진로지원 사업은 성평등가족부의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이었다(사업 상세 내용은 III장 참조). 이 사업에서 진로상담 및 탐색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진로·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가칭)으로 개정하여 ‘진로지원’을 더욱 강조하면서 직업개발역량의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일례로, 이 사업은 1단계로서 진로상담 및 적성검사를 최소 1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확대하고, 전문 진로상담사와 기관을 연계하여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각 단계 마무리에서 자신이 이룬 성취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마지막으로 향후 진로설계를 기획하는 단계를 추가하는 등의 활동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직업 체험과 관련해서도 직업의 사회적 기여 부분, 자격조건 및 보수 등 상세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면 직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와 유사한 지원을 실시하더라도 이를 설계하는 정책 담당자와 현장 실무자의 관점이 현재의 직업, 학업 결정과 그 준비에 있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차원의 미래 준비로 옮겨진다면 지원 방식의 변주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관련부처	성평등가족부	추진일정	중장기(3~5년)
기대효과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통한 장기적 관점의 진로설계 지원		

1-1-②. 진로지원을 위한 연계·협력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진로지원 방안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청소년의 진로 사례 관리, 이력(포트폴리오) 관리를 맡고 유관 기관과 협력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골자이다.** 따라서 아래 제시한 그림과 같이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가 중심에 위치하며 유관 기관과 협력하는 구조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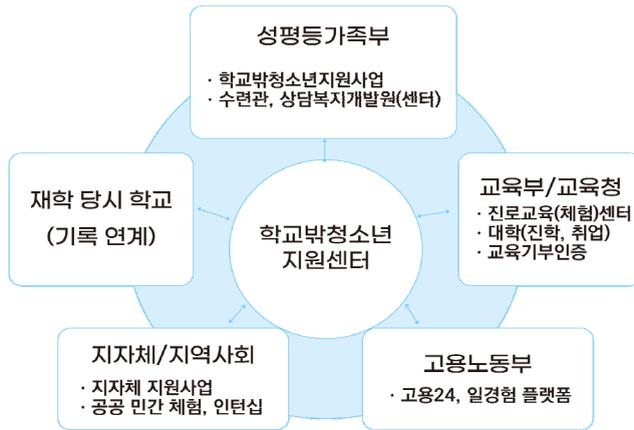


그림 VII-3.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망(예시)

위의 예시에는 본 연구를 통하여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주요 기관과 부문을 연계협력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구성 요소를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중심에 있고,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정책(또는 관련이 깊은 정책)을 주관하고 집행하는 성평등가족부, 교육부와 교육청, 고용노동부가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성평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일환이나, 성평등가족부 소관 타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분리, 표현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로부터 진로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며, 「진로교육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바 지자체와 지역사회도 연계와 협력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재학 당시 학교도 연계 대상이다. 여기서 센터와 학교의 연계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서 진로지원을 받았을 당시의 진로상담, 진로적성검사 결과지, 희망 진로-직업 등에 대한 기록 연계를 의미한다.

한편,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서는 법률 등 제도적 바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진로교육법」에서도 찾을 수 있고,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학업 중단 학생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교육상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보다 직접적인 연계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협력적 업무 추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상세한 내용은 II-3-②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원활한 연계협력을 위해 협의체계가 긴밀하게 기능해야 한다. 즉, 지역단위 협의체에서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를 통하여 발생한 새로운 안건들은 다시 중앙정부와 시도 및 시도교육청이 함께 모이는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부처 간 협의체, 합동회의 등에서도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지역 단위 협의체가 없는 지역에서는 설치를 제안하며,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실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일례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및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지원' 협약을 맺었고(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23.2.16.), 전라북도교육청과 도청, 시군청 합동 워크숍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하여 협력하고 있다(전라북도교육청 보도자료, 2023.6.22.). 이처럼 지자체와 교육청, 센터가 지역 단위에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각각의 정책 및 사업과 이행 현황의 공유,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 수요와 사업화 논의를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지역 진로교육(체험)센터 실무자 협의 분과도 별도 설치하여 개별 청소년 사례 중심의 구체적인 연계·협력 지원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표 VII-3.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 구축 예시(요약)

내 용	
협의 주체	지자체(사도청, 시군구청), 교육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역진로교육(체험)지원센터 ※ 실무자 단위 실무분과 설치
주요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및 사업 내용과 이행 현황 공유 •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 수요와 사업화 논의 • (중앙정부) 발생한 신규 안건들은 전달체계를 통해 부처 간 논의로 발전 • (실무분과) 청소년 사례 중심 구체적 연계협력 지원 방안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진로교육법」 • (신설 제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계·협력적 업무 추진'
관련부처	성평등가족부, 교육부/교육청,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추진일정	중장기(3~5년)
기대효과	다체계 연계를 통한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강화

1-1-③. 진로지원을 위한 부문별 역할 강화

먼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⁷⁶⁾는 진로 포트폴리오 지원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진로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하지만, 진로지원의 전문성 강화와 센터 인력 및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활발한 연계지원 중심의 재편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성평등가족부는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과 자립취업지원서비스와 같은 직접적 지원 정책을 포함하여,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 확대하는 등으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교육부/시도교육청은 진로교육지원센터(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진학정보센터 등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더 많은 지원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대학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박람회, 입시컨설팅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사업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인지 비율과 활용 비율은 모두 높았지만, 일경험지원, 도전지원사업 등 다른 사업의 참여도는 높지 않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또는 성평등가족부)와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수혜자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지자체와 지역사회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진로 개발을 위한 참여 수당, 진로 체험, 진학 지원 등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작업장과 직업 체험과 훈련,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직접 발굴한 자원과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발굴 및 관리하는 교육기부 인증기관을 활용하고 있었다. 지역에서의 센터 간 협업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역마다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그로 인한 한계도 존재하지만, 사례에서처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협업, 활발한 제안과 사업화로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록의 연계라는 차원에서 재학 당시 학교를 연계 대상에 포함하였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학교 연계 사례로 현직 학교 교사가 진학상담을 실시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확산 및 정례화에 한계가 있고, 학교의 진로교육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획되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학교 밖 청소년 본인을 통한 진로적성검사 결과 등 기록의 연계는 실현 가능성이 높고, 학교안팎에서 중복 검사를

76) 이와 관련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할에 관한 제언은 II-1-①에서 상술함.

실시하지 않으니 사업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11개 지역 교육청에서 자체 교수 학습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예, 충북교육청 다채움), 이러한 플랫폼을 통한 각종 진로, 심리검사가 운영되면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ID로 접속하여 학생 당시 만든 기록을 공유할 수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분야의 연계와 협력은 진로지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에게 보다 실질적인 동기부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연구에서도 확인하였듯이 각 기관이 고유 운영 목적과 내용에 맞추어 인력 및 예산 구조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계 기관의 동반성장이 가능해야 지속 가능한 연계협력의 될 수 있다.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1) 중복 내용의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이관하여 역할 차별화를 통해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2) 체험풀, 인력풀의 공유, 장소 공유로 각 기관에서 자원 발굴에 들이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3) 성과를 공유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동의 사업을 기획하여 운영한 후에는 참여율, 이수율, 만족도 등을 함께 측정하여 협력 성과로 보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각 기관의 성과로 평가된다면 자원 자체가 확대되는, 이로 인하여 진로지원 분야 사업이 확대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VII-4.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부문별 역할 예시

	부문별 역할	추진전략
성평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자립취업지원서비스에 진로개발 역량 프로그램 요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 사업은 전문성을 기준으로 역할 차별화→ 효율적인 자원 활용 체험기관 및 전문 인력 풀 공유를 통한 자원 발굴 시간과 에너지 축소 참여 기관 성과 공유(협력 성과로 보고)
교육부/시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지원센터(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진학정보 센터 등과의 연계 대학 협력을 통한 입시박람회, 입시컨설팅 운영 (재학 당시 학교)진로 관련 기록 연계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대상지에 학교 밖 청소년 명시 등으로 국민취업지원 제도 외 사업에 대한 참여율 제고 	
지자체/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지원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사업 수행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작업장,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관련부처	성평등가족부, 교육부/교육청,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추진일정	중단기(1~3년)
기대효과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전문성 및 실효성 강화		

1-2. 복합적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본 연구에서는 현장과 학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국가적 진로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진로 위기 상태로 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청소년 각자의 개인적·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진로지원 자체를 수혜받기 어려운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장 실무자들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크거나 가정폭력, 해체 등을 경험하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본격적인 진로지원을 시작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기 요인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국가적 차원의 진로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합적인 진로 위기 청소년으로 표현하였으며, 본 정책과제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언과 진로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과의 연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①. 복합적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접근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결과(IV장)를 보면 진로 미결정미준비 청소년에서 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고 부모가 방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요인들이 원인이 되어 진로지원이 필요한 진로 위기 상태의 청소년이 되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진로지원을 받기 어렵게 하는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현장 전문가 FGI 결과에 따르면 본인의 개인적 특성과 가정 및 환경적 특성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진로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심리적 문제가 심각한 경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해야하는 경우, 가정 해체 등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 등이 있었다.

진로 위기 청소년에게 국가적 진로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 청소년들에게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복합적 지원이 반드시 순차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심리문제를 가진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반드시 심리치료가 종료된 후에 진로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진로 체험을 통해 발현된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가 미래의 삶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인터뷰(V장)에서도 각각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가지고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청소년들이 센터를 통한 인턴십 경험을 통하여 진로를 구체화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주간 정규 프로그램 참여는 어려울 수 있지만, 스스로 직업 체험과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을 진로지원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자신의 적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일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는 인터뷰 사례자도 있었다.

실행의 국면에서 볼 때, 복합적인 위기를 가지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정규 진로지원 프로그램에는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제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이 해소되고 난 후에야 진로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상황과 특성을 바탕으로 여러 지원 방안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평가제도와도 연동되어 보다 1) **유연한 형태의 지원이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개별 사업들의 수행 매뉴얼에서도 단계적, 순차적 지원에 대한 2) **현장 자율성이 제고**되는 등의 제도적 변화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로지원과 마찬가지로 심리문제나 가정환경적 문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만의 노력으로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기관과의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청소년안전망과의 협력적 사례 관리와 연계 지원은 다음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부처	성평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추진일정	중단기(1~3년)
기대효과	복합적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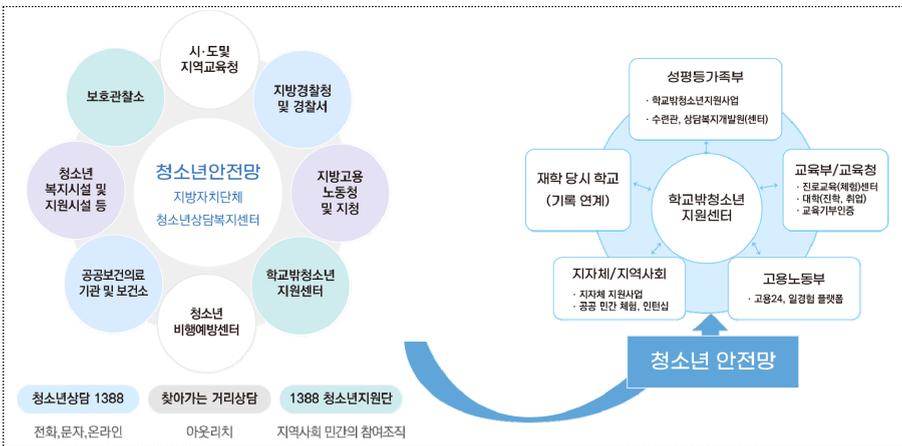
1-2-②. 청소년안전망과의 연계 및 협력

복합적인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안전망(청소년통합지원체계)과의 긴밀한 연계, 협력이 매우 필수적이다. 청소년안전망은 위기청소년의 발견과 구조 및 상담, 보호, 교육, 의료, 자립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개별 상황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로 현재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3.28).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및 부모와 가족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쉼터 등 필요에 따른 심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시 청소년안전망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온라인 '청소년안전망 시스템'을 통하여 사례를 등록 및 공유할 수 있으며, 사례별 수혜 지원과 사례 관리

회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은 이 시스템의 사례 등록을 거쳐 사례번호를 부여받기 때문에 온라인 관리가 가능하며, 안전망 내 타 기관 지원 현황도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청소년이 진로 외에도 복합적 위기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결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다.

이후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심라정서 또는 주거, 경제적 지원 등을 받는 현황을 시스템으로 공유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중심의 진로지원이 함께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안전망 내 기관이지만, 한편으로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주도하는 진로지원의 체계와 청소년안전망이 사례를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으므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복합적인 어려움과 위기를 동반하는 청소년의 진로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협력하는 운영을 제안하는 것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성평등가족부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연계와 협력 경험이 있어 지역에서의 연계 토대는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과 연계협력 여건을 활용하여 복합적 위기를 가진 청소년에게도 진로지원이 후순위가 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왼쪽 그림) 출처: 여성가족부(2025a). 2024 청소년백서. p.226

그림 Ⅷ-4. 복합적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연계 예시

관련부처	범부처(청소년 안전망과 진로지원 연계망 기관)	추진일정	장기(5~10년)
기대효과	학교 밖 청소년 복지 및 진로지원에 대한 촘촘한 국가적 지원 실현		

II. 정책적·제도적 환경의 개선 방안

II-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진로 전문성 강화

본 연구의 면접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의 자격증 취득, 직업체험 활동과 인턴십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면접조사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FGI 등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진로 체험과 탐색, 전문적인 진로 준비 등에 대한 아쉬움도 파악되었다. 이들 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은 많았고 진로 계획에 대한 편차가 컸으며, 실제 이들이 각자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및 지원 정도와 활용 가능성에 따라 진로 준비와 그 성과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준비가 개인적인 지원 및 자원 동원에 좌우되지 않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의 또 다른 많은 역할과 소규모 인력 운영 등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들과의 역할 분담과 진로지원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연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를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에 있어서의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II-1-①. 진로사례관리 및 연계 허브 역할 강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심리·정서적 지원과 검정고시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24b). 아울러,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기초기술훈련, 직장체험(인턴십), 전문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연계 등을 지원하는데(여성가족부, 2024b),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에서도 이를 통한 직업체험과 인턴십 기회 등에 대한 긍정 평가들이 있었다. 한편으로, 청소년 면접조사와 전문가 FGI 등에서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심층적인 자기 이해 및 진로 탐색을 포함한 충분한 진로 준비 시간을 갖지 못하고 급히 직업·자립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심리·정서적 문제와 무기력 등을 경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례도 있었고, 처음부터 목표로 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 입시 준비에 매진하거나 가족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취·창업에 뛰어드는 사례도 있었다. 일단 자립을 위해 취업을 고려하지만, 대학

진학을 같이 고민하기도 하며, 대학은 어떠한 전공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였다.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비정형의 삶의 경로에 접어들면서 이제 자신의 진로를 본격적으로 탐색해야 하지만 다양한 상황을 겪으며 관심사가 바뀌기도 해서 진로 계획을 빈번히 변경하기도 했다.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결과에서 진로결정 여부는 심리·정서적 측면과 진로준비 등에 관련성을 보였지만, 한편 면접조사 결과에서는 진로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막연히 대학 진학을 희망하거나 취·창업을 고려하는 사례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또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진로 관련 활동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단기간이거나 단발성이 대부분으로 이렇게 일회성의 분절적인 활동들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 등에 있어 유의미한 경험으로 남기 힘들다. 또한, 외부 기관 연계를 통해 진로 활동을 했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경험을 했으며 궁극적으로 진로계획과 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미지수인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생애진로발달의 측면에서, 또 진로에 초점을 둔 사례관리를 수행하고(가칭, 진로사례관리)** 이러한 차원에서 **학교를 그만둔 이후 청소년이 어떠한 진로관련 경험을 하였는지를 상세히 기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FGI에 참여한 전문가 역시 사례관리에서 진로지원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진로에 초점을 둔 사례관리, 또는 사례관리 내에서의 진로지원에 집중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사례관리의 일반적인 과정과 절차를 적용하되(접수→사정→목표 설정→개입→점검→종결→사후관리와 재개입 등, 김성천 외, 2022; 노혜련, 김윤주, 2023), 그 내용은 진로지원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즉 가능하다면 재학 시의 경험까지를 아우른 일련의 진로관련 경험들에 대한 개인별 포트폴리오 작성을 포함하며, 또한 진로 관련 상담과 진로적성검사 결과, 진로체험활동, 연계 기관 및 내용, 진로 멘토, 전문가의 진로 컨설팅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진로에 초점을 둔 사례관리 과정에서 이러한 진로관련 활동 기록이 유지, 누적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이후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데 더욱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준비된 포트폴리오는 대학 입시에서 청소년생활기록부 작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개인별 진로초점 사례관리와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을 지원하게 되며, **진로지원을 위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 시에 허브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적절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연계 진로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들은 이러한 활동 내용과 기여도 등에 대해 주도면밀히 기록하고 아울러 각 기관의 성과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선 등 제반 여건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지자체와 유관 부처에서의 학생 대상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대한 실적 인정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부처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추진일정	중기(2~3년)
기대효과	진로사례관리와 연계 허브역할 등을 통한 진로지원의 효과성 담보		

II-1-②. 진로지원 편차 축소를 위한 표준 서비스 보장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결과, 청소년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개인적 자원 정도와 활용 가능성에 따라 이들의 진로 계획과 준비 활동은 크게 좌우되었으며, 관련된 여러 차원의 어려움은 청소년과 그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과업이었다. 또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FGI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이 제공받는 진로지원의 다양성과 전문성 정도는 이용 기관의 센터장 및 실무자의 개인 역량과 사적 관계망, 지원에 대한 책무성 인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이 어느 지역의 어떤 지원기관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제공받는 진로지원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짓는 결과를 보였다. 일례로, 특정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은 시도교육청의 진로·진학지원단의 퇴직 교사로부터 전문적인 진로·진학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고, 학생들과 유사하게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경험할 수 있었다.

FGI에서도 제안된 바와 같이,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이 제공받는 진로지원 편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전국 단위 진로지원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표준화된 진로지원 서비스에 대한 매뉴얼·지침 개발과 확산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진로발달 지원을 위한 기본 및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내 협력 가능한 공공 및 민간의 진로지원체계 자원 목록과 정보, 장기적인 진로지원 계획 수립 및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 방법, 외부 체계와의 연계 및 협업 방법, 실적 산정 및 평가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표준화된 진로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활용 및 확대에 대해서는 다음 정책과제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무엇보다, 이미 제안한 것처럼 사전 중앙부처, 지자체 단위에서의 진로지원 연계를 위한 동원 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정책, 지침 등을 통한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동등한 수준의 진로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같은 학교 밖 청소년인 상황에서도 개인, 가정, 환경에 따른 지원에서의 격차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한 기본 토대로서 진로지원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마다 지자체 및 기관장 리더십의 관심과 노력, 또 인적, 물적 자원의 유무 및 동원력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현장의 노력이 기관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근 청소년기관 뿐 아니라 학생 대비 소규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진로지원 기관들의 실적 산정 등에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진로지원 연계망 구축, 관련 협의체 기구 마련 등에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주요 사안이기도 하다.

관련부처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추진일정	중기(2~3년)
기대효과	표준화를 통한 진로지원의 다양성과 전문성 균등 보장		

II-1-③. 진로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활용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해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해당 사업 담당자를 별도로 선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 및 현장 전문가 FGI 결과와 해당 인력 채용공고에서 살펴본 결과, 진로 관련 전문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청소년 관련 분야 전공자와 유경험자를 기간제 계약직 형태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는 현장 지원에 꼭 필요한 요소로, 면접조사와 FGI 등의 실증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전문적이며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접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막연히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희망하기도 했는데, 이는 청소년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해 진로 적성을 탐색하고 장기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대학 진학이 목표인 청소년의 경우는 대입 지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는데, 진학과 관련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필요로 한 것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대학생 멘토링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단발성의 비전문적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전문성과 지속성이 강화된 진로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당장의 전문 인력 활용을 위해 **시도교육청 진로교육원의 진로·진학을 지원하는 파견 교사 또는 퇴직 교사와 같은 전문 인력풀 활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대학생 멘토링에 만족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문적인 진로지원을 필요로 했다. FGI에 참여한 한 현장 전문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시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을 통한 요청이 있을 때 장학사 승인하에 파견 지원하거나, 직접적으로 요청이 올 경우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개별적 차원의 지원은 개인적인 요청과 해당 기관 및 담당자 결정에 좌우될 수 있으며, 더 복잡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성평등가족부-교육부, 지자체-시도교육청 등 사이의 연계 제도화를 통해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생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진로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진로교육법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학교안팎을 가려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을 탈피해야 할 당위성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이러한 전문가 활용을 위해 양 체계에서 모두 적절한 예산이 사전에 배분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퇴직 직업상담사와의 연계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지자체-고용센터 간의 사전 협력관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단계로, **시도와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현장 실무자와 담당자 대상의 진로지원 역량 개발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현장실무자 조사와 전문가FGI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시되었는데, 이 실무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대면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깊은 만큼 이들의 진로지원 역량이 증진된다면 가장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인력의 한계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 모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어려우나, 점차 진로사업 담당 인력을 중심으로 전문 기관과 전문가를 통한 교육 및 연수, 전문 워크숍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수 및 전문 워크숍을 위해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공동 개최를 시도함으로써(이후 정례화) 역량 개발뿐 아니라 더 다양한 협업의 기회를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청소년 맞춤형 지원의 어려움, 증가하고 있는 부모들의 지나친 관여나 요구 등에 따른 부담과 소진 이슈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진로지원담당관을 배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토대로 전문적인 진로지원(연계 지원을 포함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역시 전문가 FGI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즉, 현재와 같은 기간제 자립취업지원서비스 업무 담당자 배치가 아닌 학교 밖 청소년과 진로지원의 양 측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진로지원담당관을 시도센터에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 밖 청소년과 진로발달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원과 자원까지 연계·활용하여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원하고, 또 전문적인 컨설팅과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관련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 자원이 부족한 시군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실무자가 개별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지원과 자원 연계를 위해 노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 차원에서 전체 진로지원과 자원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쌓인 진로담당관과 같은 전문가가 해당 시군구 센터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진로지원을 제공하고 연계를 통해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면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진로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활용에 대해 전체적인 추진 기간별 내용과 방안을 정리하면 [그림 VII-5]와 같다.

구분	내용	추진방안
단기	진로진학지원단의 컨설턴트(퇴직 진로 교사, 직업상담사 등) 전문인력활용	성평등가족부-교육부, 지자체-시도교육청 연계 협의,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지자체-노동 센터 연계 협의
중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력 대상 진로 지원 역량 개발을 통한 전문성 강화	진로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 통한 교육 및 연수,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워크숍 개최/정례화
장기	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에 진로지원 담당관 배치	시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대상 전문적인 진로 지원, 자원 연계, 전문 컨설팅 및 슈퍼비전 제공

그림 VII-5. 진로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활용 및 확대 방안

관련부처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추진일정	단기~중장기(1~5년)
기대효과	다양한 정책요구를 가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진로지원 제공		

II-2.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정책 개선 방안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 인터뷰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에서 정책 수요가 높았던 참여 수당에 대하여 그 의미와 효과성, 사례 등을 검토하여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로지원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고,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개방되어야 하는 또는 확대될 수 있는 정책들의 개방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과제1’에서 제안한 연계협력 방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방향성이었다면 여기에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중단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II-2-①. 진로지원 활성화 및 수요 다양화에 대응하는 참여 수당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 서비스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진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참여 수당 확대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의견 수렴과 자료를 분석한 여러 분야에서 수당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먼저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진로지원 수요 분석을 실시한 결과(IV장)에서는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집단과 반대로 미결정미준비 상태의 집단이 동시에 ‘직업훈련참여,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수당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하였다.

응답 사유는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V장)를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었는데, 먼저 진로결정준비 청소년의 경우는 구체적인 진로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학교 밖 센터를 통한 포괄적 탐색이나 체험보다는 자기주도적 진로 준비를 지속하길 원하였다. 이 경우 이를 위한 수업료, 레슨비 등의 지원을 가장 원하는 정책으로 답하였다. 반면 미결정미준비 청소년의 경우는 진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 없거나, 진로 준비나 결정은 아직 본인과 먼 얘기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지원 방안보다는 참여 수당이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의 기회가 없었던 경우도 수당 지급 사업을 가장 선호하였다.

그렇다면 진로 미결정미준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당 성격의 지원은 효과를 내기 어려울까? 이에 대하여 오히려 진로 개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참여 수당이 실제 프로그램 참여율을 제고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강명숙 외, 2019) 집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 지원기관 접근성을 높이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김희진 외, 2023a).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VI장)에서도 진로지원 정책 연계이행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

체험처 발굴이나 협력 부분이 아닌 ‘청소년의 동기 부족’을 들고 있었으며, 2순위 응답도 ‘청소년의 중도탈락 및 지속 참여의 어려움’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러 지자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참여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해왔다. 25년도 9월을 기준으로 18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수당 지급 성격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실시 목적은 크게 참여 및 활동 활성화(고립은둔의 예방 및 해소 포함), 학업의 시작 및 지속 장려, 저소득층 및 포괄적 경제적 지원 등이었다. 이 가운데서는 참여와 활동을 위한 수당 지급 사업이 가장 많았다.

표 Ⅷ-5. 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원 사업

목 적	내 용	지 역	비 고
참여 및 활동 활성화	문화, 체육, 진로개발을 위한 비용(지역화폐, 포인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진안, 여수, 군산, 강동구성동구 	이용 여부, 출석률 등 별도 조건이 있기도 함
학업(지속) 장려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또는 정규학교대안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천, 부산 동구북구 	
경제적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 및 포괄적 교통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지원) 해운대구, 울주군 (교통비) 울산시, 전북 	교통비 지원은 소득 기준 없음
기타	일정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및 학생에 대한 포괄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축하금)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은 연령 도달 시 지급

* 출처: 복지로 누리집. '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 복지서비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2025.9.29. 인출

지원사업 참여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당은 현금인 경우도 있었으나, 지역화폐나 해당 기관 및 사업장에서만 쓸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충전 카드 등의 형태가 많았다. 이를 통하여 최소한의 사용처 제한을 두고, 여기에 추가로 분기별 센터 이용 조건, 프로그램 참여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수당 신청과 지급 등의 절차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밖 청소년들은 수당을 받기 위하여 센터에 찾아와야 하고, 이 때 사례 발굴과 상담, 지원사업 참여로 연결될 접점이 생기게 된다.

한편, 수당 성격의 지원사업 가운데 목적이 다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 차별적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학생에게 지급하는 입학축하금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일정 연령 도달 시 지급하거나, 소액의 교통비 지원 등은 사업 효과성

분석을 바탕으로 유지 및 수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다. 이를 통하여 **지자체에서는 참여 확대나 학업 독려와 같은 목적성과 효과성이 명확한 사업으로 수정하여 이행**할 수 있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참여수당 및 교육비 지원 등의 **지원이 없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부처	지자체	추진일정	중단기(1~3년)
기대효과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사업 참여 유도 및 활성화		

II-2-②. 학교안팎 구분을 벗어난 다체계 진로지원 서비스 개방

본 연구에서는 유관 중앙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각 부처의 주요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에 대하여 도출한 시사점과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자립취업지원서비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의 자립 지원’과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인증)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 사업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여러 차원의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일부 프로그램은 구조적으로 참여가 제한되었다. 예를 들어, 학교단체숙박형을 포함한 학교(학년) 단위 프로그램은 학교가 신청해야 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가 어렵다. 그렇다 보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들의 해당 사업 인지비율과 활용 비율이 다른 성평등가족부 사업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개별 청소년 혹은 센터 대상 프로그램 안내가 필요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센터 단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구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교육부의 사업 중에서는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통한 진로체험, 진로교육지원센터 및 진로체험지원센터⁷⁷⁾의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이 가능하였다. 교육부에서는 특히,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진로취약대상자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진로교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77) 교육부의 진로지원 정책의 주요 기관으로 본 절에서는 교육부 정책으로 소개하였으나, 지자체 협력 운영 또는 지자체가 관리운영 주체(민간 및 공공위탁)인 곳 등 운영 형태는 다양할 수 있음

그렇지만 실제 사업은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 밖 청소년 참여에는 한계가 있었다. 진로교육지원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한 종사자 인지비율은 비교적 높았지만(76.9%), 활용비율은 인지한 사람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진로캠프’는 특정 지역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은 학교 단위 신청을 받고 있었다. **실제 운영은 학교 또는 학년 규모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신청은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을 전제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참여가 제한되고 있었다. 언급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신청 제한 완화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는 가장 많은 유관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고용24 플랫폼, 미래내일 일경험 통합플랫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한 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종합직업체험관 운영 등이 그것이다. 센터 종사자 대상 설문에서도 취업 및 직업을 원하는 청소년들에 대하여서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과 활발히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5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이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언급되지 않아서, 신청자격에는 실제 제한이 없었으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일정 기간 내 다른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도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진로 및 직업 관련 지원이 아니더라도 이 조건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에 구직단념자 외에,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청년 등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 개인에게도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고, 중복 지원으로 인한 참여 제한도 완화**될 수 있다. 또한 ‘커리어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은 2023년 운영 당시 학교 밖 청소년의 호응이 높았는데,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종류의 학교 밖 청소년과 직접적인 접점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기를 제안한다.

관련부처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추진일정	중단기(1~3년)
기대효과	중앙정부 진로지원 사업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참여 확대		

II-3.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법 개선 방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로 시행 10주년이 되었다. FGI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은 법률이 과거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에 맞춰 경제적 자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현재의 청소년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진로개발역량을 제안하였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를 제안한다. 또한 기관별 고유 목적과 역할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부문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서는 이를 위한 근거 조항을 포함하여 과업이 분명히 명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법률에서는 학교밖청소년센터의 기능으로 ‘연계’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 대상이나 방법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진로지원 분야에 초점을 두고, 연계협력의 근거가 되는 시행 규칙 조항 신설 방안도 제안한다.

II-3-①. ‘진로개발역량’을 포함하는 법률 조항의 개정

‘진로개발역량’은 「진로교육법」의 정의에 따르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서 끊임없이 진로를 개발하고 발전시켜갈 수 있는 역량이다. 유동적 사회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특성을 조직하고, 직업행동의 방향성을 설정하며, 스스로 그 과정과 결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진로구성이론(Savickas, 2020)과도 일맥상통하는 관점이다. 따라서 나 자신과 우리 사회, 직업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잦은 직업 변화를 준비하기 위하여 청소년 시기에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신과 사회, 직업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진로로 인한 어려움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로교육법」에서 법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규정하는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서부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실현’,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 등의 표현이 곳곳에 나오는 것과 달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으로 단 한 곳에서만 진로개발역량의 의미를 담은 표현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로개발역량’의 개발 관점의 표현이나 내용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진로지원에 관한 큰 방향성 규정에 관한 내용인 만큼 시행령 및 시행규칙보다 법률 자체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진로교육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담고 있는 진로개발역량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VII-6. 「진로교육법」 내 ‘진로개발역량’ 관련 표현 및 내용

법률	조항	표현/내용
「진로교육법」	제1조(목적)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
	제2조(정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후략…)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5.1.23. 인출 및 내용 확인.

현재 법령에서 가장 관련이 높은 조항은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이고, 두 가지 개정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진로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관점에서 제10조의 조 제목(조문표제)을 ‘진로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즉, 제10조(진로지원)이다. 또한 조항의 내용도 현재 ‘직업소개’나 ‘직업훈련’ 중심에서 ‘소질과 적성의 탐색’, ‘직업 이해’ 등 청소년기에 필요한 진로개발역량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 및 직업지원의 방향성을 법률 자체에서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된다.

두 번째 개정안은 조문 내용에 진로개발역량 함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의 조 제목과 내용은 유지하면서 1항의 1호로 진로지원과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다. 표현은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자신과 직업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진로를 탐색·조정하는 능력’으로서 「진로교육법」의 진로개발역량을 풀어 표현하였고, 이를 함양하는 교육 또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명시한 것이다. 또한 다른 기존 ‘호’보다 앞서 배치함으로써 방향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보다 다양해진 진로 수요(학업중단 직후 취업 외)와 핵심이 되는 역량의 개발, 변화된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를 위한 방향성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I-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정안

법률	현 조항	개정 조항(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후략)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과 직업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진로를 탐색·조정하는 능력의 함양 교육 및 프로그램 2.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3.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4. 직업소개 및 관리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 출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5.9.11. 인출 및 내용 확인.

관련부처	성평등가족부, 국회	추진일정	증장기(3~5년)
기대효과	학교 밖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근거 조항 마련		

II-3-②. 진로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률 조항 신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령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따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상담·교육·지원을 포함하여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부터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홍보,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사회적 인식개선, 그 밖에 필요 사업 운영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는 심리상담사, 진로진학상담사, 프로그램 교사, 활동 지도자를 포함하여 지역 자원 발굴과 연계 허브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물론 법령에서 이 같은 다양한 역할을 의무 조항으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두고, 센터도 이를 ‘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센터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근거 조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실행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상 다른 지원 플랫폼이 있지 않다 보니 법령에 적혀있는 모든 영역의 사업이 실제로 센터의 업무와 기대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진로분야 지원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전문성을 갖춘 타 기관과의 연계

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센터에서도 점진적으로 인력 확보와 함께 진로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센터의 규모를 확장하는 것에는 어느 지점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유사한 공공분야 지원 플랫폼들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할 때, 활발한 연계협력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청소년의 진로 수요를 대응하는 것이 적합하다. 예를 들어 「진로교육법」에 근거를 둔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 등이다 (정지은 외, 2024).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계 지원을 위하여 제12조 2항의 2호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법령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연계에 대한 법적 근거는 확보된 것이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새로운 진로·직업 체험처의 발굴과 인력 부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연계 지원에 대해서는 센터마다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법령 이행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통하여 모든 센터가 연계 지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VII-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개정안

법 률	개정 조항(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p>제5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의 지원은 직업체험·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참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진로·직업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의 과정은 훈련대상자의 특성, 취업·직무수행의 용이성 및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여건 및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 출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5.9.11. 인출 및 내용 확인.

제안 내용은 시행규칙 제5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에서 지원의 방법을 명시한 ①항에 이어, 이러한 지원을 시행할 때, 타 부처 및 산하 진로직업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②항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의 ②, ③항은 각각 ③항과 ④항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하여 진로지원에 있어 부처 및 산하 지역 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혹은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할 수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센터의 기능으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처 및 기관과 연계할 것인지 등을 담은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센터에서 수행하는 다른 지원사업까지 포괄하여 연계협력의 근거 조항으로 기능할 수 있다. 즉, 제5조에 항을 추가한 경우는 진로 및 직업지원에 국한되지만, 법률 제12조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는 새로운 조항 자체를 시행규칙에 신설하면 학업 및 심리 지원 등의 다른 영역에서도 연계협력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현장 전문가 FGI에 참여했던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진로체험지원센터 종사자 모두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원을 활용하여 일부 지원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로서 진로지원센터의 역할을 규명하였거나, 교육청 등의 과업지시를 통하여 학생을 넘어 학교 밖 청소년에게까지 지원하도록 명시된 문서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확대가 센터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즉, 공공부문 사업 운영은 특히 근거 확보가 중요한바 시행규칙 개정을 제안하며, 위의 사례처럼 지자체 조례나 과업지시 문서를 활용하는 방안도 병용가능하다.

관련부처	성평등가족부	추진일정	중단기(1~3년)
기대효과	진로지원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 활성화 근거 조항 마련		

Ⅲ. 실천적 관점의 현장 적용 방안

Ⅲ-1. 심리·정서·사회·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진로지원

본 연구에서 진로 발달 및 준비 등에 있어 더 어려움이 많은 학교 밖 청소년에 주목한 이유는 이들이 과거보다 더 다양한 집단이 되면서 개인 및 가정·환경적 특성에 따라 진로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유·무형의 기회와 자원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와 현장 실무자 조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FGI 등을 통해 수집, 분석된 실증자료들은 이를 방증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학교 밖 청소년 중 개인적으로 심리·정서·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사례와 가정을 포함한 환경 체계의 취약성이 학교 밖 청소년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부합하는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었고, 가정의 지지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은 혼자서 이 과정을 헤쳐 나가야 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리·정서·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실천 방안 마련과 취약 환경·상황의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 여건을 고려한 지원을 제시하였다.

Ⅲ-1-①. 심리·정서·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실천 방안 마련

여러 다양한 이유로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지만 특별한 진로 목표를 결정하고 바로 매진하는 사례가 아니라면, 많은 경우에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서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함, 막막함, 두려움 등을 경험한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FGI에서는 이외로도 과거에 비해 고립·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였고, 무기력한 상황에서 동기가 부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지원 현장에서는 개인적인 분명한 목표와 함께 스스로 충분히 동기화되어 있고, 아울러 주변 환경의 지원이 충분한 학교 밖 청소년 사례보다 여러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더 많이 대면하는 것으로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현장에서는 청소년의 일상 회복과 심리·정서적 안정에 노력을 기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심리·정서적 문제와 낮은 참여율로 진로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쉽지 않았다.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진로미결정과 준비 부재 상태와 관련성을 보이면서 낮은 자아존중감 및 무기력 등과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직업역량 강화 등 관련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 참여 청소년의 낮은 동기 수준과 중도 탈락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참여 동기가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사회적 문제는 진로발달 및 준비 등과 관련성을 보이며, 이렇게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경우 분절적인 지원보다 이를 통합한 맞춤형 대책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렇게 진로지원에 바로 진입하기 어려운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심리·정서·사회적 지원과 진로지원을 통합·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요약하면, 심리·정서·사회적 치료 및 회복 지원 → 자기 이해 및 자아정체성 탐색, 동기 제고 → 진로상담 및 관련 검사 등을 통한 진로탐색 및 진로정체성 확립 → 본격 진로·진학 컨설팅과 직업체험 등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 경로 결정 → 청소년의 진로 결정에 따라 전공 선택 및 입시 지원, 또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후자의 경우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자립취업지원서비스 등과 연계). 이는 순차적, 단계적이라기보다 학교 밖 청소년 개인에 따라 순환 구조로 제공될 수도 있다(표 VII-9) 참조).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심리·정서적 회복과 안정을 먼저 유도하면서 자기 이해와 탐색 과정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선제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원을 포함한 심리상담뿐 아니라 진로상담 및 탐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표 VII-9. 심리·정서·진로지원 통합·연계 프로그램 내용 예시

프로그램 내용		연계 지원기관
▷ 심리·정서·사회적 치료 및 회복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심리상담, 치료 기관
▷ 자기 이해 및 자아정체성 탐색, 동기 제고		
▷ 진로상담 및 관련 검사 등을 통한 진로 탐색 및 진로정체성 확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교육원,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 진로·진학 컨설팅과 직업체험 등을 통한 진학 vs. 취업 경로 결정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 ↓ </div>		
▷ 상급학교 진학	▷ 취·창업	
전공 선택 및 대학입시 지원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자립취업지원서비스 등으로 연결	

* 주: 음영 처리 부분은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반복, 순환될 수 있음.

진로 준비에 대한 본격적인 단계부터는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원의 진로·진학 컨설턴트, 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상담사 등의 **전문 인력과 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전체적인 단계는 앞서 제안한 진로초점 사례관리의 일환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통합·연계 프로그램은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되, 심리 정서적 지원 및 자기 이해와 진로정체성 탐색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한다는 점에서, 또 모든 참여자가 직업체험 및 실무 훈련, 취업 및 자립지원 등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도모하고, 기존 직업역량프로그램, 자립취업지원서비스와 차이를 가진다. 실제로 현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과정 중에 청소년의 흥미나 관심이 사라지거나 변질될 경우, 중도탈락 상황이 되면서 이전의 경험이 무용지물이 되어 투입한 시간에 대한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함을 아쉬워했다. 이는 일부 심리적 회복과 진로관련 자기 이해와 성찰, 고민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 초기 단계가 충분치 않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끝으로 고립·은둔과 같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의 경우 온라인 방식 등 다양한 개입 방안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처	성평등가족부	추진일정	중기(2~3년)
기대효과	심리적 개입과 진로지원을 통합, 연계한 맞춤형 지원 제공		

III-1-②. 취약 환경·상황의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 여건을 고려한 지원

본 연구의 전문가 FGI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위기와 관련된 논의에서 이를 개인 차원이 아닌 환경적 요인과 지원·서비스 접근 불균형에 초점을 두어 개입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앞서 논의한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무기력 등의 현상을 초래한 한 원인으로 사회적·환경적 기회 불균등을 조명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환경에 대한 다체계적 평가가 선행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학교로부터의 지원이 부재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부모와 가정의 지원과 지지, 또 가용 자원은 이들의 진로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면접조사에서 부모 등 가족들의 지원 여부와 정도는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준비에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했고, 이들의 진로 준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며 역할모델이 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과 자원 없이 자신의 진로를 혼자 감당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전문가FGI에서도 진로준비가 아닌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형 아르바이트에 집중하는 경우, 또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 등에서 자원이 부족하거나 가정 내 지지체계가 부재한 학교 밖 청소년은 특히 진로설계 및 실질적인 준비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이렇게 가정 환경적 상황이 충분한 진로 준비를 저해하는 복합적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관련 기회 제공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불리한 환경과 가정의 지지, 지원의 부재와 무관심 등으로 아르바이트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단기적인 자격증 취득 등으로만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주도면밀한 주변 환경 평가(assessment)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어서 환경적 이유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희망과 준비를 유예하지 않고 원하는 분야에 도전하고 단계적으로 희망 진로를 준비하여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적인 진로 플랜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담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도록 앞서 제안한 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당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진로 계획 및 준비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사회 내 행정복지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등 다양한 복지 체계와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 과정에 대해 복지 체계는 사례관리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진로초점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처	성평등가족부, 지자체	추진일정	단기(1년)
기대효과	적절하고 다양한 진로 기회 제공을 통해 환경적 제약 극복 지원		

III-2. 진로발달 상황에 기반한 생애 진로 설계 실천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진로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생애 진로발달단계 중 탐색기로 볼 수 있으며, 또 진로정체성과 자기효능감의 정도와 자신의 진로 구성, 진로적응성 등에 따라 현재의 진로발달 상황과 미래사회 대응력 등에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더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다양한 이유와 개인적 상황, 또 환경적 특성이 더해져 다양한 진로발달 상황에 처하게 된다. FGI에 참여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은 단순한 직업 선택과 취업을 위한 지원이 아닌 청소년의 삶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충실한 자기 탐색을 토대로 장기적인 목표 설정에 초점을 두는 지속적인 진로발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 상황 및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개별 접근과 학교 밖 청소년 개별 생애 진로설계 및 진로 구성 지원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III-2-①. 진로발달 상황 및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개별 접근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결과, 빈도수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진로결정 및 준비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했을 때 나타난 집단별 차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 상황이 매우 상이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일례로 그중에서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고 또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집단에서 더 무기력함을 보였고, 건강상태도 나빴으며, 진로준비 활동이나 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소극적인 결과를 보였다. 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심리·정서적 차원의 어려움을 갖거나 고립·은둔 상태이기도 하며, 가정환경 차원에서 매우 취약하여 진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하기 어려운 사례들도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청소년 인터뷰 결과에서는 진로결정과 준비 사이에서도 질적 차이가 존재하여, 진로결정 여부로 명확히 이분화될 수 없다는 사실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획일적인 진로지원이 충분한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시사하며, 결국은 매우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황에서 한편으로 더욱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애써야 하는 현실을 조명하고 있다. 또한 면접조사와 전문가FGI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전히 진로에 대해 막막해하며 일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진로관련 프로그램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여러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다. 대학 진학과 취업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며, 대학 진학의

불확실성을 넘어 일단 결정을 했어도 전공 선택의 관문 앞에 머물러 있기도 했다. 취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단기 성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거나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바리스타와 같은 일부 자격증 취득에 몰려있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나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애초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진로 및 직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재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다양한 진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는 각 청소년의 진로발달 상황을 점검하고 개인의 특성과 환경 체계를 정확히 평가한 후 각 개인에게 부합하는 맞춤형 진로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① 진로 인식과 동기, ② 진로상담을 통한 진로 관련 자기 이해, ③ 진로적성 탐색, ④ 직업세계 이해, ⑤ 합리적 진로결정 및 목표 설정, ⑥ 진로 계획(진로 설계), ⑦ 진로 준비(대학 진학, 직업 교육, 또는 병행하기 위한) 등 각 단계에서의 정도와 수준이 모두 다를 수 있어,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진로발달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개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진로 전문가가 FGI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 과정에는 직업적 가치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에 더해져야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진로결정 여부, 진로준비 수준에 따른 개입을 통해서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며, 이를 위해 계획, 준비,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진로 경로가 바뀌더라도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다시 진로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FGI의 현장 전문가들 역시 개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사례가 많음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별로 출발점이 다름을 전제로 진로발달 및 진로설계를 위한 진로초점 사례관리와 이와 관련된 지원과 자원 연계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선에서 가능하되,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생각, 진로발달 상태와 이후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진로 상담가, 진로·진학 컨설턴트 등과의 상시 협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처	성평등가족부	추진일정	증기(2~3년)
기대효과	학교 밖 청소년 개인 진로발달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지원 제공		

III-2-②. 학교 밖 청소년 생애 진로설계 및 진로지원 실천

FGI에 참여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과거와 다른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주목하였고, 많은 경우 진로를 준비하는 데 더욱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주도면밀하고 충실한 진로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 여러 실증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사유가 매우 다양해지면서 진로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특성, 부모와 가족의 지원 정도가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 상황이었다. 지원 현장에서 대면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더욱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복합적 진로 위기 상태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무기력, 고립·은둔 문제로 프로그램에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 하차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환경적 기회 불균등의 관점에서 보고 진로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현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계를 통한 진로지원이 단발성에 그치거나 다양성에서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이러한 기회 불균등을 보완하기 위한 다체계적 연계가 제도화를 통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FGI에서 강조된 것처럼 이제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이른 진로결정에 따른 조기 취업 및 자립에 더 집중하기보다, **학교 밖 청소년 생애관점에서 진로에 대한 각자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삶의 설계와 실행 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생애 진로역량 개발의 일환으로 현재뿐 아니라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진로적응성 향상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사회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원 방향성 설정은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를 깊이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앞서 진로구성주의 이론과 또 학계 및 현장 전문가FGI에서 언급된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이 현재 학교 밖 생활로의 전환 경험과 미래 직업 사회 변화 등에 잘 적응하도록 준비되지 못한다면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과 이후 건강한 삶을 향유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 변화와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 설계가 적절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진로 전환이나 중도 변경이 잦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로적응성 향상은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에는 일단 대학 진학을 하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자립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들이 많았는데 이는 현재의 진로 결정이 미래를 좌우하기보다 향후 다양한 변동성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앞의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로(미래)에 대한 관심,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통제력, 다양한 진로에 대한 호기심,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한 확신 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진로 성숙도, 진로 준비, 진로적응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진로 준비로써, 진로 계획과 탐색, 결정, 통제력 등과 같은 ‘진로 관련 태도’와 의사결정과 직업세계 등에 대한 ‘지식과 역량’, 진로와 관련한 자신과 환경에 대한 탐색과 적응 등의 ‘진로 행동’을 통한 진로 준비(Marciniak et al., 2022) 역시 성공적인 진로 개발과 미래 사회 적응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이러한 **진로 관련 태도와 지식, 역량, 행동을 갖추기 위해서는 진로분야 전문가와의 연계와 협업이 반드시 요구된다.** 아울러 진로 준비 과정에는 단순히 개인의 진로 목표 설정 및 준비에 매진함과 동시에 **또래 관계 형성과 같은 사회자본, 건강한 청소년기 발달 및 성인기 삶을 위한 문화자본의 축적, 또 품성 및 소양 개발 등과 관련한 활동과 프로그램 제공도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에 있어 또 주목할 부분은 사후관리이다.** 현장 전문가 FGI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후기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진로 연계 프로그램 제공 이후에(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또 취업이나 대학 진학 등의 진로 목표의 단기 성과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이를 위한 인력 및 예산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연계 진로지원의 만족도를 확인하고 추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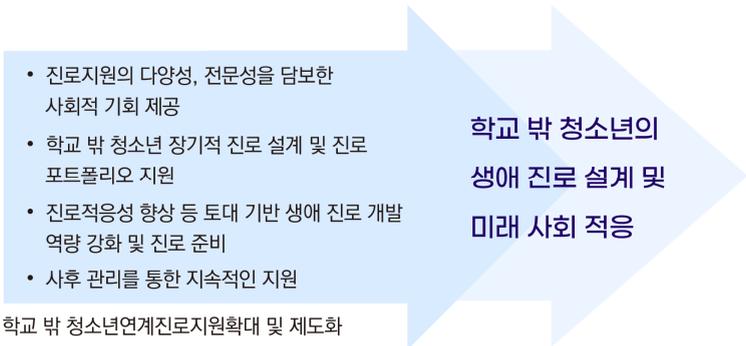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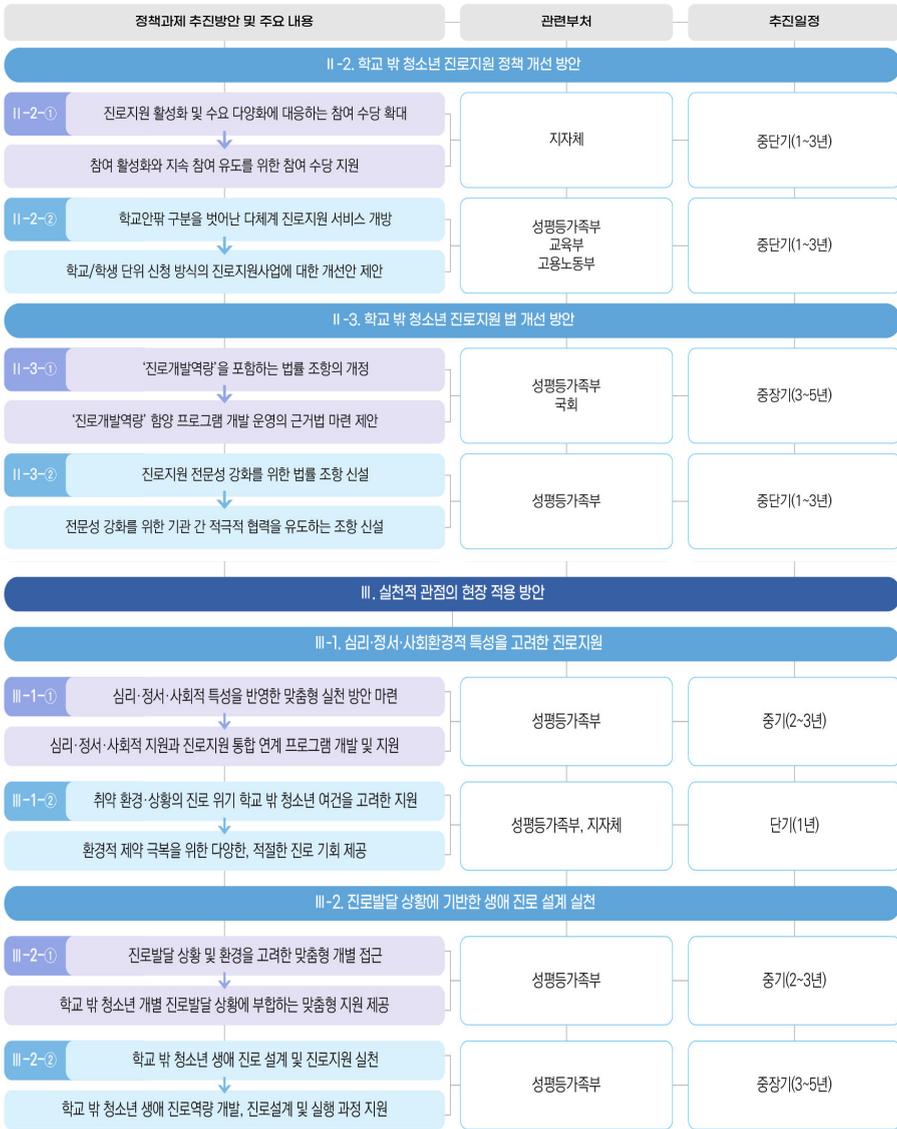


그림 VII-6. 학교 밖 청소년 생애 진로설계 및 진로지원 도식

관련부처	성평등가족부	추진일정	중장기(3~5년)
기대효과	학교 밖 청소년 생애 관점의 진로 설계 지원을 통한 지원 효과성 제고		

표 VII-10. 정책과제 추진방안 및 주요 내용

정책과제 추진방안 및 주요 내용	관련부처	추진일정
I.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 다체계 진로지원		
I-1.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연계 지원		
I-1-① 진로지원 목적 및 중요성에 대한 관점 전환 ↓ 청소년기에 필요한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으로 진로지원 방향성 전환	성평등가족부	중장기(3-5년)
I-1-② 진로지원을 위한 연계·협력 ↓ 관련 부처/기관이 연계·협력하는 지원망의 구축과 운영 방안 제안	성평등가족부 교육부/교육청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중장기(3-5년)
I-1-③ 진로지원을 위한 부문별 역할 강화 ↓ 실효적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부처와 기관의 역할 제시		중단기(1-3년)
I-2. 복합적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I-2-① 복합적 진로위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접근 ↓ 진로와 개인적, 상황적 어려움을 함께 겪는 청소년에 대한 접근 방안	성평등가족부(센터)	중단기(1-3년)
I-2-② 청소년안전망과의 연계 및 협력 ↓ 복합적 진로위기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안전망과의 협력	법부처	중장기(3-5년)
II. 정책적·제도적 환경 개선 방안		
II-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진로 전문성 강화		
II-1-① 진로사례관리 및 연계 허브 역할 강화 ↓ 생애진로발달 측면의 진로사례관리 및 외부 기관과의 연계 시 허브 역할	성평등가족부	중기(2-3년)
II-1-② 진로지원 편차 축소를 위한 표준 서비스 보장 ↓ 진로지원서비스(연계 포함) 매뉴얼 및 제도화 통한 다양성과 전문성 담보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단기·중장기 (1-5년)
II-1-③ 진로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활용 ↓ 전문인력을 활용·양성, 전문가 배치 등을 통한 전문화된 진로지원 제공	성평등가족부	중기(2-3년)



○———— **참고문헌**

참고문헌

[논문과 저서]

- 강명숙, 강창원, 윤철경, 하태욱, 황지원, 신희진, 최창수, 정희진 (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제고 방안연구**.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강민지, 김지민, 이지예, 양은주 (2022).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불안 변화유형과 생태학적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33(2), 137-162.
- 강준혁, 주완태 (2018). 노인 도박중독자의 회복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카지노 단도박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2), 316-349.
- 고용노동부 (2025).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2025.1.10.)**. 세종: 고용노동부.
- 교육부 (2022a). **2022 개정 교육과정-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2b). **2022 개정 교육과정-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3).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2023.4.)**.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4a). **2024년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안)(2024.1.)**.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4b). **2024년 하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 공고(교육부 공고 2제 2024-437호)**. 세종: 교육부.
- 관계부처합동 (2023).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 권보영, 김용운, 이후석 (2021).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하는 진로장애와 사회적낙인감에 대한 사회적자본의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8(4), 147-165.
- 김나영, 김광병 (2023). 학교 밖 청소년의 자발적 학업중단 이후 지역사회 내 적응과정. **한국케어매니지먼트**, 46, 5-38.
- 김미경 (2022). 학업중단 청소년이 인식하는 진로 장애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생명연구**, 64, 187-206.
- 김미혜, 안영미, 최려나, 정익중 (2024). 사회적 낙인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및 또래애착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1(5),

279-305.

- 김민경, 문찬주, 방혜진, 이진솔 (2023). **진로교육의 성과 분석** (기본연구 2023-12). 세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10).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봉환, 강은희, 강혜영, 공윤정, 김영빈, 김희수, 선혜연, 손은령, 송재홍, 유현실, 이제경, 임은미, 황매향 (2013). **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성천, 김경희, 김연수, 김은정, 김현수, 김혜성, 민소영, 박영숙, 심정원, 유서구, 정병오, 조현순 (2022). **사례관리 전문가**. 서울: 학지사.
- 김성현 (2023).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21(1), 65-75.
- 김승보, 윤희한, 김성훈, 김진규, 박동찬, 신지연, 임해경 (2018). **2018년 진로체험지원센터 길라잡이** (연구자료 2018-6).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정숙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여부 및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래청소년학회지**, 14(3), 27-49.
- 김지혜, 노충래 (2024).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 진로장애, 우울의 중단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 **학교사회복지**, 67, 1-32.
- 김형희, 김용섭 (2023). 부모 애착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장벽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8(12), 211-219.
- 김희진, 서고운, 김은정 (202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I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21-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서고운, 조혜영 (202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22-일반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조혜영, 한지형 (2023a).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23-기본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2023b).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성평등가족부.
- 노지혜, 문성호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특성 및 진로성숙 예측요인. **청소년문화포럼**, 58, 62-86.
- 노혜련, 김윤주 (2023). **강점관점 해결중심 사례관리**. 서울: 학지사.
- 문찬주, 김민경, 최광성, 황승록, 방혜진, 김민석 (202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3)**

- (수탁사업 2023-05-01). 세종: 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박동진, 이지연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진로장애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2), 1-26.
- 박민정 (2022).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지지 및 방임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과 핵심자기평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3), 471-485.
- 박선하, 강영배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탄력성,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문화포럼**, 70, 36-67.
- 박재숙 (2011). 농어촌 청소년의 진로 위기가 우울 및 회피적 대처를 통해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청소년학연구**, 18(8), 21-43.
- 박지현, 황미영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4(3), 1-24.
- 박하나, 김명희 (2024).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학습의 권리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5(3), 5-29.
- 서경혜 (2023). **질적연구방법론**. 학지사.
- 심현아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우울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 529-550.
- 안태용, 임혜경, 강선모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진로 재구성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초등상담연구**, 18, 615-637.
- 안후남, 이제경 (2017). 중년전환기 기혼직장여성의 진로구성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8), 363-389.
-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백서**. 서울: 성평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4a).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2024.2.)**. 서울: 성평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4b).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1권)(2024.1.)**. 서울: 성평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4c). **2024년 정부혁신 실행계획(2024.4.)**. 서울: 성평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5a). **2024 청소년백서**. 서울: 성평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5b).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1권)(2025.1.)**. 서울: 성평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5c).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2권)(2025.1.)**. 서울: 성평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5d). **202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라운영지침(2025.1.)**. 서울: 성평등가족부.

- 여성가족부, 교육부 (2023). **20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안내서**. 서울: 성평등가족부.
- 여성가족부, 교육부 (2024). **20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안내서**. 서울: 성평등가족부.
- 연규진, 양지웅, 정주리 (2019).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근거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구. **교육연구**, 41(2), 1-22.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 유진이, 선다솜 (2018).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선택 요인 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3(1), 69-110.
- 윤기무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의 지지 및 또래의 지지가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적응유연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청구논문.
- 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 (2019).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동혁, 김재은, 박종욱, 이수연 (2023).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30(9), 21-48.
- 이래혁, 장혜림 (2023).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또래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5(1), 1-26.
- 이민정, 유성상 (2024). 학교를 벗어난 개인은 어떻게 범주화되어 왔는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4(3), 85-124.
- 이선영, 이선화 (2024).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조력 받은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청소년학연구**, 31(9), 111-139.
- 이자형 (2015).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변화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적 분석: 진로계획성과 진로관심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10), 289-316.
- 이재희, 이경상 (2018). 부모지지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6(1), 143-153.
- 이화명, 김영미 (2022).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10), 804-815.
- 이혜은, 배영광 (2022). 학교 밖 청소년의 주체적인 진로구성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청소년상담연구**, 30(1), 71-101.

- 장여옥, 이응택 (2024).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고등학교 학력 취득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애와 진로정보탐색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21(2), 1-23.
- 전혜숙 (2022). 학업중단 의도를 가진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 영향요인. **청소년문화포럼**, 72, 140-170.
- 정문경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방임과 진로장애의 관계에서 사회적 낙인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12(5), 579-592.
- 정소영, 김미경 (2022).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3(3), 471-483.
- 정송화, 이경은 (2021). 부모의 지지 및 방임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3(1), 151-168.
- 정지은, 이지연, 김나라, 이진솔, 장현진, 홍선이 (2024).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와 학교 교육과정 연계협력 방안 (기본연구 2024-12). 세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정지은, 이진솔 (2024). 지역 진로교육 참여 유형 비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체계를 중심으로. **KRIVET ISSUE BRIEF**, 294, 1-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조선경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기력력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정미 (2022).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벽, 사회적 낙인, 자아존중감의 시간적 발달 관계 및 중단 매개효과.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혜영, 김영란 (2018).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참여 경험 연구. **미래교육연구**, 8(3), 63-92.
- 조혜영, 김희진 (2024).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취약성과 학교 중단 의미 변화에 대한 종단적 탐색: 20대 중후반 청년들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7(3), 1-36.
- 최유석, 허무녕 (2023).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특성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진로장애 차이 분석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영향력. **청소년복지연구**, 25(1), 27-49.
- 하영자 (2022).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지지와 진로준비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과 진로결정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30(2), 217-237.
- 하정화, 박금식, 허두진 (2012).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사회 적응방안 연구.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하형자, 박희현 (2023).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군집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청소년상담연구**, 31(2), 71-9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4).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홍지선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과 대학진학 경험에 대한 사례분석. **청소년학 연구**, 27(8), 89-118.

Akosah-Twumasi, P., Emeto, T I., Lindsay, D., Tsey, K., & Malau-Aduli, B. S. (2018). A systemic review of factors that influence youths career choices-the role of culture. *Systematic review*, 3, 1-15.

Archer, S. L. (1993). Identity Status in Early and Middle Adolescents: Scoring Criteria. In J. E. Marcia., & A. S. Waterman., & D. R. Matteson., & S. L. Archer., & J. L. Orlofsky(Ed.). *Ego Identity : A Handbook for Psychosocial Research*(pp.177-204). NY: Springer.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NJ: Englewood Cliffs.

Bronfenbrenner, U. (1994). Ecolog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Vol. 3, 2nd Ed. Oxford: Elsevier. Reprinted in: Gauvain, M. & Cole, M. (Eds.), *Readings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 2nd Ed. (1993, pp.37-43). NY: Freeman.

Cook, E. P., Heppner, M. J., & O'Brien, K. M. (2005). Multicultural and gender influences in women's career development: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3(3), 165-179.

Creswell, J. W. & Creswell, J. D. (2022). **연구방법 5th edition: 질적·양적 및 혼합적 연구의 설계**[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정종진, 김영숙, 류성림, 박판우, 성용구, 성장환, 유승희, 임남숙, 임청환, 장윤선, 허재복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저 2018년 출판).

Doren B., Lombardi A., Clark J., Lindstrom L. (2013). Addressing career barriers for high risk adolescent girls: The PATHS curriculum intervention. *Journal of Adolescence*, 36(6), 1083-1092.

- Greene, J. C. (2011). *사회과학 혼합연구방법의 이론과 실제*[Mixed methods in social inquiry](이진희, 이병호, 윤은주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저 2007년 출판)
- Holland, J. L. (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3rd Ed). Odess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 Lent, R. W., Brown, S. D., Schmidt, J., Brenner, B., Lyons, H., & Treistman, D. (2003). Relation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hoice behavior in engineering majors: Test of alternative social cognitive mode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4), 458-465.
- Lent, R. W., & Brown, S. D. (2013).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daptive caree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4), 557-568.
- Marcia, J. E. (1993). The ego identity status approach to ego identity. In J. E. Marcia., A. S. Waterman., D. R. Matteson., S. L. Archer., & J. L. Orlofsky (Eds.). *Ego Identity : A Handbook for Psychosocial Research*(pp.3-21). NY: Springer-Verlag.
- Marcia, J. E., & Archer, S. L. (1993). Identity status in late adolescents : scoring criteria. In J. E. Marcia., A. S. Waterman., D. R. Matteson., S. L. Archer., & J. L. Orlofsky(Eds.). *Ego Identity : A Handbook for Psychosocial Research* (pp.205-240). NY: Springer-Verlag.
- Marciniak, J., Johnston, C. S., Steiner., R. S., & Hirschi, A. (2022). Career Preparedness Among Adolescents: A Review of Key Component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9(1), 18-40.

- McDonald, D. L. (2002). Career Counseling Strategies to Facilitate the Welfare-to-Work Transition: The Case of Jeanetta.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0(4), 326-330.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Merriam, S. B., & Tisdell, E. (2015).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Saka, N., Gati, I., & Kelly, K. R. (2008). Emotional and per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4), 403-424.
-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S. Brown & R.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Vol. 1, pp.42-70). NJ: Wiley & Sons.
- Savickas, M. L. (2011). Career construction theory and counseling model.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165-199).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Savickas, M. L. (2020). Career construction theory and counseling model.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165-199). NJ: John Wiley & Sons.
- Sharf, R. S. (2013).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6th Edition). MA: Cengage Learning.
- Skorikov, V. (2007). Continuity in adolescent career preparation and its effects on adjus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1), 8-24.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Stake, R. E. (2006). *Multiple case study analysis*. New York: Guilford Press.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an introduction to vocational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Bros.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282-298.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pp.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 Super, D. E. (1992). Toward a comprehensive theory of career development. In D. H. Montross & C. J. Shinkman (Eds.), *Career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pp. 35-64). Charles C Thomas, Publisher.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Yin, R. K. (2018).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 Design and methods* (6th ed.). Thousand Oaks, CA: Sage.

[인터넷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정과제. <https://www.moel.go.kr/policy/agenda/agendaList.do>에서 2025.9.19. 인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소개. <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List.do>에서 2025.9.19. 인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안내 청년일경험지원. 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View.do?policy_itrd_sn=6에서 2025.9.19. 인출
- 고용24 홈페이지. 고용정책소개. <https://www.work24.go.kr>에서 2025.9.29. 인출
- 고용24 홈페이지. 고용정책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6&systCnntId=CI00001028&systCnntId=SC00000371>에서 2025.9.29. 인출
- 고용24 홈페이지. 고용정책소개 청년도전지원사업.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systCnntId=CI00001051&systCnntId=SC00000189>에서 2025.9.29. 인출
- 고용24 홈페이지. 고용정책소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56&systCnntId=CI00001760&systCnntId=SC00000047>에서 2025.9.29. 인출

공공데이터포털. 2024년 시도별 진로전담교사 배치현황. <https://www.data.go.kr/>에서 2025.1.21. 인출.

꿈길 홈페이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 소개. <https://www.ggoomgil.go.kr/front/cert/expPlaceCertificationInfo.do>에서 2025.2.3. 인출

꿈길 홈페이지. 교육부 진로탐색지원 사업. <https://www.ggoomgil.go.kr/front/info/info07.do>에서 2025.2.3. 인출

네이버 국어대사전 홈페이지 (n.d).d. 자아존중감. <https://ko.dict.naver.com/rescr/#/entry/koko/a06633ba8b7e40e1a4a8e777c1e48efd>에서 2025.4.14. 인출.

복지로 누리집. '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 복지서비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2025.9.29. 인출.

여성가족부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지원서비스 입력코드(영역)'. <https://gov.youthsafety.go.kr/login.do>에서 2025.5.19 인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302.asp>에서 2025.2.3. 인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 자립·취업지원서비스.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305.asp>에서 2025.2.3. 인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 청소년) 홈페이지. 청소년활동찾기. <https://www.youth.go.kr/>에서 2025.2.3.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각 연도별 학교급별 학생수(2016~2024, 2024년 4월 1일 기준, 유치원 및 각종학교 등의 학생 제외).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5.2.4.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 학업중단율. <https://kess.kedi.re.kr/mobile>에서 2025.2.12.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률 및 중단 사유.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6818&survSeq=2023&itemCode=01&menuId=m_010109&uppCd1=010109&uppCd2=010109&flag=B에서 2025.2.12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2016~2023, 2024년 2월 말 기준).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5.2.4. 인출.

한국산업인력공단 (2023.12.27.).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안내. <https://>

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Q&gld=&ARTL_SEQ=5212578&BOARD_ID=Q001¬iType=10에서 2025.2.18. 인출.

한국잡월드 홈페이지. 제공 리플릿. https://www.koreajobworld.or.kr/file/koreajobworld_leaflet_2024-12.pdf에서 2025.9.29. 인출

한국잡월드 홈페이지. 청소년체험관 체험실 소개. <https://www.koreajobworld.or.kr>에서 2025.9.29. 인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홈페이지. 한국교육고용패널II 설문지. <https://www.krivet.re.kr/kor/index.do>에서 2025.5.19. 인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홈페이지. 설립주체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http://youthnet.or.kr>에서 2025.2.12. 인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https://www.kywa.or.kr>에서 2025.2.3. 인출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인구, 가구 및 주택 - 읍면동, 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N1502&conn_path=I2에서 2025.5.19. 인출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연령 및 성별 인구 - 읍면동.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N1503&conn_path=I2에서 2025.5.19. 인출.

[뉴스 및 보도자료]

강원도민일보 (2024.6.23.).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꿈꾸잡’ 진행.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50974>에서 2025.5.21. 인출.

교육부 보도자료 (2024.12.4.). 2024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183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5.2.19. 인출

노동부 보도자료 (2004.10.29.). 노동부, 잡 월드(Job World,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65076527>에서 2025.5.1. 인출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23.2.16.) 부산시, 학교 밖 청소년 및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지원 협약체결. <https://www.busan.go.kr/bsi/news/1555988>에서 2025.9.29.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3.28.). 청소년안전망 사업 안내.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5.10.20. 인출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2022.12.23.). ‘학교 밖 청소년, 정부가 힘 모아 맞춤형 지원 강화한다’.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에서 2025.5.20.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3.6.). 고립은둔 청소년 찾아 회복 돕는 윈스톱 지원 실시.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bbtSn=711806&mid=mda700에서 2025.5.1.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3.28.) 청소년안전망 사업 안내.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5.9.29. 인출

연합뉴스 (2024.8.30.) "정시 올인"...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 본 10대 최다. <https://www.yna.co.kr/view/MYH20240830022900641>에서 2025.2.4. 인출

전라북도교육청 보도자료 (2023.6.22.).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뜻 모으기로. https://news.jbe.go.kr/board/view.jbe?menuCd=DOM_000001201001000000&boardId=BBS_0000222&dataSid=449535 에서 2025.9.29. 인출

한국일보 (2024.6.30.). 내신 불리해서 자퇴? 검정고시로 대학 입학 12년 새 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3009510005070?did=NA>에서 2025.2.4. 인출

한국잡월드 보도자료 (2023.6.28.). 한국잡월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료 진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https://www.koreajobworld.or.kr/boardView.do?bid=5&mid=45&idx=46261&rnum=1&pageNo=1&pageType=&site=10&portalMenuNo=40&searchField=0&searchString=%ED%95%9C%EA%B5%AD%EC%9E%A1%EC%9B%94%EB%93%9C%2C+%ED%95%99%EA%B5%90+%EB%B0%96+%EC%B2%AD%EC%86%8C%EB%85%84+%EB%8C%80%EC%83%81+%EB%AC%B4%EB%A3%8C+%EC%A7%84%EB%A1%9C+%ED%94%84%EB%A1%9C%EA%B7%B8%EB%9E%A8+%EC%B0%B8%EA%B0%80%EC%9E%90+%EB%AA%A8%EC%A7%91>에서 2025.5.19. 인출

호남뉴스라인 (2022.7.14.).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http://www.honamnewsline.com/article.php?aid=10601746382>에서 2025.4.
21. 인출

[누리집]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꿈길 홈페이지. <https://www.ggoomgil.go.kr/>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 <https://www.kdream.or.kr>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 청소년) 홈페이지. <https://www.youth.go.kr/>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홈페이지. <http://youthnet.or.k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ywa.or.kr>

[법률 정보]

고등교육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5.1.14. 인출.

교육기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5.1.14. 인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5.1.23. 인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5.1.14. 인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5.1.14. 인출.

진로교육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5.1.23. 인출.

청소년 기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5.1.23. 인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에서 2025.1.14. 인출.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에서 2025.1.14. 인출.

초·중등교육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에서 2025.1.14. 인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에서 2025.1.23., 2025.9.11. 인출.

○ — 부록

부 록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현황 (웹)설문조사지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 밖 청소년 진로를 위한 다체계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팀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진로지원 정책과 더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을 활성화하고, 진로분야 전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체계적 지원방안(진로 분야 전문 자원을 보유한 타 기관과의 연계 또는 이용, 전문 인력의 활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센터 종사자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은 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조사 진행 참여 방법) 한국여론리서치 ○○○

(조사 문항 내용 문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기관 일반 정보]

1. 귀하가 재직 중인 센터명을 응답해주시시오.

* 조사참여 여부 확인용으로 조사자료 및 결과에서는 익명화됩니다.

2. 기관 규모

※ 상근직원: 겸직자, 은둔·고립지원 인력 등 꿈드림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인력 모두 포함합니다.

2-1. 귀하가 재직중인 센터의 상근직원은 몇 명입니까?	2-2. 귀하가 재직중인 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이용자) 연인원 은 몇 명입니까?
()명	()명

문3. 귀하의 성별을 선택해 주십시오.

- 1) 남자
- 2) 여자

문4. 귀하의 연령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 20대
- 2) 30대
- 3) 40대
- 4) 50대 이상

5. 귀하가 현재의 센터에서 근무한 총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년 개월)

※ 현재의 센터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6개월 미만인 경우 응답 참여가 제한됩니다.

6. 센터에서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 1) 시설장(센터장)
- 2) 팀장급 이상 선임 실무자(3년 이상 종사자)
- 3) 실무자

7. 귀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이용(발굴) 경로**를 **중요한 순서대로 3개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학교·교육청을 통해(Wee클래스 등)
-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포함)
- ③ 대안학교
- ④ 청소년쉼터

- ⑤ 경찰, 법원, 법무부 산하기관(보호관찰소, 회복지원시설 등)에서
- ⑥ 검정고시 접수장·시험장
- ⑦ 개인(본인, 친구 및 선후배, 가족 추천)
- ⑧ 꿈드림센터 직접 발굴
- ⑨ 기타 (_____)

8. 귀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주요 영역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개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상담심리 지원 : 상담, 심리검사치료, 부모교육, 상담 관련 비용지원
 - ② 건강 지원 : 관리 및 교육, 검진, 진단 및 치료, 건강 관련 비용지원
 - ③ 주거 지원: 주거환경 개성, 주거 마련(이사 포함), 비용지원
 - ④ 보호 지원: 긴급개입, 일시·단기·중장기 보호
 - ⑤ 생활 지원: 의복 및 세탁, 식사 및 위생, 일상활동 및 관련 비용지원
 - ⑥ 교육 지원: 기초학습, 검정고시, 대학진학, 복교, 기초소양, 관련 비용지원
 - ⑦ 자립 지원: 동기강화, 직업교육, 취업·창업 지원, 자립 관련 비용지원
 - ⑧ 활동 지원: 문화예술, 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활동 관련 비용지원
 - ⑨ 기타 : (_____)
- ※ (기타) 예: 법률지원, 안전지원 등

[청소년 개인 및 센터 환경 관련 질문]

9. 학교 밖 청소년 개인 및 가족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센터 내 일반적인(대부분 경우, 고위험군 제외) 청소년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센터의 일반적인 청소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후 단계에 대한 진로계획(복교·진학, 취업, 창업 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2)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장기적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한 정보(학력·자격증 등)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4) 원하는 진로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5) 가족 및 보호자와 진로에 대한 소통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6) 가족 및 보호자로부터 진로 관련 경제·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10. 귀 기관의 위치 및 여건(시설, 공간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치 및 여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이 찾아오기 편리한 곳에 있다	①	②	③	④
2) 활동 공간(교육실, 활동실 등)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3) 시설 및 기자재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4) 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5) 센터 내 진로지원 전문 인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6) 센터와 연계된(혹은 가능한) 전문 진로지원 인력/기관이 있다.	①	②	③	④
7)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진로/직업 지원사업 이행]

11. 다음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진로지원 주요 영역과 직접지원 및 연계지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원 영역]

1.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
(* 진로심리검사, 진로 및 직업정보 제공, 설계지원)
2. 진로(자립)동기 강화
(*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 캠프·특강)
3. 기초기술 훈련
(* 자격증취득 지원, 기술훈련 제공, 생활관리)
4. 직장체험(인턴십)
(* 직장체험 및 인턴십 연계 지원)
5. 직업 훈련·교육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소년비즈쿨 등 직업훈련)
6. 취업 연계
(* 취업 지원)
7. 창업 체험·교육
8. 기타 ()

- 11-1. 다음의 진로지원 영역 중,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1-2-1. 다음의 진로지원 주요 영역 중, 센터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24.1.1 ~ 현재).
- 11-2-2. 다음의 진로지원 주요 영역 중, 타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24.1.1 ~ 현재).
- 11-2-3. **연계 지원**을 받았을 시, **연계한 기관명**을 작성하여 주십시오.(오픈)

12. 다음은, 각 진로/직업 지원사업의 인지 및 실시 여부와 실시 규모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로/직업 지원사업		12-1.인지여부	12-2.실시/이용/연계 여부	12-3.구체적(사업)내용
여성 가족부	1)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①있음 ②없음	①있음 ②없음	예) 바리스타 교육
	2)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①있음 ②없음	①있음 ②없음	
	3) 청소년수련시설 진로체험프로그램	①있음 ②없음	①있음 ②없음	
교육부	4) 진로체험(교육)지원센터	①있음 ②없음	①있음 ②없음	
	5) 교육부 인증 진로체험기관*	①있음 ②없음	①있음 ②없음	
	6) 커리어넷	①있음 ②없음	①있음 ②없음	
고용 노동부	7) 청년도전지원사업	①있음 ②없음	①있음 ②없음	
	8) 국민취업지원제도	①있음 ②없음	①있음 ②없음	
	9)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①있음 ②없음	①있음 ②없음	
	10) 청년일경험지원	①있음 ②없음	①있음 ②없음	
11)~13) 기타1**:		-	-	

* 공공 및 민간분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으로 전국 411개(2024.12.기준)

** 실시(이용연계 포함)한 적이 있는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지원 진로·직업 지원사업명을 적어주십시오.(최대 3개)

[진로지원에 관한 의견]

13. 여러 진로 유형 및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진로지원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진로결정	진로결정/진로미준비	진로결정/진로준비
	진로미결정/진로미준비	진로미결정/진로준비
진로미결정	진로미준비	진로준비

청소년 진로 유형/상황	자기이해 * 상담/검사, 동기 강화	진로·직업이해 *견학, 체험(인턴십)	진로준비이행 *진학/취창업준비 (기초/전문) 기술훈련	진로관련 기타 (작성)
1) 진로미결정·진로미준비	①	②	③	④()
2) 진로미결정·진로준비*	①	②	③	④()
3) 진로결정·진로미준비**	①	②	③	④()
4) 진로결정·진로준비	①	②	③	④()

* '2) 진로미결정·진로준비'유형은 미결정 상태에서 결정을 위한 진로체험/탐색 중이거나, 뚜렷한 목표없이 우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 주변에서 많이 하는 자격증 취득 과정을 수강해보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 됨.

** '3) 진로결정·진로미준비'유형은 진로결정은 했지만 구체적 준비 방법을 모르거나 또는 다른 사유 등으로 진로준비는 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해당 됨.

14. 진로/직업 지원을 위하여 타 기관과 연계한 사례가 있다면 적어주십시오(주요 사례).

※ 희망자 작성(선택 문항)

15. 진로/직업 지원사업 실시(이용·연계 포함)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예) 청소년이 동기가 없음, 정보를 알기 어려움, 신청 자격이 까다롭거나 대상 인원이 적음...

16. 국가 진로/직업 지원 정책에 대하여 바라는 점 또는 개선할 점은 무엇입니까?

※ 또는 현재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진로지원은 무엇입니까?

예)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양적 확대, 개인별 맞춤형·원스톱 사업 필요...

- 감사합니다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강화 및 유관 기관 간 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들의 성인기 이행과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진로발달 특성을 검토한 결과,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정서적 문제, 대안적 학습 추구, 가족 요인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이탈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커지고 있었다. 진로발달 이론에 따르면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진로를 형성하며,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준비 부족은 성인기로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는 학교 기반 지원의 한계, 가족 자원의 제약, 낮은 진로준비도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개입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2023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 분석 결과,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69.5%가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90.9%는 취업·근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미결정, 미준비 청소년은 학업성취 수준이 낮고, 가족지지와 심리적 안녕감도 열악한 경향을 보였다. 정부 진로지원 프로그램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낮아, 정보 제공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아웃리치가 요구된다. 반면, 진로결정 및 준비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 안정성을 보여, 적절한 진로 개입이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정책 분석 결과,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취업 및 직업훈련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진로발달의 발달적·과정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진로지원 프로그램이 여전히 학교 중심으로

설계·운영되는 경향이 강해,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 진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조사에서는 학교를 그만둔 사유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고, 정보 부족과 생활 불안정으로 인한 미래 불안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학업보충, 심리·진로 상담, 인턴십 및 현장체험, 학업·생계 관련 재정지원 등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자 설문조사에서는 진로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실제 활용과 참여는 낮은 편이며, 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사례관리 체계 구축, 전문인력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위기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합적인 취약성을 지닌 집단에 대해서는 국가의 집중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동시에 진로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 서비스의 전문직업화, 중앙·지방·민간의 다층적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학교 안 중심의 좁은 관점을 넘어, 통합적이고 개인화된, 발달 이론에 기반한 진로지원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의 정비, 부처 및 기관 간 연계·협력 확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속적 지원의 제도화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포용과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strategies to enhance and institutionalize career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 in Korea, aiming to improve their transition to adulthood and adaptability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It first reviews the status and career development of these youth, noting that despite a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the proportion of out-of-school youth has been rising due to varied reasons such as emotional issues, alternative learning, and family influence. Career development theories suggest that both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shape outcomes, and lack of preparation for the labor market hinders adulthood transitions. Prior research highlights limited school-based support, scarce family resources, and low career readiness, pointing to the need for national interventions.

Analysis of the *2023 Out-of-School Youth Survey* found that 69.5% had career plans and 90.9% were working. Those without plans showed lower academic achievement, weaker family support, and poorer psychological well-being. Participation in government career programs was low, emphasizing the need for better outreach. Youth with plans and work experience showed greater stability, confirming the impact of career interventions.

Policy review revealed that while Korea's *Out-of-School Youth Support Act* stresses employment and training, it neglects developmental aspects of career growth. Programs often remain school-centered, underscoring the need for broader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to ensure access to multi-sectoral career services.

In-depth interviews with out-of-school youth showed diverse dropout reasons and widespread anxiety about the future due to lack of information and stability. Personalized support—academic tutoring, counseling, internships, and financial aid—proved especially effective. Practitioner surveys found career services underutilized despite their importance, and called for stronger partnerships, case management,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Experts noted that not all out-of-school youth face crisis; however, those with multiple vulnerabilities require targeted state intervention. They emphasized consistent national accountability, professionalization of services, and integrated multi-level cooperation.

In conclusion, the study calls for a paradigm shift toward integrated, personalized, and developmentally grounded career support beyond school settings. Strengthening laws, expanding interagency collaboration, and institutionalizing continuous support are essential to ensure social inclusion and successful transitions to adulthood.

202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5-기본0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성은·김희진·조혜영·김현수
연구보고25-기본02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은 왜 금융이해력이 낮은가? :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송원일
연구보고25-기본0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 강경균·오해섭·최홍일·성은모
연구보고25-기본04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 김형주·장근영
연구보고25-기본05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 성윤숙·문호영·손병덕
연구보고25-기본06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여정·정은주
연구보고25-기본07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연보라·전현정·김니영
연구보고25-기본08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5-일반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성렬·유설희
연구보고25-일반01-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
연구보고25-일반02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김윤희·이용해
연구보고25-일반02-01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김윤희·권경만·오병돈·유현주
연구보고25-일반03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 양계민·서정아·권오영·변수정·장윤선
연구보고25-일반06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최인재·한지형
연구보고25-일반06-01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최인재·노언경·정승
연구보고25-일반07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신동훈·이지연·이정민·장한소리
연구보고25-일반07-01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연구보고25-일반07-02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4)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Ⅱ /
최용환·임지연·좌동훈·박윤수·이동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5)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 배상률·김영지·모상현·
김남희·조제성·김다은·홍서아

수시과제

연구보고25-수시0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 좌동훈·남화성

연구보고25-수시02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강화방안연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양계민·권오영·안지현

연구보고25-수시03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
권오영·남화성

연구보고25-수시04

청소년의 방과후활동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 장근영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연구보고25-연적금0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김경준

연구보고25-연적금02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 김기현·유민상·신동훈·한지형

연구보고25-연적금03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 / 최용환·임지연·좌동훈

연구보고25-연적금04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배상률·김영지·모상현

수탁과제

< 일반 >

연구보고25-수탁01

2024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5-수탁02

202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3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초등학생용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4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4-01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01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6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7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8	2025년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9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사업 성과관리 진단 / 임지연·김희진·문지혜
연구보고25-수탁10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1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김경준·이용해·허효주·안지현·진인범·박지영
연구보고25-수탁12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
연구보고25-수탁13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유준오·송현주·허효주
연구보고25-수탁14	역량기반 인증수련활동 효과 유의성 평가도구 개선 연구 / 송원일·김정숙·최수정
연구보고25-수탁15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연구 / 하형석·김기현·유민상·신동훈·성재민·박미선·박병영·변금선·배정희·권향원·김문정·진인범
연구보고25-수탁16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7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1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2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3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4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8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황여정·김성은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5-학폭01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 주요 현안 및 정책 분석 / 안병훈·모상현·김용남·박선영·김영인
연구보고25-학폭02	2024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백승훈·박재욱
연구보고25-학폭03	2024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모상현·백승훈·김영인
연구보고25-학폭04-01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3~4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2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5~6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3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4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5	2024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연구보고25-학폭06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효과성 분석 / 모상현·이경상·김현수·전원지·문은솔
연구보고25-학폭07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모상현·김경년·김경애·김봉섭·김소아·김승혜·박주형·차성현
연구보고25-학폭08	학교폭력예방 학생 언어습관 자기 진단도구 개발 연구 / 박창균·조재윤·이정우·최태경
연구보고25-학폭09	2025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백승훈·김영인·최지윤
연구보고25-학폭10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박재욱·문은솔

<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

연구보고25-대안01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 보통교부금 개선 가능성 검토 / 남수경
연구보고25-대안02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한 재정지원방안 연구 / 함승수·이시호·박현정·김희정
연구보고25-대안03	2025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최인재·전현정·이지숙·신원규

<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

연구보고25-위센터01	위(Wee) 뉴스레터 / 김영지·김소연·주예찬
연구보고25-위센터02	제14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 김영지·김승경·정춘현·김영인·주예찬
연구보고25-위센터03	문제행동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중·고등) / 김영지·김승경·김영인
연구보고25-위센터04	2025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 김영지·양하나·정춘현
연구보고25-위센터05	2025년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영지·김승경·서고운·전현정·이정민·최홍일·양하나·이수민·김소연·정춘현·김주영·문세진·김다인·김영인·주예찬·이유진

〈 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

- 연구보고25-학중0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꿈지락 활동집 / 김성은·이진아
연구보고25-학중02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유성렬·전예빈·정유경
연구보고25-학중03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전예빈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5-01 2025년 17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1차 협의회 (25.3.27.)
세미나25-02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발대식(1차 세미나) (25.6.13.)
세미나25-03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중간보고회 (25.8.12.)

〈 위 크 슝 〉

- 워크숍25-01 202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자료집
 (25.7.31.-25.8.7.)
워크숍25-02 가정형 위(Wee)센터 워크숍 (25.8.11.)

〈 포 럼 〉

- 포럼25-01 고립 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과제 (25.3.26.)
포럼25-0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25.4.29.)
포럼25-0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25.4.29.)
포럼25-04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_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25.7.28.)
포럼25-05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25.8.26.)
포럼25-06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청소년시설 추진방향 모색 (25.11.11.)
포럼25-07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제 개발 (25.11.19.)
포럼25-08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시시대의 책임과 권리 (25.11.27.)
포럼25-09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25.12.4.)

〈 콜 로 키 움 〉

- 콜로키움25-01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25.4.17.)
콜로키움25-02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25.5.13.)
콜로키움25-03 청소년 유해약물 정책 관련 해외사례 (25.8.26.)

〈 기 타 자 료 집 〉

자료25-01	2024 대안교육기관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자료25-02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제2판
자료25-03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3판
자료25-04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
자료25-0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1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6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2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7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3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8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가이드북
자료25-09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1차 설명회
자료25-10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2차 설명회
자료25-11	제14회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5-12	2025년 제12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자료25-13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3차 설명회
자료25-14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가이드라인
자료25-1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자료25-16	청소년 부모·한부모 지원 매뉴얼 (2판)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1호(통권 11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2호(통권 11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3호(통권 11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4호(통권 119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54호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155호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정책방향
- 156호 OECD 국가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 157호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 158호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NYPI Bluenote 통계 〉

- 86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 사이버도박
- 87호 청소년 근로 실태 및 권리 보장 현황
- 88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24년) 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 89호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 90호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연구보고25-기본0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 쇄 2025년 12월 24일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044)866-3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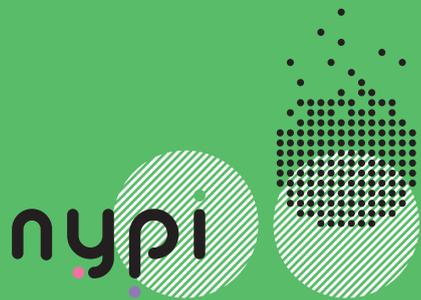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지식정보관)

ISBN 979-11-5654-445-6

연구보고25-기본0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45-6